[연구보고서 2026-10]

2026 경상북도 가족실태조사

연 구 책 임 : 정서린(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Gyeongbuk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2026 경상북도 가족실태조사

발 행 인 : 하 금 숙
발 행 일 : 2026. 10. 30.
발 행 처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주 소 : (36849) 경북 예천군 호명읍 도청대로 53 동행관 3층
전 화 : 054-650-7900
홈페이지 : https://forwoman.or.kr
디자인·인쇄 : 대구전환서비스센터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연구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 사회는 저출생·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만혼화·비혼화,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가족구조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음. 과거에는 초혼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 핵가족이 주를 이루었다면, 오늘날에는 한부모가족·1인가구·재혼가족·비혈연가구 등 가족의 형태가 빠르게 다변화되는 추세임
  - 최근 10년간 경상북도의 세대유형별 가구 구성의 추이를 살펴보면 가장 전통적인 핵심 가족 형태로 인식되던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 비중이 2015년 41.8%에서 2024년 33.0%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평균 가구원수 역시 2015년 2.4명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24년 2.0명임. 그러나 1인가구 비중은 2015년 30.4%에서 2024년 38.9%까지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1인가구의 급증은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 증가뿐만 아니라, 최근 청년과 중장년층 사이에서 가치관 변화로 인해 확산되고 있는 비혼 흐름이 가구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아울러 혈연이나 혼인으로 연결되지 않은 비친족 가구 비중 역시 2015년 1.4%에서 2024년 2.4%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 이러한 가족구조의 변화는 가족 대상 정책과 서비스의 다변화와 정교화, 통합적 차원의 가족 지원을 요구하며, 초혼 핵가족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의 제도적 특만으로는 급변하는 가족들의 복합적인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움.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3년 주기로 가족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전국 단위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 역시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상북도는 2022년 「경상북도 가족생활 진단 및 대응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김수연·정서린, 2022)를 통해 도내 23개 시·군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가구

특성, 가족 인식과 태도, 가족돌봄, 일·생활 균형, 1인가구 등 전반적인 가족생활 실태를 파악한 바 있으며, 이 결과는 지역 가족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왔음. 그러나 2022년 조사 이후 주기적인 후속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가족 환경 변화를 반영한 데이터가 부재한 상황임. 최근 수년간 돌봄 수요의 다원화, 1인가구의 질적 변화 등 새로운 정책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가족 정책 대응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한 최신 데이터 확보를 위한 재조사가 시급함

- 특히 2026년은 정부의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발표되는 해로, 경상북도 역시 이에 부합하는 지역 맞춤형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음. 따라서 2022년 조사 이후 나타난 경북 가족의 변화를 새롭게 진단하고, 지역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자료 마련이 필수적임. 이에 본 연구는 2026년 경상북도 가족의 현황, 생활 실태 및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경상북도 가족정책 수립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 이번 조사에서는 2022년 조사와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가구 특성, 가족관계, 일·생활 균형 등 핵심 조사항목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의 생활실태와 정책수요를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문항을 확대하고, 법적 혼인이나 혈연관계에 국한되지 않는 가족 인식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문항을 새롭게 마련하였음. 이를 통해 가족 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이 함께 변화해가는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 내용

- 첫째, 경상북도 가족의 변화 및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경상북도의 인구수 및 세대수 변화, 출생 및 사망에 따른 자연증감, 인구구성을 살펴보고, 가구 및 세대 구성, 혼인 및 이혼, 1인가구·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 유형 현황 등을 파악함
- 둘째, 경상북도의 가족정책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경북 22개 시·군에 거주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자료를 확보함

- 설문조사는 응답자 일반현황, 가구(주)의 특성,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족형성,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사참여와 여가, 일·생활 균형, 생활 및 경제수준, 1인 가구, 가족정책 등을 조사항목으로 구성함

• 셋째,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상북도 가족정책의 방향을 제시함

□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가족정책 및 가족실태조사 관련 선행연구, 국가데이터처·성평등가족부 등의 조사보고서, 타 시도 가족정책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가족실태조사 문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함

• 행정·통계자료 분석

-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등 행정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경상북도의 인구·가구·세대 현황,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자연증감 추이를 시계열로 분석함
- 도내 22개 시·군 단위로 통계를 세분화하여 지역별 인구·가족구조의 특성과 격차를 파악함

• 설문조사 및 분석

- 경상북도 22개 시·군에 거주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조사를 실시하여 가족실태 관련 기초자료를 확보함
- 수집된 자료는 SPSS 등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고, 필요시 다중응답 분석을 통해 항목별 특성을 파악함

II. 경상북도 가족의 변화와 특성

• 경상북도는 인구 감소 속도가 전국보다 빠르고, 자연감소와 사회적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어 인구 감소 구조가 고착화됨

- 경북의 인구는 2021년 2,603,664명에서 2025년 2,506,586명으로 4년간 97,078명 감소하였음. 연평균 감소율(-0.95%)은 전국(-0.25%)의 약 3.8배이며, 22개 시군 모두 인구가 감소하였는데 인구 감소는 자연감소와 사회적 유출이 함께 작용한 결과임
- 2024년 자연증가율은 -5.9‰로 전국(-2.4‰)의 약 2.5배이며, 2022년 구미시까지 자연감소로 전환되어 도내 전 시군이 자연감소 상태이며, 2022년 이후 매년 7천~9천 명이 도외로 순유출되어 2022~2025년 누적 순유출은 33,092명에 달함. 사망이 출생의 약 2.5배에 이르는 상황에서, 일부 시군의 순유입은 수백 명 수준에 그쳐 자연감소를 상쇄하기 어려움

• 청년·여성 인구 감소가 출생 기반 약화의 핵심 요인으로, 청년 여성의 정착 여건 개선이 저출생 대응의 전제 조건임

- 여성 인구의 연평균 감소율(-1.06%)이 남성(-0.84%)보다 커 성비가 101.6에서 102.5로 상승하였음. 경산시를 제외한 21개 시군에서 여성 인구 감소율이 남성보다 높았음. 여성 생산가능인구는 8년간 15.3% 감소하여 여성 인구 중 비중이 60% 미만으로 떨어졌고, 생산가능인구 성비는 113.7로 높아짐
- 합계출산율은 0.93명으로 전국(0.80명)보다 높으나 조출생률은 전국보다 낮고, 출생아 수는 8년간 42.0% 감소하였음. 이는 여성 1명당 출산 수준보다 가임기 여성 인구 자체의 감소가 출생 감소를 주도하고 있음을 의미함
- 20대 1인가구가 감소하고,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고용 불안정'과 '상대를 만나지 못함'이 전국보다 높게 나타난 점도 청년층 유출과 만남 기회 감소를 반영한다고 하겠음

• 초고령사회가 심화되면서 부양 부담이 급증하고, 고령인구 증가가 도시지역으로 확산됨

- 고령인구 비중은 2017년 18.9%에서 2025년 27.5%로 높아져 전국(21.2%)보다 6.3%p 높음. 노년부양비는 40.5로 생산가능인구 약 2.5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

하는 구조임

- 유소년인구는 8년간 27.5% 감소하여 비중이 9.4%로 떨어졌고, 노령화지수는 285.4로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의 약 2.9배임. 2025년에는 구미시까지 노령화지수가 100을 넘어 모든 시군에서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많아짐
- 고령인구 증가율은 구미시(6.89%), 포항시(6.08%), 경산시(5.30%) 등 도시지역이 오히려 높아,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에 따라 도시지역에서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도시와 군지역 간 인구·가족 구조의 격차가 뚜렷해 지역 유형별 차별화된 정책 설계가 필요함

- 포항·구미·경산·경주 4개 시의 인구 비중은 55.9%이며, 출생아의 54.5%가 포항·구미·경산에 집중되는 등 도시지역으로의 집중이 심화됨. 반면 10개 시군은 자연증가율이 -10명 이하이고, 영양·봉화·울릉은 조출생률이 2명 미만이며 연간 출생아가 100명 미만인 군도 6곳에 이름
- 가족 구조도 지역에 따라 뚜렷하게 구분되는데 도시지역은 2세대·3~4인 가구 비중이 높고, 청년 1인가구와 다문화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군지역은 1인·1세대 가구가 70~80%에 달하고, 여성 고령 1인가구와 부자·조손가구 비중이 높음

• 혼인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이혼은 줄지 않아, 결혼 이전과 이후를 아우르는 가족 형성 지원이 필요함

- 혼인 건수는 2017년 12,190건에서 2025년 9,160건으로 24.9% 감소하였고, 2021년 이후 반등 폭(12.2%)도 전국(24.8%)의 절반 수준에 그침. 또 조혼인율(3.6건)은 전국(4.7건)보다 낮고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군지역 상당수는 2건대 이하에 머물러 있음
- 이혼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감소율이 전국보다 작아 혼인 대비 이혼 비율이 0.45에서 0.51로 높아짐. 평균이혼연령도 남성 51.38세, 여성 47.54세로 높아져 중·장년기 이혼이 늘어난 것으로 보임

- 1인가구가 가장 보편적인 가구 유형이 되었으며, 특히 고령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한 돌봄·안전 체계 구축이 시급함
  - 2025년 1인가구는 39.6%로 가장 많은 가구 유형이며, 1~2인 가구가 72.8%로 전국(66.0%)보다 6.8%p 높음. 반면 4인 이상 가구는 11.3%에 그침
  - 1인가구 증가분의 75.7%가 60세 이상이며, 1인가구 중 60세 이상이 47.9%, 70세 이상이 27.6%, 80세 이상이 12.6%로 돌봄 필요도가 높은 초고령 1인가구 비중이 큼
  - 영덕·문경·청도 등 고령화 지역은 여성 1인가구 비중이 높은 반면 구미·칠곡·울릉 등 산업·근로 중심 지역은 남성 1인가구 비중이 높아 1인가구의 성격이 지역별로 다름
- 한부모·조손·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의 특성과 생애주기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 한부모가구는 감소 추세이나 부자 한부모가구 비중(25.4%)이 전국보다 높고, 군 지역은 부자 한부모가구 비중이 30%를 넘는 곳이 7곳에 이름
  - 조손가구는 8년간 24.0% 감소하였으나, 조부 또는 조모 1인이 양육하는 가구가 60%이며, 의성·청송·청도·고령은 한부모가구 중 조손가구 비중이 10%를 넘음
  -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 비중은 8.6%로 전국보다 높고, 봉화군은 혼인 4건 중 1건 이상이 외국인과의 혼인임
  - 다문화가구는 8년간 39.8% 증가하였으나 평균 가구원 수는 3.38명에서 2.93명으로 줄었음. 일부 군지역은 가구원 수가 감소하여 자녀 성장·독립 등 생애주기 변화가 나타남
- 결혼을 중시하는 전통적 가치관이 유지되는 가운데 돌봄 책임의 성별 편중이 뚜렷해, 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이 필요함
  - 결혼에 대한 긍정 인식(55.8%)과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74.6%)은 전국보다 높음. 반면 동거·외국인과의 결혼 수용도는 낮고, 이혼·재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오히려 늘어나 전통적 가족관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유지되고 있음

- 가사를 아내가 주로 담당하는 비율은 76.3%로 전국보다 3.9%p 높고,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비율은 20.3%에 그침. 더구나 출산·양육기 여성의 취업 중단을 전제로 한 인식(40.1%)과 여성의 가정생활 우선 인식(27.7%)도 전국보다 높음
-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 여성은 출산·양육 부담과 일·가정 양립 곤란(28.4%)을 꼽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고, 결혼을 선택의 문제로 보는 인식도 여성이 더 강함. 이는 돌봄 책임의 여성 편중이 결혼·출산 기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함

• 맞벌이 가구 비중이 높은 반면 가족생활과 여가의 질은 전국보다 낮아, 일·생활 균형 기반 확충이 필요함

- 맞벌이 가구 비중은 53.0%로 전국(48.6%)보다 높으나, 아내 중심의 가사 분담 구조를 고려하면 여성의 일·가사 이중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임
-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는 60.2%로 전국(63.5%)보다 낮아졌고, 대부분의 관계에서 '매우 만족' 응답이 감소하였음
- 여가시간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평일 54.6%, 휴일 66.0%로 모두 전국보다 낮음. 특히 휴일 여가 부족 응답은 전국보다 높음. 또 '여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국보다 높으나 일과 여가의 균형을 이룬다는 응답은 낮아, 여가의 양보다 질과 기반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III. 경상북도 가족실태조사 및 분석

1. 조사 도구 개발

• 성평등가족부 「가족실태조사」의 차수별 조사영역·지표 변화 추이, 그리고 타 시도 가족실태조사와의 문항 비교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2년 경상북도 가족실태조사 문항을 재검토하였음

• 2026년 조사(안)은 2022년 조사의 문항 구조를 계승하되, 통계적 정합성·가족 다

양성 반영·조사 효율성·정책 환류성이라는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재설계하고자 하였음

- 연령·고용형태·거주지역 등의 측정 기준을 통계청 표준 및 최신 행정구역 개편에 맞게 정비하는 등, 성평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등 상위 통계와 비교·연계가 가능하도록 통계적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가족 범위 인식에 반려식물·AI로봇을 포함하고, 가족돌봄청년·이주민가족을 우선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비혼 1인 입양·혼인계약서·모성 성 사용 등에 대한 태도 문항을 신설함으로써 가족형태의 다양화를 반영하고자 하였음. 또한 가족에 대한 정의를 별도 척도로 신설함으로써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여주고자 하였음
- 관계별 대화 빈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 세부성은 높으나 정책 활용도가 낮았던 문항을 삭제하고, 돌봄비용 충당 항목처럼 과도하게 세분화된 항목을 통합함으로써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응답자의 응답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음
- 가족지원서비스 조사를 인지도·필요도 측정에서 이용경험·이용 후 도움 정도까지 확장하고, 서비스 인지경로와 세부 서비스 수요를 별도 문항으로 신설함으로써 조사 결과가 단순 현황 파악을 넘어 개별 서비스의 실제 효과성 평가와 홍보 전략 수립까지 정책에 직접 활용 가능하도록 정책 환류성의 강화하고자 하였음

• 재설계된 조사 도구에 대해 전문가 검토 과정을 거쳤으며, 검토 과정에서 일부 문항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음

- 가족돌봄 및 노인돌봄 관련 문항은 타 부처 소관 사업과 내용이 중복되어 본 조사의 정책적 목적과의 정합성이 낮고, 정책 활용도 또한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정비가 필요함
- 일부 문항은 최근의 사회적·정책적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문항 수 증가로 응답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됨

• 이러한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문항들을 삭제하거나 통합·보완하는 방향으로

조사 도구를 재차 수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사의 정책적 적합성과 응답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하였음

2.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및 방법

-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경상북도 22개 시군에 거주하는 가구의 만 19세 이상 가구원임
  - 여기서 가구란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를 의미하며, 「주민등록법」상 세대 구분과는 별개로 실제 동거 및 생계공동체 여부를 기준으로 판별함. 따라서 1인가구, 부부가구, 한부모가구, 재혼가족, 다문화가족, 비혼동거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모두 포괄하며, 특정 가족 형태를 조사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였음
  - 조사대상을 가구주 또는 배우자로 한정하지 않고 가구 내 만 19세 이상 가구원 중 1인을 선정하여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가구를 구성하는 다양한 세대와 생애주기의 목소리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하였음
  - 표본은 일부 군지역의 표본 수가 극히 적어 4개 권역별로 비례할당으로 설계함
- 조사는 2026년 8월 31일~9월 20일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총 1,013명의 자료를 확보·분석하였음. 설문조사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직접 방문 및 패널 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음

□ 조사 내용

- 본 연구의 주요 조사 내용은 응답자 일반 현황, 가구(주) 특성,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족형성,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일·생활 균형, 생활 및 경제 수준, 가족 정책 그리고 1인가구 관련 문항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음

□ 자료처리 및 분석 방법

- 조사된 자료는 코딩과 에디팅 과정, 최종 확인과 검증을 마친 후 최종 분석 자료를 확정하였고, SPSS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평균값 등을 산출하였음. 평균값은

리커트(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환산하였으며,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른 차이 검증을 위해 교차분석, t-test 및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집단 간 구체적 사후검증을 위해 Duncan test를 실시하였음. 다만, 가족관계 만족도는 혼인상태에 따라 해당 관계의 유무가 달라지므로 혼인상태별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3. 분석 결과

- 조사대상자는 총 1,013명으로, 남성 54.9%(556명), 60대 이상 31.5%(319명), 남부권역 거주자 29.0%(294명)이 많았음. 혼인상태는 기혼이 57.5%로 과반을 차지하였으며, 성인자녀가 있는 경우가 45.6%로 가장 많고, 자녀가 없는 경우는 36.6%임.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 재학·졸업 45.4%(460명), 직업은 관리·사무직 24.1%(244명)로 가장 많았음

1) 가구(주) 특성

- 조사대상 가구는 2세대 가구(46.6%)와 3~4인 가구(42.9%)가 가장 많았으나, 1세대 가구(27.9%)와 1인가구(21.8%)도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였음. 특히 60대 이상은 2인 가구(54.9%)와 1세대 가구(51.4%)가 과반을 차지하여, 자녀의 독립 이후 부부 중심으로 생활하는 고령 가구가 경북 가족의 주요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줌. 또한 미혼(41.7%)과 별거·이혼·사별 등 기타(70.1%)는 1인가구의 비율이 높아, 혼인상태의 변화가 곧 가구 형태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가구의 경제적 기반은 근로(사업)소득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음. 주소득원은 '본인 근로(사업)소득'(47.6%)이 가장 많았고, 근로(사업)소득을 주소득원으로 하는 가구가 82.5%에 달하였으며, '공적연금'(9.8%)이 그 뒤를 이었음.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는 65.7%였으나, 200만원 미만인 가구도 17.9%였으며, 여

성(20.4%), 20대(26.1%), 60대 이상(21.9%), 별거·이혼·사별 등 기타(44.9%)에서 저소득 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이는 혼인 해체를 경험한 가구와 생애주기상 소득 기반이 약한 청년·고령 가구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임을 의미함

- 가구형태(중복응답)로는 맞벌이가족이 35.4%로 가장 많았으며, 주말부부가족(3.3%), 한부모가족(1.4%), 기러기가족(0.8%)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였음. 맞벌이가 가장 보편적인 가구형태라는 점은 일과 가족생활의 병행이 상당수 경북 가족의 일상적 과제임을 보여준다고 하겠음

2)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 경상북도 도민의 가족 인식은 여전히 혼인과 혈연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그 내부에서는 세대에 따른 분화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가족 정의에 관한 문항 중 '법적인 혼인과 혈연으로 연결되어야만 가족이라 할 수 있다'(3.44점)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가족 구성원으로 자녀(70.4%), 배우자(69.9%), 부모(66.3%)를 꼽는 비율이 높아 전체적으로는 전통적 가족 개념이 우세하였음. 그러나 20대는 '가족은 내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이다'(3.63점)와 '정서적 유대감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 가족이라 할 수 있다'(3.33점)에 대한 동의 수준이 60대 이상(2.65점, 2.48점)보다 1점 가까이 높았음. 이는 가족을 주어진 제도로 보는 관점에서 개인이 선택하고 형성하는 관계로 보는 관점으로의 이행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세대 교체와 함께 가족 개념의 외연은 점차 확장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가족정책의 대상 역시 법률상 가족에 한정하기보다 실제로 함께 생활하고 서로를 돌보는 관계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수용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나, 수용의 정도는 사안에 따라 차이를 보였음. '입양한 자녀도 직접 낳은 자녀만큼 잘 키울 수 있다'(3.68점),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동의한다'(3.64점), '한부모도 양부모와 동일하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3.58점) 등 이미 제도권 안에 자리 잡은 가족형태에 대해서는 수용적인 반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한다'(2.91점)

와 같이 결혼과 출산의 연계를 벗어나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가 나타났음. 이는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결혼을 전제로 한 출산'이라는 규범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줌

- 자녀양육에 대해서는 '자녀를 키우는 일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3.93점)가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3.82점)보다 높게 나타나, 양육의 정서적 가치보다 경제적 부담이 더 크게 인식되고 있었음. 특히 자녀를 돌보는 일의 어려움과 기회비용에 대한 인식은 20~30대와 여성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이 실제 출산과 양육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양육 부담에 대한 인식이 출산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 가족 내 성역할에 대해서는 모든 영역에서 '함께'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그 비율은 의사결정(84.5%), 가사노동과 가족돌봄(78.7%), 경제적 부양(61.7%)의 순으로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경제적 부양을 남성의 역할로 보는 응답이 36.4%, 가사노동과 가족돌봄을 여성의 역할로 보는 응답이 19.4%로 나타난 것은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돌봄자'라는 전통적 성별 분업 인식이 약화되고는 있으나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음을 의미함. 부모 부양에 대해서도 '딸도 아들도 똑같이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3.74점)에는 높은 동의를 보인 반면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2.70점)에는 낮은 동의를 보여, 부양 책임은 자녀 간에 평등하게 공유하되 동거를 통한 부양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부양 규범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3) 가족 형성

- 조사대상자의 자녀 출산 의향은 17.7%에 그쳤으며, 20대와 30대는 각 59.7%와 44.9% 였으며, 40대는 15.1%로 부터 급격히 낮아졌음.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순위별 가중치)로는 '나이가 많아서'(33.3%)와 '이미 낳은 자녀로 충분'(30.0%)이 높았는데, 이는 조사대상자 중 50대 이상의 비중이 높은 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음. 이를 제외하면 '경제적 부담'(13.7%)과 '육아에 대한 부담감'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 출산 기피의 핵심에는 양육 비용과 돌봄 부담이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음

- 주목할 점은 사회적 여건이 마련될 경우 자녀를 더 낳을 의향이 '있다'(17.4%)와 '잘 모르겠다'(20.6%)를 합한 응답이 38.0%에 이른다는 것임. 특히 20대는 '잘 모르겠다'(39.6%), 미혼은 '있다'(28.1%)와 '잘 모르겠다'(39.5%)의 비율이 높아, 출산에 대한 결정을 아직 유보하고 있는 청년층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은 정책적 여건에 따라 출산 의향이 달라질 수 있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저출생 대응 정책의 핵심 대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
- 출산 의향을 높이는 구체적 여건으로는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하여도 급여가 충분하다면'(3.32점),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면'(3.25점), '정부의 육아수당이 늘어난다면'(3.24점)이 높게 나타났음. 이는 청년층이 출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일을 지속하면서도 소득 감소 없이 양육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조건임을 보여줌

4) 가족관계

- 가족관계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였으나, 관계 유형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음. '나와 자녀와의 관계(미성년 자녀)'(4.05점)가 가장 높은 반면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3.43점)와 '배우자 부모님과의 관계'(3.59점)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부부관계(남성 3.94점, 여성 3.71점)와 배우자 부모님과의 관계(남성 3.75점, 여성 3.39점),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남성 3.60점, 여성 3.24점)에서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낮았음. 이는 혼인을 통해 형성되는 인척 관계에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역할 기대와 정서적 부담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함
- 가사 분담에서는 인식과 실천 사이의 간극이 분명하게 확인되었음. 대다수가 가사노동과 가족돌봄을 부부가 '함께'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가사노동을 '아내'가 담당한다는 응답이 66.2%로 나타났음. 또한 가사 분담의 공평성에 대해서는 모든 영역에서 남성(2.96~3.17점)이 여성(2.46~2.83점)보다 공평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그 격차는 가사노동에서 가장 컸음. 동일한 분담 상황을 두고 남성

과 여성이 서로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가사 분담이 부부 갈등의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함

- 배우자와의 갈등 이유는 '배우자의 성격/사고방식'(17.2%)과 '경제적 문제'(14.9%)가 높았으며, 갈등 시 '배우자와 함께 문제 해결 노력'(39.1%) 다음으로 '그냥 참는다'(31.4%)는 응답이 많았음. 갈등을 드러내어 해결하기보다 개인이 감내하는 대처 방식은 갈등의 장기화와 관계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5) 가족돌봄

- 영유아 돌봄은 공적 돌봄기관을 이용하더라도 그 밖의 시간에는 여전히 가족, 특히 어머니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었음. 기관 이용 시간 외 주 돌봄자는 '어머니'가 56.4%였으며, 주 양육자가 돌볼 수 없는 긴급 상황에서도 '어머니'(31.9%)와 '외조부모'(20.3%)가 주로 돌봄을 담당하였음. 이는 공적 돌봄이 제공되지 않는 시간의 공백을 가족 내 여성과 조부모의 비공식 돌봄이 메우고 있음을 보여줌
-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대는 영유아(55.1%)와 초등학생(55.0%) 모두 '오후 4~5시'가 가장 많았으며, 영유아는 '오후 6~7시'(52.2%)에도 수요가 높았음. 이는 기관의 하원 및 방과후 직후부터 부모의 퇴근 시간까지가 돌봄 공백이 집중되는 시간대임을 의미함. 또한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은 '아이 부모'(27.0%)와 '학원'(26.1%)이 '초등돌봄교실'(21.6%)보다 높아, 공적 돌봄이 수요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 채 사교육이 돌봄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보육·교육기관 선택 시 '이동 거리'(44.9%)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결과를 함께 고려하면, 오후~저녁 시간대의 연장·시간제 돌봄을 생활권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 거점을 확충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 과제라 할 수 있음

6) 가족생활 및 여가

- 가족 간 일상적 교류는 일부 가구에서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가족과의 식사를 '거의 하지 않음'이 17.0%, 하루 대화를 '거의 하지 않음'이

13.8%였으며, 하루 대화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가 과반을 차지하였음

- 가족여가활동은 평일(34.4%)과 주말(24.1%) 모두 'TV/모바일 콘텐츠 시청'이 가장 높아, 함께 시간을 보내더라도 상호작용이 적은 실내 활동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음. 또한 가족과의 여가시간이 충분하다는 응답(35.7%)이 여가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45.9%)보다 낮았고, 가족여가를 하지 못한 이유로 '일이 바빠서'(29.9%)가 가장 많았다는 점에서, 가족여가의 문제는 여가의 질 이전에 시간 자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됨

7) 일·생활 균형

- 취업자가 인식하는 일·생활 균형의 저해 요인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부족'(27.6%), '장시간 근로시간'(21.8%), '업무 과중'(14.6%)으로, 주로 시간과 업무량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음. 생애주기별로는 20~30대와 미혼이 장시간 근로와 업무 과중을, 기혼이 가족과의 시간 부족과 자녀양육·가사 부담을 주로 호소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일·생활 균형을 저해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음. 아울러 여성은 '가사 부담'(17.3%)을 꼽는 비율이 남성(4.2%)보다 크게 높아, 여성 취업자가 직장과 가정에서 이중의 부담을 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미취업자는 '시간제 근로'(36.1%)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그 비율은 여성(44.4%)과 기혼(47.1%)에서 특히 높았음. 이는 돌봄 책임을 지닌 기혼 여성이 전일제 근로를 현실적인 선택지로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시간제 일자리가 저임금·불안정 일자리로 고착되지 않도록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또 일·생활 균형을 위한 우선 정책으로 '유연근무제 확산'(23.0%)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인식 확산'(22.4%)이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제도의 도입과 함께 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정책적 노력이 집중될 필요가 있음. 우선 정책은 생애주기에 따라 달라, 20~30대는 근로시간 단축과 남성의 육아 참여를, 여성은 경력단절 예방과 보육 지원을, 50대 이상은 노인돌봄 가족 지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요구하였음

8) 생활 여건 및 지역 정주

- 조사대상자의 경제 수준 만족도(2.97점)는 생활(거주지) 만족도(3.37점)보다 낮았으며, 경제 수준에 불만족한다는 응답도 25.7%에 달하였음.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으로는 '기본 의식주 생계유지'(35.8%), '노후준비'(19.1%), '부채상환'(18.8%)이 높았는데, 20대(70.9%)와 미혼(58.6%)에서 기본 생계유지에 대한 부담이 특히 크게 나타나 청년층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에 계속 거주하겠다는 응답은 60대 이상(54.2%)과 20대(20.1%) 간에 큰 차이를 보였으며, 20대는 지역에 머무는 이유로 '태어난 곳'(54.5%)을, 떠나려는 이유로 '좋은 일자리 부족'(38.8%)을 높게 꼽았음. 또한 거주지를 떠나려는 이유로는 '좋은 일자리 부족'(24.3%)과 '문화여가시설 부족'(13.3%)이 높게 나타났음. 경상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족이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인식 역시 '안전'(3.39점)은 높았던 반면 '문화'(2.87점)는 가장 낮았음.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의 지역 이탈이 단순히 일자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문화·여가 기반을 포함한 삶의 질 전반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함

9) 1인가구

- 조사대상자 중 1인가구는 21.8%였으며, 이 중 82.8%가 향후에도 1인가구로 살겠다고 응답하여 1인가구가 일시적인 과도기 형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생활 형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줌. 1인가구로 생활하게 된 이유로는 '혼자 살고 싶어서'(29.0%)와 같은 자발적 선택과 함께 '본인 학업/직장'(21.7%), '본인 이혼'(15.4%), '배우자 사망' 등 생애사건에 따른 비자발적 요인이 함께 나타났음
- 1인가구가 느끼는 어려움은 '균형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3.39점)와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다'(3.38점)가 높았으며, 향후 1인가구로 살 때의 우려 사항 역시 '질병·건강 악화 시 돌봄'(30.1%), '경제적 어려움'(27.9%), '응급·위기 상황'(25.1%)의 순으로 나타났음. 이는 1인가구의 핵심적인 취약성이 가족

내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던 일상적 돌봄과 위기 대응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데 있음을 의미함. 더욱이 고민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19.9%에 달해,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1인가구가 고립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1인가구 정책은 가장 높은 요구를 보인 주택 안정 지원(38.0%)을 기본으로 하되, 질병·응급 상황 대응과 식생활 지원 등 일상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관계망이 취약한 1인가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

10) 가족정책 요구

- 가족지원서비스는 '아이돌봄 서비스'(1.85점)를 제외하면 인지도가 모두 1.65점(3점 만점) 이하로 낮았으며, 'K-보듬 6000'은 82.0%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음. 서비스를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 경험은 4.2~10.4% 수준에 그쳤으나, 이용자의 32.1~52.8%는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음. 이는 서비스의 효과보다 인지와 접근 단계에서 이용이 제한되고 있음을 의미함
- 중점 지원이 필요한 가족형태로는 '노인 1인가구'(18.5%), '환자 돌봄 가족'(15.1%), '장애인 가족'(13.5%)이 높게 나타나, 도민들이 돌봄 부담이 큰 가족을 정책의 우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20대는 취업과 1인가구 지원, 30대는 출산·양육과 아이돌봄, 50대 이상은 노부모 돌봄으로 생애주기에 따라 뚜렷하게 달랐으며, 미혼과 기타는 1인가구 지원(24.8%, 28.7%)과 고립 위험군 관계망 구축(15.9%, 21.5%)을 상대적으로 많이 요구하였음. 또한 가족정책의 핵심 목표로 '모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일과 삶의 균형'(21.9%)과 '돌봄의 사회적 책임 확대'(15.5%)가 높게 나타났음. 이는 돌봄과 일·생활 균형이 도민이 체감하는 가장 시급한 가족정책 과제임을 보여줌

Ⅳ. 경상북도 가족정책 추진 방향

-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경상북도 가족정책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전환이 필요함. 첫째, 정책의 대상을 법률상 가족과 자녀 양육기 중심에서 실제로 함께 생활하고

돌보는 다양한 가족과 생애주기 전반으로 넓혀야 함. 둘째, 돌봄과 일·생활 균형의 책임을 개별 가족, 특히 여성에게 맡기는 구조에서 가족과 사회가 함께 나누는 구조로 전환해야 함. 셋째, 도 단위의 획일적이고 공급자 중심적인 정책 추진에서 지역과 생활권의 특성, 도민의 실제 욕구에 맞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경상북도 가족정책의 추진 방향을 6가지로 제안함

1)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가족정책으로의 전환

- 경북의 가구 구조는 1~2인 가구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 2025년 1인가구는 39.6%로 가장 보편적인 가구 유형이 되었고, 1~2인 가구는 72.8%로 전국(66.0%)보다 높은 반면 4인 이상 가구는 11.3%에 그쳤음. 다문화가구는 8년간 39.8% 증가하였으며, 부자 한부모가구 비중(25.4%)이 전국보다 높고 조손가구의 60%가 조부 또는 조모 1인이 양육하는 가구인 등, 표준적인 핵가족의 범주로 포괄되지 않는 가족이 늘어나고 있음
- 가족 형태의 변화와 함께 가족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으나, 그 속도는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음.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는 '법적인 혼인과 혈연으로 연결되어야만 가족이라 할 수 있다'(3.44점)는 인식이 우세하였으나, 20대는 '가족은 내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이다'(3.63점)에 대한 동의가 60대 이상(2.65점)보다 1점 가까이 높았음. 또한 입양·한부모·국제결혼 가족에 대한 수용도는 높은 반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2.91점)에는 유보적이어서, 결혼과 출산을 연계하는 규범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었음. 이는 경북이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74.6%)이 전국보다 높고 동거·비혼 출산에 대한 수용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Ⅱ장의 결과와 일치함
- 이러한 결과는 실제 가족의 모습은 빠르게 다양해지고 있으나, 제도와 규범은 여전히 혼인과 혈연 중심의 가족을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함. 이러한 간극은 다양한 가족이 정책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사회적 편견을 경험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가족정책은 법률상 가족에 한정하지 않고 실제로 함께 생활하고

서로를 돌보는 관계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그 대상을 점진적으로 넓히고, 세대 간 인식 차이를 고려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부자 한부모가구, 조부모 1인 양육 조손가구, 자녀 성장기에 접어든 다문화가족 등 같은 유형 안에서도 달라지는 욕구와 생애주기 변화를 반영하여 지원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2) 성평등한 가족관계와 가족문화 조성

- 가족 내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은 평등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실제 분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음. Ⅱ장에서 경북은 가사를 아내가 주로 담당하는 비율이 76.3%로 전국보다 높고,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비율은 20.3%에 그쳤으며, 출산·양육기 여성의 취업 중단을 전제로 한 인식(40.1%)도 전국보다 높았음. 가족실태조사에서도 대다수가 가사노동과 가족돌봄을 부부가 '함께'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나(78.7%), 실제로는 가사노동을 '아내'가 담당한다는 응답이 66.2%로 나타나 인식과 실천 사이의 간극이 두 자료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었음
- 이러한 분담 구조는 가족관계의 질과 여성의 생애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조사 결과 가사 분담의 공평성에 대해 남성(2.96~3.17점)이 여성(2.46~2.83점)보다 높게 평가하였고, 부부관계와 배우자 부모님·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낮았음. 가사노동을 '아내'가 담당한다는 응답도 여성(76.2%)이 남성(57.9%)보다 많아 동일한 분담 상황을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갈등 시 여성은 '그냥 참는다'(34.5%)가 가장 많은 대처 방식이었음. 또한 남녀 모두 남편 쪽 원가족과의 관계를 배우자와의 갈등 이유로 상대적으로 많이 꼽아, 혼인을 통해 형성되는 인척 관계에서 여성의 역할 부담이 크게 나타났음. Ⅱ장에서 경북의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60.2%)가 전국(63.5%)보다 낮게 나타난 점, 그리고 경북 여성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출산·양육 부담과 일·가정 양립 곤란을 꼽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 점을 함께 고려하면, 돌봄 책임의 여성 편중은 가족관계 만족도를 낮추고 여성의 결혼·출산 기피로 이어지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성평등한 가족관계와 가족문화의 조성은 그 자체로 중요한 정책 목표일 뿐 아니라, 가족관계의 질을 높이고 가족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과제라 할 수 있음. 성평등 정책의 초점을 인식 개선에서 남성의 실질적인 가사·돌봄 참여와 실천으로 옮기고, 부부 단위의 관계 향상 지원과 함께 갈등을 참거나 회피하기보다 조기에 다룰 수 있도록 가족상담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예단·예물 축소(4.18점), 형편에 맞는 결혼식(4.17점) 등 관행적 가족문화의 개선에 대한 도민의 높은 공감대를 생활 속 가족문화 변화로 연결할 필요가 있음

3)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 경북은 고령인구 비중이 27.5%로 전국(21.2%)보다 6.3%p 높은 초고령사회이며, 노년부양비는 40.5로 생산가능인구 약 2.5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는 구조임. 1인가구 중 60세 이상이 47.9%, 80세 이상이 12.6%에 이르는 등 돌봄 필요도가 높은 고령 1인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으로 도시 지역에서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반면 가족 내에서 돌봄을 담당할 수 있는 구성원은 줄어들고 있어, 돌봄 수요의 증가와 가족 돌봄 기반의 약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
- 가족실태조사 결과는 이러한 돌봄 공백이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줌. 1인가구는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다'(3.38점)는 어려움이 컸고, 향후 우려 사항으로 '질병·건강 악화 시 돌봄'(30.1%)과 '응급·위기 상황'(25.1%)을 꼽았으며, 고민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도 19.9%에 달하였음. 영유아 돌봄은 기관 이용 시간 외에는 어머니(56.4%)에게, 긴급 상황에는 어머니와 조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었으며, 영유아와 초등학생 모두 오후 4~7시에 돌봄 수요가 집중되었음. 한편 부모 부양에 대해서는 '딸도 아들도 똑같이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3.74점)에는 높은 동의를, '나이 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2.70점)에는 낮은 동의를 보여, 동거를 통한 가족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부양 규범이 변화하고 있었음

- 도민들 역시 중점 지원이 필요한 가족으로 '노인 1인가구'(18.5%), '환자 돌봄 가족'(15.1%), '장애인 가족'(13.5%)을 꼽고, 가족정책의 핵심 목표로 '돌봄의 사회적 책임 확대'(15.5%)를 선택하여 돌봄을 가족이 아닌 사회가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요구를 드러냈음. 특히 50대와 60대 이상은 가장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로 '노부모 돌봄 지원'(17.0%, 18.5%)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일·생활 균형 정책으로도 '노인돌봄 수행 가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요구하였음. 이는 가족이 돌봄을 전담하는 구조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움을 의미함. 따라서 돌봄 정책의 대상을 영유아·아동 중심에서 고령·1인가구와 환자·장애인을 돌보는 가족까지 포괄하는 생애주기 전반으로 넓힐 필요가 있음. 아동 돌봄은 기관 운영 시간 중심에서 부모의 근로 시간과 생활권에 맞춘 지원으로 전환하고, 고령·1인가구는 일상 돌봄과 위기 대응을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일·생활 균형과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 경북은 맞벌이 가구 비중이 53.0%로 전국(48.6%)보다 높아 일과 가족생활의 병행이 다수 가족의 일상적 과제가 되어 있으나, 여가시간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평일과 휴일 모두 전국보다 낮았음. 가족실태조사에서도 맞벌이가족이 35.4%로 가장 보편적인 가구형태였으며, 취업자의 일·생활 균형 저해 요인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부족'(27.6%), '장시간 근로시간'(21.8%), '업무 과중'(14.6%)으로 시간의 문제가 중심을 이루었음. 가족과의 여가시간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35.7%에 그쳤고, 가족여가를 하지 못한 이유로 '일이 바빠서'(29.9%)가 가장 많았으며, 하루 대화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가 과반을 차지하였음
- 시간 갈등의 양상은 성별과 생애주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음. 여성 취업자는 '가사 부담'(17.3%)을 꼽는 비율이 남성(4.2%)보다 크게 높아 직장과 가정의 이중 부담을 지고 있었으며, 미취업 기혼 여성은 시간제 근로(47.1%)를 선호하여 돌봄 책임이 노동시장 참여 방식을 제약하고 있었음. 미취업 이유로 '가사·육아'는 여성(15.9%)에게서만 나타났으며 30~40대에서 높았음. 또한 일·생활 균형 우선 정책으로 여성은 경력단절 예방과 보육 지원을, 20~30대는 근로시간 단축과 남성의

육아 참여를 상대적으로 많이 요구하여, 생애주기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함. 일·생활 균형은 가족 형성과도 직결되어 있음. 사회적 여건이 마련될 경우 자녀를 더 낳을 의향이 '있다'(17.4%)와 '잘 모르겠다'(20.6%)를 합한 응답이 38.0%에 이르렀으며, 이들은 출산 의향을 높이는 조건으로 육아휴직·단축근무 시 급여 보전(3.32점), 재택근무(3.25점), 육아수당 확대(3.24점)를 꼽았음. 이는 청년층의 가족 형성이 일과 양육을 소득 감소 없이 병행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함

- 도민들이 가족정책의 핵심 목표로 '모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일과 삶의 균형'(21.9%)을 가장 많이 꼽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우선 정책으로 '유연근무제 확산'(23.0%)과 '인식 확산'(22.4%)을 선택한 것은, 제도의 도입을 넘어 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 환경과 조직문화가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함. 따라서 일·생활 균형 정책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유연근무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며, 출산·양육 지원은 현금 지원과 함께 육아기 소득 보전과 근무 유연성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돌봄 책임이 있는 여성의 고용 유지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충하고, 확보된 시간을 가족이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생활권 단위의 가족여가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5) 청년 정주와 가족의 생활 안정 기반 확충

- 경상북도의 인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0.95% 감소하여 전국(-0.25%)보다 약 3.8배 빠르게 줄고 있으며, 자연감소와 함께 2022~2025년 누적 33,092명이 도외로 순유출되었음. 특히 여성 인구의 감소율(-1.06%)이 남성(-0.84%)보다 높고, 합계출산율(0.93명)이 전국보다 높은데도 출생아 수가 8년간 42.0% 감소하였다는 점은 경북의 출생 감소가 출산 수준의 문제라기보다 가임기 청년, 특히 여성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데서 비롯되고 있음을 보여줌. 혼인 건수 역시 8년간 24.9% 감소하였고 조혼인율(3.6건)은 전국(4.7건)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가족 형성의 출발점인 혼인부터 위축되고 있음

- 가족실태조사 결과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청년층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줌. 현 지역에 계속 거주하겠다는 응답은 60대 이상이 54.2%인 반면 20대는 20.1%에 그쳤으며, 거주지를 떠나려는 이유로 '좋은 일자리 부족'(24.3%)과 '문화여가시설 부족'(13.3%)이 높게 나타났음. 특히 20대는 현재 지역에 머무는 이유로 '태어난 곳'(54.5%)을 절반 이상 꼽은 반면, 떠나려는 이유로는 '좋은 일자리 부족'(38.8%)을 다른 연령대보다 크게 높게 꼽아, 청년층의 정주가 지역에 대한 적극적 선택보다 출생지라는 이유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줌. 또한 20대의 70.9%가 기본 의식주 생계유지를 가장 부담되는 지출로 꼽아 청년층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25.2%)이 가장 높게 나타난 Ⅱ장의 결과와도 맞닿아 있어, 청년층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 지역 이탈과 혼인 지연으로 동시에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경북의 저출생 대응은 출산 이후의 지원에 머물기보다 청년이 지역에 머물며 일하고 가족을 꾸릴 수 있는 생활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음. 청년 정책은 일자리와 함께 주거, 문화·여가, 사회적 관계망 등 삶의 질 전반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인 생활 형태로 자리 잡은 1인가구에 대해서는 가장 요구가 높은 주거 안정(38.0%)을 기본으로 고립을 예방하는 관계망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미혼과 기타가 가족정책의 핵심 목표로 '고립 위험군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 구축'(15.9%, 21.5%)을 기혼(5.2%)보다 크게 높게 꼽은 점도 이를 뒷받침함

6)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가족지원 전달체계 구축

- 경북은 도시와 군지역 간 인구·가족 구조의 차이가 뚜렷함. 포항·구미·경산·경주 4개 시에 인구의 55.9%가 거주하고 출생아의 54.5%가 포항·구미·경산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군지역은 1인·1세대 가구가 70~80%에 달하고 여성 고령 1인가구와 부자·조손가구 비중이 높음. 가족실태조사에서도 남부권은 1인가구 비율이, 북부권은 1세대 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서부권은 지역 계속 거주 의향이 가

장 낮게 나타나 권역에 따라 가족의 구성과 정주 여건이 다르게 나타났음. 도청신도시 조성 이후 유소년·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한 예천군의 사례는 계획적인 정주 기반 조성이 가족 형성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줌

- 한편 가족지원서비스는 필요성에 비해 인지도와 이용률이 매우 낮았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의 인지도는 모두 1.65점(3점 만점) 이하였으며, 'K-보듬6000'은 82.0%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서비스를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경험은 4.2~10.4%에 그쳤음. 반면 이용자의 32.1~52.8%는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서비스의 효과보다 인지와 접근 단계에서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서비스 인지도는 기혼이 양육 관련 서비스를 더 잘 아는 반면, 1인가구 비중이 높은 기타는 '1인가구 지원사업' 인지도가 가장 낮아 정책 대상과 인지 사이에 어긋남이 있었으며,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20대 취업·1인가구 지원, 30대 출산·양육과 아이돌봄, 50대 이상 노부모 돌봄으로 생애주기에 따라 달랐음
- 따라서 도 단위의 일률적인 사업에서 벗어나 도시와 군지역, 권역별 가족 구조와 정책 수요에 맞추어 중점 지원 대상과 방식을 달리하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 또한 보육·교육기관 선택 시 '이동 거리'(44.9%)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결과를 고려하여 군지역을 포함한 도 전역에서 생활권 가까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청년층은 온라인(20대 39.3%), 고령층은 관공서 안내·주변 사람·방송을 통해 서비스를 인지하는 만큼 연령대별로 안내 경로를 달리하는 수요자 맞춤형 안내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경상북도 가족실태조사의 정례화와 시·군 단위 가족통계 구축을 통해 정책의 근거를 지속적으로 축적할 필요가 있음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 5
3. 연구 절차 ····· 7

Ⅱ. 경상북도 가족의 변화 ····· 9
1. 인구 구조의 변화 ····· 11
2. 가족 구조의 변화 ····· 39
3. 가족가치관 및 생활 여건 ····· 71
4. 소결 ····· 88

Ⅲ. 경상북도 가족실태조사 및 분석 ····· 93
1. 조사 도구 개발 ····· 95
2. 조사 개요 ····· 110
3. 분석 결과 ····· 113
4. 소결 ····· 290

Ⅳ. 경상북도 가족정책 추진 방향 ····· 303
1. 종합 논의 및 시사점 ····· 305
2. 경상북도 가족정책 추진 방향 ····· 311

참고문헌 ····· 319
부 록 ····· 323

표 목 차

<표 Ⅱ-1> 경상북도 시군별 인구수 및 증감률(2021~2025) ····· 13
<표 Ⅱ-2> 경상북도 시군별 세대수 및 증감률(2021~2025) ····· 16
<표 Ⅱ-3> 경상북도 시군별 1세대당 인구수 추이(2017~2025) ····· 20
<표 Ⅱ-4> 경상북도 시군별 조출생률 추이(2017~2025) ····· 22
<표 Ⅱ-5> 경상북도 시군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추이(2017~2025) ····· 24
<표 Ⅱ-6> 경상북도 시군별 조사망률 추이(2020~2024) ····· 26
<표 Ⅱ-7> 경상북도 시군별 자연증가율 추이(2020~2024) ····· 28
<표 Ⅱ-8> 경상북도 시군별 인구이동 현황(2021~2025) ····· 31
<표 Ⅱ-9> 경상북도 시군별 인구구성 추이(2017~2025) ····· 34
<표 Ⅱ-10> 경상북도 연령별·성별 인구구조(2017~2025) ····· 36
<표 Ⅱ-11> 경상북도 시군별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2017~2025) ····· 38
<표 Ⅱ-12> 경상북도 시군별 조혼인율 추이(2021~2025) ····· 40
<표 Ⅱ-13> 경상북도 시군별 평균초혼연령 추이(2021~2025) ····· 42
<표 Ⅱ-14> 경상북도 시군별 조이혼율 추이(2021~2025) ····· 45
<표 Ⅱ-15> 경상북도 혼인 및 이혼 현황(2017~2025) ····· 47
<표 Ⅱ-16> 경상북도 시군별 외국인과의 혼인 현황(2019~2025) ····· 49
<표 Ⅱ-17> 경상북도 세대구성별 가구 현황('25) ····· 51
<표 Ⅱ-18> 경상북도 시군별 가구원수별 가구 분포('25) ····· 54
<표 Ⅱ-19> 경상북도 시군별 성별 1인가구('25) ····· 57
<표 Ⅱ-20> 경상북도 연령별 1인가구 현황(2021~2025) ····· 59
<표 Ⅱ-21> 경상북도 맞벌이 가구 현황 및 추이(2017~2025) ····· 61
<표 Ⅱ-22> 경상북도 한부모가구 현황 및 추이(2021~2025) ····· 62
<표 Ⅱ-23> 경상북도 시군별 유형별 한부모가구 현황('25) ····· 64
<표 Ⅱ-24> 경상북도 조손가구 현황(2017~2025) ····· 65
<표 Ⅱ-25> 경상북도 시군별 다문화가구 현황(2017~2025) ····· 68

<표 Ⅱ-26> 경상북도 시군별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2017~2025) ····· 70
<표 Ⅱ-27> 결혼 문화에 대한 태도(13세 이상) ····· 72
<표 Ⅱ-28> 결혼식 문화에 대한 인식(13세 이상) ····· 74
<표 Ⅱ-29> 결혼에 대한 견해(13세 이상) ····· 75
<표 Ⅱ-30>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13세 이상) ····· 77
<표 Ⅱ-31> 이혼에 대한 견해(13세 이상) ····· 78
<표 Ⅱ-32> 재혼에 대한 견해(13세 이상) ····· 79
<표 Ⅱ-33>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25, 13세 이상) ····· 81
<표 Ⅱ-34> 가족관계 만족도(13세 이상) ····· 82
<표 Ⅱ-35> 가사 분담 실태(19세 이상) ····· 84
<표 Ⅱ-36>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25, 19세 이상) ····· 86
<표 Ⅱ-37> 여가시간 충분도('24) ····· 87
<표 Ⅱ-38> 일·여가생활 균형 정도 ····· 88

<표 Ⅲ-1>「가족실태조사」차수별 조사 영역 및 지표 변화 ····· 97
<표 Ⅲ-2> 타 지자체 가족실태조사 문항 분석 ····· 101
<표 Ⅲ-3> 2022년 조사 대비 2026년 조사 개편 내용 ····· 106
<표 Ⅲ-4> 조사 내용 ····· 111
<표 Ⅲ-5>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 114
<표 Ⅲ-6> 가구원 수 ····· 115
<표 Ⅲ-7>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구원 수 ····· 116
<표 Ⅲ-8> 세대 유형 ····· 117
<표 Ⅲ-9>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세대 유형 ····· 118
<표 Ⅲ-10> 월평균 가구 소득 ····· 119
<표 Ⅲ-1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월평균 가구소득 ····· 120
<표 Ⅲ-12> 주소득원 ····· 121
<표 Ⅲ-13> 가구형태 ····· 122
<표 Ⅲ-14> 의지가 되는 사람 ····· 123

<표 Ⅲ-15> 우리 가족에 포함되는 사람 ····· 124
<표 Ⅲ-16> 가족에 대한 정의 ····· 126
<표 Ⅲ-17>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에 대한 정의 ····· 128
<표 Ⅲ-18> 삶의 방식과 가치관 ····· 130
<표 Ⅲ-19>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방식과 가족가치관 ····· 132
<표 Ⅲ-20> 자녀와 자녀양육 ····· 135
<표 Ⅲ-2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녀와 자녀양육 ····· 137
<표 Ⅲ-22> 가족 경제적 부양에 대한 성역할 ····· 138
<표 Ⅲ-2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 경제적 부양에 대한 성역할 ····· 139
<표 Ⅲ-24> 가족 의사결정에 대한 성역할 ····· 140
<표 Ⅲ-2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 의사결정에 대한 성역할 ····· 141
<표 Ⅲ-26> 가사노동과 가족돌봄 ····· 142
<표 Ⅲ-27>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과 가족돌봄에 대한 성역할 ····· 142
<표 Ⅲ-28> 결혼식 및 비용 ····· 143
<표 Ⅲ-29>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식 및 비용 ····· 145
<표 Ⅲ-30> 부모 부양 및 부모의 책임 ····· 146
<표 Ⅲ-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 부양 및 부모 책임 ····· 148
<표 Ⅲ-32> 자녀에 대한 경제적 책임 ····· 149
<표 Ⅲ-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책임 ····· 150
<표 Ⅲ-34> 결혼적령기 유무 인식 ····· 151
<표 Ⅲ-3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적령기 유무 인식 ····· 152
<표 Ⅲ-36> 결혼적령기 ····· 152
<표 Ⅲ-37> 혼인 상태 ····· 153
<표 Ⅲ-38> 현재 배우자와의 동거 기간 ····· 153
<표 Ⅲ-39> 이혼 및 별거 이유 ····· 154
<표 Ⅲ-40> 자녀 유무 ····· 155
<표 Ⅲ-41> 자녀 출산 의향 ····· 155
<표 Ⅲ-4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녀 출산 의향 ····· 156

<표 Ⅲ-43> 자녀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 ····· 157
<표 Ⅲ-44> 사회적 지원 확대시 자녀 출산 의향 ····· 158
<표 Ⅲ-4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원 확대시 자녀 출산 의향 ····· 159
<표 Ⅲ-46> 자녀 출산 의향 확대 사회적 여건 ····· 160
<표 Ⅲ-4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녀 출산 의향 확대 사회적 여건 ····· 162
<표 Ⅲ-48> 가족관계 만족도 ····· 164
<표 Ⅲ-49>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 ····· 166
<표 Ⅲ-50> 가사수행 분담 ····· 168
<표 Ⅲ-5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사수행 분담 ····· 169
<표 Ⅲ-52> 가사수행 분담 공평성 ····· 171
<표 Ⅲ-5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사수행 분담 공평성 ····· 173
<표 Ⅲ-54> 영역별 의사결정 ····· 174
<표 Ⅲ-5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역별 의사결정 ····· 176
<표 Ⅲ-56> 배우자와의 갈등 이유 ····· 181
<표 Ⅲ-57>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배우자와의 갈등 이유 ····· 182
<표 Ⅲ-58> 배우자와 갈등 시 대처 방식 ····· 183
<표 Ⅲ-59>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배우자와 갈등 시 대처 방식 ····· 184
<표 Ⅲ-60> 자녀양육시 어려움 ····· 185
<표 Ⅲ-6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녀양육시 어려움 ····· 187
<표 Ⅲ-62> 자녀와의 갈등 이유 ····· 187
<표 Ⅲ-6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녀와의 갈등 이유 ····· 189
<표 Ⅲ-64> 취학전 영유아 유무 ····· 189
<표 Ⅲ-65> 기관 이용 영유아 자녀 유무 ····· 190
<표 Ⅲ-66> 영유아 자녀 이용 기관 ····· 191
<표 Ⅲ-67> 기관 이용 시간 외 주 돌봄자 ····· 191
<표 Ⅲ-68> 기관 미이용 자녀 주 돌봄자 ····· 192
<표 Ⅲ-69> 기관 미이용 영유아 돌봄 시간 ····· 193
<표 Ⅲ-70> 기관 미이용 이유 ····· 193

<표 Ⅲ-71> 보육시설(교육기관) 선택시 고려 사항 ····· 194
<표 Ⅲ-72> 위급(긴급) 상황시 자녀 돌봄 ····· 195
<표 Ⅲ-73> 평일 영유아 자녀돌봄 서비스 필요 시간 ····· 196
<표 Ⅲ-74> 초등학생 자녀 유무 ····· 197
<표 Ⅲ-75> 방과후 초등학생 자녀 돌봄 ····· 197
<표 Ⅲ-76> 방과후 자녀 혼자 있는 시간 ····· 198
<표 Ⅲ-77> 평일 초등학생 자녀돌봄 서비스 필요 시간 ····· 199
<표 Ⅲ-78> 가사노동 참여 ····· 201
<표 Ⅲ-79> 주 평균 가사노동 참여 횟수 및 1회 평균 소요 시간 ····· 202
<표 Ⅲ-80>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 참여 ····· 203
<표 Ⅲ-81> 가족과의 식사 빈도 ····· 205
<표 Ⅲ-8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과의 식사 빈도 ····· 206
<표 Ⅲ-83> 가족과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 ····· 207
<표 Ⅲ-8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과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 ····· 208
<표 Ⅲ-85> 가족여가활동 여부 ····· 209
<표 Ⅲ-86>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여가활동 여부 ····· 209
<표 Ⅲ-87> 평일 가족여가활동 ····· 210
<표 Ⅲ-88>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평일 가족여가활동 ····· 211
<표 Ⅲ-89> 주말 가족여가활동 ····· 212
<표 Ⅲ-90>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말 가족여가활동 ····· 214
<표 Ⅲ-91> 가족여가활동 제약 요인 ····· 215
<표 Ⅲ-9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여가활동 제약 요인 ····· 216
<표 Ⅲ-93> 가족여가활동 의미 ····· 218
<표 Ⅲ-9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여가활동 의미 ····· 219
<표 Ⅲ-95> 가족여가활동 충분도 및 만족도 ····· 221
<표 Ⅲ-96>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여가활동 충분도 및 만족도 ····· 222
<표 Ⅲ-97> 근로 상태 ····· 223
<표 Ⅲ-98> 종사상 지위 ····· 223

<표 Ⅲ-99> 일·생활 갈등 및 균형 정도 ····· 225
<표 Ⅲ-100>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생활 갈등 및 균형 정도 ····· 227
<표 Ⅲ-101> 취업자의 일·생활 균형 저해 요인 ····· 229
<표 Ⅲ-10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자의 일·생활 균형 저해 요인 ····· 230
<표 Ⅲ-103> 일을 하지 않는 이유 ····· 231
<표 Ⅲ-10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취업 이유 ····· 232
<표 Ⅲ-105> 미취업자 선호 근로형태 ····· 233
<표 Ⅲ-106>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취업자의 선호 근로형태 ····· 235
<표 Ⅲ-107> 시간제 근로 희망 이유 ····· 236
<표 Ⅲ-108> 일·생활 균형 우선 추진 정책 ····· 237
<표 Ⅲ-109>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생활 균형 우선 추진 정책 ····· 238
<표 Ⅲ-110> 지역 거주 기간 ····· 239
<표 Ⅲ-11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역 거주 기간 ····· 241
<표 Ⅲ-112> 거주 지역 정착 이유 ····· 241
<표 Ⅲ-11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거주 지역 정착 이유 ····· 243
<표 Ⅲ-114> 이주 의향 ····· 244
<표 Ⅲ-11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역 이주 의향 ····· 245
<표 Ⅲ-116> 이주 이유 ····· 246
<표 Ⅲ-11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주 이유 ····· 247
<표 Ⅲ-118>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 ····· 248
<표 Ⅲ-119>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담이 되는 지출 ····· 250
<표 Ⅲ-120> 생활 및 경제 수준 만족도 ····· 251
<표 Ⅲ-12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 및 경제 수준 만족도 ····· 252
<표 Ⅲ-122>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 253
<표 Ⅲ-12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 254
<표 Ⅲ-124> 1인가구 여부 ····· 255
<표 Ⅲ-125> 1인가구 생활 기간 ····· 255
<표 Ⅲ-126> 일반적 특성에 따른 1인가구 생활 기간 ····· 256

<표 Ⅲ-127> 1인가구로 생활하는 이유 ····· 257
<표 Ⅲ-128> 1인가구 생활비 마련 방법 ····· 258
<표 Ⅲ-129> 1인가구 생활비 부담 지출 ····· 258
<표 Ⅲ-130> 1인가구 주거 마련 방법 ····· 259
<표 Ⅲ-131> 1인가구 고민 상담 대상 ····· 260
<표 Ⅲ-132> 1인가구로서의 생활 만족도 ····· 261
<표 Ⅲ-1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1인가구 생활만족도 ····· 262
<표 Ⅲ-134> 1인가구 생활 어려움 ····· 263
<표 Ⅲ-135> 일반적 특성에 따른 1인가구 생활의 어려움 ····· 264
<표 Ⅲ-136> 1인가구 지속 의향 ····· 266
<표 Ⅲ-137> 일반적 특성에 따른 1인가구 지속 의향 ····· 267
<표 Ⅲ-138> 향후 1인가구 지속시 우려 사항 ····· 268
<표 Ⅲ-139> 비1인가구 전환 시 향후 계획 ····· 268
<표 Ⅲ-140> 1인가구 우선 추진 정책 ····· 269
<표 Ⅲ-141> 지역 가족 여건 인식 ····· 270
<표 Ⅲ-14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 관련 경북에 대한 인식 ····· 272
<표 Ⅲ-143> 중점 지원 필요 가족 형태 ····· 274
<표 Ⅲ-144> 가족지원서비스 인지도 ····· 275
<표 Ⅲ-14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인지도 ····· 276
<표 Ⅲ-146> 가족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 278
<표 Ⅲ-147> 가족지원서비스 이용 후 도움 ····· 279
<표 Ⅲ-148>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필요도 ····· 281
<표 Ⅲ-149> 가족지원서비스 및 가족정책 인지 경로 ····· 282
<표 Ⅲ-150>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및 가족정책 인지 경로 284
<표 Ⅲ-151> 가장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 ····· 285
<표 Ⅲ-15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장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 ····· 287
<표 Ⅲ-153> 가족정책의 핵심 목표 ····· 288
<표 Ⅲ-15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정책의 핵심 목표 ····· 289

<표 Ⅳ-1> 경상북도 인구·가족 주요 변화 및 시사점 ····· 305
<표 Ⅳ-2> 경상북도 가족실태조사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307

그 림 목 차

[그림 Ⅰ-1] 연구 절차 ····· 7

[그림 Ⅱ-1] 전국 대비 경상북도 인구수 추이(2021~2025) ····· 12
[그림 Ⅱ-2] 경상북도 시군별 연평균 증감률(2021~2025) ····· 14
[그림 Ⅱ-3] 경상북도 시군별 연평균 세대 증감률(2021~2025) ····· 17
[그림 Ⅱ-4] 경상북도 인구 및 세대수 연도별 추이(2021~2025) ····· 18
[그림 Ⅱ-5] 경상북도 시군별 인구, 세대수, 1세대당 인구수 연평균 증감률(2021~2025) 19
[그림 Ⅱ-6] 경상북도 시군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추이(2017~2025) ····· 25
[그림 Ⅱ-7] 경상북도 시군별 자연증가율 추이(2020~2024) ····· 29
[그림 Ⅱ-8] 경상북도 시군별 순이동 추이(2021~2025) ····· 32
[그림 Ⅱ-9] 경상북도 연령별·성별 인구구조(2017~2025) ····· 36
[그림 Ⅱ-10] 경상북도 시군별 평균초혼연령 추이(2021~2025) ····· 43
[그림 Ⅱ-11] 경상북도 조이혼율 추이(2021~2025) ····· 44
[그림 Ⅱ-12] 경상북도 시군별 조혼인율.조이혼율 추이(2021~2025) ····· 47
[그림 Ⅱ-13] 경상북도 세대구성별 가구 현황('25) ····· 52
[그림 Ⅱ-14] 경상북도 시군별 가구원수별 가구 분포('25) ····· 55
[그림 Ⅱ-15] 경상북도 연령별 1인가구 현황(2021~2025) ····· 60
[그림 Ⅱ-16] 경상북도 한부모가구 현황 및 추이(2021~2025) ····· 63
[그림 Ⅱ-17] 경상북도 조손가구 현황(2017~2025) ····· 66
[그림 Ⅱ-18] 경상북도 시군별 다문화가구 현황(2017~2025) ····· 69

[그림 Ⅲ-1] 가구원 수 ····· 115
[그림 Ⅲ-2] 세대유형 ····· 117
[그림 Ⅲ-3] 월평균 가구소득 ····· 119
[그림 Ⅲ-4] 주소득원 ····· 121

[그림 Ⅲ-5] 가구형태 ····· 122
[그림 Ⅲ-6] 의지가 되는 사람 ····· 123
[그림 Ⅲ-7] 우리 가족에 포함되는 사람 ····· 125
[그림 Ⅲ-8] 가족에 대한 정의 ····· 126
[그림 Ⅲ-9] 삶의 방식과 가족가치관 ····· 129
[그림 Ⅲ-10] 자녀와 자녀양육 ····· 135
[그림 Ⅲ-11] 가족 내 성역할 ····· 138
[그림 Ⅲ-12] 결혼식 및 비용 ····· 144
[그림 Ⅲ-13] 부모 부양 및 부모의 책임 ····· 146
[그림 Ⅲ-14] 자녀에 대한 경제적 책임 ····· 149
[그림 Ⅲ-15] 현재 배우자와의 동거 기간 ····· 153
[그림 Ⅲ-16] 이혼 및 별거 이유 ····· 154
[그림 Ⅲ-17] 자녀 출산 의향 ····· 155
[그림 Ⅲ-18] 자녀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 ····· 157
[그림 Ⅲ-19] 사회적 지원 확대시 자녀 출산 의향 ····· 158
[그림 Ⅲ-20] 자녀 출산 의향 확대 사회적 여건 ····· 161
[그림 Ⅲ-21] 가족관계 만족도 ····· 165
[그림 Ⅲ-22] 가사수행 분담 ····· 168
[그림 Ⅲ-23] 가사수행 분담 공평성 ····· 172
[그림 Ⅲ-24] 영역별 의사결정 ····· 174
[그림 Ⅲ-25] 배우자와의 갈등 이유 ····· 181
[그림 Ⅲ-26] 배우자와 갈등 시 대처 방식 ····· 183
[그림 Ⅲ-27] 자녀양육시 어려움 ····· 186
[그림 Ⅲ-28] 자녀와의 갈등 이유 ····· 188
[그림 Ⅲ-29] 기관 이용 영유아 자녀 유무 ····· 190
[그림 Ⅲ-30] 기관 이용 시간 외 주 돌봄자 ····· 191
[그림 Ⅲ-31] 기관 미이용 자녀 주 돌봄자 ····· 192
[그림 Ⅲ-32] 기관 미이용 이유 ····· 193

[그림 Ⅲ-33] 보육시설(교육기관) 선택시 고려 사항 ····· 194
[그림 Ⅲ-34] 위급(긴급) 상황시 자녀 돌봄 ····· 195
[그림 Ⅲ-35] 평일 영유아 자녀돌봄 서비스 필요 시간 ····· 196
[그림 Ⅲ-36] 방과후 초등학생 자녀 돌봄 ····· 198
[그림 Ⅲ-37] 방과후 자녀 혼자 있는 시간 ····· 199
[그림 Ⅲ-38] 평일 초등학생 자녀돌봄 서비스 필요 시간 ····· 200
[그림 Ⅲ-39] 가사노동 참여 ····· 201
[그림 Ⅲ-40] 가족과의 식사 빈도 ····· 205
[그림 Ⅲ-41] 가족과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 ····· 207
[그림 Ⅲ-42] 평일 가족여가활동 ····· 210
[그림 Ⅲ-43] 주말 가족여가활동 ····· 213
[그림 Ⅲ-44] 가족여가활동 제약 요인 ····· 215
[그림 Ⅲ-45] 가족여가활동 의미 ····· 217
[그림 Ⅲ-46] 가족여가활동 충분도 및 만족도 ····· 221
[그림 Ⅲ-47] 근로 상태 ····· 223
[그림 Ⅲ-48] 종사상 지위 ····· 224
[그림 Ⅲ-49] 일·생활 갈등 및 균형 정도 ····· 226
[그림 Ⅲ-50] 일·생활 균형 저해 요인 ····· 229
[그림 Ⅲ-51] 미취업 이유 ····· 231
[그림 Ⅲ-52] 선호 근로형태 ····· 234
[그림 Ⅲ-53] 시간제 근로 희망 이유 ····· 236
[그림 Ⅲ-54] 일·생활 균형 우선 추진 정책 ····· 237
[그림 Ⅲ-55] 거주기간 ····· 240
[그림 Ⅲ-56] 거주 지역 정착 이유 ····· 242
[그림 Ⅲ-57] 거주 지속 의향 ····· 244
[그림 Ⅲ-58] 거주지 이전 주된 이유 ····· 246
[그림 Ⅲ-59] 경제적 부담 지출 항목 ····· 249
[그림 Ⅲ-60] 현재 생활 및 경제 수준 만족도 ····· 251

[그림 Ⅲ-61] 사회경제적 지위 계층 ····· 253
[그림 Ⅲ-62] 1인가구 생활 기간 ····· 255
[그림 Ⅲ-63] 1인가구 생활 이유 ····· 257
[그림 Ⅲ-64] 1인가구 생활비 조달 방법 ····· 258
[그림 Ⅲ-65] 1인가구 부담 지출 항목 ····· 259
[그림 Ⅲ-66] 1인가구 주택 취득 방법 ····· 259
[그림 Ⅲ-67] 1인가구 고민 상담 대상 ····· 260
[그림 Ⅲ-68] 1인가구 생활 만족도 ····· 261
[그림 Ⅲ-69] 1인가구 생활 어려움 ····· 263
[그림 Ⅲ-70] 향후 1인가구 지속 시 우려사항 ····· 268
[그림 Ⅲ-71] 비1인가구로 전환 시 향후 계획 ····· 269
[그림 Ⅲ-72] 1인가구 우선 추진 정책 ····· 270
[그림 Ⅲ-73] 타 지역 대비 가족이 살기 좋은 정도 ····· 271
[그림 Ⅲ-74] 중점 지원이 필요한 가족형태 ····· 274
[그림 Ⅲ-75] 가족지원서비스 인지도 ····· 275
[그림 Ⅲ-76] 가족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 279
[그림 Ⅲ-77] 가족지원서비스 이용 후 도움 정도 ····· 280
[그림 Ⅲ-78] 가족지원서비스 필요도 ····· 280
[그림 Ⅲ-79] 가족지원서비스 및 가족정책 인지 경로 ····· 283
[그림 Ⅲ-80] 가장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 ····· 285
[그림 Ⅲ-81] 가족정책의 핵심 목표 ····· 288

[그림 Ⅳ-1] 경상북도 가족정책 비전 및 방향 ····· 311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 절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 사회는 저출생·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만혼화·비혼화,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가족구조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음. 과거에는 초혼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 핵가족이 주를 이루었다면, 오늘날에는 한부모가족·1인가구·재혼가족·비혈연가구 등 가족의 형태가 빠르게 다변화되는 추세임

- 국가데이터포털(KOSIS) 자료를 통해 최근 10년간 경상북도의 세대유형별 가구 구성의 추이를 살펴보면 가장 전통적인 핵심 가족 형태로 인식되던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 비중이 2015년 41.8%에서 2024년 33.0%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평균 가구원수 역시 2015년 2.4명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24년 2.0명임. 그러나 1인가구 비중은 2015년 30.4%에서 2024년 38.9%까지 확대되었으며, 이는 서울, 대전, 강원, 충북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임. 이러한 1인가구의 급증은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 증가뿐만 아니라, 최근 청년과 중장년층 사이에서 가치관 변화로 인해 확산되고 있는 비혼 흐름이 가구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아울러 혈연이나 혼인으로 연결되지 않은 비친족 가구 비중 역시 2015년 1.4%에서 2024년 2.4%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이처럼 경북 지역 내 전통적 가족 규모의 축소와 1인가구 및 대안적 가구 형태의 증가 흐름은 비혼 및 만혼 경향과 맞물려 최근까지도 매우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음

○ 이러한 가족구조의 변화는 가족 대상 정책과 서비스의 다변화와 정교화, 통합적 차원의 가족 지원을 요구하며, 초혼 핵가족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의 제도적 특만으로는 급변하는 가족들의 복합적인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움

○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3년 주기로 가족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전국 단위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 역시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가족실태조

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가족형태·생활·가치관 전반에 걸쳐 급속한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의 가족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현장성 있는 가족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됨

❍ 경상북도는 2022년 「경상북도 가족생활 진단 및 대응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김수연·정서린, 2022)를 통해 도내 23개 시·군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가구 특성, 가족 인식과 태도, 가족돌봄, 일·생활 균형, 1인가구 등 전반적인 가족생활 실태를 파악한 바 있으며, 이 결과는 지역 가족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왔음

- 그러나 2022년 조사 이후 주기적인 후속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가족 환경 변화를 반영한 데이터가 부재한 상황임. 특히 최근 수년간 저출생 및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패러다임이 많이 변화하였고, 돌봄 수요의 다원화, 1인가구의 질적 변화 등 새로운 정책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가족 정책 대응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한 최신 데이터 확보를 위한 재조사가 시급함
- 또한 성평등가족부가 가족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한 취지를 고려할 때, 경상북도 역시 2022년 조사 이후 일정한 주기로 가족실태를 재점검하여 정책의 시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특히 2023년 제5차 가족실태조사부터는 지역코드를 포함한 원자료가 제공되고 있어 경상북도 단위의 분석은 일부 가능해졌으나, 전국 단위 조사의 표본이 도내 22개 시·군 전역에 적절히 배분·표집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시·군별 특수성이나 농어촌과 도시 간의 격차를 반영한 정책 마련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경북 가족의 실제 변화 양상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도정에 긴밀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경북 차원의 주기적인 대규모 가족실태조사가 반드시 정례화될 필요가 있음

❍ 특히 2026년은 정부의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발표되는 해로, 경상북도 역시 이에 부합하는 지역 맞춤형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음. 따라서 2022년 조사 이후 나타난 경북 가족의 변화를 새롭게 진단하고, 지역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자료 마련이 필수적임. 더욱이 2026년은 전국 가족실태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기인 만큼. 경상북도 가족실태조사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향후 전국 데이터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경상북도 가족 정책만의 차별화된

대응 방향성과 발전 전략을 도출할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2022년 경상북도 가족실태조사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재조사로서, 경상북도 가족의 현황, 생활 실태 및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경상북도 가족정책 수립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 이번 조사에서는 2022년 조사와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가구 특성, 가족관계, 일·생활 균형 등 핵심 조사항목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의 생활실태와 정책수요를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문항을 확대하고, 법적 혼인이나 혈연관계에 국한되지 않는 가족 인식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문항을 새롭게 마련하였음. 이를 통해 가족 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이 함께 변화해가는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 첫째, 경상북도 가족의 변화 및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경상북도의 인구수 및 세대수 변화, 출생 및 사망에 따른 자연증감, 인구구성을 살펴보고, 가구 및 세대 구성, 혼인 및 이혼, 1인가구·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 유형 현황 등을 파악함

○ 둘째, 경상북도의 가족정책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경북 22개 시·군에 거주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자료를 확보함

- 설문조사는 응답자 일반현황, 가구(주)의 특성,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족형성,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사참여와 여가, 일·생활 균형, 생활 및 경제수준, 1인가구, 가족정책 등을 조사항목으로 구성함
- 2022년 실시한 경상북도 가족실태조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사항목을 포함하여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주요 변화 추이를 정리함

○ 셋째,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상북도 가족정책의 방향을 제시함

2)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가족정책 및 가족실태조사 관련 선행연구, 국가데이터처·성평등가족부 등의 조사 보고서, 타 시도 가족정책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가족실태조사 문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함
- 최근 가족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문헌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정책적 틀을 구성함

○ 행정·통계자료 분석

-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주민등록인구통계 등 행정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경상북도의 인구·가구·세대 현황,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자연증감 추이를 시계열로 분석함
- 도내 22개 시·군 단위로 통계를 세분화하여 지역별 인구·가족구조의 특성과 격차를 파악함

○ 설문조사 및 분석

- 경상북도 22개 시·군에 거주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조사를 실시하여 가족실태 관련 기초자료를 확보함
- 수집된 자료는 SPSS 등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고, 필요시 다중응답 분석을 통해 항목별 특성을 파악함

○ 전문가 자문

- 가족정책·통계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설문조사 결과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별 특수성 및 정책 현장의 애로사항을 보완하고, 이를 토대로 경상북도 가족정책 방향성 제시의 실효성을 높임

3. 연구 절차

○ 본 연구의 연구 절차는 [그림 Ⅰ-1]과 같음



[그림 Ⅰ-1] 연구 절차

Ⅱ. 경상북도 가족의 변화

1. 인구 구조의 변화
2. 가족 구조의 변화
3. 가족가치관 및 생활 여건
4. 소결

Ⅱ. 경상북도 가족의 변화

1. 인구 구조의 변화

1) 인구 및 세대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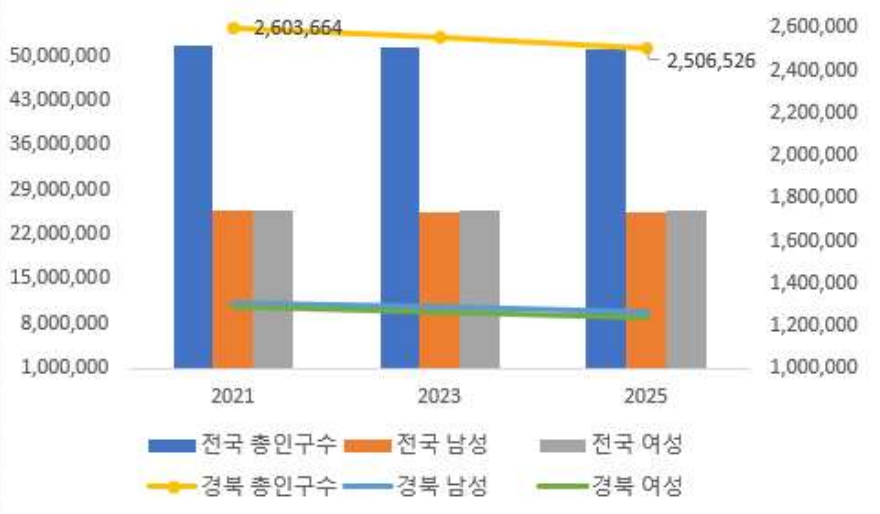
(1) 인구수

❍ 경북 인구, 전국보다 약 3.8배 빠른 속도로 감소

- 경상북도 총인구는 2021년 2,603,664명에서 2025년 2,506,526명으로 4년간 97,078명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증감률은 -0.95%임
- 이는 전국 연평균 증감률(-0.25%)의 약 3.8배 수준으로, 경북의 인구 감소 속도가 전국보다 뚜렷하게 빠름
- 전국 인구에서 경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5.04%에서 2025년 4.90%로 낮아짐

❍ 여성 인구 감소 폭이 남성보다 커 성비 불균형 심화

- 연평균 증감률은 남성 -0.84%, 여성 -1.06%로 여성 인구의 감소 폭이 더 큼
- 이에 따라 남녀 인구 차이는 2021년 20,136명에서 2025년 30,460명으로 확대되었고, 성비(여성 100명당 남성)는 101.6에서 102.5로 상승함
- 시군별로 보면 경산시를 제외한 21개 시군에서 여성 인구 감소율이 남성보다 높았음. 특히 의성군(남 -0.78%, 여 -1.96%), 울진군(남 -0.63%, 여 -1.46%), 청도군(남 -0.70%, 여 -1.44%)은 성별 격차가 컸음
- 2021년 여성 인구가 더 많았던 의성군과 청송군은 2025년 남성 인구가 더 많아짐



자료 : 국가데이터처(2026), 「주민등록인구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conn_path=I3, 2026. 9. 7. 인출 자료 재구성

[그림 Ⅱ-1] 전국 대비 경상북도 인구수 추이(2021~2025)

❍ 22개 시군 모두 인구 감소, 문경·봉화·칠곡은 연평균 2% 이상 감소

- 22개 시군 모두 총인구가 감소함. 울릉군 남성 인구(+0.20%)만 유일하게 증가함
- 연평균 감소율이 2%를 넘는 지역은 문경시(-2.11%), 봉화군(-2.05%), 칠곡군(-2.03%)임. 이어 영덕군(-1.91%), 영천시(-1.69%), 상주시(-1.52%) 순으로 감소 폭이 큼
- 반면 경산시(-0.42%), 울릉군(-0.49%), 구미시(-0.53%), 영양군(-0.59%)은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감소 인원 규모로는 포항시(15,145명), 칠곡군(8,980명), 구미시(8,698명), 영천시(6,693명), 문경시(5,806명) 순으로 많음

<표 Ⅱ-1> 경상북도 시군별 인구수 및 증감률(2021~2025)

(단위: 명(%))

구분	2021			2023			2025			연평균증감률		
	총인구수	남성	여성	총인구수	남성	여성	총인구수	남성	여성	총인구수	남성	여성
전국	51,638,809	25,746,684	25,892,125	51,325,329	25,565,736	25,759,593	51,117,378	25,436,665	25,680,713	-0.25	-0.30	-0.20
경북*	2,603,664	1,311,900	1,291,764	2,554,324	1,290,298	1,264,026	2,506,526	1,268,493	1,238,033	-0.95	-0.84	-1.06
포항시	503,852	255,292	248,560	493,033	250,242	242,791	488,707	247,802	240,905	-0.76	-0.74	-0.78
경주시	251,889	126,024	125,865	247,489	123,906	123,583	244,055	122,181	121,874	-0.79	-0.77	-0.80
김천시	140,239	70,305	69,934	137,515	69,082	68,433	133,791	67,383	66,408	-1.17	-1.06	-1.29
안동시	156,972	77,590	79,382	152,935	75,538	77,397	152,610	75,577	77,033	-0.70	-0.66	-0.75
구미시	412,581	212,021	200,560	405,506	209,131	196,375	403,883	208,724	195,159	-0.53	-0.39	-0.68
영주시	101,942	50,591	51,351	100,199	49,730	50,469	97,162	48,298	48,864	-1.19	-1.15	-1.23
영천시	101,888	51,737	50,151	100,212	51,137	49,075	95,185	48,692	46,493	-1.69	-1.51	-1.88
상주시	95,566	46,869	48,697	93,858	46,166	47,692	89,888	44,385	45,503	-1.52	-1.35	-1.68
문경시	71,154	34,919	36,235	68,755	33,775	34,980	65,348	32,156	33,192	-2.11	-2.04	-2.17
경산시	268,369	134,940	133,429	266,205	133,847	132,358	263,853	132,464	131,389	-0.42	-0.46	-0.38
의성군	50,632	24,796	25,836	50,086	24,808	25,278	47,902	24,028	23,874	-1.38	-0.78	-1.96
청송군	24,539	12,261	12,278	24,019	12,063	11,956	23,363	11,799	11,564	-1.22	-0.96	-1.49
영양군	16,320	8,144	8,176	15,661	7,805	7,856	15,941	7,962	7,979	-0.59	-0.56	-0.61
영덕군	35,314	16,777	18,537	34,055	16,232	17,823	32,698	15,710	16,988	-1.91	-1.63	-2.16
청도군	41,891	20,598	21,293	41,316	20,493	20,823	40,117	20,027	20,090	-1.08	-0.70	-1.44
고령군	30,626	15,741	14,885	30,139	15,477	14,662	29,667	15,333	14,334	-0.79	-0.65	-0.94
성주군	42,842	22,216	20,626	42,086	22,000	20,086	40,720	21,319	19,401	-1.26	-1.03	-1.52
칠곡군	113,822	59,260	54,562	110,581	57,966	52,615	104,842	55,208	49,634	-2.03	-1.76	-2.34
예천군	55,739	27,391	28,348	55,325	27,224	28,101	53,887	26,661	27,226	-0.84	-0.67	-1.00
봉화군	30,762	15,551	15,211	29,603	15,090	14,513	28,315	14,464	13,851	-2.05	-1.80	-2.31
울진군	47,858	24,026	23,832	46,669	23,553	23,116	45,896	23,430	22,466	-1.04	-0.63	-1.46
울릉군	8,867	4,851	4,016	9,077	5,033	4,044	8,696	4,890	3,806	-0.49	0.20	-1.33

* 군위군이 2023년 7월 1일자로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2021년 2022년 총인구수에서 군위군의 총인구수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 국가데이터처(2026),「주민등록인구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conn_path=I3, 2026. 9. 7. 인출 자료 재구성

○ 주요 4개 시로 인구 집중 심화, 군지역 인구 불균형 확대

- 포항시·구미시·경산시·경주시 4개 시의 인구가 2025년 기준 경북도 전체의 55.9%를 차지함. 이 비중은 2021년 55.2%보다 높아져, 도시지역으로의 인구 집중이 다소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인구 5만 명 미만인 군지역은 인구 규모가 작은 가운데 감소가 지속되어, 지역 간 인구 불균형과 소멸 위험이 커지고 있음



자료 : 국가데이터처(2026), 「주민등록인구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conn_path=I3, 2026. 9. 7. 인출 자료 재구성

[그림 Ⅱ-2] 경상북도 시군별 연평균 증감률(2021~2025)

(2) 세대수

❍ 인구 감소에도 세대수는 증가해 세대 소형화 진행

- 경상북도 세대수는 2021년 1,263,588세대에서 2025년 1,295,685세대로 32,097세대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감률은 0.63%임
- 같은 기간 인구가 연평균 0.95%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평균 세대원 수는 2.06명에서 1.93명으로 줄어, 세대 분화와 1인 세대 증가에 따른 세대 소형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임. 다만 세대수 증가율은 전국(0.87%)보다 낮음

❍ 2025년 세대수 증가 폭이 전년의 절반 이하로 둔화

- 경북 세대수의 전년 대비 증가 폭은 2022~2024년 매년 9천 세대 수준이었으나 2022년 9,592세대, 2023년 9,320세대, 2024년 9,068세대, 2025년에는 4,117세대로 크게 줄었음
- 2025년에는 22개 시군 중 12개 시군에서 세대수가 전년보다 감소하였는데 영천시, 울릉군 등은 감소 폭이 두드러져, 세대수도 정체·감소 국면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구미·경산·포항 중심으로 증가, 일부 시군은 세대수 감소

- 연평균 증감률은 구미시(1.40%)가 가장 높았고, 경산시(1.37%), 고령군(1.17%), 안동시(1.05%), 울릉군(0.96%) 등의 순으로 높았음
- 증가 인원은 구미시(10,439세대), 경산시(6,979세대), 포항시(6,438세대) 순으로 많았으며, 이들 3개 시가 도 전체 세대 증가분의 74.3%를 차지함
- 반면 문경시(-0.70%), 영덕군(-0.64%), 봉화군(-0.57%), 칠곡군(-0.18%), 청송군(-0.17%), 상주시(-0.10%) 6개 시군은 4년간 세대수가 감소하였는데 이들 지역은 인구 감소율도 높은 지역으로, 인구와 세대가 함께 줄어드는 축소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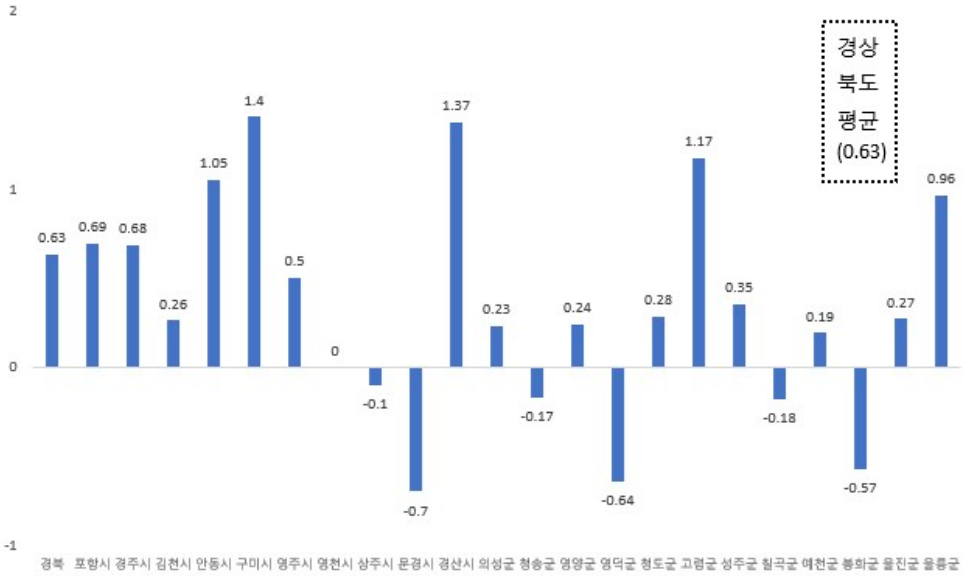
<표 Ⅱ-2> 경상북도 시군별 세대수 및 증감률(2021~2025)

(단위: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감률
	세대수	세대수	세대수	세대수	세대수	
전국	23,472,895	23,705,814	23,914,851	24,118,928	24,300,087	0.87
경북	1,263,588	1,273,180	1,282,500	1,291,568	1,295,685	0.63
포항시	232,201	232,371	233,932	237,089	238,639	0.69
경주시	123,071	124,027	124,577	124,985	126,452	0.68
김천시	68,393	69,038	69,125	69,000	69,098	0.26
안동시	77,666	77,759	78,283	80,157	80,964	1.05
구미시	182,645	184,786	187,139	190,392	193,084	1.40
영주시	50,271	50,663	51,423	51,571	51,283	0.50
영천시	53,904	54,431	54,976	54,862	53,903	0.00
상주시	48,965	49,315	49,493	49,163	48,776	-0.10
문경시	37,069	37,056	36,814	36,638	36,039	-0.70
경산시	124,869	127,392	129,264	131,633	131,848	1.37
의성군	28,798	29,005	29,471	29,104	29,065	0.23
청송군	14,029	14,038	13,999	13,985	13,934	-0.17
영양군	9,055	9,070	8,994	8,954	9,142	0.24
영덕군	19,895	19,741	19,725	19,486	19,389	-0.64
청도군	23,251	23,443	23,525	23,427	23,511	0.28
고령군	16,556	16,758	17,023	17,301	17,343	1.17
성주군	23,621	23,918	24,059	24,108	23,950	0.35
칠곡군	53,883	54,443	54,578	53,873	53,506	-0.18
예천군	27,771	28,155	28,145	27,988	27,980	0.19
봉화군	16,882	16,830	16,823	16,600	16,502	-0.57
울진군	25,535	25,462	25,527	25,584	25,814	0.27
울릉군	5,258	5,479	5,605	5,668	5,463	0.96

자료 : 국가데이터처(2026), 「주민등록인구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B3&conn_path=I3, 2026. 9. 9 인출 자료 재구성

(단위: %)



자료 : 국가데이터처(2026), 「주민등록인구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B3&conn_path=I3, 2026. 9. 9 인출 자료 재구성

[그림 Ⅱ-3] 경상북도 시군별 연평균 세대 증감률(2021~2025)

(3) 1세대당 인구수

○ 경북 1세대당 인구수 1.93명으로 전국보다 작고 감소 속도도 빠름

- 경상북도 1세대당 인구수는 2017년 2.06명에서 2025년 1.93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증감률은 -0.81%임
- 전국(2.20명→2.10명, -0.58%)보다 1세대당 인구수가 작고 감소 속도도 빨라, 전국과의 격차가 2017년 0.13명에서 2025년 0.17명으로 확대됨
- 경북은 2021년 1.99명으로 처음 2명 미만으로 떨어졌고,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자료 : 국가데이터처(2026), 「주민등록인구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B3&conn_path=I3, 2026. 9. 9 인출 자료 재구성

[그림 Ⅱ-4] 경상북도 인구 및 세대수 연도별 추이(2021~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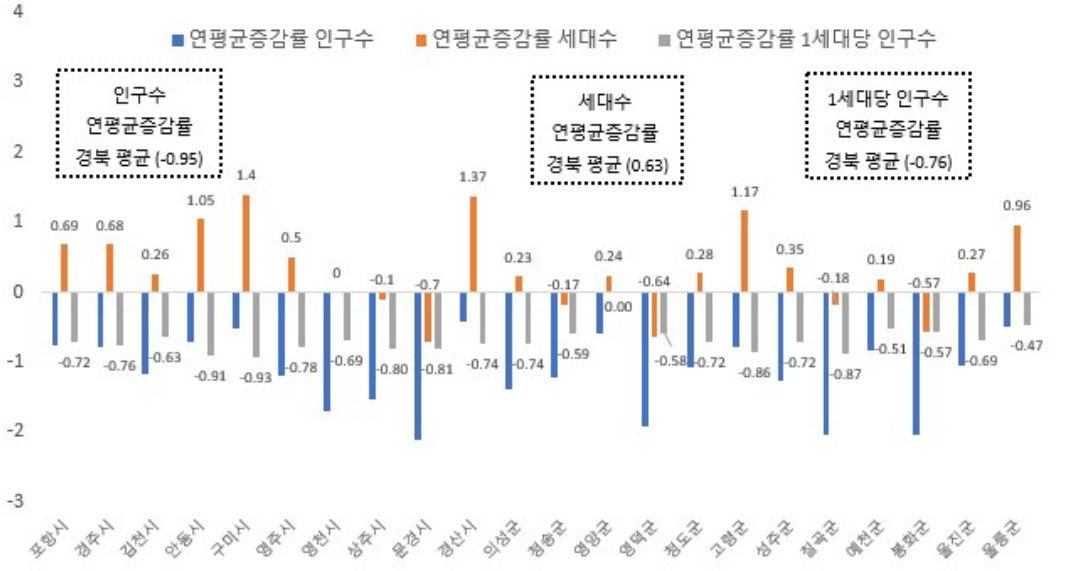
❍ 군지역 대부분은 1.8명 미만으로 소규모 세대 중심 구조를 형성

- 2025년 기준 1세대당 인구수가 2명 이상인 지역은 구미시(2.09명), 포항시(2.05명), 경산시(2.00명) 3곳 뿐임
- 1세대당 인구수가 1.8명 미만인 지역은 11개 시군이며, 이 가운데 10곳이 군지역임. 특히 울릉군(1.59명), 의성군(1.65명), 청송군(1.68명), 영덕군(1.69명)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1인 및 고령 부부 세대 등 소규모 세대 비중이 높은 것으로 여겨짐

❍ 도시지역은 1세대당 인구수 감소가 빠르고 군지역은 둔화되어 지역 간 격차는 축소 경향

- 연평균 감소율이 높은 지역은 고령군(-0.98%), 구미시(-0.97%), 칠곡군(-0.92%), 경산시(-0.90%) 순임. 상대적으로 세대 규모가 컸던 도시 지역과 인접 지역에서 세대 소형화가 빠르게 진행됨

- 반면 영양군(-0.42%), 청송군·예천군(-0.51%)은 1세대당 인구 감소율이 전국보다 낮았으며. 영양군은 2023년 1.71명에서 2025년 1.74명으로 오히려 증가함
- 이미 세대 규모가 작아진 군지역은 감소 폭이 둔화되고 도시지역은 빠르게 축소되면서, 시군 간 세대 규모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임



자료 : 국가데이터처(2026), 「주민등록인구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B3&conn_path=I3, 2026. 9. 9 인출 자료 재구성

[그림 Ⅱ-5] 경상북도 시군별 인구, 세대수, 1세대당 인구수 연평균 증감률(2021~2025)

<표 Ⅱ-3> 경상북도 시군별 1세대당 인구수 추이(2017~2025)

(단위: 명(%))

구분	2017	2019	2021	2023	2025	연평균증감률
전국	2.20	2.17	2.15	2.12	2.10	-0.58
경북	2.06	2.02	1.99	1.96	1.93	-0.81
포항시	2.17	2.14	2.11	2.07	2.05	-0.71
경주시	2.05	2.01	1.99	1.96	1.93	-0.75
김천시	2.05	2.02	1.99	1.96	1.94	-0.69
안동시	2.02	1.99	1.95	1.91	1.88	-0.89
구미시	2.26	2.21	2.17	2.13	2.09	-0.97
영주시	2.03	1.99	1.95	1.92	1.89	-0.89
영천시	1.89	1.86	1.82	1.79	1.77	-0.82
상주시	1.95	1.92	1.90	1.87	1.84	-0.72
문경시	1.92	1.90	1.87	1.84	1.81	-0.73
경산시	2.15	2.10	2.06	2.02	2.00	-0.90
의성군	1.76	1.73	1.70	1.67	1.65	-0.80
청송군	1.75	1.73	1.72	1.70	1.68	-0.51
영양군	1.80	1.77	1.74	1.71	1.74	-0.42
영덕군	1.78	1.76	1.73	1.70	1.69	-0.65
청도군	1.80	1.78	1.76	1.73	1.71	-0.64
고령군	1.85	1.81	1.77	1.74	1.71	-0.98
성주군	1.81	1.78	1.75	1.72	1.70	-0.78
칠곡군	2.11	2.07	2.03	1.99	1.96	-0.92
예천군	2.01	1.98	1.97	1.95	1.93	-0.51
봉화군	1.82	1.79	1.76	1.74	1.72	-0.70
울진군	1.87	1.85	1.83	1.80	1.78	-0.61
울릉군	1.69	1.64	1.62	1.61	1.59	-0.76

자료 : 국가데이터처(2026), 「주민등록인구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B3&conn_path=I3, 2026. 9. 9 인출 자료 재구성

2) 출생·사망 및 자연 증가

(1) 조출생률

○ 경상북도 조출생률 4.1명, 전국보다 낮고 격차 확대

- 경북의 조출생률은 2017년 6.7명에서 2025년 4.1명으로 하락하였으며, 연평균 증감률은 -5.95%임. 전국(7.0명→5.0명, -4.12%)보다 하락 속도가 빨라, 전국과의 격차가 2017년 0.3명에서 2025년 0.9명으로 확대됨
- 2023년 저점(4.0명) 이후 2025년 4.1명으로 소폭 반등하였으나, 전국 반등 폭(4.5명→5.0명)에는 크게 못 미침

○ 최근 반등은 도시지역 중심이며, 군지역은 지속적 하락으로 양극화 추세

- 2023년 대비 2025년 조출생률은 포항시(4.1명→4.7명), 경산시(4.4명→5.1명), 구미시(4.6명→5.0명) 등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함
- 반면 여러 군지역 특히 울릉군(2.9명→1.9명), 청송군(3.2명→2.2명), 의성군(3.5명→2.6명), 칠곡군(3.0명→2.4명)은 같은 기간 하락세가 이어짐
- 2025년 기준 경산시·예천군(5.1명), 구미시(5.0명), 김천시(4.9명)는 전국 수준 이상인 반면 조출생률이 3.0명 미만인 시군도 10곳에 달해 지역 간 출생 격차가 뚜렷함

○ 영양·봉화·울릉은 조출생률 2명 미만, 칠곡은 가장 큰 폭으로 하락

- 2025년 조출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영양군(1.5명), 봉화군(1.7명), 울릉군(1.9명)으로,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가 2명에도 미치지 못함
- 칠곡군은 2017년 8.6명으로 도내 상위권이었으나 2025년 2.4명으로 떨어져 연평균 -14.75%의 가장 큰 하락률을 보임. 이어 영양군(-13.07%), 봉화군(-12.83%), 청송군(-9.53%) 순으로 하락 폭이 큼
- 예천군은 4.9명에서 5.1명으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증가(연평균 0.50%)하였는데 이는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에 따른 젊은 층 유입의 영향으로 보임

<표 Ⅱ-4> 경상북도 시군별 조출생률 추이(2017~2025)

(단위: 인구1천명당 명(%))

구분	2017년	2019년	2021년	2023년	2025년	연평균증감률
전국	7.0	5.9	5.1	4.5	5.0	-4.12
경북	6.7	5.5	4.6	4.0	4.1	-5.95
포항시	6.9	5.3	4.4	4.1	4.7	-4.69
경주시	5.3	4.4	4.2	4.0	4.0	-3.46
김천시	7.5	6.3	5.8	4.9	4.9	-5.18
안동시	7.1	5.4	4.7	3.9	3.8	-7.52
구미시	8.9	6.9	5.8	4.6	5.0	-6.95
영주시	4.9	3.8	3.7	3.0	3.3	-4.82
영천시	5.9	6.5	5.3	4.6	4.0	-4.74
상주시	4.4	4.4	3.3	3.1	2.6	-6.36
문경시	5.3	4.4	4.2	3.1	2.7	-8.09
경산시	8.1	6.3	5.3	4.4	5.1	-5.62
의성군	4.2	4.9	3.5	3.5	2.6	-5.82
청송군	4.9	4.6	3.6	3.2	2.2	-9.53
영양군	4.6	4.4	2.4	1.9	1.5	-13.07
영덕군	5.4	4.8	3.0	2.4	2.9	-7.48
청도군	3.3	3.1	2.2	2.3	2.6	-2.94
고령군	5.1	3.6	3.2	2.9	3.0	-6.42
성주군	6.1	4.8	4.3	3.5	3.3	-7.39
칠곡군	8.6	5.7	3.9	3.0	2.4	-14.75
예천군	4.9	6.3	5.3	5.1	5.1	0.50
봉화군	5.1	4.4	2.3	2.0	1.7	-12.83
울진군	5.2	4.8	4.1	3.8	4.1	-2.93
울릉군	3.3	4.6	2.9	2.9	1.9	-6.67

주 : 조출생률은 연간 총출생아수를 당해 연도 주민등록인구(7월 1일 기준)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비율
자료 : 국가데이터처(2026), 「인구동향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I &conn_path=I3, 2026. 9. 10 인출 자료 재구성

(2) 합계출산율

❍ 경북의 합계출산율은 0.93명으로 전국보다 높으나, 출생아 수는 8년간 42% 감소

- 경북의 합계출산율은 2017년 1.26명에서 2023년 0.86명까지 하락한 뒤, 2025년 0.93명으로 반등함

- 동 기간 동안 합계출산율을 전국(2017년 1.05명→2025년 0.80명)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전국과의 격차는 0.21명에서 0.13명으로 좁혀졌음
- 출생아 수는 17,957명에서 10,417명으로 7,540명(42.0%)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감소율(-6.58%)은 전국(-4.18%)보다 큼
- 2023년 대비 2025년 출생아 수 증가율은 2.3%로, 전국(10.6%)에 비해 반등 폭은 다소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음

❍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출생 규모는 가임 인구 감소로 축소

- 경북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반면, 조출생률(〈표 Ⅱ-4〉 참조)은 전국보다 낮음. 이는 여성 1명당 출산 수준보다 가임기 여성 인구 자체의 감소가 출생아 수 감소를 주도하고 있음을 시사함
- 특히 의성군(1.16명), 영덕군(1.17명) 등 군지역은 합계출산율이 1명을 넘지만 연간 출생아 수는 100명 안팎에 그쳐, 청년·여성 인구 유출이 출생 기반을 약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여겨짐

❍ 출생아 절반 이상이 포항·구미·경산에 집중, 6개 군은 연간 출생아 100명 미만

- 2025년 포항시(2,300명), 구미시(2,035명), 경산시(1,338명)의 출생아 수가 경상북도 전체의 54.5%를 차지하였으며, 2017년(52.0%)보다 비중이 높아짐
- 반면 울릉군(17명), 영양군(24명), 봉화군(49명), 청송군(52명), 고령군(89명), 영덕군(96명) 6개 군은 연간 출생아 수가 100명 미만임
- 출생아 수 연평균 감소율은 칠곡군(-16.27%), 봉화군(-14.21%), 영양군(-13.97%), 청송군(-10.65%) 순으로 높음
- 칠곡군은 1,039명에서 251명으로 약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합계출산율(0.58명)도 도내 최저임. 반면 예천군은 합계출산율(1.27명)이 도내 최고이며, 출생아 수도 231명에서 277명(연평균 2.30%)으로 유일하게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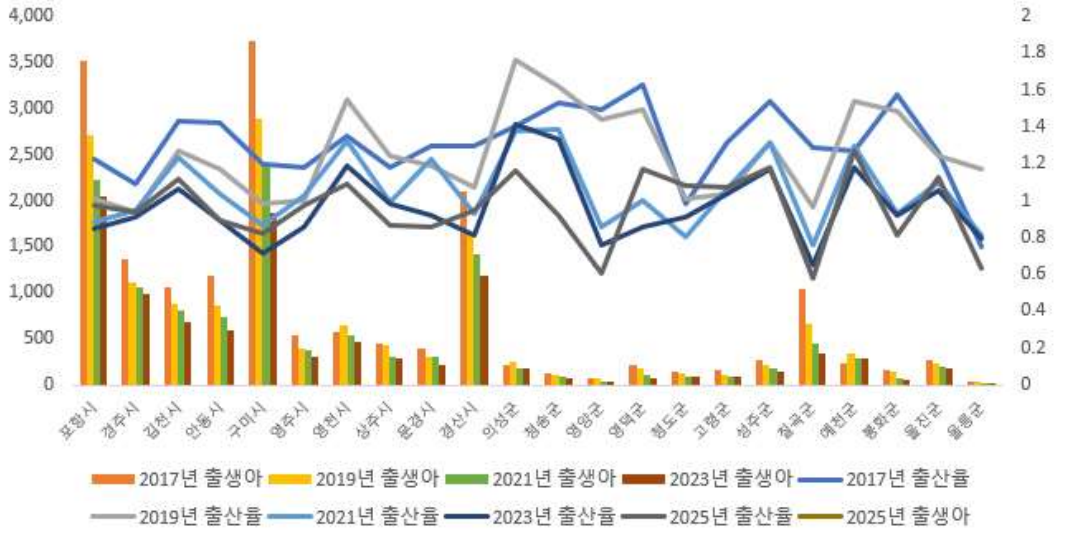
<표 Ⅱ-5> 경상북도 시군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추이(2017~2025)

(단위: 명(%))

구분	2017년		2019년		2021		2023		2025		출생아 연평균 증감률
	출산율	출생아	출산율	출생아	출산율	출생아	출산율	출생아	출산율	출생아	
전국	1.05	357,771	0.92	302,676	0.81	260,562	0.72	230,028	0.80	254,341	-4.18
경북	1.26	17,957	1.09	14,472	0.97	12,045	0.86	10,186	0.93	10,417	-6.58
포항시	1.22	3,511	1.01	2,701	0.88	2,221	0.85	2,040	0.97	2,300	-5.15
경주시	1.09	1,364	0.94	1,112	0.95	1,062	0.91	981	0.94	971	-4.16
김천시	1.43	1,066	1.27	878	1.23	809	1.06	675	1.12	658	-5.85
안동시	1.42	1,185	1.17	868	1.04	737	0.89	600	0.89	587	-8.41
구미시	1.20	3,727	0.98	2,891	0.87	2,409	0.71	1,861	0.82	2,035	-7.28
영주시	1.18	535	1.00	395	1.03	375	0.86	302	0.97	323	-6.11
영천시	1.35	584	1.55	654	1.32	539	1.19	465	1.09	385	-5.07
상주시	1.18	447	1.24	437	0.99	314	0.98	292	0.87	238	-7.58
문경시	1.30	390	1.19	313	1.22	300	0.92	214	0.86	178	-9.34
경산시	1.30	2,091	1.07	1,639	0.93	1,409	0.81	1,179	0.95	1,338	-5.43
의성군	1.40	221	1.76	255	1.38	178	1.41	177	1.16	125	-6.88
청송군	1.53	128	1.62	116	1.39	88	1.33	77	0.92	52	-10.65
영양군	1.49	80	1.44	74	0.86	40	0.76	30	0.61	24	-13.97
영덕군	1.63	208	1.49	180	1.00	105	0.86	81	1.17	96	-9.21
청도군	0.98	143	1.01	134	0.80	93	0.91	97	1.08	103	-4.02
고령군	1.31	171	1.04	116	1.06	100	1.04	89	1.07	89	-7.84
성주군	1.54	273	1.31	211	1.31	184	1.17	147	1.18	135	-8.43
칠곡군	1.29	1,039	0.96	662	0.76	443	0.65	336	0.58	251	-16.27
예천군	1.27	231	1.54	337	1.30	293	1.18	282	1.27	277	2.30
봉화군	1.57	167	1.48	141	0.93	70	0.92	59	0.81	49	-14.21
울진군	1.26	264	1.24	235	1.10	196	1.05	176	1.13	186	-4.28
울릉군	0.75	32	1.17	44	0.81	26	0.79	26	0.63	17	-7.60

주 :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자료 : 국가데이터처(2026), 「인구동향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I3,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I&conn_path=I3, 2026. 9. 10 인출 자료 재구성



자료 : 국가데이터처(2026), 「인구동향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I3,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I&conn_path=I3, 2026. 9. 10 인출
자료 재구성

[그림 Ⅱ-6] 경상북도 시군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추이(2017~2025)

(3) 조사망률

○ 경북의 조사망률 10.0명, 전국의 1.4배 수준

- 경상북도 조사망률은 2020년 8.6명에서 2024년 10.0명으로 상승하였으며, 연평균 증감률은 3.84%임
- 증가 속도는 전국(5.9명→7.0명, 4.37%)보다 다소 낮으나, 수준은 전국의 약 1.4배임. 전국과의 격차도 2.7명에서 3.0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경북의 높은 고령인구 비중이 반영된 결과로 여겨짐

○ 조사망률은 2022년 정점 이후 소폭 하락했으나, 사망이 출생의 2배를 넘는 자연감소 구조가 고착

- 경북 조사망률은 2022년 10.7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2023년 9.9명, 2024년 10.0명으로 소폭 낮아짐. 대부분의 시군이 2022년에 가장 높은 값을 보여,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망 증가의 영향으로 보임
- 그러나 상주시(13.8명→15.1명), 영양군(17.5명→19.5명), 봉화군(17.1명→18.4

명) 등은 2024년에 다시 상승함

- 2023년 기준 경북 조사망률(9.9명)은 조출생률(4.0명)의 약 2.5배로, 사망이 출생을 크게 웃도는 인구 자연감소 구조가 고착된 것으로 판단됨

<표 Ⅱ-6> 경상북도 시군별 조사망률 추이(2020~2024)

(단위: 인구1천명당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증감률
전국	5.9	6.2	7.3	6.9	7.0	4.37
경북	8.6	8.8	10.7	9.9	10.0	3.84
포항시	6.2	6.4	7.6	7.3	7.5	4.87
경주시	8.7	9.2	10.9	10.2	9.9	3.28
김천시	9.7	9.3	12.0	11.0	10.7	2.48
안동시	9.8	10.4	12.9	12.0	11.5	4.08
구미시	4.3	4.3	5.5	5.0	5.0	3.84
영주시	10.2	11.2	13.6	12.6	12.2	4.58
영천시	11.8	11.5	13.9	13.3	13.3	3.04
상주시	12.5	12.5	15.6	13.8	15.1	4.84
문경시	12.0	12.2	15.6	13.8	14.7	5.20
경산시	6.5	6.2	7.7	7.4	7.3	2.94
의성군	18.0	18.2	22.7	21.2	21.1	4.05
청송군	15.7	14.1	18.5	15.8	16.2	0.79
영양군	15.8	15.0	18.7	17.5	19.5	5.40
영덕군	15.3	15.8	20.1	17.4	18.6	5.00
청도군	15.5	15.5	18.4	16.3	16.9	2.19
고령군	13.2	13.8	16.2	13.8	14.3	2.02
성주군	12.7	12.9	15.1	15.4	15.2	4.59
칠곡군	6.9	7.2	8.2	7.5	8.5	5.35
예천군	12.4	11.7	15.0	15.8	13.6	2.34
봉화군	15.4	15.1	17.8	17.1	18.4	4.55
울진군	11.9	12.7	14.3	13.7	14.0	4.15
울릉군	7.0	8.4	9.8	8.0	8.4	4.66

주 : 조사망률은 연간 총사망자수를 당해 연도 주민등록인구(7월 1일 기준)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비율
자료 : 국가데이터처(2026), 「인구동향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I&conn_path=I3, 2026. 9. 10 인출 자료 재구성

○ 의성 등 8개 시군 조사망률은 15명 이상으로 구미시와 최대 4배 이상 격차

- 2024년 조사망률이 15명 이상인 지역은 8개 시군(의성군 21.1명, 영양군 19.5명, 영덕군 18.6명, 봉화군 18.4명, 청도군 16.9명, 청송군 16.2명, 성주군 15.2명, 상주시 15.1명)으로, 대부분 북부·동부의 고령화된 군지역임
- 반면 구미시(5.0명)는 전국보다 낮았고, 경산시(7.3명), 포항시(7.5명), 울릉군(8.4명), 칠곡군(8.5명)도 상대적으로 낮음. 그러나 조사망률이 가장 높은 의성군과 최저인 구미시 간 격차는 4.2배에 달함
- 연평균 증가율은 영양군(5.40%), 칠곡군(5.35%), 문경시(5.20%), 영덕군(5.00%) 순으로 높음. 칠곡군은 조사망률 수준은 낮으나 증가 속도가 빨라, 출생 감소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지역으로 주목됨

(4) 자연증감

○ 경북의 자연증가율 -5.9‰, 전국의 약 2.5배 수준의 자연감소

- 경상북도 자연증가율은 2020년 -3.8명에서 2022년 -6.3명까지 낮아진 뒤, 2023~2024년 −5.9명을 유지함. 연평균 0.53%p씩 감소하여 전국(-0.45%p)보다 악화 속도가 빠름
- 2024년 기준 전국(-2.4명)의 약 2.5배 수준으로, 출생아 수 감소와 사망자 증가가 맞물려 자연감소 폭이 크게 확대됨

○ 2022년 구미시까지 자연감소로 전환, 도내 전 시군 자연감소

- 구미시는 2020년 2.2명, 2021년 1.5명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출생이 사망보다 많은 지역이었음. 그러나 2022년 -0.1명으로 자연감소로 전환되었고, 이후 도내 22개 시군 모두 자연감소 상태가 이어짐
- 상대적으로 청년층 비중이 높은 경산시(-2.8명), 포항시(-3.0명)도 자연감소 폭이 점차 커지고 있음

<표 Ⅱ-7> 경상북도 시군별 자연증가율 추이(2020~2024)

(단위: 인구1천명당 명(%)p)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증감폭(%p)
전국	-0.6	-1.1	-2.4	-2.4	-2.4	-0.45
경북	-3.8	-4.2	-6.3	-5.9	-5.9	-0.53
포항시	-1.3	-1.9	-3.2	-3.1	-3.0	-0.43
경주시	-4.3	-5.0	-6.9	-6.2	-6.2	-0.48
김천시	-3.7	-3.5	-6.5	-6.1	-6.1	-0.60
안동시	-5.2	-5.7	-8.6	-8.1	-7.9	-0.68
구미시	2.2	1.5	-0.1	-0.4	-0.1	-0.58
영주시	-6.7	-7.6	-10.3	-9.6	-8.9	-0.55
영천시	-6.2	-6.2	-8.6	-8.7	-8.6	-0.60
상주시	-8.9	-9.2	-12.2	-10.7	-12.1	-0.80
문경시	-7.4	-8.0	-11.9	-10.7	-11.2	-0.95
경산시	-1.4	-0.9	-2.9	-2.9	-2.8	-0.35
의성군	-13.7	-14.7	-19.0	-17.6	-18.2	-1.13
청송군	-12.6	-10.5	-15.4	-12.6	-13.1	-0.13
영양군	-12.7	-12.6	-16.7	-15.6	-17.8	-1.28
영덕군	-11.2	-12.9	-17.0	-15.1	-16.2	-1.25
청도군	-12.9	-13.3	-15.7	-14.0	-14.8	-0.48
고령군	-10.0	-10.6	-13.4	-10.9	-11.6	-0.40
성주군	-8.4	-8.6	-11.4	-11.9	-11.9	-0.88
칠곡군	-2.9	-3.3	-4.5	-4.5	-5.7	-0.70
예천군	-6.7	-6.5	-10.3	-10.7	-8.5	-0.45
봉화군	-12.0	-12.8	-15.5	-15.1	-16.6	-1.15
울진군	-7.7	-8.6	-10.4	-9.9	-9.9	-0.55
울릉군	-3.7	-5.4	-7.6	-5.1	-4.7	-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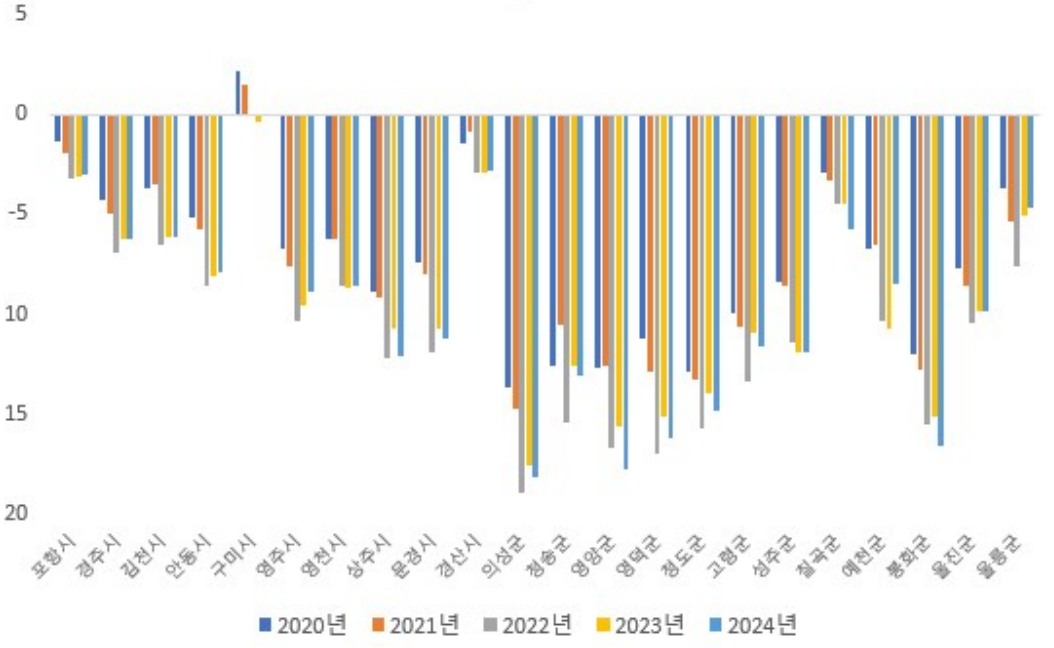
주 : 자연증가율은 조출생률에서 조사망률을 빼서 산출
자료 : 국가데이터처(2026), 「인구동향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I&conn_path=I3, 2026. 9. 10 인출 자료 재구성

○ 의성 등 10개 시군이 -10명 이하, 북부·동부 군지역 중심으로 자연감소 심화

- 2024년 자연증가율이 -10명 이하인 지역은 10개 시군(의성군 -18.2명, 영양군 -17.8명, 봉화군 -16.6명, 영덕군 -16.2명, 청도군 -14.8명, 청송군 -13.1명, 상주시 -12.1명, 성주군 -11.9명, 고령군 -11.6명, 문경시 -11.2명)으로, 인구

1천 명당 매년 10명 이상이 자연감소하고 있음

- 연평균 감소폭은 영양군(-1.28%p), 영덕군(-1.25%p), 봉화군(-1.15%p), 의성군(-1.13%p) 순으로 큼. 자연감소가 이미 심한 지역에서 악화 속도도 가장 빠르게 나타남. 이는 앞서 살펴본 낮은 조출생률과 높은 조사망률이 결합된 결과로, 해당 지역은 인구 유입 없이는 인구 유지가 어려운 구조임



자료 : 국가데이터처(2026), 「인구동향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I&conn_path=I3, 2026. 9. 10 인출 자료 재구성

[그림 Ⅱ-7] 경상북도 시군별 자연증가율 추이(2020~2024)

3) 인구 이동 및 구성

(1) 인구 이동

○ 2022년 이후 순유출로 전환, 2025년 순유출 9천여 명으로 최대

- 경상북도는 2021년 3,337명이 순유입되었으나, 2022년 순유출(-7,666명)로 전

환되었음. 이후 2023년 -8,209명, 2024년 -8,003명, 2025년 -9,214명으로 매년 7천~9천 명이 경북도 외로 순유출되고 있으며, 2022~2025년 누적 순유출은 33,092명에 달함

- 시도간 전입 규모는 2021년 약 13만 명에서 2025년 약 10.8만 명으로 줄었으나, 전출은 약 12.7만 명에서 11.7만 명으로 상대적으로 적게 줄었음. 전입 감소가 순유출의 주된 요인으로 나타남

❍ 구미·포항·칠곡·영천·경산 5개 시군이 순유출의 약 86% 차지

- 2022~2025년 누적 순유출은 포항시(-8,758명), 구미시(-8,534명), 칠곡군(-6,579명), 영천시(-3,104명), 경산시(-1,426명) 순으로 큼. 이들 5개 시군이도 전체 순유출의 85.8%를 차지하는데, 즉 인구이동 측면의 유출이 도시·산업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함
- 구미시는 조사 기간 5년 내내 순유출이 지속되었으나, 규모는 2022년 -4,337명에서 2025년 -953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칠곡군(2021년 -281명 → 2024년 -2,590명)과 영천시(2021년 844명 순유입 → 2025년 -1,991명)는 순유출 규모가 커지는 추세임
- 이러한 인구 유출은 대구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임. 경산시는 2021년 5,148명의 대규모 순유입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2025년에는 -1,855명으로 순유출로 전환됨

❍ 일부 시군은 최근 순유입으로 전환되었으나 규모는 제한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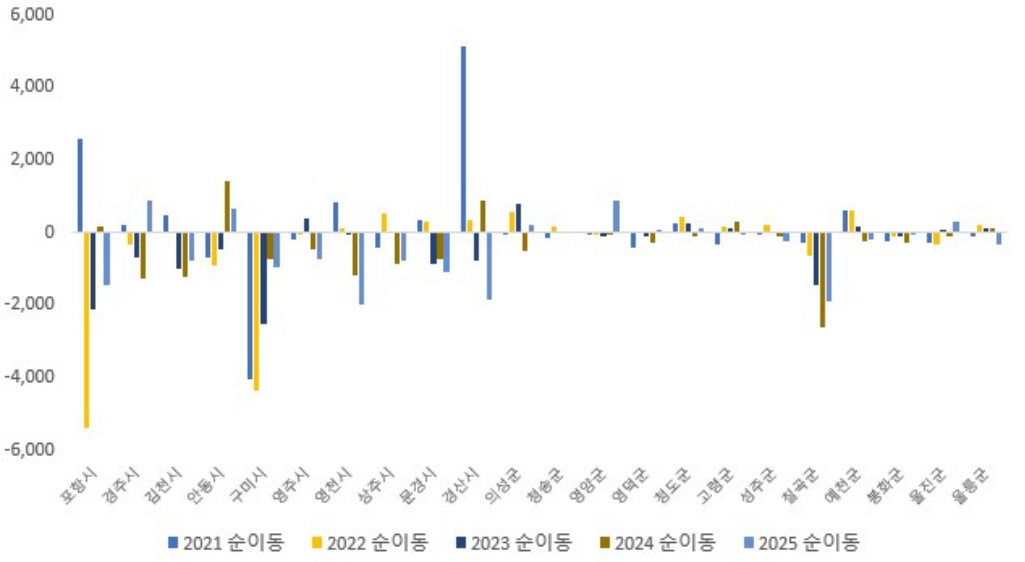
- 2025년 순유입을 기록한 지역은 영양군(901명), 경주시(860명), 안동시(679명), 울진군(284명), 의성군(199명) 청도군(140명), 영덕군(56명), 청송군(44명) 8개 시군이며, 안동시는 2021~2023년 순유출에서 2024년(1,434명) 이후 순유입으로 전환됨
- 영양군은 2025년 전입이 크게 늘어 순유입으로 돌아섰으나, 일시적 요인인지 지속적인 경향인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함. 이들 지역의 순유입 규모는 대부분 수백 명 수준에 그쳐, 앞서 살펴본 자연감소 규모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함

<표 Ⅱ-8> 경상북도 시군별 인구이동 현황(2021~2025)

(단위: 명)

	2021			2022			2023			2024			2025		
	순이동	시도간 전입	시도간 전출	순이동	시도간 전입	시도간 전출	순이동	시도간 전입	시도간 전출	순이동	시도간 전입	시도간 전출	순이동	시도간 전입	시도간 전출
경북	3,337	130,45	127,11	-7,666	110,01	117,67	-8,205	107,06	115,27	-8,003	109,65	117,65	-9,214	107,91	117,12
포항시	2,588	20,671	19,437	-5,371	14,759	19,071	-2,128	15,975	17,961	185	17,099	17,619	-1,444	16,524	18,292
경주시	210	12,901	11,874	-344	10,770	11,067	-674	10,649	10,992	-1,274	10,672	11,309	860	11,983	11,070
김천시	462	6,546	6,619	38	5,900	6,083	-1,006	5,343	6,080	-1,244	5,311	6,188	-768	5,499	6,196
안동시	-698	5,656	6,287	-900	5,089	5,626	-444	5,075	5,681	1,434	6,124	5,698	679	6,274	6,162
구미시	-4,055	15,961	19,647	-4,337	15,008	18,936	-2,506	15,063	18,126	-736	16,060	18,559	-953	16,645	19,050
영주시	-181	3,663	3,955	-44	3,539	3,738	404	4,073	3,753	-473	3,537	3,904	-746	3,457	3,964
영천시	844	6,685	6,131	129	5,429	5,364	-46	5,571	5,468	-1,196	5,296	6,003	-1,991	4,006	5,218
상주시	-403	3,917	4,156	510	4,049	3,669	10	3,562	3,572	-885	3,366	3,958	-794	3,269	3,725
문경시	337	4,496	4,268	305	3,755	3,580	-858	2,598	2,981	-746	2,496	2,975	-1,084	2,354	3,039
경산시	5,148	22,553	17,474	326	16,154	16,603	-759	16,432	18,228	862	18,059	18,653	-1,855	15,660	18,487
의성군	-62	2,306	2,128	561	2,339	1,793	774	2,443	1,795	-508	1,848	2,011	199	2,033	1,761
청송군	-139	1,146	1,150	145	1,074	948	28	994	947	6	943	887	44	1,015	892
영양군	-46	619	589	-26	587	575	-113	525	553	-55	492	518	901	978	423
영덕군	-407	1,330	1,442	22	1,233	1,296	-95	1,139	1,191	-304	1,139	1,154	56	1,315	1,192
청도군	276	2,927	2,580	423	2,514	2,125	271	2,324	1,974	-123	2,212	2,183	140	2,225	1,995
고령군	-316	2,109	2,334	155	2,132	1,940	108	2,055	1,940	283	2,391	2,096	-62	1,881	1,952
성주군	-39	2,717	2,615	210	2,468	2,143	27	2,192	2,190	-122	2,014	2,054	-218	2,011	2,051
칠곡군	-281	5,632	6,056	-623	4,905	5,653	-1,464	4,613	5,570	-2,590	4,287	5,550	-1,902	4,348	5,241
예천군	628	2,597	2,426	606	2,388	2,275	145	2,068	2,178	-252	2,084	2,181	-171	2,024	2,190
봉화군	-220	1,373	1,317	-116	1,270	1,156	-88	1,149	1,120	-280	1,022	1,092	-73	1,087	1,067
울진군	-304	2,542	2,702	-314	2,170	2,364	81	2,427	2,303	-88	2,302	2,287	284	2,604	2,276
울릉군	-92	699	686	208	833	677	128	798	670	103	901	779	-316	723	886

자료 : 국가데이터처(2026), 「국내인구이동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1_A01&conn_path=I3, 2026. 9. 18 인출 자료 재구성



자료 : 국가데이터처(2026), 「국내인구이동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1_A01&conn_path=I3, 2026. 9. 18 인출 자료 재구성

[그림 Ⅱ-8] 경상북도 시군별 순이동 추이(2021~2025)

(2) 인구 구성

❍ 경북의 고령인구 비중은 27.5%, 전국보다 약 6%p 높은 초고령사회

- 경상북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 503,783명에서 2025년 688,172명으로 184,389명(36.6%) 증가하였으며, 연평균증가율은 3.96%임
- 고령인구 비중은 2017년 18.9%에서 2019년 20.4%로 초고령사회(20% 이상)에 진입하였고, 2025년에는 27.5%로 전국(21.2%)보다 6.3%p 높음
- 노령화지수(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는 2017년 155.4에서 2025년 285.4으로 상승하여,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의 약 2.9배에 이름. 이러한 수치는 전국 평균 206.3보다 매우 높음

❍ 유소년인구 4분의 1 이상 감소, 생산가능인구도 지속 감소

- 14세 이하 유소년인구는 324,290명에서 235,170명으로 89,120명(27.5%) 감소

하였으며, 연평균감소율(-3.94%)은 전국(-3.15%)보다 큼. 또한 비중도 12.2%에서 9.4%로 10% 아래로 떨어짐

- 15~64세 생산가능인구도 1,839,418명에서 1,583,184명으로 256,234명(13.9%) 감소하였으며, 연평균감소율(-1.86%)은 전국(-0.90%)의 약 2배임. 비중 또한 69.0%에서 63.2%로 낮아짐
- 결국 유소년·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만 증가하면서,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빠르게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8개 군 고령인구 비중이 40% 이상, 의성군은 고령인구가 생산가능인구 추월

- 2025년 고령인구 비중이 40% 이상인 지역은 8개 군 즉, 의성군(49.2%), 청도군(46.5%), 봉화군(45.4%), 청송군(45.3%), 영덕군(45.0%), 영양군(43.0%), 성주군(41.2%), 고령군(40.0%)이며, 모두 북부·동부 및 남부 군지역임. 또한 해당 군 지역은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율도 높았는데 유소년인구 연평균감소율이 고령군 -7.59%, 봉화군 -7.47%이며, 생산가능인구 연평균감소율이 봉화군 -4.11%, 영덕군 -3.95%임
- 의성군은 2025년 고령인구(23,570명)가 생산가능인구(22,180명)를 넘어서. 주민 2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수준임. 반면 고령인구 비중이 20% 미만인 지역은 구미시(14.2%)가 유일함

○ 고령인구 증가는 도시지역에서 빠르게 진행, 예천군은 유소년·생산가능인구 증가

- 고령인구 연평균증가율은 구미시(6.89%), 포항시(6.08%), 경산시(5.30%), 칠곡군(4.47%) 순으로 높음. 상대적으로 젊은 도시지역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에 따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반면 영덕군(1.43%), 영양군(1.75%), 의성군(1.89%) 등은 이미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 증가율이 낮게 나타남
- 예천군은 유소년인구(연평균 1.84%)와 생산가능인구(0.30%)가 모두 증가한 유일한 지역이며, 유소년인구 비중도 11.3%로 도내 최고 수준이어서, 도청 신도시 조성에 따른 젊은 가구 유입 효과가 인구구성에서도 확인됨

<표 Ⅱ-9> 경상북도 시군별 인구구성 추이(2017~2025)

(단위: 명(%))

구분	2017			2019			2021			2023			2025			연평균증감률		
	14세이하	15~64세	65세이상	14세이하	15~64세	65세이상	14세이하	15~64세	65세이상	14세이하	15~64세	65세이상	14세이하	15~64세	65세이상	14세 이하	15~6 4세	65세 이상
전국	6,785,965	37,636,473	7,356,106	6,466,872	37,356,074	8,026,915	6,124,546	36,663,230	8,851,033	5,663,861	35,931,057	9,730,411	5,255,180	35,021,376	10,840,822	-3.15	-0.90	4.97
경북	324,290	1,839,418	503,783	306,926	1,794,828	540,239	288,303	1,728,768	586,593	260,851	1,662,987	630,486	235,170	1,583,184	688,172	-3.94	-1.86	3.98
포항	67,774	373,106	72,952	64,404	360,620	82,001	60,792	349,583	93,477	55,901	333,080	104,052	51,928	319,836	116,943	-3.27	-1.91	6.08
경주	28,630	178,493	50,780	26,851	173,912	54,639	25,287	166,957	59,645	23,021	160,172	64,296	20,758	152,865	70,432	-3.94	-1.92	4.17
김천	17,145	96,227	29,536	16,476	93,501	31,252	15,892	90,679	33,668	14,503	87,182	35,830	13,017	82,054	38,720	-3.38	-1.97	3.44
안동	19,806	110,518	35,948	17,624	104,522	37,906	16,513	100,127	40,332	14,835	95,692	42,408	13,376	93,759	45,475	-4.79	-2.03	2.98
구미	68,691	319,503	33,605	65,604	316,598	37,540	61,479	308,528	42,574	55,270	301,938	48,298	50,698	295,925	57,260	-3.73	-0.95	6.89
영주	11,893	70,937	25,541	10,826	66,982	27,259	9,925	63,117	28,900	8,972	60,773	30,454	7,886	56,796	32,480	-5.01	-2.74	3.05
영천	9,286	65,389	25,940	9,007	65,791	27,672	8,677	63,281	29,930	7,980	60,450	31,782	6,883	54,373	33,929	-3.67	-2.28	3.41
상주	9,623	62,789	28,535	9,034	61,832	29,822	8,373	56,063	31,130	7,593	53,516	32,749	6,508	48,771	34,609	-4.77	-3.11	2.44
문경	7,249	46,168	19,877	6,709	44,642	20,891	6,373	42,444	22,337	5,649	39,720	23,386	4,826	35,791	24,731	-4.96	-3.13	2.77
경산	33,616	187,499	38,370	32,327	188,779	42,079	31,200	189,752	47,417	28,301	185,927	51,977	25,862	179,984	58,007	-3.22	-0.51	5.30
의성	3,285	29,900	20,289	3,114	28,476	21,005	2,827	25,944	21,861	2,584	24,779	22,723	2,152	22,180	23,570	-5.15	-3.66	1.89
청송	1,796	15,437	8,773	1,608	14,673	9,135	1,438	13,571	9,530	1,347	12,629	10,043	1,186	11,589	10,588	-5.05	-3.52	2.38
영양	1,364	10,152	5,963	1,255	9,620	6,118	1,122	8,888	6,310	926	8,249	6,486	819	8,272	6,850	-6.18	-2.53	1.75
영덕	3,051	22,337	13,141	2,851	21,052	13,458	2,432	19,039	13,843	2,127	17,717	14,211	1,805	16,175	14,718	-6.35	-3.95	1.43
청도	2,795	25,772	14,779	2,648	24,721	15,541	2,453	22,994	16,444	2,206	21,768	17,342	1,895	19,572	18,650	-4.74	-3.38	2.95
고령	3,040	21,475	9,253	2,613	20,112	9,648	2,216	18,245	10,165	1,876	17,401	10,862	1,616	16,179	11,872	-7.59	-3.48	3.16
성주	3,391	28,908	12,839	3,112	27,426	13,477	2,876	25,553	14,413	2,522	24,159	15,405	2,178	21,780	16,762	-5.38	-3.48	3.39
칠곡	17,878	86,820	16,166	16,154	83,405	17,488	14,457	80,164	19,201	12,403	77,338	20,840	10,193	71,716	22,933	-6.78	-2.36	4.47
예천	5,272	28,523	15,458	6,864	31,847	16,389	6,897	31,606	17,236	6,589	30,838	17,898	6,102	29,218	18,567	1.84	0.30	2.32
봉화	2,692	19,621	10,946	2,372	18,556	11,222	2,065	16,920	11,777	1,756	15,615	12,232	1,447	14,024	12,844	-7.47	-4.11	2.02
울진	5,286	32,834	12,854	4,767	31,191	13,356	4,407	29,438	14,013	3,958	28,128	14,583	3,596	26,864	15,436	-4.70	-2.48	2.31
울릉	727	7,010	2,238	706	6,570	2,341	602	5,875	2,390	532	5,916	2,629	439	5,461	2,796	-6.11	-3.07	2.82

자료 : 국가데이터처(2026),「주민등록인구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5N&conn_path=I3, 2026. 9. 14 인출 자료 재구성

❍ 여성 고령인구 비중 31.0%로, 여성 인구 10명 중 3명이 고령자

- 여성 고령인구는 2017년 296,524명에서 2025년 383,278명으로 86,754명(29.3%) 증가하였으며, 여성 인구 중 고령인구 비중은 22.4%에서 31.0%로 상승함
- 남성 고령인구 비중은 15.5%에서 24.0%로 상승하였으며, 2023년(21.3%)부터 남성 인구도 20%를 넘어 초고령 단계에 진입함
- 고령인구 비중의 성별 격차는 2017년 6.9%p, 2025년 7.0%p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기대수명이 길어 고령층 비중이 구조적으로 높게 나타남

❍ 남성 고령인구 증가 속도가 더 빨라, 고령층 내 성비 격차는 완화

- 동 기간 남성 고령인구는 207,259명에서 304,894명으로 97,635명(47.1%)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이 여성(29.3%)보다 크게 높음. 이로 인해 고령인구 중 여성 비율은 58.9%에서 55.7%로 낮아졌음
- 고령인구 성비(여성 100명당 남성)는 69.9에서 79.5로 상승하여, 고령층 내 성별 불균형이 점차 완화되는 추세임

❍ 여성 생산가능인구 감소 폭이 남성보다 커, 여성의 생산가능인구 비중 60% 미만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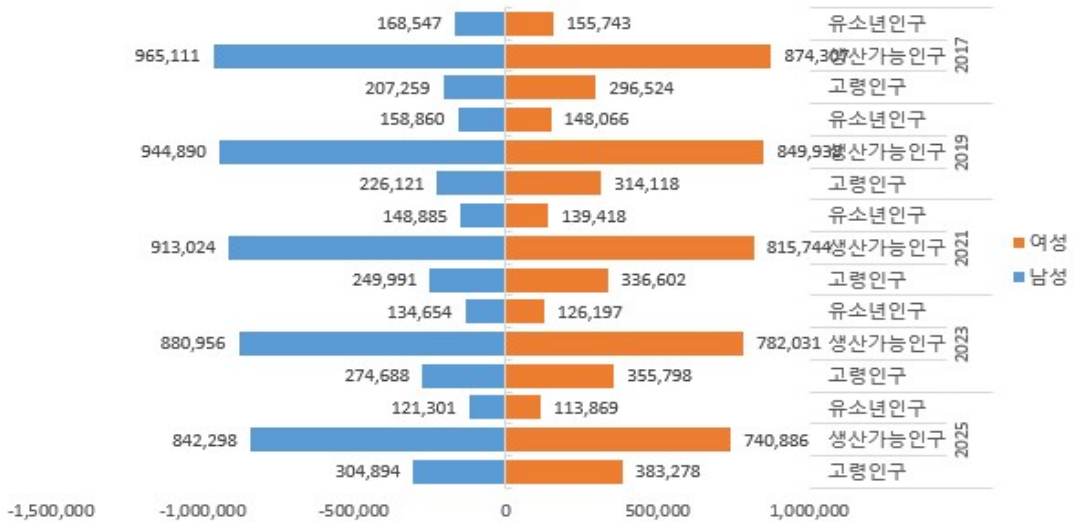
- 여성 생산가능인구는 874,307명에서 740,886명으로 133,421명(15.3%) 감소하였으며, 남성(122,813명, 12.7%)보다 감소 폭이 큼
- 여성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65.9%에서 59.8%로 떨어져 60% 아래로 내려갔으며, 생산가능인구 성비는 110.4에서 113.7로 높아져, 청장년층에서 여성 인구 감소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이는 앞서 살펴본 여성 인구의 높은 감소율과 출생아 수 감소의 배경으로 볼 수 있음
- 유소년인구는 남녀 모두 약 27~28% 감소하였으며, 비중은 여성은 11.7%에서 9.2%, 남성은 12.6%에서 9.6%로 두 성별 모두 10% 미만으로 떨어짐

<표 Ⅱ-10> 경상북도 연령별·성별 인구구조(2017~2025)

(단위: 명(%))

연도	총인구	여성				남성			
		소계	유소년 인구 (14세 이하)	생산가능 인구 (15~64세)	고령인구 (65세 이상)	소계	유소년 인구 (14세 이하)	생산가능 인구 (15~64세)	고령인구 (65세 이상)
2017	2,667,491	1,326,574	155,743	874,307	296,524	1,340,917	168,547	965,111	207,259
	구성비	100.0	11.7	65.9	22.4	100.0	12.6	72.0	15.5
2019	2,641,993	1,312,122	148,066	849,938	314,118	1,329,871	158,860	944,890	226,121
	구성비	100.0	11.3	64.8	23.9	100.0	11.9	71.1	17.0
2021	2,603,664	1,291,764	139,418	815,744	336,602	1,311,900	148,885	913,024	249,991
	구성비	100.0	10.8	63.1	26.1	100.0	11.3	69.6	19.1
2023	2,554,324	1,264,026	126,197	782,031	355,798	1,290,298	134,654	880,956	274,688
	구성비	100.0	10.0	61.9	28.1	100.0	10.4	68.3	21.3
2025	2,506,526	1,238,033	113,869	740,886	383,278	1,268,493	121,301	842,298	304,894
	구성비	100.0	9.2	59.8	31.0	100.0	9.6	66.4	24.0

자료 : 국가데이터처(2026), 「주민등록인구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5N&conn_path=I3, 2026. 9. 14 인출 자료 재구성



자료 : 국가데이터처(2026), 「주민등록인구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5N&conn_path=I3, 2026. 9. 14 인출 자료 재구성

[그림 Ⅱ-9] 경상북도 연령별·성별 인구구조(2017~2025)

(3)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 경북 노년부양비 40.5, 생산가능인구 2.5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

- 경상북도 노년부양비는 2017년 26.9에서 2025년 40.5로 13.6p 상승하여, 생산가능인구 약 2.5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는 구조임. 이는 전국 평균(19.1→29.9)보다 수준이 높고 상승 폭도 큼
- 유소년부양비는 17.3에서 14.2로 낮아졌으나, 노년부양비 상승 폭이 이를 크게 웃돌아 전체 부양 부담은 증가함
- 평균연령은 43.9세에서 48.5세로 4.6세 높아져, 전국(45.6세)보다 2.9세 높음

❍ 노령화지수는 285.4, 2025년 전 시군에서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를 추월

- 경북 노령화지수는 2017년 154.9에서 2025년 285.4로 상승하여,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의 약 2.9배임(전국 205.2)
- 구미시는 2017년 48.6으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유소년인구가 고령인구보다 많았으며, 2023년에도 87.3이었음. 그러나 2025년 112.9로 100을 넘어서면서 도내 모든 시군에서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많아짐
- 다만 구미시(112.9), 칠곡군(215.4), 경산시(220.5), 포항시(226.1)는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함

❍ 의성군 노년부양비 100 초과·평균연령 60세, 군지역 부양 부담 심화

- 의성군은 2025년 노년부양비가 103.4로, 고령인구가 생산가능인구보다 많으며, 노령화지수는 1,086.9로,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의 약 11배에 달함. 또한 평균연령도 60.0세로 도내에서 처음 60세에 도달함
- 노령화지수가 800 이상 지역은 청도군(961.5), 봉화군(872.7), 청송군(867.7), 영양군(816.6)이며, 이들 지역의 평균연령은 모두 57세를 넘음. 최고령 지역인 의성군(60.0세)과 최연소 지역인 구미시(42.5세)의 평균연령 차이는 17.5세로, 시군 간 연령구조 격차가 큼
- 예천군은 유소년부양비가 18.6에서 21.1로 상승하여 도내 최고 수준이며, 노령화지수도 305.6에서 300.3으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하락하여, 젊은 인구 유입 효과가 지속되고 있음

<표 Ⅱ-11> 경상북도 시군별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2017~2025)

(단위: 명, 세)

구분	2017				2019				2021				2023				2025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평균연령 (세)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평균연령 (세)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평균연령 (세)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평균연령 (세)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평균연령 (세)
전국	17.8	19.1	107.3	41.3	17.0	20.8	122.3	42.4	16.5	23.6	143.0	43.5	15.4	26.3	171.0	44.6	14.6	29.9	205.2	45.6
경북	17.3	26.9	154.9	43.9	16.7	29.2	174.6	45.0	16.3	32.9	201.9	46.3	15.2	35.9	236.8	47.4	14.2	40.5	285.4	48.5
포항	18.3	19.8	107.9	42.3	17.9	22.8	127.0	43.5	17.4	26.8	154.0	44.8	16.6	30.9	186.8	46.0	15.9	36.1	226.1	47.2
경주	15.4	26.7	173.3	44.5	14.7	28.8	196.5	45.5	14.5	32.6	224.5	46.8	13.7	36.1	264.2	48.0	12.7	40.4	318.6	49.0
김천	17.6	30.3	172.2	44.7	17.3	32.7	188.6	45.7	17.4	36.7	210.8	47.0	16.2	39.8	245.3	48.0	15.3	44.5	291.6	49.1
안동	17.6	31.4	178.5	44.9	16.4	34.8	212.2	46.3	16.0	38.7	241.7	47.5	15.0	42.5	283.9	48.7	13.8	46.7	337.8	49.6
구미	21.3	10.3	48.6	37.0	20.6	11.7	56.8	38.2	19.9	13.7	69.2	39.7	18.2	15.9	87.3	41.1	16.9	19.1	112.9	42.5
영주	16.4	35.2	214.0	46.5	15.7	39.4	250.2	47.8	15.2	44.7	294.1	49.3	14.4	48.9	339.3	50.4	13.4	55.4	413.4	51.8
영천	14.4	39.0	271.0	48.2	13.6	40.6	298.7	48.9	13.6	45.4	332.7	50.2	12.7	48.9	384.9	51.1	12.3	56.8	461.2	52.6
상주	15.4	45.0	292.5	49.3	14.8	48.4	326.0	50.4	14.7	54.3	369.2	51.8	13.6	58.5	430.6	52.7	12.5	65.3	522.0	53.7
문경	16.4	43.9	267.4	49.0	15.5	47.7	308.8	50.3	15.4	53.4	345.9	51.6	14.5	58.7	406.4	52.7	13.5	67.5	498.8	54.2
경산	15.8	18.1	114.7	40.2	15.0	19.5	129.8	41.0	14.5	22.1	152.0	42.3	13.2	24.1	182.3	43.2	12.3	27.1	220.5	43.9
군위	10.2	66.0	645.2	55.0	9.3	68.4	736.6	56.1	9.0	78.9	880.1	57.9	–	–	–	–	–	–	–	–
의성	11.7	71.9	616.1	56.0	11.4	76.2	670.4	56.8	11.2	86.1	771.6	58.3	10.4	92.1	883.5	58.9	9.5	103.4	1,086.9	60.0
청송	12.7	59.6	468.7	53.7	11.6	63.9	548.4	55.0	11.2	72.0	640.7	56.6	10.7	79.0	736.0	57.6	10.0	87.0	867.7	58.3
영양	14.1	60.2	428.4	53.1	13.6	64.5	475.7	54.4	13.0	72.5	557.7	56.2	11.1	77.6	696.5	57.4	9.6	78.3	816.6	57.5
영덕	14.2	60.3	424.9	53.1	13.8	63.6	459.1	53.8	12.9	71.6	555.1	55.6	11.7	76.0	647.8	56.5	10.5	83.9	796.7	57.6
청도	10.9	57.2	523.4	53.1	10.5	61.8	587.4	54.5	10.5	69.1	657.0	55.7	9.6	74.5	779.2	56.8	8.9	86.0	961.5	57.9
고령	14.1	41.9	296.9	49.2	12.6	45.1	357.5	50.6	11.7	51.5	438.6	52.5	10.1	54.8	540.4	53.5	9.0	61.6	688.2	54.5
성주	12.1	45.2	375.3	50.8	11.1	48.3	433.1	52.0	11.2	55.4	497.0	53.6	10.2	59.5	585.2	54.6	9.7	68.0	702.4	55.5
칠곡	20.3	17.9	88.1	39.9	19.1	19.9	104.1	41.7	18.0	23.0	127.8	43.6	15.8	25.4	161.3	45.2	13.8	29.7	215.4	47.1
예천	18.6	57.0	306.6	51.1	22.2	52.3	235.4	49.3	22.3	54.5	244.0	49.8	21.6	57.6	266.8	50.4	21.1	63.2	300.3	51.4
봉화	14.6	59.1	403.5	53.4	13.5	62.9	465.3	54.6	12.7	71.2	562.0	56.3	11.4	78.3	685.2	57.5	10.1	87.8	872.7	58.6
울진	16.7	39.9	238.3	48.2	15.5	42.1	271.9	49.2	15.1	46.5	307.4	50.5	13.8	49.9	362.3	51.5	13.0	54.6	420.9	52.4
울릉	11.8	31.9	270.7	48.7	11.8	34.3	289.6	49.6	11.2	39.7	355.5	51.0	9.5	42.7	448.9	52.1	8.5	48.7	574.3	53.5

자료 : 국가데이터처(2026),「인구총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2030&conn_path=I3, 2026. 9. 18 인출 자료 재구성

2. 가족 구조의 변화

1) 가족의 형성과 해체

(1) 조혼인율

○ 경북 조혼인율은 3.6건으로 상승했으나, 전국과의 격차는 확대

- 경상북도 조혼인율은 2021년 3.1건에서 2025년 3.6건으로 상승하였으며, 연평균 증감률은 3.81%임. 2021~2023년 3.1~3.2건 수준에 머물다가 2024년 3.6건으로 오른 뒤 2025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함. 이는 코로나19 이후 미뤄졌던 혼인이 회복된 영향으로 보임
- 그러나 전국(3.8건→4.7건, 5.46%)보다 상승 폭이 작아, 전국과의 격차가 0.7건에서 1.1건으로 확대됨

○ 구미·포항 등 도시지역 중심으로 회복, 군지역은 2건대에 머묾

- 2025년 조혼인율이 높은 지역은 구미시(4.7건), 포항시(4.3건), 울진군(3.8건), 경산시(3.7건)임
- 구미시는 2021년 3.6건에서 2025년 4.7건으로 연평균 6.89% 상승함. 2025년 출생아 수 반등(〈표 Ⅱ-5〉 참조)과 함께 나타나 혼인과 출생의 연계 효과가 확인됨
- 반면 청도군(1.8건), 봉화군(2.1건), 고령군(2.2건), 의성군(2.3건), 청송군(2.4건) 등 군지역은 2건대 이하에 머물러 있음. 이들 지역은 혼인 적령기 인구가 적어 혼인 건수 자체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 영덕군 큰 폭 상승, 칠곡·청송·성주·예천·봉화는 감소

- 영덕군은 1.8건에서 3.1건으로 연평균 14.56% 상승하여 도내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임. 또한 의성군(6.32%), 울진군(5.22%), 안동시(4.81%)도 증가율이 높음
- 반면 칠곡군(-2.43%), 청송군(-1.98%), 성주군(-1.91%), 예천군(-1.55%), 봉화군(-1.16%) 은 조혼인율이 낮아졌고, 영양군은 2021년과 2025년 수준이 같음
- 칠곡군은 2024년 3.7건에서 2025년 2.9건으로 조혼인율이 급락하여 앞서 출생아

수 급감 및 인구 순유출 확대와 함께 혼인 기반도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Ⅱ-12> 경상북도 시군별 조혼인율 추이(2021~2025)

(단위: 인구1천명당 건,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연평균증감률
전국	3.8	3.7	3.8	4.4	4.7	5.46
경북	3.1	3.1	3.2	3.6	3.6	3.81
포항시	3.7	3.5	3.6	4.5	4.3	3.83
경주시	3.0	3.1	3.2	3.6	3.5	3.93
김천시	3.1	2.9	2.9	3.1	3.4	2.34
안동시	2.9	2.9	3.2	3.3	3.5	4.81
구미시	3.6	3.7	3.7	4.2	4.7	6.89
영주시	2.8	2.9	2.7	2.6	3.2	3.39
영천시	3.1	3.3	2.8	2.8	3.4	2.34
상주시	2.3	2.8	2.3	2.4	2.6	3.11
문경시	2.3	2.4	2.3	2.4	2.5	2.11
경산시	3.3	3.4	3.3	3.8	3.7	2.90
의성군	1.8	1.7	2.4	2.1	2.3	6.32
청송군	2.6	2.7	2.4	2.1	2.4	-1.98
영양군	2.6	2.4	3.0	1.9	2.6	0.00
영덕군	1.8	2.3	2.3	2.5	3.1	14.56
청도군	1.7	2.1	2.2	1.9	1.8	1.44
고령군	2.0	1.8	2.6	2.6	2.2	2.41
성주군	2.7	2.3	3.0	2.7	2.5	-1.91
칠곡군	3.2	3.3	3.3	3.7	2.9	-2.43
예천군	3.3	3.3	3.0	3.6	3.1	-1.55
봉화군	2.2	2.0	1.8	2.2	2.1	-1.16
울진군	3.1	3.3	3.2	4.2	3.8	5.22
울릉군	3.5	3.5	3.9	4.2	3.6	0.71

주 : 조혼인율은 연간 혼인건수를 당해 연도 주민등록인구(7월 1일 기준)로 나누어 산출
자료 :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I&conn_path =I3, 2026. 9. 14 인출 자료 재구성

(2) 평균초혼연령

❍ 경북 평균초혼연령은 남편 33.8세·아내 31.2세, 만혼 추세 완만하게 지속

- 경상북도 평균초혼연령은 2021년 대비 2025년 남편이 33.2세에서 33.8세로 0.6세, 아내가 30.7세에서 31.2세로 0.5세 높아짐. 연평균 증감률은 남편 0.45%, 아내 0.40%로 만혼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 전국(남편 33.9세, 아내 31.6세)과 비교하면 남편은 0.1세, 아내는 0.4세 낮아, 경북의 초혼연령은 전국보다 다소 낮은 수준임. 또한 남편과 아내의 초혼연령 차이는 2.5세에서 2.6세로 큰 변화가 없음

❍ 도시지역은 초혼연령이 낮고 안정적, 군지역은 높고 변동이 큼

- 2025년 남편 초혼연령은 구미시(33.1세), 포항시(33.2세)가 도내에서 가장 낮고, 아내는 포항시(31.0세)가 낮은 편임. 도시지역은 도 평균 수준에서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임
- 다만 구미시는 아내 초혼연령이 30.0세에서 31.2세로 높아져 연평균 0.99% 상승하였고, 경산시는 남편 초혼연령이 연평균 1.55% 상승하여, 도시지역에서도 만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반면 군지역은 초혼연령이 높고 연도별 등락이 큰데 의성군은 남편 초혼연령이 2023년 37.1세에서 2025년 35.3세, 영양군은 38.5세에서 36.9세로 낮아짐. 혼인건수가 적어 소수의 사례에 따라 평균값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보임

❍ 봉화군 남편 40.3세, 울릉군 아내 36.8세로 급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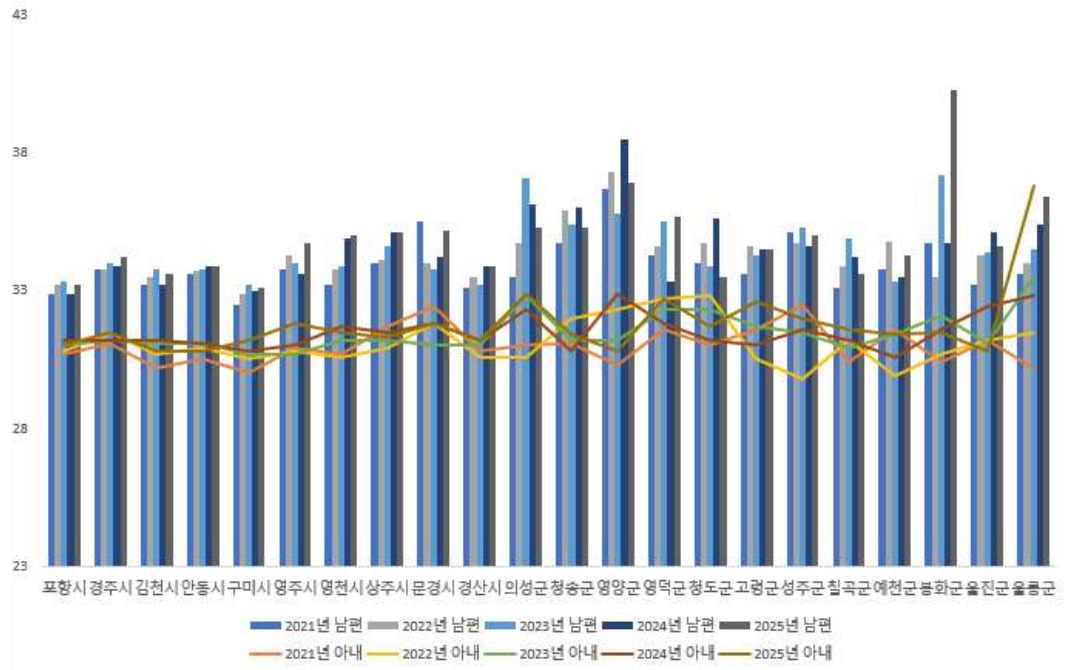
- 봉화군은 남편 초혼연령이 2021년 34.7세에서 2025년 40.3세로 5.6세(연평균 3.81%) 높아져 도내에서 유일하게 40세를 넘었으며, 아내(31.5세)와의 차이도 8.8세로 가장 큼
- 울릉군은 아내 초혼연령이 30.2세에서 36.8세로 6.6세(연평균 5.07%)로 높아졌으며, 남편(36.4세)보다 높아진 유일한 지역임. 그러나 두 지역 모두 혼인 건수가 매우 적어 연도별 변동이 크므로, 이를 구조적 변화로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함

<표 Ⅱ-13> 경상북도 시군별 평균초혼연령 추이(2021~2025)

(단위: 세,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연평균 증감률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전국	33.4	31.1	33.7	31.3	34.0	31.5	33.9	31.6	33.9	31.6	0.37	0.40
경상북도	33.2	30.7	33.6	30.8	33.7	31.1	33.6	31.2	33.8	31.2	0.45	0.40
포항시	32.9	30.7	33.2	30.8	33.3	31.0	32.9	31.2	33.2	31.0	0.23	0.24
경주시	33.8	31.1	33.8	31.5	34.0	31.2	33.9	31.2	34.2	31.5	0.29	0.32
김천시	33.2	30.2	33.5	30.7	33.8	31.1	33.2	31.2	33.6	30.8	0.30	0.49
안동시	33.6	30.5	33.7	30.9	33.8	31.1	33.9	31.1	33.9	30.8	0.22	0.24
구미시	32.5	30.0	32.9	30.5	33.2	30.7	33.0	30.8	33.1	31.2	0.46	0.99
영주시	33.8	30.9	34.3	30.8	34.0	30.7	33.6	31.0	34.7	31.8	0.66	0.72
영천시	33.2	30.7	33.8	30.6	33.9	31.2	34.9	31.7	35.0	31.5	1.33	0.65
상주시	34.0	31.7	34.1	30.9	34.6	31.2	35.1	31.5	35.1	31.3	0.80	-0.32
문경시	35.5	32.4	34.0	31.8	33.8	31.0	34.2	31.8	35.2	31.8	-0.21	-0.47
경산시	33.1	30.8	33.5	30.6	33.2	31.0	33.9	31.2	33.9	31.2	1.55	0.32
의성군	33.5	31.0	34.7	30.6	37.1	32.8	36.1	32.3	35.3	32.9	1.32	1.50
청송군	34.7	31.1	35.9	32.0	35.4	31.2	36.0	30.8	35.3	31.4	0.43	0.56
영양군	36.7	30.3	37.3	32.3	35.8	31.2	38.5	32.9	36.9	30.8	0.14	0.41
영덕군	34.3	31.6	34.6	32.7	35.5	32.3	33.3	31.8	35.7	32.7	1.23	0.86
청도군	34.0	31.0	34.7	32.8	33.9	32.3	35.6	31.2	33.5	31.7	-0.37	0.56
고령군	33.6	31.6	34.6	30.5	34.3	31.7	34.5	31.0	34.5	32.6	0.66	0.78
성주군	35.1	32.5	34.7	29.8	35.3	31.5	34.6	31.6	35.0	32.0	-0.07	-0.39
칠곡군	33.1	30.4	33.9	31.2	34.9	30.9	34.2	31.2	33.6	31.6	0.38	0.97
예천군	33.8	31.6	34.8	29.9	33.3	31.4	33.5	30.6	34.3	31.4	0.37	-0.16
봉화군	34.7	30.4	33.5	30.7	37.2	32.1	34.7	31.6	40.3	31.5	3.81	0.89
울진군	33.2	31.2	34.3	31.2	34.4	31.1	35.1	32.4	34.6	30.8	1.04	-0.32
울릉군	33.6	30.2	34.0	31.5	34.5	33.5	35.4	32.8	36.4	36.8	2.02	5.07

자료 : 국가데이터처.「인구동향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3A09&conn_path=I3, 2026. 9. 14 인출 자료 재구성



자료 : 국가데이터처.「인구동향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3A09&conn_path=I3, 2026. 9. 14 인출 자료 재구성

[그림 Ⅱ-10] 경상북도 시군별 평균초혼연령 추이(2021~2025)

(3) 조이혼율

❍ 경북 조이혼율 1.9건 수준에서 정체, 전국 하락세와 달리 2025년 전국을 웃돎

- 경상북도 조이혼율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8~1.9건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됨. 전국은 같은 기간 2.0건에서 1.7건으로 연평균 4.0% 하락하였음
- 2021년 전국보다 0.1건 낮았던 경북 조이혼율은 2025년 전국보다 0.2건 높아짐
- 조혼인율(〈표 Ⅱ-12〉 참조)과 비교하면, 2025년 경북의 혼인 대비 이혼 비율은 약 0.53으로 전국(약 0.36)보다 높음. 혼인 감소에도 이혼은 줄지 않아, 혼인 대비 이혼의 상대적 비중이 큰 구조임

❍ 조이혼율은 칠곡·울릉·구미·고령은 높고, 봉화·김천·안동·의성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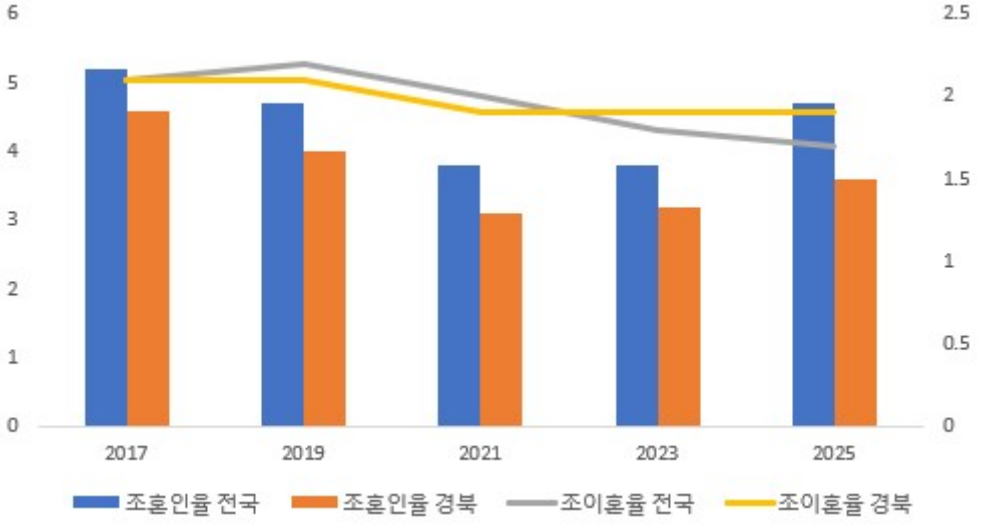
- 2025년 조이혼율이 높은 지역은 칠곡군(2.6건), 울릉군(2.5건), 구미시·고령군(2.2건)임. 칠곡군은 동 기간 내내 2.3~2.8건으로 도내 최고 수준을 유지함. 반면 봉화

군(1.4건) 김천시·안동시·의성군(1.5건)은 상대적으로 낮음

- 청도군(조혼인율 1.8건, 조이혼율 1.7건)처럼 조혼인율이 낮은 군지역에서도 조이혼율은 도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이는 고령층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중·장년기 이혼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조이혼율이 고령·봉화·의성은 상승, 울릉·울진·영덕은 큰 폭으로 하락

- 연평균 증감률은 고령군(6.7%), 봉화군(6.2%), 의성군(5.7%) 순으로 높으며, 고령군은 1.7건에서 2.2건으로 상승하였음
- 반면 울릉군(-8.1%), 울진군(-7.3%), 영덕군(-6.2%), 안동시(-4.5%)는 하락 폭이 크며, 울릉군은 3.5건에서 2.5건으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도내 상위 수준임. 다만 군지역은 이혼 건수가 적어 연도별 변동이 크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 :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I&conn_path=I3, 2026. 9. 14 인출 자료 재구성

[그림 Ⅱ-11] 경상북도 조이혼율 추이(2021~2025)

<표 Ⅱ-14> 경상북도 시군별 조이혼율 추이(2021~2025)

(단위: 인구1천명당 건,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연평균증감률
전국	2.0	1.8	1.8	1.8	1.7	-4.0
경상북도	1.9	1.9	1.9	1.8	1.9	-
포항시	2.1	1.8	1.9	2.0	1.9	-2.5
경주시	1.8	1.9	1.9	1.8	2.0	2.7
김천시	1.6	1.8	1.4	1.5	1.5	-1.6
안동시	1.8	1.6	1.7	1.6	1.5	-4.5
구미시	2.2	2.0	1.9	2.1	2.2	-
영주시	1.6	1.9	1.6	1.7	1.6	-
영천시	2.2	2.0	2.3	2.1	2.0	-2.4
상주시	1.8	1.9	1.7	1.5	1.6	-2.9
문경시	1.7	1.6	1.7	1.6	1.6	-1.5
경산시	1.9	2.0	2.0	1.8	1.9	-
의성군	1.2	1.5	1.5	1.3	1.5	5.7
청송군	1.8	1.6	1.7	1.8	1.6	-2.9
영양군	2.1	2.0	1.8	1.9	1.8	-3.8
영덕군	2.2	1.8	2.4	2.0	1.7	-6.2
청도군	1.7	1.7	1.9	1.6	1.7	-
고령군	1.7	2.1	2.3	2.5	2.2	6.7
성주군	2.0	2.1	1.9	2.2	2.0	-
칠곡군	2.5	2.4	2.8	2.3	2.6	1.0
예천군	1.6	1.3	1.4	1.4	1.6	-
봉화군	1.1	1.9	1.9	1.4	1.4	6.2
울진군	2.3	1.9	2.1	1.5	1.7	-7.3
울릉군	3.5	2.9	2.9	2.4	2.5	-8.1

주 : 조이혼율은 연간 이혼건수를 당해 연도 주민등록인구(7월 1일 기준)로 나누어 산출
자료 : 국가데이터처.「인구동향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I&conn_path=I3, 2026. 9. 14 인출 자료 재구성

(4) 혼인 및 이혼

○ 경북의 혼인 건수는 2021년 이후 반등했으나, 회복 폭은 전국의 절반 수준

- 경상북도 혼인 건수는 2017년 12,190건에서 2021년 8,163건으로 33.0% 감소함. 이후 2023년 8,128건으로 정체되었다가 2025년 9,160건으로 반등하였음
- 2021년 대비 2025년 증가율은 경북 12.2%로 전국(24.8%)의 절반 수준에 그쳤음. 2017년 대비로는 전국이 9.1% 감소한 데 비해 경북은 24.9% 감소하여, 혼인 규모가 여전히 크게 위축된 상태임
- 성별 혼인율도 2025년 남성 8.0건, 여성 7.3건으로 전국(남성 10.6건, 여성 10.4건)보다 낮음. 여성 혼인율의 전국 대비 격차는 2017년 2.2건에서 2025년 3.1건으로 확대되었음. 이는 혼인 적령기 여성 인구 감소가 반영된 결과로 보임

○ 초혼연령 상승 지속, 여성 초혼연령 상승 폭이 남성보다 큼

- 경북 평균초혼연령은 2017년 대비 2025년 남성이 32.75세에서 33.79세로 1.04세, 여성이 29.82세에서 31.24세로 1.42세 높아짐. 여성의 상승 폭이 남성보다 커서, 남녀 초혼연령 차이는 2.93세에서 2.55세로 줄어듦
- 경북의 초혼연령은 남녀 모두 전국(남성 33.85세, 여성 31.62세)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유지함

○ 이혼 건수는 감소, 혼인 대비 이혼 비중이 높아지고, 평균이혼연령은 50세를 넘어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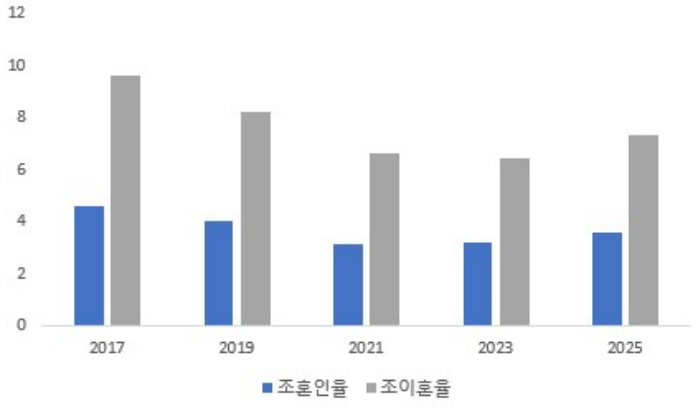
- 경북 이혼 건수는 2017년 5,505건에서 2025년 4,708건으로 14.5% 감소하였음. 감소율이 전국(16.9%)보다 작아, 조이혼율은 전국(1.7건)보다 높은 1.9건임
- 혼인 건수 대비 이혼 건수 비율은 0.45(2017년)에서 0.51(2025년)로 높아짐. 같은 기간 전국은 0.40에서 0.37로 낮아져 경북과 대조를 보임
- 평균이혼연령은 남성 46.92세에서 51.38세, 여성 42.97세에서 47.54세로 8년간 각각 4.5세 안팎 높아짐. 경북 남성의 평균이혼연령은 2023년 50세를 넘었고, 2025년에는 전국(51.02세)보다 높아짐. 이는 혼인 지속기간이 긴 중·장년층 이혼이 늘어난 결과로 보임
- 평균재혼연령도 남성 51.49세, 여성 46.56세로 8년간 약 3세 높아졌음. 재혼 역시 중·장년기 중심으로 이동하는 양상임

<표 Ⅱ-15> 경상북도 혼인 및 이혼 현황(2017~2025)

(단위 : 인구1천명당 건, 세)

구분		혼인 건수	조 혼인율	혼인율		평균초혼 연령		이혼 건수	조 이혼율	이혼율		평균이혼 연령		평균재혼 연령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7	전국	264,455	5.2	12.0	11.8	32.94	30.24	106,032	2.1	4.8	4.7	47.57	44.05	48.70	44.43
	경북	12,190	4.6	10.4	9.6	32.75	29.82	5,505	2.1	4.7	4.3	46.92	42.97	48.53	43.97
2019	전국	239,159	4.7	10.8	10.6	33.37	30.59	110,831	2.2	5.0	4.9	48.68	45.27	49.63	45.15
	경북	10,637	4.0	9.1	8.2	33.30	30.41	5,635	2.1	4.8	4.3	48.37	44.33	49.65	45.03
2021	전국	192,507	3.8	8.6	8.5	33.35	31.08	101,673	2.0	4.5	4.5	50.14	46.75	50.65	46.50
	경북	8,163	3.1	7.0	6.6	33.23	30.68	5,097	1.9	4.4	4.0	49.43	45.64	50.28	45.95
2023	전국	193,657	3.8	8.6	8.4	33.97	31.45	92,394	1.8	4.1	4.0	49.92	46.59	51.42	46.91
	경북	8,128	3.2	7.0	6.4	33.72	31.06	4,870	1.9	4.2	3.9	50.08	46.12	51.58	46.99
2025	전국	240,326	4.7	10.6	10.4	33.85	31.62	88,130	1.7	3.9	3.8	51.02	47.71	51.93	47.46
	경북	9,160	3.6	8.0	7.3	33.79	31.24	4,708	1.9	4.1	3.7	51.38	47.54	51.49	46.56

자료 : 국가데이터처(2026).「인구동향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9&conn_path=I3,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10&conn_path=I3, 2026. 9. 14 인출 자료 재구성



자료 : 국가데이터처(2026).「인구동향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9&conn_path=I3,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10&conn_path=I3, 2026. 9. 14 인출 자료 재구성

[그림 Ⅱ-12] 경상북도 시군별 조혼인율·조이혼율 추이(2021~2025)

❍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혼인 비중 8.6%, 전국보다 높은 수준 지속
- 경상북도의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 간 혼인은 2025년 786건으로, 전체 혼인의 8.6%를 차지하며, 이는 전국(6.5%)보다 2.1%p 높음
- 이 비중은 2019년 8.8%에서 2021년 4.1%로 급감하였음. 코로나19에 따른 입국 제한의 영향으로 보이며, 이후 2023년 9.2%로 회복되었고, 2025년에는 8.6%를 기록함
-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 간 혼인은 2025년 161건(1.9%)으로 전국(2.1%)보다 낮으며 동 기간 내내 2% 안팎에 머물렀음

❍ 외국인과의 혼인은 '한국인 남편+외국인 아내' 유형이 중심
- 2025년 경북에서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혼인 건수는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 혼인의 약 4.9배이며, 전국(약 3.1배)보다 이 유형에 대한 편중이 뚜렷함
- 이는 혼인 적령기 여성 인구의 유출과 성비 불균형(〈표 Ⅱ-10〉 참조)이 큰 지역 여건에서,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이 혼인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줌.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정책 수요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함

❍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는 도시지역에 집중, 비중은 군지역이 높음
- 2025년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혼인 건수는 포항시(134건), 구미시(128건), 경주시(78건), 경산시(72건) 이들 4개 시가 도 전체의 52.4%를 차지함
- 반면 전체 혼인 중 비중은 봉화군(26.2%), 상주시(18.6%), 성주군(17.8%), 의성군(16.2%), 청도군(15.1%) 등 군지역을 중심으로 높음. 특히 봉화군은 혼인 4건 중 1건 이상이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임
-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이 10% 이상인 시군은 12곳에 이르며, 북부 및 남부 군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반면 울릉군(3.1%), 예천군(4.2%), 영덕군(4.9%)은 도 평균보다 크게 낮음

<표 Ⅱ-16> 경상북도 시군별 외국인과의 혼인 현황(2019~2025)

(단위 : 건, %)

구분	2019						2021						2023						2025					
	남편 (총혼인)	한국인 남편 + 외국인 아내		아내 (총혼인)	한국인 아내 + 외국인 남편		남편 (총혼인)	한국인 남편 + 외국인 아내		아내 (총혼인)	한국인 아내 + 외국인 남편		남편 (총혼인)	한국인 남편 + 외국인 아내		아내 (총혼인)	한국인 아내 + 외국인 남편		남편 (총혼인)	한국인 남편 + 외국인 아내		아내 (총혼인)	한국인 아내 + 외국인 남편	
전국	239,159	17,687	7.4	239,159	5,956	2.5	192,507	8,985	4.7	192,507	4,117	2.1	193,657	14,710	7.6	193,657	5,007	2.6	240,326	15,610	6.5	240,326	5,091	2.1
경북	10,637	940	8.8	9,614	188	2.0	8,163	334	4.1	7,667	125	1.6	8,128	745	9.2	7,359	193	2.6	9,160	786	8.6	8,281	161	1.9
포항시	2,155	150	7.0	1,940	21	1.1	1,863	53	2.8	1,747	21	1.2	1,772	118	6.7	1,544	33	2.1	2,126	134	6.3	1,882	32	1.7
경주시	969	92	9.5	911	31	3.4	758	34	4.5	723	19	2.6	784	71	9.1	697	21	3.0	858	78	9.1	775	24	3.1
김천시	562	49	8.7	501	9	1.8	439	24	5.5	387	6	1.6	402	45	11.2	363	9	2.5	460	44	9.6	414	5	1.2
안동시	552	58	10.5	539	9	1.7	451	17	3.8	441	4	0.9	494	42	8.5	465	10	2.2	534	39	7.3	526	7	1.3
구미시	2,125	123	5.8	1,989	34	1.7	1,476	55	3.7	1,448	12	0.8	1,499	106	7.1	1,400	29	2.1	1,875	128	6.8	1,670	14	0.8
영주시	300	36	12.0	254	5	2.0	281	7	2.5	276	1	0.4	271	41	15.1	232	4	1.7	313	30	9.6	282	5	1.8
영천시	414	52	12.6	360	6	1.7	310	19	6.1	280	8	2.9	281	41	14.6	257	7	2.7	327	44	13.5	282	9	3.2
상주시	296	33	11.2	270	8	3.0	216	9	4.2	207	6	2.9	219	26	11.9	198	7	3.5	237	44	18.6	210	7	3.3
문경시	229	28	12.2	184	2	1.1	165	7	4.2	149	-	-	158	14	8.9	172	6	3.5	167	19	11.4	146	5	3.4
경산시	1,198	103	8.6	1,106	28	2.5	868	45	5.2	853	23	2.7	881	62	7.0	891	37	4.2	975	72	7.4	1,011	27	2.7
군위군	64	13	20.3	49	-	-	34	1	2.9	29	-	-	-	-	-	-	-	-	-	-	-	-	-	-
의성군	154	20	13.0	110	1	0.9	90	7	7.8	87	2	2.3	118	20	17.0	101	3	3.0	111	18	16.2	88	1	1.1
청송군	81	6	7.4	68	2	2.9	63	6	9.5	47	1	2.1	58	13	22.4	40	1	2.5	56	7	12.5	35	-	-
영양군	50	15	30.0	42	-	-	43	3	7.0	22	-	-	47	8	17.0	28	1	3.6	40	5	12.5	29	1	3.5
영덕군	105	15	14.3	96	3	3.1	65	2	3.1	65	-	-	78	9	11.5	69	1	1.5	102	5	4.9	80	-	-
청도군	107	15	14.0	96	6	6.3	72	4	5.6	69	1	1.5	91	9	9.9	93	3	3.2	73	11	15.1	78	1	1.3
고령군	88	12	13.6	81	3	3.7	61	5	8.2	62	1	1.6	77	14	18.2	53	1	1.9	66	7	10.6	66	1	1.5
성주군	141	20	14.2	117	2	1.7	114	9	7.9	105	4	3.8	125	12	9.6	105	1	1.0	101	18	17.8	83	5	6.0
칠곡군	511	52	10.2	484	14	2.9	367	15	4.1	347	12	3.5	370	50	13.5	330	15	4.6	306	40	13.1	290	12	4.1
예천군	202	16	7.9	156	3	1.9	181	0	0.0	130	3	2.3	165	14	8.5	131	3	2.3	167	7	4.2	126	1	0.8
봉화군	85	13	15.3	77	1	1.3	67	6	9.0	60	1	1.7	53	12	22.6	46	1	2.2	61	16	26.2	38	1	2.6
울진군	209	16	7.7	147	-	-	148	6	4.1	110	-	-	150	15	10.0	122	-	-	173	19	11.0	143	3	2.1
울릉군	40	3	7.5	37	-	-	31	0	0.0	23	-	-	35	3	8.6	22	-	-	32	1	3.1	27	-	-

주 : 총혼인건수는 남편 주소지 기준임

자료 : 국가데이터처(2026),「인구동향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24&conn_path=I3, 2026. 9. 15 인출 자료 재구성

2) 가구 구조의 변화

(1) 세대구성별 가구

○ 경북 1인가구 비중은 39.6%로 가장 많은 가구 유형이며, 전국보다 3.0%p 높음

- 2025년 경상북도 일반가구 1,176,178가구 중 1인가구는 466,174가구로 39.6%를 차지함. 2세대 가구(32.0%)보다 7.6%p 많아, 도내에서 가장 보편적인 가구 유형이 됨
- 전국은 2세대 가구(38.6%)가 1인가구(36.6%)보다 여전히 많아, 경북의 가구 구조 변화가 전국보다 앞서 진행되고 있음. 3세대 가구는 2.0%로 전국(2.5%)보다 낮음. 비친족가구는 2.5%로 전국(2.7%)과 비슷한 수준임

○ 1세대 가구 비중이 높고 2세대 가구 비중은 낮아, 부부 중심의 소규모 가구 구조

- 부부 등으로 구성된 1세대 가구는 23.9%로 전국(19.6%)보다 4.3%p 높음. 반면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 가구는 32.0%로 전국(38.6%)보다 6.6%p 낮음
- 1인가구와 1세대 가구를 합하면 63.5%에 달함. 이는 자녀 독립 이후의 고령 부부 가구와 고령 1인가구가 경북 가구 구조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군지역은 1인·1세대 가구가 4분의 3 수준, 도시지역은 2세대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1인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은 울릉군(47.7%), 영덕군(46.2%), 청송군(45.0%), 의성군(44.6%), 영양군(43.9%), 울진군(43.6%)이며, 이 가운데 청송군(74.4%), 의성군(74.2%), 봉화군(73.5%) 등은 1인가구와 1세대 가구를 합한 비중이 70%를 넘음. 특히 봉화군은 1세대 가구 비중(31.5%)이 도내에서 가장 높음
- 반면 구미시(38.0%), 포항시(35.6%), 칠곡군(35.0%)은 2세대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포항시는 1인가구 비중(35.9%)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전국보다 낮음
- 경산시는 청년층 비중이 높은 도시지역임에도 1인가구 비중이 42.8%로 높은데 대학 밀집에 따른 청년 1인가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 군지역의 고령 1인가구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생각됨. 반면 울릉군은 비친족가구 비중이 5.9%로 도내에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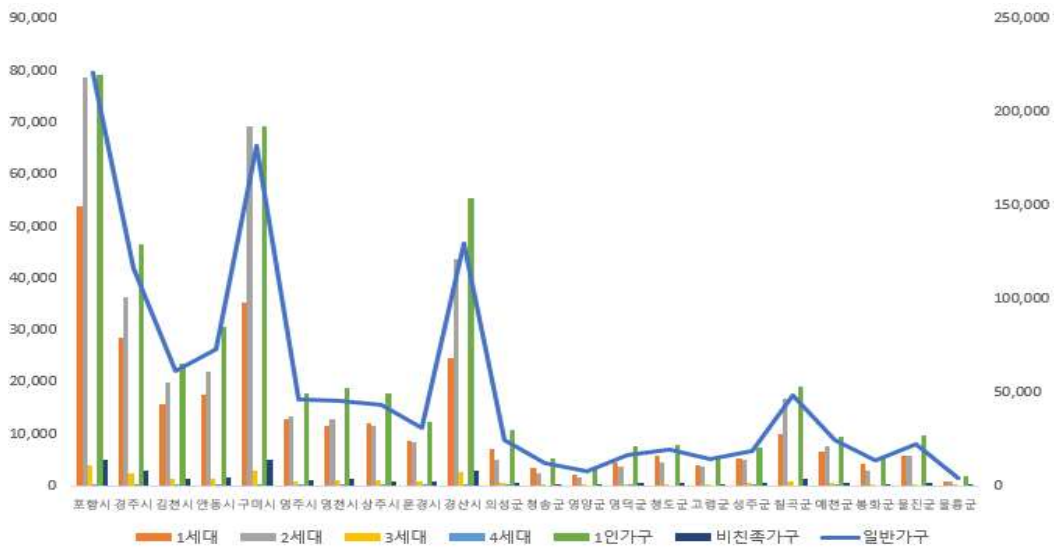
〈표 Ⅱ-17〉 경상북도 세대구성별 가구 현황('25)

(단위 :가구, %)

구분 \ 가구수	일반가구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1인가구	비친족가구
전국	22,495,096 (100.0%)	4,399,436 (19.6%)	8,678,600 (38.6%)	565,156 (2.5%)	2,876 (0.0%)	8,244,308 (36.6%)	604,720 (2.7%)
경상북도	1,176,178 (100.0%)	280,956 (23.9%)	376,264 (32.0%)	23,451 (2.0%)	164 (0.0%)	466,174 (39.6%)	29,159 (2.5%)
포항시	220,773 (100.0%)	53,927 (24.4%)	78,622 (35.6%)	4,011 (1.8%)	20 (0.0%)	79,273 (35.9%)	4,920 (2.2%)
경주시	116,834 (100.0%)	28,643 (24.5%)	36,244 (31.0%)	2,391 (2.0%)	9 (0.0%)	46,606 (39.9%)	2,941 (2.5%)
김천시	61,621 (100.0%)	15,615 (25.3%)	19,801 (32.1%)	1,304 (2.1%)	17 (0.0%)	23,572 (38.3%)	1,312 (2.1%)
안동시	73,100 (100.0%)	17,570 (24.0%)	21,890 (29.9%)	1,412 (1.9%)	8 (0.0%)	30,674 (42.0%)	1,546 (2.1%)
구미시	181,883 (100.0%)	35,405 (19.5%)	69,157 (38.0%)	3,031 (1.7%)	18 (0.0%)	69,162 (38.0%)	5,110 (2.8%)
영주시	46,161 (100.0%)	12,881 (27.9%)	13,380 (29.0%)	945 (2.0%)	5 (0.0%)	17,933 (38.8%)	1,017 (2.2%)
영천시	45,718 (100.0%)	11,439 (25.0%)	12,886 (28.2%)	1,067 (2.3%)	17 (0.0%)	18,932 (41.4%)	1,377 (3.0%)
상주시	43,495 (100.0%)	12,074 (27.8%)	11,588 (26.6%)	1,102 (2.5%)	14 (0.0%)	17,768 (40.9%)	949 (2.2%)
문경시	30,815 (100.0%)	8,677 (28.2%)	8,373 (27.2%)	750 (2.4%)	8 (0.0%)	12,250 (39.8%)	757 (2.5%)
경산시	129,315 (100.0%)	24,623 (19.0%)	43,699 (33.8%)	2,572 (2.0%)	18 (0.0%)	55,411 (42.8%)	2,992 (2.3%)
의성군	24,224 (100.0%)	7,180 (29.6%)	5,127 (21.2%)	528 (2.2%)	10 (0.0%)	10,803 (44.6%)	576 (2.4%)
청송군	11,952 (100.0%)	3,514 (29.4%)	2,474 (20.7%)	270 (2.3%)	-	5,382 (45.0%)	312 (2.6%)
영양군	7,775 (100.0%)	2,208 (28.4%)	1,763 (22.7%)	165 (2.1%)	-	3,411 (43.9%)	227 (2.9%)
영덕군	16,727 (100.0%)	4,458 (26.7%)	3,695 (22.1%)	336 (2.0%)	5 (0.0%)	7,730 (46.2%)	503 (3.0%)
청도군	19,237 (100.0%)	5,719 (29.7%)	4,592 (23.9%)	476 (2.5%)	-	7,900 (41.1%)	547 (2.8%)

구분 \ 가구수	일반가구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1인가구	비친족가구
고령군	14,027 (100.0%)	3,917 (27.9%)	3,765 (26.8%)	333 (2.4%)	–	5,612 (40.0%)	399 (2.8%)
성주군	18,819 (100.0%)	5,301 (28.2%)	4,935 (26.2%)	567 (3.0%)	7 (0.0%)	7,447 (39.6%)	562 (3.0%)
칠곡군	48,321 (100.0%)	10,005 (20.7%)	16,907 (35.0%)	914 (1.9%)	–	19,198 (39.7%)	1,296 (2.7%)
예천군	24,866 (100.0%)	6,701 (26.9%)	7,684 (30.9%)	493 (2.0%)	8 (0.0%)	9,499 (38.2%)	481 (1.9%)
봉화군	13,910 (100.0%)	4,383 (31.5%)	2,994 (21.5%)	270 (1.9%)	–	5,847 (42.0%)	413 (3.0%)
울진군	22,324 (100.0%)	5,723 (25.6%)	5,771 (25.9%)	437 (2.0%)	–	9,723 (43.6%)	669 (3.0%)
울릉군	4,281 (100.0%)	993 (23.2%)	917 (21.4%)	77 (1.8%)	–	2,041 (47.7%)	253 (5.9%)

주 : 4세대 항목 중 일부 군(청송군, 영양군, 청도군, 고령군, 칠곡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은 통계청 자료상 표본 수가 적어 'X'(비공개)로 처리되어 있어 경상북도 합계에는 0으로 처리함. 실제 경북 합계는 이보다 다소 클 수 있음
자료 :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5&conn_path=I3, 2026. 9. 14 인출 자료 재구성



자료 :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5&conn_path=I3, 2026. 9. 14 인출 자료 재구성

[그림 Ⅱ-13] 경상북도 세대구성별 가구 현황('25)

(2) 가구원수별 가구

❍ 1~2인 가구가 72.8%로 전국보다 6.8%p 높아, 가구 소형화가 뚜렷함

- 2025년 경상북도 일반가구 중 2인 가구는 390,474가구로 33.2%를 차지함. 이를 1인가구(39.6%)와 합하면 1~2인 가구가 전체의 72.8%에 달하며, 이는 전국(66.0%)보다 6.8%p 높은 수준임. 특히 2인 가구 비중이 전국(29.4%)보다 3.8%p 높아, 자녀가 독립한 부부가구가 많은 경북의 가구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반면 3인 가구는 15.9%로 전국(18.8%)보다 2.9%p 낮음

❍ 4인 이상 가구는 11.3%에 그치고, 구미시만 4인 가구 비중이 전국 수준을 넘음

- 4인 이상 가구 비중은 11.3%로 전국(15.1%)보다 3.8%p 낮음. 시군별로는 구미시(14.8%), 포항시(12.7%), 경산시(12.3%), 칠곡군(12.3%)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음. 특히 구미시는 4인 가구 비중(12.4%)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전국(12.1%)보다 높음
- 이들 도시지역은 3인 가구 비중도 17~18%대로 높아, 자녀 양육기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함

❍ 의성·청송·영덕 등 7개 군은 1~2인 가구 비중이 80% 이상

- 1~2인 가구 비중이 80% 이상인 지역은 의성군(83.4%), 청송군(83.1%), 영덕군(82.7%), 봉화군(82.6%), 영양군(80.9%), 청도군(80.8%), 울릉군(80.8%) 7개 지역이며, 봉화군(40.6%)과 청도군(39.7%)은 2인 가구 비중이 특히 높은데 이는 고령 부부가구가 가구 구조의 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짐
- 이들 지역의 4인 이상 가구 비중은 5~7% 수준에 불과하며 의성군은 4인 가구 비중이 3.9%로 도내에서 가장 낮아, 자녀가 있는 가구가 매우 적은 구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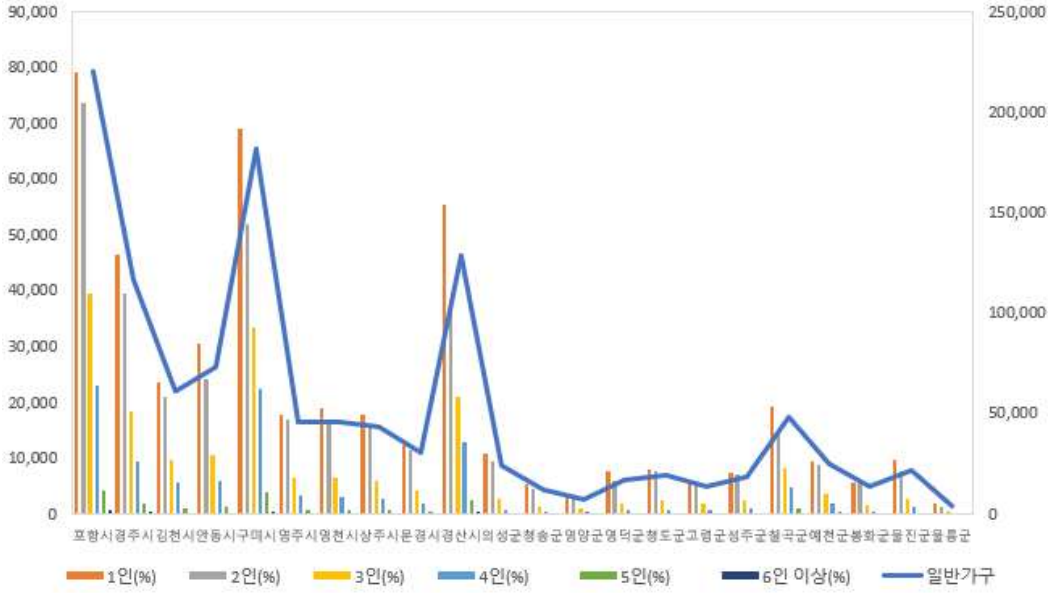
<표 Ⅱ-18> 경상북도 시군별 가구원수별 가구 분포('25)

(단위: 가구, %)

	일반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전국	22,495,096 (100%)	8,244,308 (36.6%)	6,623,694 (29.4%)	4,219,043 (18.8%)	2,732,400 (12.1%)	559,471 (2.5%)	116,180 (0.5%)
경북	1,176,178 (100%)	466,174 (39.6%)	390,474 (33.2%)	187,380 (15.9%)	105,744 (9.0%)	21,901 (1.9%)	4,505 (0.4%)
포항시	220,773 (100%)	79,273 (35.9%)	73,907 (33.5%)	39,470 (17.9%)	23,069 (10.4%)	4,254 (1.9%)	800 (0.4%)
경주시	116,834 (100%)	46,606 (39.9%)	39,602 (33.9%)	18,555 (15.9%)	9,612 (8.2%)	2,041 (1.7%)	418 (0.4%)
김천시	61,621 (100%)	23,572 (38.3%)	21,183 (34.4%)	9,791 (15.9%)	5,637 (9.1%)	1,201 (1.9%)	237 (0.4%)
안동시	73,100 (100%)	30,674 (42.0%)	24,185 (33.1%)	10,599 (14.5%)	5,995 (8.2%)	1,353 (1.9%)	294 (0.4%)
구미시	181,883 (100%)	69,162 (38.0%)	52,098 (28.6%)	33,633 (18.5%)	22,465 (12.4%)	3,906 (2.1%)	619 (0.3%)
영주시	46,161 (100%)	17,933 (38.8%)	16,960 (36.7%)	6,717 (14.6%)	3,496 (7.6%)	855 (1.9%)	200 (0.4%)
영천시	45,718 (100%)	18,932 (41.4%)	16,292 (35.6%)	6,449 (14.1%)	3,077 (6.7%)	761 (1.7%)	207 (0.5%)
상주시	43,495 (100%)	17,768 (40.9%)	16,020 (36.8%)	5,911 (13.6%)	2,837 (6.5%)	763 (1.8%)	196 (0.5%)
문경시	30,815 (100%)	12,250 (39.8%)	11,557 (37.5%)	4,207 (13.7%)	2,055 (6.7%)	569 (1.8%)	177 (0.6%)
경산시	129,315 (100%)	55,411 (42.8%)	36,869 (28.5%)	21,122 (16.3%)	12,871 (10.0%)	2,613 (2.0%)	429 (0.3%)
의성군	24,224 (100%)	10,803 (44.6%)	9,392 (38.8%)	2,710 (11.2%)	939 (3.9%)	290 (1.2%)	90 (0.4%)
청송군	11,952 (100%)	5,382 (45.0%)	4,551 (38.1%)	1,311 (11.0%)	510 (4.3%)	151 (1.3%)	47 (0.4%)
영양군	7,775 (100%)	3,411 (43.9%)	2,880 (37.0%)	952 (12.2%)	383 (4.9%)	112 (1.4%)	37 (0.5%)
영덕군	16,727 (100%)	7,730 (46.2%)	6,107 (36.5%)	1,843 (11.0%)	782 (4.7%)	211 (1.3%)	54 (0.3%)
청도군	19,237 (100%)	7,900 (41.1%)	7,636 (39.7%)	2,456 (12.8%)	905 (4.7%)	238 (1.2%)	102 (0.5%)

고령군	14,027 (100%)	5,612 (40.0%)	5,410 (38.6%)	1,902 (13.6%)	833 (5.9%)	218 (1.6%)	52 (0.4%)
성주군	18,819 (100%)	7,447 (39.6%)	7,225 (38.4%)	2,629 (14.0%)	1,083 (5.8%)	322 (1.7%)	113 (0.6%)
칠곡군	48,321 (100%)	19,198 (39.7%)	14,830 (30.7%)	8,386 (17.4%)	4,786 (9.9%)	950 (2.0%)	171 (0.4%)
예천군	24,866 (100%)	9,499 (38.2%)	8,882 (35.7%)	3,755 (15.1%)	2,097 (8.4%)	520 (2.1%)	113 (0.5%)
봉화군	13,910 (100%)	5,847 (42.0%)	5,642 (40.6%)	1,533 (11.0%)	638 (4.6%)	182 (1.3%)	68 (0.5%)
울진군	22,324 (100%)	9,723 (43.6%)	7,828 (35.1%)	2,930 (13.1%)	1,443 (6.5%)	330 (1.5%)	70 (0.3%)
울릉군	4,281 (100%)	2,041 (47.7%)	1,418 (33.1%)	519 (12.1%)	231 (5.4%)	61 (1.4%)	11 (0.3%)

자료 : 국가데이터처(2026)., 「인구총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02&conn_path=I3, 2026. 9. 18 인출 자료 재구성



자료 : 국가데이터처(2026)., 「인구총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02&conn_path=I3, 2026. 9. 18 인출 자료 재구성

[그림 Ⅱ-14] 경상북도 시군별 가구원수별 가구 분포('25)

3) 가구 유형별 특성

(1) 1인가구

❍ 경북 1인가구는 남성 50.4%, 여성 49.6%로 성별 비중이 비슷함

- 2025년 경상북도 1인가구 466,174가구 중 남성은 235,081가구(50.4%), 여성은 231,093가구(49.6%)임. 남성이 3,988가구 많으나 성별 비중은 전국(남녀 각 50.0%)과 비슷한 수준임
- 다만 시군별로는 성별 구성이 뚜렷하게 갈리는데 15개 시군이 여성 1인가구가 남성 1인가구보다 많았음

❍ 구미·칠곡·울릉 등 산업·근로 중심 지역은 남성 1인가구 비중이 높음

- 남성 1인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은 울릉군(63.6%), 칠곡군(57.2%), 구미시(57.0%), 성주군(52.5%), 경산시(51.7%), 포항시(51.3%) 6개 지역이며, 구미시는 남성 1인가구가 39,417가구로 여성(29,745가구)보다 9,672가구 많음. 이들 지역은 산업단지 등 일자리가 밀집한 지역이거나, 대학이 밀집한 지역으로 취업·학업을 위해 이주한 청장년 남성 1인가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울릉군은 1인가구 비중(47.7%)이 도내 최고인 동시에 남성 비중이 63.6%에 달하는데 도서지역 특성상 근무·생업을 위한 1인 거주가 많은 것으로 여겨짐

❍ 영덕·문경·청도 등 고령화 지역은 여성 1인가구 비중이 높음

- 여성 1인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은 영덕군(59.7%), 문경시·청도군(56.5%), 의성군(55.2%), 영양군(54.8%), 상주시·예천군(54.6%)임. 이들 지역은 대체로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북부·동부 군지역과 농촌형 시 지역으로 기대수명이 긴 여성 고령층이 배우자 사별 후 홀로 사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보임
- 특히 영덕군은 1인가구 비중(46.2%)과 여성 1인가구 비중(59.7%)이 모두 도내 상위권으로 여성 고령 1인가구에 대한 돌봄·안전 정책 수요가 클 것으로 보임

<표 Ⅱ-19> 경상북도 시군별 성별 1인가구('25)

(단위: 가구, %)

구분	전체 가구수	1인가구					
		전체	전체/총가구수	남성	남성/전체	여성	여성/전체
전국	22,495,096	8,244,308	36.6	4,121,791	50.0	4,122,517	50.0
경북	1,176,178	466,174	39.6	235,081	50.4	231,093	49.6
포항시	220,773	79,273	35.9	40,652	51.3	38,621	48.7
경주시	116,834	46,606	39.9	22,797	48.9	23,809	51.1
김천시	61,621	23,572	38.3	11,304	48.0	12,268	52.0
안동시	73,100	30,674	42.0	14,489	47.2	16,185	52.8
구미시	181,883	69,162	38.0	39,417	57.0	29,745	43.0
영주시	46,161	17,933	38.8	8,404	46.9	9,529	53.1
영천시	45,718	18,932	41.4	9,566	50.5	9,366	49.5
상주시	43,495	17,768	40.9	8,060	45.4	9,708	54.6
문경시	30,815	12,250	39.8	5,327	43.5	6,923	56.5
경산시	129,315	55,411	42.8	28,673	51.7	26,738	48.3
의성군	24,224	10,803	44.6	4,844	44.8	5,959	55.2
청송군	11,952	5,382	45.0	2,558	47.5	2,824	52.5
영양군	7,775	3,411	43.9	1,543	45.2	1,868	54.8
영덕군	16,727	7,730	46.2	3,119	40.3	4,611	59.7
청도군	19,237	7,900	41.1	3,438	43.5	4,462	56.5
고령군	14,027	5,612	40.0	2,716	48.4	2,896	51.6
성주군	18,819	7,447	39.6	3,907	52.5	3,540	47.5
칠곡군	48,321	19,198	39.7	10,982	57.2	8,216	42.8
예천군	24,866	9,499	38.2	4,312	45.4	5,187	54.6
봉화군	13,910	5,847	42.0	2,829	48.4	3,018	51.6
울진군	22,324	9,723	43.6	4,846	49.8	4,877	50.2
울릉군	4,281	2,041	47.7	1,298	63.6	743	36.4

자료 : 국가데이터처(2026)., 「인구총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L1502&conn_path=I3, 2026. 9. 14 인출 자료 재구성

❍ 경북 1인가구 4년간 11.9% 증가, 증가분의 4분의 3이 60세 이상
- 경상북도 1인가구는 2021년 416,697가구에서 2025년 466,174가구로 49,477가구(11.9%)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전국(15.1%)보다 낮음
- 연령대별 증가 규모는 60대(16,490가구), 70대(11,952가구), 80세 이상(9,031가구) 순으로 크며, 60세 이상 증가분(37,473가구)이 전체 증가분의 75.7%를 차지함
- 50대(7,182가구)와 30대(5,521가구)도 증가하였으나, 20대는 1,420가구 감소하였음

❍ 60세 이상 1인가구가 47.9%로 전국보다 9.4%p 높아, 고령 1인가구 중심 구조 형성
- 경북 1인가구 중 60세 이상 비중은 2021년 44.6%에서 2025년 47.9%로 높아졌으며, 이는 1인가구 2가구 중 1가구가 고령 1인가구인 수준임
- 1인가구 중 60대는 20.3%로 경북에서 가장 많은 연령대이며, 2021년(18.7%)보다 비중이 더 커졌는데,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 70세 이상 1인가구 비중은 27.6%로 전국(20.7%)보다 6.9%p 높으며, 특히 80세 이상은 12.6%로 전국(8.5%)의 약 1.5배임. 결국 돌봄 필요도가 높은 초고령 1인가구의 비중이 큰 것이 경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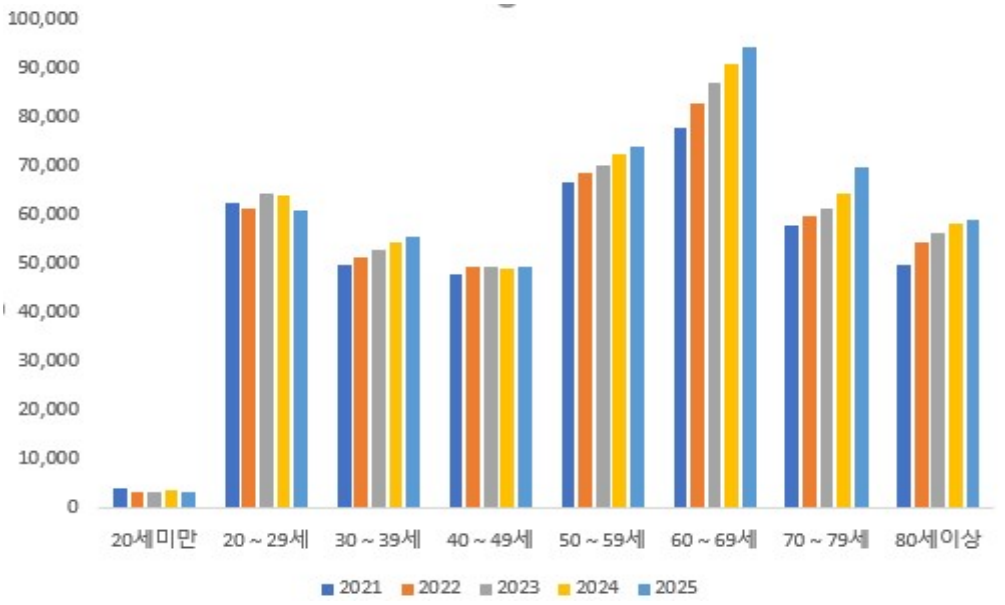
❍ 20~30대 청년 1인가구 비중은 전국보다 낮고, 20대는 감소
- 2025년 20~30대 1인가구 비중은 경북 25.0%(20대 13.1%, 30대 11.9%)로 전국(33.8%)보다 8.8%p 낮음
- 20대 1인가구 비중은 15.0%에서 13.1%로 낮아졌고, 가구 수도 감소하였는데 이는 청년층의 도외 유출(〈표 Ⅱ-8〉 참조)과 청년 인구 감소가 반영된 것으로 여겨짐
- 전국은 1인가구가 20대부터 60대까지 고르게 분포하는 반면, 경북은 60세 이상에 집중되어 있어 1인가구 정책도 고령 1인가구의 돌봄·안전 중심으로 수요가 형성될 것으로 보임

<표 Ⅱ-20> 경상북도 연령별 1인가구 현황(2021~2025)

(단위 : 명(%))

구분		전체	20세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
2021	전국	7,165,788 (100.0)	54,052 (0.8)	1,363,552 (19.0)	1,226,034 (17.1)	950,236 (13.3)	1,100,914 (15.4)	1,176,108 (16.4)	771,145 (10.8)	523,747 (7.3)
	경북	416,697 (100.0)	3,995 (1.0)	62,485 (15.0)	49,932 (12.0)	47,840 (11.5)	66,779 (16.0)	77,979 (18.7)	57,876 (13.9)	49,811 (12.0)
2022	전국	7,502,350 (100.0)	53,088 (0.7)	1,386,552 (18.5)	1,298,846 (17.3)	977,577 (13.0)	1,137,505 (15.2)	1,252,607 (16.7)	808,984 (10.8)	587,191 (7.8)
	경북	430,969 (100.0)	3,364 (0.8)	61,504 (14.3)	51,474 (11.9)	49,427 (11.5)	68,486 (15.9)	82,702 (19.2)	59,741 (13.9)	54,271 (12.6)
2023	전국	7,829,035 (100.0)	48,486 (0.6)	1,405,202 (18.0)	1,354,369 (17.3)	988,744 (12.6)	1,184,151 (15.1)	1,354,523 (17.3)	860,994 (11.0)	632,566 (8.1)
	경북	444,108 (100.0)	3,276 (0.7)	64,237 (14.5)	52,760 (11.9)	49,208 (11.1)	70,060 (15.8)	87,046 (19.6)	61,187 (13.8)	56,334 (12.7)
2024	전국	8,044,948 (100.0)	47,065 (0.6)	1,382,693 (17.2)	1,403,818 (17.5)	988,683 (12.3)	1,218,118 (15.1)	1,414,348 (17.6)	922,505 (11.5)	667,718 (8.3)
	경북	457,153 (100.0)	3,603 (0.8)	64,041 (14.0)	54,338 (11.9)	49,006 (10.7)	72,509 (15.9)	90,937 (19.9)	64,472 (14.1)	58,247 (12.7)
2025	전국	8,244,308 (100.0)	48,196 (0.6)	1,344,297 (16.3)	1,442,841 (17.5)	998,265 (12.1)	1,239,157 (15.0)	1,463,029 (17.8)	1,011,336 (12.3)	697,187 (8.5)
	경북	466,174 (100.0)	3,176 (0.7)	61,065 (13.1)	55,453 (11.9)	49,380 (10.6)	73,961 (15.9)	94,469 (20.3)	69,828 (15.0)	58,842 (12.6)

주: 비율()은 각 연령대 인원 ÷ 해당연도·지역 1인가구 전체
자료 : 국가데이터처(2026)., 「인구총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L1502&conn_path=I3, 2026. 9. 14 인출 자료 재구성



자료 : 국가데이터처(2026)., 「인구총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L1502&conn_path=I3, 2026. 9. 14 인출 자료 재구성

[그림 Ⅱ-15] 경상북도 연령별 1인가구 현황(2021~2025)

(2) 맞벌이 가구

❍ 경북 맞벌이 가구 비중 53.0%, 전국보다 높은 수준을 꾸준히 유지

- 2025년 경상북도 유배우 가구 698천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370천 가구로 53.0%를 차지함. 즉 유배우 가구 2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맞벌이 가구임
- 경북의 맞벌이 가구 비중은 2017년 이후 매 조사 시점마다 51.8~53.3% 수준을 유지하며, 동 기간 동안 전국(44.3~48.6%)보다 높았음. 이는 농림어업 등 부부가 함께 일하는 가족 단위 생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 산업 구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2019년 이후 정체, 전국과의 격차는 7.5%p에서 4.4%p로 축소

- 경북 맞벌이 가구 비중은 2017년 51.8%에서 2019년 53.3%로 높아진 뒤, 2021년 52.9%, 2023년 52.6%, 2025년 53.0%로 정체 양상을 보임. 맞벌이 가구 수도 2017년 354천 가구에서 2025년 370천 가구로 16천 가구(4.5%) 증가하는 데 그쳤음

- 반면 전국은 같은 기간 맞벌이 가구가 707천 가구(13.0%) 증가하였으며, 비중도 44.3%에서 48.6%로 4.3%p 높아졌음. 이에 따라 경북과 전국의 맞벌이 가구 비중 격차는 2017년 7.5%p에서 2025년 4.4%p로 줄어듦. 이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따른 맞벌이 증가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된 결과로 생각됨

<표 Ⅱ-21> 경상북도 맞벌이 가구 현황 및 추이(2017~2025)

(단위 : 천가구, %)

구 분		유배우 가구	맞벌이 가구	맞벌이가구 비중
2017	전국	12,289	5,446	44.3
	경북	683	354	51.8
2019	전국	12,472	5,680	45.5
	경북	688	366	53.3
2021	전국	12,687	5,826	45.9
	경북	699	370	52.9
2023	전국	12,687	6,115	48.2
	경북	690	363	52.6
2025	전국	12,650	6,153	48.6
	경북	698	370	53.0

자료 : 국가데이터처(2026).「지역별고용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4F09S&conn_path=I3, 2026. 9. 18 인출)

(3) 한부모가구

❍ 경북 한부모가구 4년간 5.0% 감소, 총가구 중 비중도 5.2%로 전국보다 낮음

- 경상북도 한부모가구는 2021년 65,936가구에서 2025년 62,626가구로 3,310가구(5.0%) 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이 전국(2.2%)보다 큼
- 같은 기간 총가구는 2.8% 증가하여, 총가구 중 한부모가구 비중은 5.6%에서 5.2%로 낮아짐. 경북의 한부모가구 비중은 동 기간 내내 전국(6.9%→6.4%)보다 1.2~1.3%p 낮은 수준임. 이러한 한부모가구의 감소는 자녀 수 감소와 청장년층 인

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부자 한부모가구 감소 폭이 커 모자가구 비중이 74.6%로 상승, 그러나 부자가구 비중은 전국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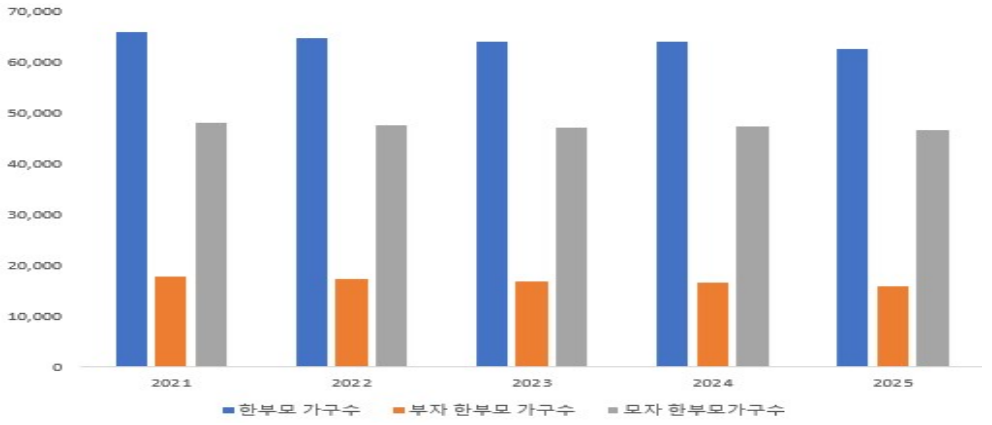
- 부자 한부모가구는 17,869가구에서 15,918가구로 1,951가구(10.9%) 감소하였고, 모자 한부모가구는 48,067가구에서 46,708가구로 1,359가구(2.8%) 감소하여, 부자가구의 감소 폭이 더 큼. 이로 인해 한부모가구 중 모자가구 비중은 72.9%에서 74.6%로 높아짐. 즉 한부모가구 4가구 중 3가구가 모자가구임
- 다만 경북의 부자가구 비중(25.4%)은 전국(23.5%)보다 1.9%p 높아, 부자 한부모가구에 대한 돌봄·가사 지원 수요도 상대적으로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표 Ⅱ-22> 경상북도 한부모가구 현황 및 추이(2021~2025)

(단위 : 가구, %)

구분		총가구수	한부모 가구수	총가구 중 한부모 가구(%)	부자 한부모 가구수	한부모 가구 중 부자가구(%)	모자 한부모 가구수	한부모 가구 중 모자가구(%)
2021	전국	22,022,753	1,509,958	6.9	373,736	24.8	1,136,222	75.2
	경북	1,178,040	65,936	5.6	17,869	27.1	48,067	72.9
2022	전국	22,383,187	1,494,067	6.7	364,651	24.4	1,129,416	75.6
	경북	1,189,287	64,881	5.5	17,353	26.7	47,528	73.3
2023	전국	22,728,163	1,493,042	6.6	360,892	24.2	1,132,150	75.8
	경북	1,192,294	64,172	5.4	16,963	26.4	47,209	73.6
2024	전국	22,997,120	1,490,965	6.5	355,515	23.8	1,135,450	76.2
	경북	1,204,317	64,073	5.3	16,653	26.0	47,420	74.0
2025	전국	23,245,980	1,477,492	6.4	346,696	23.5	1,130,796	76.5
	경북	1,210,714	62,626	5.2	15,918	25.4	46,708	74.6

주 : 한부모가구를 미혼자녀를 양육하는 법적으로 미혼, 이혼 및 사별인 모 또는 부로 제한
자료 : 국가데이터처(2026)., 「인구총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P1601&conn_path=I3, 2026. 9. 14 인출 자료 재구성



자료 : 국가데이터처(2026)., 「인구총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P1601&conn_path=I3, 2026. 9. 14 인출 자료 재구성

[그림 Ⅱ-16] 경상북도 한부모가구 현황 및 추이(2021~2025)

❍ 한부모가구 비중은 칠곡·경산·포항·구미 등 도시지역이 높고, 건수는 3개 시에 절반이 집중

- 일반가구 중 한부모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은 칠곡군(8.8%), 경산시(8.5%), 포항시·구미시(8.2%)이며, 자녀 양육기 가구가 많은 도시지역과 대구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남
- 한부모가구 수는 포항시(18,052가구), 구미시(14,898가구), 경산시(10,939가구) 순으로 많으며, 이들 3개 시가 도 전체의 49.2%를 차지함
- 반면 영양군·청송군(4.9%), 의성군·울릉군(5.1%), 봉화군(5.3%)은 비중이 낮은데 이는 자녀가 있는 가구 자체가 적은 고령화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군지역 부자가구·조손가구 비중이 높아, 의성·청송·청도·고령은 조손가구 10% 이상

- 한부모가구 중 부자가구 비중이 30% 이상인 지역은 울릉군(33.9%), 청송군(33.4%), 봉화군(32.1%), 의성군(31.8%), 울진군(31.5%), 영양군(31.3%), 성주군(30.6%)이며, 경산시(23.7%), 안동시(24.2%) 등 도시지역보다 7~10%p 높음
- 조손가구 비중은 의성군(12.5%), 청송군(11.7%), 청도군(11.4%), 고령군(10.3%) 4개 군에서 10%를 넘으며. 이는 구미시(3.8%)의 약 3배 수준임. 즉 고령화된 군지역은 한부모가구 수는 적지만 부자·조손가구의 비중이 높아 돌봄 공백과 세대 간 양

육 부담에 대응하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표 Ⅱ-23> 경상북도 시군별 유형별 한부모가구 현황('25)

(단위 : 가구, %)

구분	일반 가구수*	한부모 가구수	일반가구 중 한부모 가구(%)	부자한 부모가 구수	한부모가구 중 부자 가구(%)	모자한 부모가 구수	한부모가구 중 모자 가구(%)	조손 가구수	한부모가구 중 조손 가구(%)
전국	22,495,096	2,002,226	8.9	489,718	24.5	1,512,508	75.5	108,406	5.4
경북	1,176,178	89,262	7.6	23,602	26.4	65,660	73.6	5,426	6.1
포항시	220,773	18,052	8.2	4,768	26.4	13,284	73.6	908	5.0
경주시	116,834	8,622	7.4	2,314	26.8	6,308	73.2	562	6.5
김천시	61,621	4,553	7.4	1,212	26.6	3,341	73.4	339	7.4
안동시	73,100	5,586	7.6	1,354	24.2	4,232	75.8	379	6.8
구미시	181,883	14,898	8.2	3,768	25.3	11,130	74.7	560	3.8
영주시	46,161	3,211	7.0	894	27.8	2,317	72.2	269	8.4
영천시	45,718	3,460	7.6	950	27.5	2,510	72.5	269	7.8
상주시	43,495	2,852	6.6	787	27.6	2,065	72.4	225	7.9
문경시	30,815	2,136	6.9	560	26.2	1,576	73.8	163	7.6
경산시	129,315	10,939	8.5	2,589	23.7	8,350	76.3	562	5.1
의성군	24,224	1,242	5.1	395	31.8	847	68.2	155	12.5
청송군	11,952	581	4.9	194	33.4	387	66.6	68	11.7
영양군	7,775	384	4.9	120	31.3	264	68.8	37	9.6
영덕군	16,727	1,015	6.1	263	25.9	752	74.1	77	7.6
청도군	19,237	1,145	6.0	309	27.0	836	73.0	131	11.4
고령군	14,027	950	6.8	269	28.3	681	71.7	98	10.3
성주군	18,819	1,182	6.3	362	30.6	820	69.4	99	8.4
칠곡군	48,321	4,247	8.8	1,231	29.0	3,016	71.0	225	5.3
예천군	24,866	1,780	7.2	488	27.4	1,292	72.6	104	5.8
봉화군	13,910	735	5.3	236	32.1	499	67.9	64	8.7
울진군	22,324	1,474	6.6	465	31.5	1,009	68.5	115	7.8
울릉군	4,281	218	5.1	74	33.9	144	66.1	17	7.8

주 : 일반가구 대상 집계로 집단가구(6인이상 비혈연 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 가구 제외
주 : 한부모가구=부+미혼자녀+모+미혼자녀(2세대가구 기준), 조손가구=조부모+미혼손자녀+조부 또는 조모+미혼손자녀. 시군구 단위 자료 특성상 '기타가구원' 동거 유형은 포함하지 않음
자료 : 국가데이터처(2026), 「인구총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5&conn_path=I3, 2026. 9. 14 인출 자료 재구성

(4) 조손가구

○ 경북 조손가구 8년간 24.0% 감소, 감소율은 전국의 약 6.5배

- 경상북도 조손가구는 2017년 7,140가구에서 2025년 5,426가구로 1,714가구(24.0%)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전국은 3.7% 감소하는 데 그침. 전국은 2021년까지 증가하다 이후 감소한 반면, 경북은 조사 기간 내내 감소세가 이어짐
- 2년 단위 감소 폭은 2017~2021년 300가구 수준에서 2021~2023년 499가구, 2023~2025년 604가구로 커짐
- 총가구 중 조손가구 비중은 2017년 0.6%로 전국과 같았으나, 2025년 0.4%로 전국(0.5%)보다 낮아짐. 이는 유소년인구의 빠른 감소(〈표 Ⅱ-9〉 참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표 Ⅱ-24> 경상북도 조손가구 현황(2017~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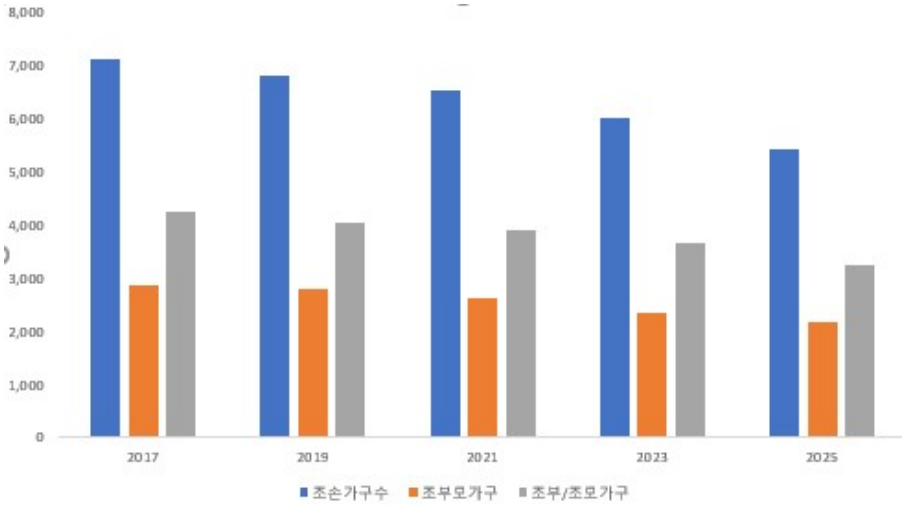
(단위 : 가구, %)

구분		총가구수	조손 가구수	총가구 중 조손가구 (%)	조부모+ 미혼손자녀 가구수	조손가구 중 조부모 가구(%)	조부 또는 조모+미혼 손자녀 가구수	조손가구 중 조부/조모 가구(%)
2017	전국	20,167,922	112,578	0.6	44,558	39.6	68,020	60.4
	경북	1,105,213	7,140	0.6	2,864	40.1	4,276	59.9
2019	전국	20,891,348	114,211	0.5	45,605	39.9	68,606	60.1
	경북	1,123,145	6,831	0.6	2,789	40.8	4,042	59.2
2021	전국	22,022,753	118,907	0.5	46,860	39.4	72,047	60.6
	경북	1,178,040	6,529	0.6	2,626	40.2	3,903	59.8
2023	전국	22,728,163	114,891	0.5	45,324	39.4	69,567	60.6
	경북	1,192,294	6,030	0.5	2,356	39.1	3,674	60.9
2025	전국	23,245,980	108,406	0.5	43,567	40.2	64,839	59.8
	경북	1,210,714	5,426	0.4	2,168	40.0	3,258	60.0

주 : 조손가구수 = 2세대가구 중 조부모+미혼손자녀 + 2세대가구 중조부 또는 조모+미혼손자녀
자료 : 국가데이터처(2026)., 「인구총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P1601&conn_path=I3, 2026. 9. 14 인출 자료 재구성

❍ 조부 또는 조모 한 명이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60% 수준으로 다수

- 2025년 경북 조손가구 중 조부 또는 조모 한 명과 미혼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3,258가구로 60.0%를 차지함. 조부모 두 명이 함께 양육하는 가구(2,168가구, 40.0%)보다 많음. 이 비중은 2017년 59.9%에서 2023년 60.9%까지 높아진 뒤 2025년 60.0%로, 60% 안팎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전국(59.8%)과 비슷한 수준임
- 조부모 1인이 양육하는 가구가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고령 양육자의 돌봄·경제적 부담 완화와 손자녀 양육 지원에 대한 정책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자료 : 국가데이터처(2026)., 「인구총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P1601&conn_path=I3, 2026. 9. 14 인출 자료 재구성

[그림 Ⅱ-17] 경상북도 조손가구 현황(2017~2025)

(5) 다문화가족

❍ 경북 다문화가구 8년간 39.8% 증가, 비중은 1.8%로 전국보다 다소 낮음

- 경상북도 다문화가구는 2017년 14,853가구에서 2025년 20,759가구로 5,906가구(39.8%)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전국(41.6%)과 비슷한 수준임

- 일반가구 중 다문화가구 비중은 1.4%에서 1.8%로 높아졌으나, 동 기간 내내 전국(1.6%→2.0%)보다 0.2%p 낮았음
- 경북은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 비중이 전국보다 높은 반면(〈표 Ⅱ-16〉 참조), 다문화가구 비중은 전국보다 낮은데 이는 결혼이민 외에 근로·유학 등 다양한 경로의 다문화가구가 수도권·대도시에 집중된 영향으로 보임

❍ 다문화가족 비중은 영양·칠곡·고령 등 군지역이 높고, 가구 수는 4개 시에 절반이 집중되어 있음

- 2025년 다문화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은 영양군·칠곡군(2.5%), 고령군(2.4%), 상주시·봉화군(2.3%), 영천시·성주군(2.2%) 7개 지역이며, 전국(2.0%)보다 높은 시군은 9개 지역이며, 대부분 군지역과 농촌형 시 지역임. 반면 울릉군(0.9%), 포항시(1.3%)는 다문화가족 비중이 낮음
- 다문화가구 수는 구미시(2,877가구), 포항시(2,821가구), 경주시(2,416가구), 경산시(2,192가구) 순으로 많으며, 이들 4개 시가 도 전체의 49.6%를 차지함

❍ 다문화가족 증가 속도는 경산·김천·구미 등 도시지역이 빠르고, 군지역은 완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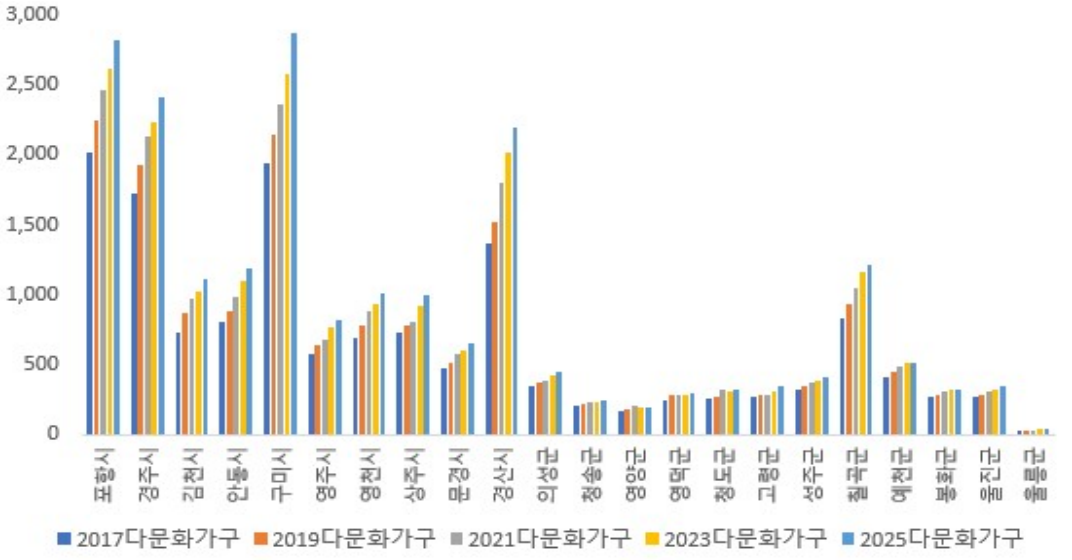
- 2017년 대비 2025년 다문화가구 증가율은 경산시(59.9%), 김천시(52.0%), 구미시(48.4%), 안동시(46.7%), 칠곡군(46.0%), 영천시(45.8%) 순으로 높으며, 경산시는 비중도 1.3%에서 1.7%로 높아짐
- 반면 영양군(14.0%), 울릉군(19.4%), 영덕군(20.8%), 청송군(21.4%), 봉화군(21.9%) 등은 증가율이 낮음. 영양군은 2017년부터 도내 최고 수준의 비중(2.3%)을 보였으나, 이후 증가세는 가장 완만함. 즉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다문화가구가 일찍 형성된 군지역은 증가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 산업단지와 대학이 있는 도시지역에서는 다문화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음

<표 Ⅱ-25> 경상북도 시군별 다문화가구 현황(2017~2025)

(단위 : 가구, %)

구분	2017			2019			2021			2023			2025		
	일반가구	다문화가구	비중	일반가구	다문화가구	비중	일반가구	다문화가구	비중	일반가구	다문화가구	비중	일반가구	다문화가구	비중
전국	19,673,875	318,917	1.6	20,343,188	353,803	1.7	21,448,463	385,219	1.8	22,073,153	415,584	1.9	22,495,096	451,492	2.0
경북	1,087,807	14,853	1.4	1,102,934	16,435	1.5	1,156,645	18,058	1.6	1,166,594	19,284	1.7	1,176,178	20,759	1.8
포항	200,102	2,014	1.0	202,492	2,253	1.1	213,410	2,460	1.2	216,729	2,617	1.2	220,773	2,821	1.3
경주시	106,533	1,721	1.6	108,194	1,931	1.8	113,760	2,128	1.9	114,793	2,241	2.0	116,834	2,416	2.1
김천시	56,612	732	1.3	57,408	871	1.5	60,115	975	1.6	61,530	1,023	1.7	61,621	1,113	1.8
안동시	68,249	810	1.2	68,285	887	1.3	71,804	983	1.4	72,259	1,104	1.5	73,100	1,188	1.6
구미시	162,429	1,939	1.2	164,752	2,141	1.3	173,937	2,364	1.4	177,393	2,575	1.5	181,883	2,877	1.6
영주시	44,844	579	1.3	44,303	636	1.4	45,423	682	1.5	46,254	769	1.7	46,161	823	1.8
영천시	41,681	690	1.7	43,310	781	1.8	45,839	878	1.9	46,589	929	2.0	45,718	1,006	2.2
상주시	42,274	732	1.7	42,579	777	1.8	43,339	810	1.9	43,933	925	2.1	43,495	996	2.3
문경시	29,841	476	1.6	30,068	516	1.7	31,154	571	1.8	31,254	599	1.9	30,815	650	2.1
경산시	108,602	1,371	1.3	112,324	1,527	1.4	122,309	1,803	1.5	127,547	2,022	1.6	129,315	2,192	1.7
의성군	23,688	349	1.5	23,767	373	1.6	24,243	381	1.6	24,646	419	1.7	24,224	443	1.8
청송군	11,454	201	1.8	11,512	222	1.9	11,861	228	1.9	11,928	229	1.9	11,952	244	2.0
영양군	7,565	172	2.3	7,539	180	2.4	7,723	199	2.6	7,730	196	2.5	7,775	196	2.5
영덕군	17,015	245	1.4	16,918	288	1.7	16,958	282	1.7	16,982	284	1.7	16,727	296	1.8
청도군	18,361	257	1.4	18,616	274	1.5	19,041	315	1.7	19,396	313	1.6	19,237	316	1.6
고령군	13,519	271	2.0	13,468	287	2.1	13,576	285	2.1	13,781	312	2.3	14,027	342	2.4
성주군	17,479	326	1.9	17,835	350	2.0	18,547	369	2.0	18,994	385	2.0	18,819	406	2.2
칠곡군	47,094	832	1.8	46,237	932	2.0	47,930	1,045	2.2	49,152	1,165	2.4	48,321	1,215	2.5
예천군	20,413	405	2.0	23,382	446	1.9	24,682	481	1.9	25,184	509	2.0	24,866	507	2.0
봉화군	14,052	265	1.9	13,992	278	2.0	14,186	304	2.1	14,213	314	2.2	13,910	323	2.3
울진군	21,518	268	1.2	21,332	279	1.3	21,876	305	1.4	21,988	321	1.5	22,324	352	1.6
울릉군	4,072	31	0.8	4,061	29	0.7	4,135	31	0.7	4,319	33	0.8	4,281	37	0.9

자료 : 국가데이터처(2026),「인구총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5&conn_path=I3,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D1501&conn_path=I3, 2026. 9. 14 인출 자료 재구성



자료 : 국가데이터처(2026),「인구총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5&conn_path=I3,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D1501&conn_path=I3, 2026. 9. 14 인출 자료 재구성

[그림 Ⅱ-18] 경상북도 시군별 다문화가구 현황(2017~2025)

❍ 경북 다문화가구원 6만 명을 넘어 8년간 21.4% 증가, 증가율은 전국보다 낮음

- 경상북도 다문화가구원은 2017년 50,152명에서 2025년 60,866명으로 10,714명(21.4%) 증가하였으나 전국(30.3%)보다 증가율이 낮음. 같은 기간 다문화가구가 39.8% 늘어난 것에 비해 가구원 증가율은 그 절반 수준에 그침
- 도 전체 인구 대비 다문화가구원 비중은 1.9%에서 2.4%로 높아졌으며, 이는 전국(2.5%)과 비슷한 수준임

❍ 평균 가구원 수 3.38명에서 2.93명으로 다문화가구도 소형화, 다만 전국보다는 큼

- 경북 다문화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017년 3.38명에서 2025년 2.93명으로 0.45명 줄어들어 다문화가구에서도 가구 소형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전국(3.02명→2.78명)보다 감소 폭이 크지만, 여전히 전국보다 0.15명 많음. 즉 결혼이민자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단위 다문화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임

- 시군별 평균 가구원 수는 영양군(3.30명), 성주군(3.29명), 예천군(3.27명), 봉화군(3.21명) 등 군지역이 많고, 울릉군(2.62명), 구미시(2.73명), 경산시(2.79명), 칠곡군(2.80명)이 상대적으로 적음

<표 Ⅱ-26> 경상북도 시군별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2017~2025)

구분	2017		2019		2021		2023		2025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전국	318,917	963,801	353,803	1,062,423	385,219	1,119,267	415,584	1,191,768	451,492	1,255,375
경상북도	14,853	50,152	16,435	54,379	18,058	57,102	19,284	59,300	20,759	60,866
포항시	2,014	6,887	2,253	7,481	2,460	7,817	2,617	8,184	2,821	8,487
경주시	1,721	5,408	1,931	5,968	2,128	6,288	2,241	6,617	2,416	6,811
김천시	732	2,617	871	2,875	975	3,090	1,023	3,155	1,113	3,275
안동시	810	2,873	887	3,054	983	3,279	1,104	3,497	1,188	3,509
구미시	1,939	5,927	2,141	6,524	2,364	6,931	2,575	7,322	2,877	7,861
영주시	579	2,061	636	2,232	682	2,286	769	2,465	823	2,477
영천시	690	2,283	781	2,517	878	2,727	929	2,812	1,006	2,936
상주시	732	2,735	777	2,861	810	2,819	925	3,040	996	3,084
문경시	476	1,733	516	1,847	571	1,928	599	1,966	650	1,965
경산시	1,371	4,373	1,527	4,836	1,803	5,442	2,022	5,845	2,192	6,124
군위군	167	623	177	631	179	594	-	-	-	-
의성군	349	1,299	373	1,351	381	1,345	419	1,402	443	1,374
청송군	201	724	222	793	228	755	229	755	244	766
영양군	172	630	180	642	199	673	196	652	196	646
영덕군	245	860	288	992	282	938	284	937	296	920
청도군	257	922	274	970	315	1,058	313	1,035	316	1,002
고령군	271	978	287	994	285	951	312	1,006	342	1,038
성주군	326	1,192	350	1,287	369	1,289	385	1,321	406	1,337
칠곡군	832	2,433	932	2,764	1,045	3,023	1,165	3,333	1,215	3,407
예천군	405	1,557	446	1,713	481	1,737	509	1,751	507	1,660
봉화군	265	993	278	1,022	304	1,057	314	1,089	323	1,036
울진군	268	941	279	932	305	982	321	1,017	352	1,054
울릉군	31	103	29	93	31	93	33	99	37	97

자료 : 국가데이터처(2026), 「인구총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D1501&conn_path=I3, 2026. 9. 14 인출 자료 재구성

○ 도시지역은 다문화가구원이 빠르게 늘고, 군지역은 최근 정체·감소로 전환
- 2017년 대비 2025년 가구원 증가율은 경산시·칠곡군(40.0%), 구미시(32.6%), 영천시(28.6%) 순으로 높은데 가구 수와 가구원이 함께 늘고 있음
- 반면 군지역은 증가율이 낮음. 특히 예천군(1,751명→1,660명), 봉화군(1,089명→1,036명), 청도군(,035명→1,002명), 의성군(,402명→1,374명)은 2023~2025년 가구 수가 늘었음에도 가구원 수는 감소함. 이들 군지역에서는 자녀의 성장·독립과 1~2인 다문화가구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다문화가족 정책의 초점도 영유아 중심에서 학령기·청소년 자녀와 중·장년 결혼이민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가족가치관 및 생활 여건

1) 결혼·이혼·재혼에 대한 인식

(1) 결혼문화에 대한 태도

○ 동거·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한 수용도는 높아졌으나, 경북의 변화 폭이 작아 전국과의 격차 확대
-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데 동의(전적으로+약간)하는 비율은 경북이 2020년 55.8%에서 2024년 57.7%로 1.9%p 높아짐. 반면 전국(59.7%→67.5%)은 7.8%p 높아져, 전국과의 격차가 3.9%p에서 9.8%p로 확대됨
- '외국인과 결혼할 수 있다'는 동의 비율도 경북은 64.8%에서 66.0%로 1.2%p 높아지는 데 그쳐 전국(71.0%→76.1%)과의 격차가 6.2%p에서 10.1%p로 커짐. 경북은 실제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이 전국보다 높음에도(〈표 Ⅱ-16〉 참조) 수용 인식은 전국보다 낮아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가족 간 관계 우선' 인식은 크게 약화, 부부 중심의 결혼관 확산
- '결혼생활은 부부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은

경북이 52.2%에서 40.7%로 11.5%p 낮아졌으며, 전국(50.6%→41.1%, 9.5%p 하락)보다 하락 폭이 큼

- 2020년에는 경북의 동의 비율이 전국보다 높았으나, 2024년에는 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짐. 또한 반대 의견이 과반(59.3%)을 넘어, 부부 중심의 결혼관이 경북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표 Ⅱ-27> 결혼 문화에 대한 태도(13세 이상)

(단위: %)

구 분			전적으로 동의	약간 동의	약간 반대	전적으로 반대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전국	2020	16.1	43.6	24.3	16.0
		2024	19.5	48.0	21.6	11.0
	경북	2020	11.2	44.6	29.9	14.3
		2024	12.0	45.7	30.3	12.1
결혼생활은 부부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전국	2020	10.0	40.6	37.4	12.0
		2024	8.4	32.7	43.2	15.7
	경북	2020	8.8	43.4	36.2	11.6
		2024	7.2	33.5	44.3	15.0
외국인과 결혼할 수 있다	전국	2020	24.9	46.1	20.6	8.4
		2024	25.5	50.6	17.2	6.8
	경북	2020	16.9	47.9	27.4	7.8
		2024	15.5	50.5	25.7	8.3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전국	2020	7.2	23.4	36.4	33.1
		2024	8.3	26.4	36.2	29.2
	경북	2020	4.7	25.2	40.6	29.5
		2024	5.5	29.2	40.0	25.4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	전국	2020	25.5	42.6	22.1	9.8
		2024	23.4	44.9	22.7	9.0
	경북	2020	23.2	50.2	19.9	6.8
		2024	26.2	48.4	19.7	5.7

자료 :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51R&conn_path=I2, 2026. 9. 21 인출 자료 재구성

○ 결혼과 출산을 연결하는 인식은 경북이 더 강하나, 비혼 출산 수용도도 상승

-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은 경북이 73.4%에서 74.6%로 1.2%p 높아짐. 전국(68.1%→68.3%)보다 6.3%p 높아, 결혼과 출산을 하나로 보는 전통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함
- 동시에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동의 비율은 경북이 29.9%에서 34.7%로 4.8%p 높아졌으며 2024년에는 전국(34.7%)과 같은 수준이 됨. 또한 '전적으로 반대' 응답도 29.5%에서 25.4%로 낮아짐. 그러나 비혼 출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3명 중 2명이 반대하고 있어, 출산은 결혼을 전제로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2) 결혼식 문화에 대한 인식

○ 경북 도민 10명 중 7명은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인식, '매우 과도하다' 응답이 크게 늘어남

- 경상북도에서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매우+약간)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67.1%에서 2024년 69.1%로 2.0%p 높아짐. 특히 '매우 과도한 편'이라는 응답은 18.7%에서 22.8%로 4.1%p 늘어, 과도하다는 인식의 강도가 커짐
- 반면 '간소하다'(매우+약간)는 응답은 6.3%에서 5.4%로 낮아졌고, '보통'도 20.2%에서 18.7%로 줄어듦. 이는 결혼 비용 부담 증가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혼인 기피 요인과도 연결될 수 있음

○ 결혼식 비용이 '과도하다'는 인식은 전국보다 낮으나 격차는 유지, 성별 차이는 크지 않음

- 경북의 '과도하다' 응답 비율(69.1%)은 전국(76.8%)보다 7.7%p 낮으며, 2020년 격차(7.2%p)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보통'이라는 응답이 전국(13.3%)보다 5.4%p 높아, 결혼식 문화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덜 비판적인 편임
- 2024년 경북의 성별 '과도하다' 응답은 남성 69.5%, 여성 68.5%로 차이가 크지 않으나 다만 '매우 과도한 편'은 여성(23.2%)이 남성(22.3%)보다 다소 높음.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여성(7.4%)이 남성(6.5%)보다 높음

<표 Ⅱ-28> 결혼식 문화에 대한 인식(13세 이상)

(단위: %)

구 분			매우 간소한 편이다	약간 간소한 편이다	보통이다	약간 과도한 편이다	매우 과도한 편이다	잘 모르겠다
전국	2020	전체	1.4	3.9	14.7	47.0	27.3	5.7
		남자	1.4	3.9	14.7	46.9	27.2	5.9
		여자	1.4	3.9	14.7	47.0	27.4	5.6
	2024	전체	0.9	3.1	13.3	45.9	30.9	5.9
		남자	0.9	2.9	14.0	45.2	31.0	6.0
		여자	0.8	3.4	12.5	46.7	30.8	5.8
경북	2020	전체	1.2	5.1	20.2	48.4	18.7	6.4
		남자	1.4	4.6	19.9	49.4	18.3	6.4
		여자	1.0	5.5	20.5	47.5	19.1	6.4
	2024	전체	0.7	4.7	18.7	46.3	22.8	6.9
		남자	0.7	4.7	18.7	47.2	22.3	6.5
		여자	0.7	4.6	18.7	45.3	23.2	7.4

자료 :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55R&conn_path=I2, 2026. 9. 21 인출 자료 재구성

(3) 결혼에 대한 견해

○ 경북은 결혼에 대한 긍정 인식 55.8%로 상승하여 전국보다 높아지고,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도 21.2%로 증가

- 경상북도에서 결혼을 '해야 한다'(반드시 해야 한다+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49.2%에서 2024년 55.8%로 6.6%p 높아짐. 같은 기간 전국(51.2%→52.5%)은 1.3%p 상승에 그쳐, 2020년 전국보다 낮았던 경북이 2024년에는 3.3%p 높아짐. 특히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이 15.6%에서 21.2%로 5.6%p 늘어나 전국(16.8%→16.4%)이 정체된 것과 대조를 보임
- 반면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은 43.6%에서 39.3%로 4.3%p 낮아졌으며, '하지 않는 것이 좋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를 합한 응답도 3.9%에서 2.8%로 줄어듦
- 동거·비혼 출산 수용도가 전국보다 낮은 점(〈표 Ⅱ-27〉 참조)과 함께, 경북은 결혼

을 중시하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 남녀 모두 긍정 인식이 높아졌으나 성별 격차는 확대, 여성은 선택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높음

- 경북 남성의 결혼 긍정 인식은 52.1%에서 60.2%로 8.1%p 높아져, 여성(46.2%→51.2%, 5.0%p)보다 상승 폭이 컸음. 이에 따라 성별 격차는 2020년 5.9%p에서 2024년 9.0%p로 확대됨. 전국은 같은 기간 13.9%p에서 11.5%p로 격차가 줄어들어 경북과 반대 흐름을 보임
- 경북 여성의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은 46.0%에서 43.4%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남성(35.2%)보다 8.2%p 높음. 즉 결혼을 선택의 문제로 보는 인식은 여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남

<표 Ⅱ-29> 결혼에 대한 견해(13세 이상)

(단위: %)

구 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
전국	2020	전체	16.8	34.4	41.4	3.5	0.9	3.0
		남자	19.7	38.5	35.4	2.3	0.7	3.3
		여자	13.9	30.4	47.3	4.6	1.0	2.8
	2024	전체	16.4	36.1	41.5	2.6	0.7	2.7
		남자	18.8	39.5	36.0	2.0	0.5	3.1
		여자	14.0	32.8	46.8	3.2	0.9	2.3
경북	2020	전체	15.6	33.6	43.6	3.6	0.3	3.4
		남자	16.9	35.2	41.1	2.5	0.2	4.2
		여자	14.3	31.9	46.0	4.7	0.5	2.6
	2024	전체	21.2	34.6	39.3	2.2	0.6	2.2
		남자	22.7	37.5	35.2	1.6	0.5	2.5
		여자	19.6	31.6	43.4	2.8	0.7	1.9

자료 :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60R&conn_path=I2, 2026. 9. 21 인출 자료 재구성

(4)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 '결혼자금 부족'이 가장 큰 이유이며, 출산·양육 부담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응답이 늘어남

- 2024년 경상북도에서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결혼자금 부족(25.2%), 출산과 양육 부담(14.9%), 직업이 없거나 고용상태 불안정(14.1%),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13.0%) 순이었음
- 2022년 대비 결혼자금 부족(22.2%→25.2%), 출산·양육 부담(11.4%→14.9%), 일과 결혼생활 양립의 어려움(6.6%→9.5%)이 높아짐. 출산·양육 부담과 일·가정 양립 곤란을 합한 비율은 18.0%에서 24.4%로 6.4%p 늘어, 결혼 이후의 삶에 대한 부담이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커지고 있음
- 반면 고용 불안정(18.8%→14.1%),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지 못함(13.3%→10.0%),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15.3%→13.0%)은 낮아짐

○ 남성은 경제적 요인, 여성은 출산·양육 부담과 삶의 자유를 더 많이 꼽아 성별 차이가 뚜렷함

- 2024년 경북 남성은 결혼자금 부족(29.1%)과 고용 불안정(16.8%)을 합한 경제적 요인이 45.9%로 절반에 가까움
- 반면 여성은 경제적 요인이 32.7%로 남성보다 13.2%p 낮음. 대신 출산·양육 부담(17.7%)과 일·가정 양립 곤란(10.7%)을 합한 비율이 28.4%로 남성(20.5%)보다 높음. 특히 여성의 출산·양육 부담 응답은 2022년 12.3%에서 2024년 17.7%로 5.4%p 늘어, 전국 여성(16.2%)보다도 높아짐. '행동과 삶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어서'라는 응답도 여성(11.1%)이 남성(7.5%)보다 높음

○ 전국보다 결혼자금 부족 응답은 낮고, 고용·필요성·상대 요인은 높음

- 경북의 결혼자금 부족 응답(25.2%)은 전국(31.3%)보다 6.1%p 낮은데 이는 수도권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반면 '고용 불안정' 14.1%(전국 12.9%),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13.0%(전국 11.3%),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지 못함' 10.0%(전국 8.2%) 응답은 모두 전국보다 높음.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청년층 유출에 따른 만남 기회 감소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반영된 것으로 여겨짐

<표 Ⅱ-30>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13세 이상)

(단위: %)

구 분	전국						경북					
	2022			2024			2022			2024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결혼자금(혼수비용, 주거 마련 등이 부족해서)	28.7	32.8	24.6	31.3	34.9	27.7	22.2	22.9	21.5	25.2	29.1	21.3
직업이 없거나 고용상태가 불안정 해서	14.6	16.6	12.7	12.9	14.4	11.4	18.8	22.7	14.7	14.1	16.8	11.4
결혼생활과 일을 동시에 잘하기 어려워서	7.7	5.6	9.7	9.1	7.3	10.8	6.6	4.1	9.2	9.5	8.4	10.7
출산과 양육이 부담되어서	12.8	11.9	13.7	15.4	14.5	16.2	11.4	10.5	12.3	14.9	12.1	17.7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12.2	11.5	12.9	8.2	7.9	8.4	13.3	12.9	13.6	10	9.1	11
결혼할 시기를 놓쳐서	0.6	0.7	0.5	2.8	2.9	2.7	0.9	1	0.7	2.7	3.7	1.7
행동과 삶의 자유를 포기 할 수 없어서	8.5	7.6	9.3	7.8	6.9	8.7	10.4	11.4	9.3	9.3	7.5	11.1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가 부담되어서	1.1	0.7	1.6	1	0.7	1.3	1	0.4	1.5	1.1	1	1.2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3.6	12.3	15	11.3	10.7	12.5	15.3	13.8	16.9	13	12.1	13.8
기타	0.2	0.3	0.2	0.3	0.4	0.3	0.2	0.2	0.2	0.2	0.2	0.2

자료 :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170R&conn_path=I2, 2026. 9. 21 인출 자료 재구성

(5) 이혼 및 재혼에 대한 견해

❍ 이혼 반대 인식은 34.5%로 소폭 늘어 전국과 반대 흐름을 보이며, 격차가 확대됨

- 경상북도에서 이혼에 반대(어떤 이유라도 안 된다+가급적 안 된다)하는 응답은 2020년 33.5%에서 2024년 34.5%로 1.0%p 늘어남. 그러나 같은 기간 전국

(30.3%→26.6%)은 3.7%p 줄어, 전국과의 격차가 3.2%p에서 7.9%p로 확대됨

- '이유가 있으면 이혼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16.1%에서 17.7%로 1.6%p 높아졌으나 전국(20.5%)보다 2.8%p 낮음
- '경우에 따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응답은 44.3%로 가장 많으나, 전국(48.2%)보다 낮고 2020년(45.8%)보다도 줄어듦
- 결혼·재혼에 대한 인식(〈표 Ⅱ-29〉, 〈표 Ⅱ-32〉 참조)과 마찬가지로 경북은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전통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함. 다만 실제 조이혼율은 전국보다 높아(〈표 Ⅱ-14〉 참조), 인식과 실태 사이에 차이가 나타남

<표 Ⅱ-31> 이혼에 대한 견해(13세 이상)

(단위: %)

구 분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된다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된다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	잘 모르겠다
전국	2020	전체	7.4	22.9	48.4	16.8	4.6
		남자	8.2	26.6	45.4	14.3	5.4
		여자	6.6	19.2	51.2	19.2	3.8
	2024	전체	6.1	20.5	48.2	20.5	4.6
		남자	6.8	23.5	46.7	17.9	5.2
		여자	5.5	17.6	49.7	23.1	4.1
경북	2020	전체	9.4	24.1	45.8	16.1	4.6
		남자	9.7	25.7	44.4	14.5	5.7
		여자	9.0	22.5	47.2	17.7	3.6
	2024	전체	9.1	25.4	44.3	17.7	3.5
		남자	8.4	28.3	42.8	16.2	4.3
		여자	9.9	22.4	45.9	19.2	2.6

자료 :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70R&conn_path=I2, 2026. 9. 21 인출 자료 재구성

○ 남성은 반대 인식이 강하고, 여성은 허용 인식과 '절대 반대' 인식이 모두 높은 양상

- 2024년 경북 남성의 이혼 반대 응답은 36.7%로 여성(32.3%)보다 4.4%p 높음. 특

히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28.3%로 여성(22.4%)보다 높음

- 여성은 '이유가 있으면 이혼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19.2%로 남성(16.2%)보다 높아, 이혼을 수용하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함. 동시에 여성의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도 9.0%에서 9.9%로 늘어, 남성(8.4%)과 전국 여성(5.5%)보다 높음
- 경북 여성 안에서 이혼에 대한 인식이 허용과 절대 반대로 나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고령 여성 비중이 높은 인구 구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표 Ⅱ-32> 재혼에 대한 견해(13세 이상)

(단위: %)

구 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
전국	2020	전체	0.6	7.8	64.9	13.1	4.1	9.4
		남자	0.9	10.0	65.6	10.0	3.1	10.4
		여자	0.4	5.5	64.2	16.2	5.2	8.5
	2024	전체	0.7	7.7	67.0	11.9	4.2	8.6
		남자	0.9	9.7	67.6	8.9	3.7	9.2
		여자	0.4	5.7	66.4	14.8	4.7	7.9
경북	2020	전체	0.6	7.5	62.4	15.2	4.7	9.6
		남자	0.7	9.1	64.7	11.5	3.0	11.0
		여자	0.5	5.9	60.1	18.9	6.4	8.2
	2024	전체	0.5	8.5	59.8	16.4	7.0	7.9
		남자	0.6	10.3	60.3	14.6	5.5	8.7
		여자	0.3	6.7	59.3	18.2	8.4	7.1

자료 :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LA050R&conn_path=I3, 2026. 9 .21 인출 자료 재구성

❍ 경북은 재혼을 '선택'으로 보는 인식이 줄고 부정적 인식이 늘어, 전국과 반대 흐름을 보임

- 경상북도에서 재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은 2020년 62.4%에서 2024년 59.8%로 2.6%p 낮아진 반면 같은 기간 전국(64.9%→67.0%)은 2.1%p 높

아짐

- 재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를 합한 부정적 응답은 경북이 19.9%에서 23.4%로 3.5%p 늘어나 전국(17.2%→16.1%)이 낮아진 것과 대조적이며, 전국과의 격차는 2.7%p에서 7.3%p로 확대됨
- '해야 한다'(반드시+하는 것이 좋다)는 긍정적 응답은 경북 9.0%, 전국 8.4%로 큰 차이가 없음. 결혼을 중시하는 인식이 강화된 것(〈표 Ⅱ-29〉 참조)과 함께 경북은 전통적 가족관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여성의 부정적 인식이 높은 가운데, 남성의 부정적 인식도 빠르게 늘어남

- 2024년 경북 여성의 재혼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26.6%로 남성(20.1%)보다 6.5%p 높음. 특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8.4%로 전국 여성(4.7%)의 약 1.8배임
- 남성의 부정적 응답은 14.5%에서 20.1%로 5.6%p 늘어, 여성(25.3%→26.6%, 1.3%p)보다 증가 폭이 큼. 그러나 남성은 재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도 10.9%로 여성(7.0%)보다 높아 재혼에 대한 긍정과 부정 인식이 모두 높아지는 양상을 보임

2) 가족관계 및 가사분담

(1)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 경북 도민 83.7%가 여성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으나, 전국보다 다소 낮음

- 2025년 경상북도에서 여성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83.7%임. 이는 전국(85.6%)보다 1.9%p 낮으나, 대다수가 여성 취업에 찬성하고 있음. 그러나 취업 시기에 대한 인식에서는 전국과 뚜렷한 차이를 보임

❍ '가사·돌봄에 관계없이' 일해야 한다는 인식은 전국보다 8.1%p 낮고, 자녀 양육기 취업 중단을 전제로 한 인식이 40%를 넘음

- 여성 취업이 좋다는 응답자 중 '가사·돌봄에 관계없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경북이 53.6%로 전국(61.7%)보다 8.1%p 낮음

- 반면 '출산 전과 자녀 성장 후'(25.5%)와 '자녀가 성장한 후'(14.6%)를 합한 응답은 40.1%로 전국(33.1%)보다 7.0%p 높아 출산·양육기에는 여성이 일을 중단해야 한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남. '결혼 전까지'만 일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도 3.1%로 전국(1.6%)의 약 2배임
- 경북은 여성 취업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가사·돌봄 책임을 여성에게 두는 인식이 전국보다 강함. 따라서 여성의 경력단절을 당연시하는 인식 개선과 함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함

<표 Ⅱ-33>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25, 13세 이상)

(단위 : %)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음	시기				
		가사·돌봄에 관계없이	결혼 전까지	첫 자녀 출산 전까지	자녀가 성장한 후	출산 전과 자녀 성장 후
전국	85.6	61.7	1.6	3.5	12.3	20.8
경북	83.7	53.6	3.1	3.0	14.6	25.5

자료 :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LA030R&conn_path=I3, 2026. 5. 31 인출 자료 재구성

(2) 가족관계 만족도

❍ 자녀·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고, 배우자 가족과 형제자매로 갈수록 낮아짐

- 2024년 경상북도의 관계별 만족도(매우+약간 만족)는 자녀와의 관계(77.7%), 배우자와의 관계(74.1%), 자기 부모와의 관계(70.1%) 순으로 높음. 반면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57.3%), 자기 형제·자매와의 관계(54.9%),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47.3%), 순으로 낮음
-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만족도가 절반에 못 미치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46.1%에 달함. 핵가족 중심으로 가족관계가 재편되면서 확대가족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느슨해진 것으로 보임

<표 Ⅱ-34> 가족관계 만족도(13세 이상)

(단위: %)

구 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배우자와의 관계	전국	2020	35.5	33.8	24.2	4.7	1.9
		2024	45.0	30.7	19.4	3.5	1.5
	경북	2020	30.6	37.8	24.7	5.4	1.4
		2024	36.0	38.1	21.6	3.4	1.0
자녀와의 관계	전국	2020	39.5	36.9	20.1	2.8	0.7
		2024	39.1	39.0	18.5	2.7	0.6
	경북	2020	36.8	40.0	19.7	3.0	0.5
		2024	31.8	45.9	19.9	2.2	0.3
자기 부모와의 관계	전국	2020	33.9	34.9	26.5	3.5	1.2
		2024	34.5	35.9	24.5	3.8	1.2
	경북	2020	28.5	39.4	28.7	2.8	0.6
		2024	26.3	43.8	26.4	2.9	0.6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전국	2020	26.2	32.9	33.4	5.4	2.2
		2024	26.5	33.3	32.4	5.1	2.7
	경북	2020	21.0	35.4	37.4	5.1	1.0
		2024	18.2	39.1	37.2	4.1	1.3
자기 형제·자매와의 관계	전국	2020	25.5	32.6	35.4	4.7	1.8
		2024	24.8	34.2	33.9	5.2	1.9
	경북	2020	20.7	35.8	37.7	4.5	1.3
		2024	17.1	37.8	40.2	3.9	1.0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	전국	2020	18.5	29.6	42.8	6.4	2.7
		2024	18.7	30.4	41.3	6.7	2.8
	경북	2020	15.3	31.6	45.4	5.7	2.0
		2024	12.9	34.4	46.1	5.1	1.5
전반적인 가족관계	전국	2020	25.0	33.7	38.2	2.5	0.5
		2024	25.7	37.8	32.3	3.4	0.8
	경북	2020	21.5	37.8	37.9	2.6	0.1
		2024	18.5	41.7	37.0	2.2	0.5

자료 :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131R&conn_path=I2, 2026. 9. 21 인출 자료 재구성

○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크게 높아졌으나, 대부분의 관계에서 '매우 만족' 응답은 감소

-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2020년 68.4%에서 2024년 74.1%로 5.7%p 높아졌음. 특히 '매우 만족'도 30.6%에서 36.0%로 늘어 모든 관계 가운데 개선 폭이 가장 큼
- 반면 자녀와의 관계(36.8%→31.8%), 자기 형제·자매와의 관계(20.7%→17.1%),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21.0%→18.2%)는 상대적으로 '매우 만족' 응답이 줄어들고, '약간 만족'이 늘어, 전체 만족도는 비슷해도 만족의 강도는 약해진 양상임
- 자기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만족도가 56.5%에서 54.9%로 낮아져, 전국(58.1%→59.0%)과 반대 흐름을 보임

○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60.2%로 전국보다 3.3%p 낮아졌으나, 불만족 응답은 전국보다 낮음

-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경북이 59.3%에서 60.2%로 0.9%p 높아지는 데 그쳤으며, 전국(58.7%→63.5%, 4.8%p 상승)보다 개선 폭이 작아, 2020년 전국보다 높았던 경북이 2024년에는 3.3%p 낮아짐
- 전반적 가족관계에 대한 '매우 만족' 응답은 21.5%에서 18.5%로 낮아진 반면, 전국은 25.7%로 높아져 격차가 7.2%p에 이름. 그러나 경북의 불만족 응답은 대체로 전국보다 낮음. 경북은 가족관계를 불만족스럽게 여기기보다 '보통'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함

(3)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 아내가 가사를 주로 담당하는 비율은 76.3%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전국보다 높음

- 경상북도에서 가사를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거나 주로 하는 비율은 2020년 80.7%에서 2024년 76.3%로 4.4%p 낮아졌으나 같은 기간 전국(76.2%→72.4%)보다 여전히 3.9%p 높음
- 특히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응답은 29.9%에서 25.6%로 4.3%p 낮아졌으나 전국(20.0%)보다 5.6%p 높아, 가사가 여성에게 편중되는 구조가 상대적으로 강

하게 남아 있음

- 남편이 주로 하거나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응답은 3.4%로 2020년(3.3%)과 큰 변화가 없음

❍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율은 20.3%로 늘었으나, 5명 중 1명 수준임

- 가사를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응답은 경북이 16.1%에서 20.3%로 4.2%p 높아졌고, 전국(20.5%→23.8%)보다 상승 폭이 커서, 전국과의 격차는 4.4%p에서 3.5%p로 줄어듦
- 그럼에도 공평 분담 비율은 5명 중 1명 수준에 그쳐 실제 가사 분담의 변화는 더딘 편임. 또한 맞벌이 가구 비중이 전국보다 높은 경북의 여건(〈표 Ⅱ-21〉 참조)을 고려하면, 여성의 일·가사 이중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임

<표 Ⅱ-35> 가사 분담 실태(19세 이상)

(단위: %)

구 분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	아내가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	남편이 주로 하지만 아내도 분담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전국	2020	전체	23.1	53.1	20.5	2.6	0.7
		남자	21.1	54.6	20.7	2.7	1.0
		여자	25.1	51.7	20.2	2.5	0.4
	2024	전체	20.0	52.4	23.8	3.0	0.8
		남자	17.8	53.7	24.4	3.2	0.9
		여자	22.2	51.2	23.3	2.7	0.6
경북	2020	전체	29.9	50.8	16.1	2.2	1.1
		남자	29.0	51.3	15.8	2.2	1.7
		여자	30.8	50.1	16.4	2.1	0.6
	2024	전체	25.6	50.7	20.3	2.6	0.8
		남자	23.8	51.7	20.4	3.2	0.9
		여자	27.5	49.6	20.2	2.0	0.6

자료 :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112R&conn_path=I3, 2026. 5. 20 인출 자료 재구성

❍ 여성은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응답이 남성보다 높아 성별 인식 차이가 존재

- 2024년 경북 여성의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 응답은 27.5%로 남성(23.8%)보다 3.7%p 높고, 아내 중심 분담(전적+주로) 비율도 여성 77.1%, 남성 75.5%로 여성이 더 높게 응답함. 반면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응답은 남성 20.4%, 여성 20.2%로 비슷함
- 이는 여성이 체감하는 가사 부담이 남성의 인식보다 크다는 점을 보여주며 남성의 가사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인식 개선과 실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3) 일·가정 양립 및 여가

(1)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

○ 경북은 남녀 모두 '일을 더 우선시'하는 비율이 전국보다 낮고, 일과 가정생활을 비슷하게 여기는 비율이 절반 수준

- 2025년 경상북도에서 일과 가정생활을 '둘 다 비슷하게 생각'한다는 응답은 남성 49.6%, 여성 51.4%로 남녀 모두 절반 수준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함. 특히 남성은 전국(43.3%)보다 6.3%p 높음
- '일을 더 우선시'한다는 응답은 남성 34.4%, 여성 21.0%로 전국(남성 40.0%, 여성 26.9%)보다 각각 5.6%p, 5.9%p 낮음
- 경북 남성은 일 중심 인식이 전국보다 약하고 균형을 중시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함

○ 경북 여성의 '가정생활 우선' 인식은 27.7%로 전국보다 높아, 성별 격차가 큼

- '가정생활을 더 우선시'한다는 응답은 경북 여성이 27.7%로 전국 여성(22.4%)보다 5.3%p 높으며, 남성(16.1%)은 전국(16.7%)과 비슷한 수준임. 이에 따라 경북의 가정생활 우선 인식의 성별 격차는 11.6%p로 전국(5.7%p)의 약 2배임
- '일을 더 우선시'한다는 응답은 남성이 여성보다 13.4%p 높아 여성은 가정, 남성은 일을 상대적으로 우선시하는 인식 차이가 전국보다 뚜렷함. 이는 출산·양육기 여성의 취업 중단을 전제로 한 인식(〈표 Ⅱ-33〉 참조), 아내 중심의 가사 분담 실태(〈표

Ⅱ-35〉 참조)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음. 결과적으로 가정 내 돌봄 책임의 성별 편중이 일·생활 우선순위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임

<표 Ⅱ-36>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25, 19세 이상)

(단위 : %)

	남성			여성		
	일을 더 우선시	둘 다 비슷하게 생각	가정생활을 더 우선시	일을 더 우선시	둘 다 비슷하게 생각	가정생활을 더 우선시
전국	40.0	43.3	16.7	26.9	50.7	22.4
경북	34.4	49.6	16.1	21.0	51.4	27.7

자료 :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LA050R&conn_path=I3, 2026. 5. 31 인출 자료 재구성

(2) 여가시간 충분도

❍ 평일 여가시간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54.6%로 전국보다 낮고, '보통' 응답이 많음

- 2024년 경상북도에서 평일 여가시간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54.6%로 전국(58.3%)보다 3.7%p 낮음. 또한 '부족하다'는 응답도 10.9%로 전국(12.6%)보다 1.7%p 낮은 반면, '보통'이라는 응답이 34.6%로 전국(29.0%)보다 5.6%p 높음. 평균 점수는 7점 만점에 4.7점으로 전국(4.8점)과 큰 차이가 없음
- 평일 여가시간에 대해 뚜렷한 만족이나 불만보다 중간 수준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함

❍ 휴일에는 '충분하다'는 응답이 66.0%로 늘어나지만, 전국과의 격차는 커지고 '부족하다'는 응답은 전국보다 높음

- 휴일 여가시간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66.0%로 평일보다 11.4%p 높지만 전국(71.8%)보다 5.8%p 낮아, 평일보다 전국과의 격차가 커짐. 또 휴일 여가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8.6%로 전국(6.2%)보다 2.4%p 높음. 평일에는 전국보다 낮았던 부족 응답이 휴일에는 오히려 높아짐
- 이는 농림어업·자영업 등 휴일에도 일해야 하는 종사자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과 휴일 가사·돌봄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휴일 여가 보장과 여가 기반 확충이 필요

함을 시사함

<표 Ⅱ-37> 여가시간 충분도('24)

(단위 : %, 점)

	평일				휴일			
	부족한 편	보통	충분한 편	평균	부족한 편	보통	충분한 편	평균
전국	12.6	29.0	58.3	4.8	6.2	22.1	71.8	5.1
경북	10.9	34.6	54.6	4.7	8.6	25.4	66.0	5.1

주 : 부족한 편 = 매우 부족+부족+다소부족 / 충분한 편 = 매우 충분+충분+다소 충분(평균은 7점 만점 기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각년도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발췌·정리

(3) 일·여가생활 균형 정도

○ 일 중심 생활은 줄고 여가 중심 생활이 늘어, 경북의 변화 폭이 전국보다 큼

- 경상북도에서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응답은 2018년 35.8%에서 2024년 28.4%로 7.4%p 낮아졌고, 전국(36.8%→30.5%, 6.3%p 하락)보다 감소 폭이 큼
- 반면 '여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응답은 27.6%에서 32.6%로 5.0%p 높아졌으며, 전국(25.9%→29.2%, 3.3%p 상승)보다 증가 폭이 큼
-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응답은 36.6%에서 38.9%로 2.3%p 높아져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함. 이는 주 52시간제 정착 등 노동시간 단축과 여가를 중시하는 인식 확산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경북은 여가 집중 비율이 전국보다 높으나,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비율은 전국보다 낮음

- 2024년 경북의 '여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응답(32.6%)은 전국(29.2%)보다 3.4%p 높으며,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응답(28.4%)은 전국(30.5%)보다 2.1%p 낮음
- 반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응답은 38.9%로 전국(40.2%)보다 1.3%p 낮아, 일과 여가의 균형 수준은 전국에 다소 못 미침
- 경북의 여가 집중 비율이 높은 것은 은퇴 등으로 일에서 벗어난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인구구조가 반영된 결과로 여겨지며, 여가시간이 충분하다는 응답이 전국보다 낮은 점(〈표 Ⅱ-37〉 참조)을 고려하면, 여가의 양보다 여가의 질과 기반 확충이 과제임을 시사함

<표 Ⅱ-38> 일·여가생활 균형 정도

(단위 : %)

	2018			2024		
	일에 집중하고 있음	균형을 이루고 있음	여가에 집중하고 있음	일에 집중하고 있음	균형을 이루고 있음	여가에 집중하고 있음
전국	36.8	37.3	25.9	30.5	40.2	29.2
경북	35.8	36.6	27.6	28.4	38.9	32.6

주 : 일에 집중하고 있음=일에 더 집중하고 있다+일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다소 일에 집중하고 있다
여가에 집중하고 있음=여가에 더 집중하고 있다+여가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다소 여가에 더 집중하고 있다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각년도「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발췌·정리

4. 소결

❍ 경상북도는 인구 감소 속도가 전국보다 빠르고, 자연감소와 사회적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어 인구 감소 구조가 고착화됨

- 경북의 인구는 2021년 2,603,664명에서 2025년 2,506,586명으로 4년간 97,078명 감소하였음. 연평균 감소율(-0.95%)은 전국(-0.25%)의 약 3.8배이며, 22개 시군 모두 인구가 감소하였는데 인구 감소는 자연감소와 사회적 유출이 함께 작용한 결과임
- 2024년 자연증가율은 -5.9‰로 전국(-2.4‰)의 약 2.5배이며, 2022년 구미시까지 자연감소로 전환되어 도내 전 시군이 자연감소 상태이며, 2022년 이후 매년 7천~9천 명이 도외로 순유출되어 2022~2025년 누적 순유출은 33,092명에 달함. 사망이 출생의 약 2.5배에 이르는 상황에서, 일부 시군의 순유입은 수백 명 수준에 그쳐 자연감소를 상쇄하기 어려움
- 따라서 경북의 인구정책은 출생 제고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인구 유출 억제와 정주인구 확보,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 유지 전략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인구 감소를 전제로 한 지역 공공서비스 재편과 생활권 단위의 기능 연계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청년·여성 인구 감소가 출생 기반 약화의 핵심 요인으로, 청년 여성의 정착 여건 개

선이 저출생 대응의 전제 조건임

- 여성 인구의 연평균 감소율(-1.06%)이 남성(-0.84%)보다 커 성비가 101.6에서 102.5로 상승하였음. 경산시를 제외한 21개 시군에서 여성 인구 감소율이 남성보다 높았음. 여성 생산가능인구는 8년간 15.3% 감소하여 여성 인구 중 비중이 60% 미만으로 떨어졌고, 생산가능인구 성비는 113.7로 높아짐
- 합계출산율은 0.93명으로 전국(0.80명)보다 높으나 조출생률은 전국보다 낮고, 출생아 수는 8년간 42.0% 감소하였음. 이는 여성 1명당 출산 수준보다 가임기 여성 인구 자체의 감소가 출생 감소를 주도하고 있음을 의미함
- 20대 1인가구가 감소하고,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고용 불안정'과 '상대를 만나지 못함'이 전국보다 높게 나타난 점도 청년층 유출과 만남 기회 감소를 반영한다고 하겠음
- 따라서 저출생 대응은 출산 장려금 등 출산 이후 지원보다 청년, 특히 여성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음

❍ 초고령사회가 심화되면서 부양 부담이 급증하고, 고령인구 증가가 도시지역으로 확산됨

- 고령인구 비중은 2017년 18.9%에서 2025년 27.5%로 높아져 전국(21.2%)보다 6.3%p 높음. 노년부양비는 40.5로 생산가능인구 약 2.5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는 구조임
- 유소년인구는 8년간 27.5% 감소하여 비중이 9.4%로 떨어졌고, 노령화지수는 285.4로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의 약 2.9배임. 2025년에는 구미시까지 노령화지수가 100을 넘어 모든 시군에서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많아짐
- 고령인구 증가율은 구미시(6.89%), 포항시(6.08%), 경산시(5.30%) 등 도시지역이 오히려 높아,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에 따라 도시지역에서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고령화 대응 정책을 군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도시지역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도시와 군지역 간 인구·가족 구조의 격차가 뚜렷해 지역 유형별 차별화된 정책 설계가 필요함

- 포항·구미·경산·경주 4개 시의 인구 비중은 55.9%이며, 출생아의 54.5%가 포항·구

미·경산에 집중되는 등 도시지역으로의 집중이 심화됨. 반면 10개 시군은 자연증가율이 -10명 이하이고, 영양·봉화·울릉은 조출생률이 2명 미만이며 연간 출생아가 100명 미만인 군도 6곳에 이름

- 가족 구조도 지역에 따라 뚜렷하게 구분되는데 도시지역은 2세대·3~4인 가구 비중이 높고, 청년 1인가구와 다문화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군지역은 1인·1세대 가구가 70~80%에 달하고, 여성 고령 1인가구와 부자·조손가구 비중이 높음
- 예천군은 도청 신도시 조성 이후 유소년·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하고 조출생률도 유일하게 상승하여, 계획적 정주 기반 조성의 인구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임

❍ 혼인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이혼은 줄지 않아, 결혼 이전과 이후를 아우르는 가족 형성 지원이 필요함

- 혼인 건수는 2017년 12,190건에서 2025년 9,160건으로 24.9% 감소하였고, 2021년 이후 반등 폭(12.2%)도 전국(24.8%)의 절반 수준에 그침. 또 조혼인율(3.6건)은 전국(4.7건)보다 낮고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군지역 상당수는 2건대 이하에 머물러 있음
- 이혼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감소율이 전국보다 작아 혼인 대비 이혼 비율이 0.45에서 0.51로 높아짐. 평균이혼연령도 남성 51.38세, 여성 47.54세로 높아져 중·장년기 이혼이 늘어난 것으로 보임

❍ 1인가구가 가장 보편적인 가구 유형이 되었으며, 특히 고령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한 돌봄·안전 체계 구축이 시급함

- 2025년 1인가구는 39.6%로 가장 많은 가구 유형이며, 1~2인 가구가 72.8%로 전국(66.0%)보다 6.8%p 높음. 반면 4인 이상 가구는 11.3%에 그침
- 1인가구 증가분의 75.7%가 60세 이상이며, 1인가구 중 60세 이상이 47.9%, 70세 이상이 27.6%, 80세 이상이 12.6%로 돌봄 필요도가 높은 초고령 1인가구 비중이 큼
- 영덕·문경·청도 등 고령화 지역은 여성 1인가구 비중이 높은 반면 구미·칠곡·울릉 등 산업·근로 중심 지역은 남성 1인가구 비중이 높아 1인가구의 성격이 지역별로 다름

❍ 한부모·조손·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의 특성과 생애주기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 한부모가구는 감소 추세이나 부자 한부모가구 비중(25.4%)이 전국보다 높고, 군지역은 부자 한부모가구 비중이 30%를 넘는 곳이 7곳에 이름
- 조손가구는 8년간 24.0% 감소하였으나, 조부 또는 조모 1인이 양육하는 가구가 60%이며, 의성·청송·청도·고령은 한부모가구 중 조손가구 비중이 10%를 넘음
-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 비중은 8.6%로 전국보다 높고, 봉화군은 혼인 4건 중 1건 이상이 외국인과의 혼인임
- 다문화가구는 8년간 39.8% 증가하였으나 평균 가구원 수는 3.38명에서 2.93명으로 줄었음. 일부 군지역은 가구원 수가 감소하여 자녀 성장·독립 등 생애주기 변화가 나타남

❍ 결혼을 중시하는 전통적 가치관이 유지되는 가운데 돌봄 책임의 성별 편중이 뚜렷해, 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이 필요함

- 결혼에 대한 긍정 인식(55.8%)과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74.6%)은 전국보다 높음. 반면 동거·외국인과의 결혼 수용도는 낮고, 이혼·재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오히려 늘어나 전통적 가족관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유지되고 있음
- 가사를 아내가 주로 담당하는 비율은 76.3%로 전국보다 3.9%p 높고,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비율은 20.3%에 그침. 더구나 출산·양육기 여성의 취업 중단을 전제로 한 인식(40.1%)과 여성의 가정생활 우선 인식(27.7%)도 전국보다 높음
-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 여성은 출산·양육 부담과 일·가정 양립 곤란(28.4%)을 꼽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고, 결혼을 선택의 문제로 보는 인식도 여성이 더 강함. 이는 돌봄 책임의 여성 편중이 여성의 결혼·출산 기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함

❍ 맞벌이 가구 비중이 높은 반면 가족생활과 여가의 질은 전국보다 낮아, 일·생활 균형 기반 확충이 필요함

- 맞벌이 가구 비중은 53.0%로 전국(48.6%)보다 높으나, 아내 중심의 가사 분담 구조를 고려하면 여성의 일·가사 이중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임
-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는 60.2%로 전국(63.5%)보다 낮아졌고, 대부분의 관계에서 '매우 만족' 응답이 감소하였음
- 여가시간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평일 54.6%, 휴일 66.0%로 모두 전국보다 낮음. 특

히 휴일 여가 부족 응답은 전국보다 높음. 또 '여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국보다 높으나 일과 여가의 균형을 이룬다는 응답은 낮아, 여가의 양보다 질과 기반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Ⅲ. 경상북도 가족실태조사 및 분석

1. 조사 도구 개발
2. 조사 개요
3. 분석 결과
4. 소결

Ⅲ. 경상북도 가족실태조사 및 분석

1. 조사 도구 개발

1) 성평가족부 「가족실태조사」

○ 성평등가족부가 실시해 온 「가족실태조사」는 2005년 1차 조사 이래 5년 주기로, 그리고 2023년부터는 5차부터는 3년 주기로 시행되어 왔으며, 조사가 거듭될 때마다 조사 영역과 지표는 단순한 문항 추가 수준을 넘어 가족 개념과 사회 변화상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장·정교화되어 왔음

- 초기 조사가 혼인·출산·가사분담 등 전통적 가족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면, 이후 조사에서는 1인가구와 다양한 가족 형태의 증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대, 돌봄의 사회화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조사 영역이 지속적으로 재구성되었음

○ 2026년 경상북도 가족실태조사의 조사 영역과 지표를 설계함에 있어 최신 조사 흐름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가 실시한 「가족실태조사」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차수별 조사 영역 및 지표 상의 주요 변화 등을 살펴보면 〈표 Ⅲ-1〉과 같음

- 첫째, 4차 조사에서는 조사 규모를 11,000가구로 확대하고 1인가구와 비혈연동거 가구원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을 별도 집단으로 구분함으로써, 전통적 가족 개념으로는 포괄되지 않던 가구 형태까지 조사 대상에 편입시키는 등 조사 대상과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음
- 둘째, 초기 조사에서 다른 영역에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던 항목들이 점차 독립된 조사 영역으로 분리되었음. 돌봄노동은 1·2차 조사에서 기초적 수준으로 다루어졌으나 4차 조사에서는 독립된 영역으로 구성되었고, 일·가정 양립 역시 1차 조사에서는 간접적으로만 파악되던 것이 4차 조사에서는 별도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측정

되는 영역으로 구성되었음. 1인가구·다양한 가족 또한 초기에는 질문지 내 일부 변수로만 파악되었으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계기로 4차 조사에서는 독립적인 조사·분석 틀을 갖추고 있음

- 셋째, 4차 조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경제 영향, 시간사용 변화 등을 새롭게 포함하는 등 사회적 이슈와 정책 환경의 변화가 조사 설계에 즉각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이는 가족실태조사가 고정된 틀이 아니라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조사로 운영되어 왔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음
- 넷째, 가치관·태도 측정의 척도가 점차 정교화되어 차수 간 비교가능성이 강화되었음. 결혼·출산·이혼·동거 등에 대한 태도 항목은 유지하되 척도를 세분화함으로써 단순한 인식 조사를 넘어 추이 분석이 가능한 지표로 발전하였음

<표 Ⅲ-1>「가족실태조사」 차수별 조사 영역 및 지표 변화

조사 / 영역	제1차 (2005)	제2차 (2010)	제3차 (2015)	제4차 (2020)	제5차 (2023)
가족 구성원의 일반 특성	가구대표·가구원 기본사항(성·연령·학력·혼인상태 등)과 가구 유형, 가족구성 형태를 파악하는 기초 영역	1차와 동일한 틀을 유지하며, 가구유형·가족구조 분류를 세분화해 2005년과 비교 가능한 구조로 설계	가구대표·가구구성 일반 특성에 더해 1인가구·한부모·재혼가족 등 다양한 가족 유형을 변수로 명시	조사규모를 확대(11,000가구)하여 전국 다양한 가족 형태를 대표하도록 설계하고, 1인가구·다양한 가족(비혈연동거 가구원 포함)을 별도 집단으로 구분	12,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및 12세 이상 가구원 특성을 조사하고, 다양한 가족 유형·특성을 정교하게 구분해 시계열·집단 비교를 강화
가족의 경제 상태	가구소득 수준·소득원·지출 구조 등 경제상황을 포괄적으로 질문해 가족의 기본 생활수준을 파악	가구의 경제적 특성으로 명칭을 바꾸고, 소득·지출 구간을 세분화해 경제취약 여부를 보다 정밀하게 구분	가족의 경제생활 영역을 확대해 소득·지출·부채·주거조건 등 생활안정성과 취약성 지표를 통합적으로 측정	경제활동 상태, 소득·자산, 주거 안정성, 코로나19 등 외부 요인이 가족경제에 미친 영향을 포함해 경제취약성 평가를 고도화	소득·자산·부채·주거·노후준비 등 경제생활 지표를 통합하고, 세대·가족유형·생애단계별 경제격차를 분석 가능한 구조로 설계
가족 가치관	결혼·출산 필요성, 적정 자녀수, 부모 부양 의무, 이혼·동거·비혼에 대한 태도 등 가족가치관 전반을 측정	같은 항목을 유지하면서 태도 척도를 정교화해 가치관 변화 추이를 수치로 비교할 수 있도록 강화	기존 가족가치관에 더해 일·가정 양립 인식, 다양한 가족 수용성, 성평등 인식 등 새로운 가치 지표를 추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수용도, 1인가구·비혼·동거·재혼에 대한 태도를 별도로 측정해 가족가치 다변화를 반영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장에서 가족개념·다양한 가족 수용성·성평등·일·가정 양립 등 포괄적 가치 지표를 구축
가족 행태 — 가족형성 (결혼·출산·이혼 등)	결혼 여부·시기, 자녀 출산·양육 경험, 이혼·사별 등 가족형성 이력과 현재 상태를 기본적으로 파악	1차 문항을 유지하면서 비혼·재혼·이혼 경험을 더욱 세분화해 혼인·출산 경로 변화 추이를 파악	비혼·만혼, 비출산, 동거, 재혼·재구성가족 등을 포함해 가족형성 경로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문항군을 확장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이후 1인가구·다양한 가족 증가를 반영하여, 혼인·출산·동거·이혼 이력을 다양한 유형별로 세밀히 측정	“가족 형성 및 변화” 장에서 혼인·출산·동거·이혼·재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생애경로 차이를 시계열로 비교 가능한 형태로 설계

조사 / 영역		제1차 (2005)	제2차 (2010)	제3차 (2015)	제4차 (2020)	제5차 (2023)
	돌봄 노동 (육아·간병 등)	아동 돌봄, 노인·장애 가족 돌봄, 돌봄 담당자와 시간, 돌봄 부담 정도를 파악하는 기본 영역	돌봄 시간·형태(직접·간접, 기관 이용 등)를 보다 상세히 묻고, 돌봄 부담과 노동시장 참여 제약을 연계해 파악	돌봄노동을 일·가정 양립 영역과 연계해 돌봄시간·지원제도 이용·돌봄 스트레스·정서적 부담까지 포괄적으로 측정	가족원 돌봄(아동·노인·장애 등)을 독립 장으로 구성해 돌봄 시간, 지원제도 이용, 돌봄 부담·건강영향을 체계적으로 측정	"가족원 돌봄" 장에서 돌봄 유형·시간·지원서비스 이용·돌봄 스트레스 등을 정교화해 돌봄정책 수요 분석 근거를 강화
	일·가정 양립·워라밸	별도 영역은 제한적이나, 노동시간·가사·돌봄 문항을 통해 간접적으로 일·가정 관계를 파악	근로시간·고용형태·돌봄 시간을 연계해 일·가정 양립의 객관적 여건(시간 구조)을 파악할 수 있는 틀을 마련	일·가정 양립 만족도·갈등 정도, 제도(육아휴직·탄력근로 등) 이용 여부와 효과 인식까지 포함해 워라밸 지표를 구축	"일과 가족생활" 장에서 일·가정 충돌, 제도 이용·만족도, 직장·가정 지원 정도를 종합적으로 측정해 워라밸 수준을 평가	일·가정 양립, 노후 생애 설계까지 포함하여 생애주기 관점에서 일·가정·노후 간 균형과 지원제도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가족 관계		부부관계·부모-자녀관계 만족도와 갈등 경험, 가족 간 정서적 지지 정도를 중심으로 관계 질을 평가	관계 만족도·갈등 항목을 유지하면서 의사소통·갈등 해결 방식 등 관계 특성을 추가로 측정	부부·부모자녀·세대 간 관계를 분리해 측정하고, 정서적 지원, 관계 스트레스, 고립감 등 정서적 지표를 세분화	부부관계와 부모-청소년 자녀·성인 자녀 관계를 각각 별도 장으로 구성해 세대·생애단계별 관계 특성을 구분해 분석	배우자 관계, 부모-청소년·성인 자녀 관계를 구분하고, 관계 만족도·갈등·정서적 지원을 세대·가족유형별로 비교 가능한 지표로 설정
생활양식	가사 노동·역할 분담	가사노동 참여 여부·주담당자·가사시간, 성별 역할 인식(전통·평등 지향)을 기본적으로 측정	응답범주와 척도를 세분화해 가사시간 분포와 성역할 태도 점수(평균·분포)를 2005년	가사·돌봄·생계부담의 역할 분담을 통합적으로 묻고, 공정성 인식·만족도·갈등 정도를 별	가사·돌봄·경제활동 기여를 모두 포함한 역할 분담 구조를 측정해 성평등 수준과 워라밸에 대한 체감	성평등·가사·돌봄 역할 분담을 일·가정 양립·정책 인식과 연결해, 성별·세대·가족유형별 역할 구조를

영역 \ 조사		제1차 (2005)	제2차 (2010)	제3차 (2015)	제4차 (2020)	제5차 (2023)
			과 비교 가능하게 설계	도 지표로 구성	도를 분석	종합적으로 파악
	가족 여가 ·시간 사용	가족과의 여가활동 유형·빈도를 통해 가족생활의 질과 유대감을 간접적으로 파악	여가·문화활동을 유지하면서 일·가사·돌봄·여가 간 시간배분을 추가해 시간사용 구조를 파악	워라밸 관점에서 여가·휴식·자기계발·가족활동 시간을 함께 측정해 시간복지 수준을 평가	일·가정 양립 장에서 근로시간·통근·가사·돌봄·여가 시간을 통합적으로 묻고, 코로나19 이후 시간사용 변화까지 반영	“일과 가족생활, 노후 생애 설계” 장에서 일·가사·돌봄·여가·노후 준비 시간을 통합 측정해 생애주기별 시간구조를 분석
서비스 욕구		가족복지·지원에 대한 필요 영역과 정책 욕구를 간략히 묻는 수준	돌봄·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지원 필요 영역을 확장해 정책수요를 비교 가능한 형태로 측정	다양한 가족·일·가정 양립 정책, 돌봄·상담·교육서비스 이용과 만족도, 향후 필요 정책을 구체적으로 묻는 지표로 확대	정책 인식·서비스 이용·만족도를 파악하고, 코호트·가족유형별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수요를 세분화	“정책에 대한 인식” 장에서 가족·돌봄·일·가정 양립 정책 인지도·신뢰·만족도와 향후 필요 정책 영역을 상세히 측정
1인가구 ·다양한 가족		질문지 내에서 일부 변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수준	한부모·재혼 등 일부 유형을 변수로 포함하되, 별도 분석영역은 제한적	1인가구·한부모·재혼·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을 주요 분석집단으로 설정해 특성을 별도로 파악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이후 1인가구 조사 필요성이 반영되어, 1인가구 특성을 독립적으로 조사·분석하는 틀을 구축	“1인가구” 장을 별도로 두고, 생활실태·관계망·정서·정책 수요를 측정하며, 다양한 가족 유형 전체와 함께 비교 가능한 구조로 설계

주)「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가족문제’ 영역은 가족관계 및 가족 형성에 포함
자료 : 각년도「가족실태조사」

2) 타 시·도 가족실태조사

○ 2026년 경상북도 가족실태조사의 문항 구성이 갖는 보편성과 지역 특수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 전국조사(5차) 및 대구·부산·울산 등 인접 광역자치단체의 가족실태조사, 그리고 2022년 경상북도 가족실태조사와의 문항 존재 여부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Ⅲ-2〉와 같음

- 응답자 일반현황·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족형성·가족관계·가족돌봄 등 핵심 영역의 대다수 문항은 전국조사 및 대구·부산·울산 조사에서도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어, 경상북도 조사의 기본 문항 구성이 타 시도·전국 조사와 상당 부분 정합성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함
- 결혼식 및 비용, 적정한 결혼비용 등 일부 문항은 2022년 경상북도 조사에만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타 시도 및 전국 조사에서는 다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1인가구 영역은 지역별 편차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영역으로, 일부 지역 조사에서는 해당 영역 자체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아 관련 문항이 대체로 부재한 것으로 확인됨. 이에 비해 경상북도 조사는 1인가구의 생활실태·경제여건·돌봄관계 등을 세분화하여 다루고 있어, 최근 급증하는 1인가구 특성을 타 시도보다 심층적으로 포착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
- 생활 및 경제수준 영역에서도 경상북도 조사와 전국조사·일부 시도 조사 간 문항 구성의 차이가 두드러짐. 경상북도 조사는 거주기간, 정착이유, 경제적 부담 지출 항목 등을 개별 문항으로 세분화하는 반면, 다른 조사에서는 이를 생략하거나 가구특성 등 다른 영역에 통합해 다루는 경우가 많음
- 이 외에도 성평등가족부 전국조사에서는 가족건강성 문항을, 대구광역시의 조사에서는 가족 성평등 실태, 아동학대·가족폭력 관련 안전사업, 공동생활주거지 유형에 대한 문항을, 울산광역시의 조사에서는 1인가구 외에도 조손 가족과 비친족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문항을 각각 포함하고 있음

<표 Ⅲ-2> 타 지자체 가족실태조사 문항 분석

영역	문항		여/부			
		경북 22년	전국	대구	부산	울산
응답자 일반 현황	연령, 성별, 최종학력, 가구주와의 관계	○	○	○	○	○
	거주지역 및 상세지역, 혼인상태, 직업, 가구(가족)형태	○	△	○	○	○
	가구원(가족) 수, 일시적 따로 살고있는 가족의 수, 세대유형	○	○	○	○	○
	주택유형, 주택점유형태, 월평균 가구수당, 주소득원	○	○ (가구특성)	○	○	○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우리 가족으로 포함되는 사람	○	○	○	○	○
	의지가 되는 사람	○	○	○	×	○
	가족을 떠올릴 때의 생각	○	×	○	×	×
	삶의 방식과 가족가치관	○	○	○	○	○
	다양한 가족의례 및 문화	○	○	○	○	○
	자녀와 자녀양육	○	○	○	○	○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	○	○	△	○
	결혼식 및 비용	○	×	×	×	○
	부모 부양 및 부모의 책임	○	○	○	○	○
	자녀 경제적 책임	○	×	○	○	×
	부모 부양의 의무	○	○	○	○	○
가족 형성	적정 결혼 연령	○	×	○	×	○
	배우자 선택시 중요요소	○	×	○	○	○
	적정한 결혼비용	○	×	×	×	○
	혼인상태	○	○	○	×	○
	배우자와 살기 시작한 기간	○	○	○	×	○
	이혼 또는 별거를 하는 이유	○	×	○	×	○
	자녀 계획	○	○	○	○	○
	현재 자녀 수 및 향후 계획 자녀 수	○	○	○	○	○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는 이유	○	○	○	○	○
	이상적인 자녀 수	○	○	○	○	○
가족 관계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	○	○	○	○	○
	가족과의 대화 빈도정도	○	○	×	○	○
	배우자와의 관계	○	○	○	○	×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사람	○	○	×	○	×
	가사수행을 하는 사람	○	○	○	○	○

영역	문항	경북 22년	여/부 전국	대구	부산	울산
	배우자와 갈등 경험	○	○	○	○	○
	배우자와 갈등을 겪은 사유	○	○	○	○	○
	갈등이 생길 경우 해결방안	○	○	○	○	○
	이혼 고민경험	○	○	○	○	○
	결혼생활을 지속해야하는 이유	○	×	×	○	×
	자녀 양육시 가장 큰 어려움	○	○	○	○	×
	자녀와의 갈등 발생하는 이유	○	×	○	×	○
가족 돌봄 (영유아, 초등, 가족 돌봄)	취학전 영유아 유무	○	○	○	△ (고3이하 자녀)	○
	영유아 주중 낮시간대 다니는 기관유무	○	○	○	○	○
	오랜 시간을 보내는 기관	○	○	○	△	△ (위질문에 포함)
	기관 제외시 주로 돌보는 사람	○	△	○	○	○
	기관 미이용시 주로 돌보는 사람	○	△	○	○	○
	주로 돌보는 사람의 시간	○	○	○	×	○
	돌보는 사람이 아프거나 급한 일이 있을 경우의 아이 양육을 도와주는 사람	○	○	○	○	○
	영유아 자녀돌봄 서비스 필요한 시간대	○	○	×	×	○
	가족 내 초등학생 유무	○	○	○	△ (고3이하 자녀)	○
	초등학생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	○	×	×	○	×
	돌보는 사람 없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	○	○	○	×	○
	초등학생 자녀돌봄 서비스 필요 시간대	○	○	×	×	○
	지속적인 간병 등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	○	○	○	○	○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의 관계	○	○	○	○	×
	주로 돌보는 사람	○	○	○	○	×
	돌봄 비용 충당 방법	○	×	○	○	×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 보살핌 애로사항	○	○	○	○	○
	요양원 및 주간 보호시설 이용경험	○	×	×	○	×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	×	×	○	×
	요양전문시설 이용의사	○	×	×	○	×
가족 생활 (가사	가사노동 참여여부	○	○	○	○	○
	가족 식사 빈도	○	×	×		○
	하루 가족과의 평균 대화시간	○	×	×	○	○

영역	문항	경북 22년	여/부 전국	대구	부산	울산
참여, 여가)과 노후 준비	여가시간을 가족과 함께 사용여부	○	△	○	○	○
	여가활동	○	○	○	○	○
	여가활동하기 어려운 이유	○	○	○	○	○
	여가시간 만족도	○	○	×	○	○
	생애 설계 준비정도	○	○	×	×	○
	희망 노후 장소	○	○	○	○	○
	노후에 함께 지내고 싶은 사람	○	○	○	○	○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살기를 희망	○	△ (위질문에 포함)	△ (위질문에 포함)	△ (위질문에 포함)	△ (위질문에 포함)
	희망 주된 이유/희망하지 않는 주된 이유	○	○	×	×	×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여부	○	○	○	○	○
	노후를 위해 경제적 준비사항	○	○	○	○	○
일·생활 균형	현재 하고 있는 일	○	○	○	△ (가구원특성 취업상태)	○
	고용형태(종사상 지위)	○	○	○	△ (가구원특성 고용유형)	○
	규정된 퇴근시간 유무	○	×	×	×	×
	퇴근시간에 퇴근 가능정도	○	×	×	×	×
	일·생활균형 생각정도	○	△	○	○	○
	현재 삶에서의 일·생활 균형	○	△	○	○	○
	일·생활 균형이 잘 이루지 못하는 이유	○	○	○	○	○
	현재 일을 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	○	×	×	×	○
	선호하는 근로형태	○	×	×	×	○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그 이유	○	×	×	×	○
생활 및 경제 수준	현재 거주지역에서의 거주기간	○	×	×	×	○
	지역에 정착하게 된 이유	○	×	×	×	○
	현재 생활 및 경제수준 만족도	○	△	×	○	×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지출 항목	○	×	×	×	○
	전반적으로 속하는 계층	○	○	×	○	○
1인가구	1인가구 유무	○	○	○	×	○
	1인가구 생활기간	○	○	○	×	○
	1인가구 전 함께 살았던 사람	○	○	○	×	○
	생활하는 주된 이유	○	○	○	×	○

영역	문항	경북 22년	여/부 전국	대구	부산	울산
	생활비 마련방법	○	○	○	×	○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	○	○	○	×	○
	집을 마련한 방법	○	○	○	×	○
	따로 사는 가족 경제적 부양여부	○	○	○	×	○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가족	○	○	○	×	○
	따로 사는 가족 정기적으로 돌봄 여부	○	○	○	×	○
	정기적 장시간으로 돌보고 있는 가족	○	○	○	×	○
	1인가구로서 느껴지는 정도	○	○	○	×	○
	문제/걱정거리에 대해 나눌 수 있는 사람	○	○	×	×	×
	향후에도 혼자 살 의향	○	○	○	×	×
	예상되는 어려움 중 걱정되는 내용	○	○	○	×	×
	혼자 살 의향이 없다면, 앞으로의 계획	○	△	×	×	×
가족 정책	가족이 살기 좋은 도시인지에 대한 생각	○	×	×	○	○
	지원이 가장 필요한 가족형태	○	○	○	○	×
	가족지원서비스 인지도 및 필요도	○	○	○	○	○
	중요하게 다뤄야할 돌봄지원 대상	○	×	○	○	○
	일(직장)가정의 조화를 위해 추진해야할 정책	○	○	○	○	○
	필요한 공동체	○	×	×	○	○
	가장 필요한 1인가구 지원 정책	○	○	○	×	×
	가족을 위해 추진해야하는 정책	○	○	○	○	○

3) 2022년 대비 2026년 조사도구 개선 사항

❍ 앞서 살펴본 성평등가족부 「가족실태조사」의 차수별 조사영역·지표 변화 추이, 그리고 타 시도 가족실태조사와의 문항 비교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2년 경상북도 가족실태조사 문항을 재검토하였음

❍ 2026년 조사(안)은 2022년 조사의 문항 구조를 계승하되, 통계적 정합성·가족 다양성 반영·조사 효율성·정책 환류성이라는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재설계하고자 하였음

- 연령·고용형태·거주지역 등의 측정 기준을 통계청 표준 및 최신 행정구역 개편에 맞게 정비하는 등, 성평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등 상위 통계와 비교·연계가 가능

하도록 통계적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가족 범위 인식에 반려식물·AI로봇을 포함하고, 가족돌봄청년·이주민가족을 우선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비혼 1인 입양·혼인계약서·모성 성 사용 등에 대한 태도 문항을 신설함으로써 가족형태의 다양화를 반영하고자 하였음. 또한 가족에 대한 정의를 별도 척도로 신설함으로써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여주고자 하였음
- 관계별 대화 빈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 세부성은 높으나 정책 활용도가 낮았던 문항을 삭제하고, 돌봄비용 충당 항목처럼 과도하게 세분화된 항목을 통합함으로써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응답자의 응답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음
- 가족지원서비스 조사를 인지도·필요도 측정에서 이용경험·이용 후 도움 정도까지 확장하고, 서비스 인지경로와 세부 서비스 수요를 별도 문항으로 신설함으로써 조사 결과가 단순 현황 파악을 넘어 개별 서비스의 실제 효과성 평가와 홍보 전략 수립까지 정책에 직접 활용 가능하도록 정책 환류성의 강화하고자 하였음

○ 재설계된 조사 도구에 대해 전문가 검토 과정을 거쳤으며, 검토 과정에서 일부 문항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음

- 가족돌봄 및 노인돌봄 관련 문항은 타 부처 소관 사업과 내용이 중복되어 본 조사의 정책적 목적과의 정합성이 낮고, 정책 활용도 또한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정비가 필요함
- 일부 문항은 최근의 사회적·정책적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문항 수 증가로 응답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됨

○ 이러한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문항들을 삭제하거나 통합·보완하는 방향으로 조사 도구를 재차 수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사의 정책적 적합성과 응답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하였음

<표 Ⅲ-3> 2022년 조사 대비 2026년 조사 개편 내용

조사영역	2022년	2026년 조사 개선사항
구성 순서	응답자 일반현황이 가장 마지막에 위치	응답자 일반현황을 설문 맨 앞으로 이동. 통계적 필수항목을 먼저 확보해 무응답·중도 이탈 시에도 최소한의 인구통계 정보가 남도록 구조 개선
응답자 일반 현황	1) 연령 2) 성별 3) 최종학력 4) 가구주와의 관계 5) 거주지역 및 상세지역 6) 혼인상태 7) 직업	1) 만 나이 직접 기입, 구간 응답에서 연속형 응답으로 변경해 정밀도 향상 3) 전문대 재학 또는 졸업, 4년제 대학 재학 또는 졸업으로 수정하여 재학 중인 응답자도 포함되도록 세분화 4) 유사 관계를 통합(배우자 포함 관계로 통합)해 응답 편의성 제고하고, 비혈연 동거 형태를 반영하는 항목 신설 5) 2023.7.1.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따른 사제, 표본설계상 읍면동 단위 분석까지는 활용하지 않아 문항 간소화 ※ 자녀유무(나이 고려) 문항 추가
가구(주) 특성	1) 가구원(가족) 수 2) 일시적 따로 살고있는 가족의 수 3) 세대유형 4) 주택유형 5) 주택점유형태 6) 월평균 가구소득 7) 주소득원 8) 가구(가족)형태	1) 혈연·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 동거인으로 가구 정의 단순화하여 응답자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2), 4), 5) 정책적 활용 가능성이 낮아서 삭제 7) ‘근로·이자·배당·연금·사업·기타소득 모두 포함’ 각주 신설, 소득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응답 일관성 확보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1) 우리 가족으로 포함되는 사람 2) 의지가 되는 사람 3) 가족을 떠올릴 때의 생각 4) 삶의 방식과 가족가치관 5) 다양한 가족의례 및 문화 6) 자녀와 자녀양육 7)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8) 결혼식 및 비용 9) 부모 부양 및 부모의 책임 10) 자녀 경제적 책임 11) 부모 부양의 의무	1) 가족 범위 인식 대상을 세분화하고, 반려식물·AI로봇 등 최근 확장된 가족 개념을 반영 3) 삭제 4) 가족형태 다양화 관련 최신 이슈(혼인계약소, 모성 성 사용, 비혼 1인 입양 동의)를 반영해 항목 확대 5), 11) 시계열 비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삭제 6) 자녀에 대한 심리적 동일시 인식 항목 추가 7) 성별에 따른 성역할 인식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 8) 결혼식과 비용에 관한 최근의 작은결혼식 등의 인식변화를 반영하여 수정 ※ 가족의 정의(신설), 가족 다양성 관련 인식을 별도 척도로 신설하여 심층 측정

조사영역	2022년	2026년 조사 개선사항
가족형성	1) 적정 결혼 연령 2) 배우자 선택시 중요요소 3) 적정한 결혼비용 4) 혼인상태 5) 배우자와 살기 시작한 기간 6) 이혼 또는 별거를 하는 이유 7) 자녀 계획 8) 현재 자녀 수 및 향후 계획 자녀 수 9)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는 이유 10) 이상적인 자녀 수	1) 적령기 관념 자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구조로 변경, 적령기 존재 여부(없다/있다) 선 질문 후 연령 기입 7) '자녀 있음/없음' 선 확인 후 향후 계획 질문, 자녀유무를 별도 문항으로 분리해 기존자녀 현황과 추가계획을 구분 측정 9) 가치관 변화(개인주의, 부부중심)를 반영한 항목 확충 2), 3) 10) 삭제 ※ 정책 개입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사회적 지원 여건 마련 시 추가 출산 의향' 문항 신설
가족관계	1)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 2) 가족과의 대화 빈도정도 3) 배우자와의 관계 4)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사람 5) 가사수행을 하는 사람 6) 배우자와 갈등 경험 7) 배우자와 갈등을 겪은 사유 8) 갈등이 생길 경우 해결방안 9) 이혼 고민경험 10) 결혼생활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 11) 자녀 양육시 가장 큰 어려움 12) 자녀와의 갈등 발생하는 이유	1) 자녀 생애주기별 관계 차이를 포착할 수 있도록 자녀와의 관계를 미성년/성인 자녀로 분리 2) 관계별 대화빈도 문항은 삭제하고, 관계별 세부 측정을 간소화하고 전체 가족 대화시간으로 통합 측정 3), 6), 10) 삭제 4) 부부 의사결정 영역을 실생활 전반으로 확, 가사, 가족여가, 성인자녀 지원 신설 5) 가사분담의 공정성 인식까지 파악하도록 측정 항목 확장, 담당자와 공평성 인식 문항 추가 7) 돌봄으로 인한 부부갈등 요인을 별도 항목으로 반영, 내 부모 간병, 배우자 부모 간병 신설
가족돌봄	1) 취학전 영유아 유무 2) 영유아 주중 낮시간대 다니는 기관유무 3) 오랜 시간을 보내는 기관 4) 기관 제외시 주로 돌보는 사람 5) 기관 미이용시 주로 돌보는 사람 6) 주로 돌보는 사람의 시간 7) 긴급상황시 아이 양육을 도와주는 사람 8) 영유아 자녀돌봄 서비스 필요한 시간대 9) 가족 내 초등학생 유무 10) 초등학생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 11) 돌보는 사람 없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 12) 초등학생 자녀돌봄 서비스 필요 시간대 13) 지속적인 간병 등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 14)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의 관계 15) 주로 돌보는 사람	13)~20) 정책적 활용도가 낮고, 응답자 부담을 고려하여 삭제 ※ 기관 미이용 사유, 기관 선택 기준 문항 신설, 보육서비스 수요·품질 요구를 함께 파악

조사영역	2022년	2026년 조사 개선사항
	16) 돌봄 비용 충당 방법 17)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 보살핌 애로사항 18) 요양원 및 주간 보호시설 이용경험 19)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20) 요양전문시설 이용의사	
가족생활과 노후준비	1) 가사노동 참여여부 2) 가족 식사 빈도 3) 하루 가족과의 평균 대화시간 4) 여가시간을 가족과 함께 사용여부 5) 여가활동 6) 여가활동하기 어려운 이유 7) 여가시간 만족도 8) 생애 설계 준비정도 9) 희망 노후 장소 10) 노후에 함께 지내고 싶은 사람 11)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살기를 희망 12) 희망 주된 이유/희망하지 않는 이유 13)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여부 14) 노후를 위해 경제적 준비사항	4) 가족여가의 조작적 정의를 각주 신설하여 여가시간 측정의 조사기준을 명확화 5) 문화예술·스포츠관람 통합, 야외활동 신설로 통합, 함께독서 신설, 주말농장 삭제하여 중복·저빈도 항목 정리, 최신 여가트렌드(독서, 야외활동) 반영 7) 충분성와 만족도 2개 문항으로 확장하여 구분 측정 8)~14) 정책적 활용도가 낮고, 응답자 부담을 고려하여 삭제 ※ 여가의 순기능·역기능을 함께 측정하는 인식 척도 신설
일·생활 균형	1) 현재 하고 있는 일 2) 고용형태(종사상 지위) 3) 규정된 퇴근시간 유무 4) 퇴근시간에 퇴근 가능 정도 5) 일·생활 균형 생각 정도 6) 현재 삶에서의 일·생활 균형 7) 일·생활 균형을 잘 이루지 못하는 이유 8) 현재 일을 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 9) 선호하는 근로형태 10)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그 이유	1) 일시 휴직·휴업 상태의 응답자를 포착하도록 세분화(통계청 경활조사 방식 준용), 일하지 않았으나 직장 있음 추가 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수정, 통계청 표준 고용형태 분류 용어로 정합화 3), 4) 삭제 6) 일·생활 갈등의 다양한 양상을 세분화해 정책 수요 파악의 정밀도 제고, 개인시간 부족, 동료와의 어울림, 승진불이익 우려, 전반적 균형 등 신설
생활 및 경제 수준	1) 현재 거주지역에서의 거주기간 2) 지역에 정착하게 된 이유 3) 현재 생활 및 경제수준 만족도 4)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지출 항목 5) 전반적으로 속하는 계층	5) 계층인식 문항에 판단기준 각주(소득·자산·직업·교육 고려) 신설 외 큰 변화 없음 ※ 지속 거주 계획 의향 및 떠나고 싶은 이유 항목 추가
1인가구	1) 1인가구 유무 2) 1인가구 생활기간 3) 1인가구 전 함께 살았던 사람	3), 8)~11) 정책적 활용도가 낮고, 응답자 부담을 고려하여 삭제 ※ 1인가구의 생활만족도를 별도 지표로

조사영역	2022년	2026년 조사 개선사항
	4) 생활하는 주된 이유 5) 생활비 마련방법 6)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 7) 집을 마련한 방법 8) 따로 사는 가족 경제적 부양여부 9)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가족 10) 따로 사는 가족 정기적으로 돌봄 여부 11) 정기적 장시간으로 돌보고 있는 가족 12) 1인가구로서 느껴지는 정도 13) 문제/걱정거리에 대해 나눌 수 있는 사람 14) 향후에도 혼자 살 의향 15) 예상되는 어려움 중 걱정되는 내용 16) 혼자 살 의향이 없다면, 앞으로의 계획	신설
가족정책	1) 가족이 살기 좋은 도시인지에 대한 생각 2) 지원이 가장 필요한 가족형태 3) 가족지원서비스 인지도 및 필요도 4) 중요하게 다뤄야할 돌봄 지원 대상 5) 일(직장)가정의 조화를 위해 추진해야할 정책 6) 필요한 공동체 7) 가장 필요한 1인가구 지원 정책 8) 가족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 정책	1) 문화적 삶의 질 영역을 추가해 정책평가 범위 확장 2) 가족돌봄청년, 이주민가족 등 최근 부각된 정책 대상을 반영 3) 인지도와 필요도 측정에서 확장하여, 이용경험과 이용 후 도움정도도 측정함으로써 서비스 인지에서 실제 이용, 이용효과성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측정하도록 고도화 5) 일·생활 균형 영역으로 이동 7) 1인가구 영역으로 이동 4), 6) 삭제 8) 자유서술 방식을 정량 분석 가능한 객관식 선택형으로 전환 ※ 서비스 인지 경로 문항 신설 ※ 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세부 서비스 수요조사 문항 신설

2. 조사 개요

○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 22개 시군의 가족 생활 실태 및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경상북도 가족정책 수립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1) 조사 대상 및 방법

○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경상북도 22개 시군에 거주하는 가구의 만 19세 이상 가구원임

- 여기서 가구란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를 의미하며, 「주민등록법」상 세대 구분과는 별개로 실제 동거 및 생계공동체 여부를 기준으로 판별함. 따라서 1인가구, 부부가구, 한부모가구, 재혼가족, 다문화가족, 비혼동거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모두 포괄하며, 특정 가족 형태를 조사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였음
- 조사대상을 가구주 또는 배우자로 한정할 경우,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성인 자녀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혼·만혼 청년층의 가족가치관과 생활실태가 조사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응답자는 가구주 또는 배우자에 한정하지 않고, 가구 내 만 19세 이상 가구원 중 1인을 선정하여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가구를 구성하는 다양한 세대와 생애주기의 목소리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하였음. 또한 연령별·성별 할당표집으로 설계하였음

○ 본 연구의 조사방법으로는 설문조사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온라인 조사와 가구 방문 오프라인 조사를 병행하였음

- 설문조사는 2026년 8월 31일~9월 20일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총 1,013명의 자료를 확보·분석하였음. 설문조사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직접 방문 및 패널 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음

2) 조사 내용

○ 본 연구의 주요 조사 내용은 〈표 Ⅲ-4〉와 같이 응답자 일반 현황, 가구(주) 특성,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족형성,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일·생활 균형, 생활 및 경제 수준, 가족 정책 그리고 1인가구 관련 문항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음

<표 Ⅲ-4> 조사 내용

조사 영역	조사 내용	
응답자 일반 현황	1) 연령 2) 성별 3) 최종학력 4) 가구주와의 관계	5) 거주지역 6) 혼인상태 7) 직업 8) 자녀유무
가구(주) 특성	1) 가구원 수 2) 세대유형 3) 월평균 가구소득	4) 주소득원 5) 가구(가족)형태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1) 우리 가족으로 포함되는 사람 2) 의지가 되는 사람 3) 가족 정의에 대한 동의 정도 4) 삶의 방식과 가족가치관 5) 자녀와 자녀양육	6)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7) 결혼식 및 비용 8) 부모 부양 및 부모의 책임 9) 자녀 경제적 책임
가족형성	1) 적정 결혼 연령 2) 혼인상태 3) 배우자와 살기 시작한 기간 4) 이혼 또는 별거를 하는 이유	5) 자녀 유무 및 향후 추가 출산 계획 6)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는 이유 7) 사회적 여건 변화시 추가 출산 의향 8) 출산 의향 증가 조건
가족관계	1) 가족관계 만족도 2) 주도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사람 3) 가사수행을 하는 사람 및 분담 만족도 4) 배우자와의 갈등 이유	5) 갈등 발생시 해결방안 6) 자녀 양육시 가장 큰 어려움 7) 자녀와의 갈등 발생 이유
가족돌봄	1) 취학전 영유아 유무 2) 영유아 주중 낮시간대 다니는 기관유무 3) 오랜 시간을 보내는 기관 4) 기관 이용 외 시간에 주로 돌보는 사람 5) 기관 미이용시 주로 돌보는 사람 6) 주로 돌보는 사람의 돌봄 시간 7) 기관 미이용 이유	8) 기관 선택시 중요 고려 사항 9) 긴급 상황시 아이 양육을 도와주는 사람 10) 영유아 자녀 돌봄 서비스 필요시간 11) 가족 내 초등학생 유무 12) 초등학생 자녀를 방과후 주로 돌보는 사람 13) 돌보는 사람 없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 14) 초등자녀 돌봄 서비스 필요시간

조사 영역	조사 내용	
가족생활	1) 가사노동 참여 여부 2) 가족 식사 빈도 3) 하루 가족과의 평균 대화시간 4) 가족 여가활동 여부	5) 주로 하는 가족 여가활동 6) 가족 여가활동하기 어려운 이유 7) 가족 여가활동의 의미 8) 가족 여가시간 만족도 및 충분도
일·생활 균형	1) 현재 하고 있는 일 2) 고용형태(종사상 지위) 3) 일·생활 균형 경험 4) 일·생활 균형을 잘 이루지 못하는 이유	5) 현재 일을 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 6) 선호하는 근로형태 7)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 8) 일·생활 균형 우선 추진 정책
생활 및 경제 수준	1) 현재 거주지역에서의 거주기간 2) 지역에 정착하게 된 이유 3) 지역 거주 의향 4) 지역을 떠나고 싶은 이유	5)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지출 항목 6) 현재 생활 및 경제수준 만족도 7) 사회경제적 계층 인식
1인가구	1) 1인가구 유무 2) 1인가구 생활기간 3) 1인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 4) 생활비 마련 방법 5)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 6) 집을 마련한 방법 7) 문제/걱정거리에 대해 나눌 수 있는 사람	8) 1인가구로서 느껴지는 어려움 9) 1인가구로서의 생활 만족도 10) 향후에도 혼자 살 의향 11) 예상되는 어려움 중 걱정되는 내용 12) 혼자 살 의향이 없다면, 앞으로의 계획 13) 1인가구 필요 정책
가족정책	1) 가족이 살기 좋은 지역 인지에 대한 생각 2) 지원이 가장 필요한 가족형태 3) 가족지원서비스 인지도, 이용경험, 도움 정도 및 필요도	4) 가족지원서비스 및 가족정책 정보 획득 경로 5) 가장 필요한 서비스 6) 가족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 정책

3) 자료처리 및 분석 방법

○ 조사된 자료는 코딩과 에디팅 과정, 최종 확인과 검증을 마친 후 최종 분석 자료를 확정하였고, SPSS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평균값 등을 산출하였음. 평균값은 3~5점 리커트(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환산하였으며,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른 차이 검증을 위해 교차분석, t-test 및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집단 간 구체적 사후검증을 위해 Duncan test를 실시하였음. 다만, 가족관계 만족도는 혼인상태에 따라 해당 관계의 유무가 달라지므로 혼인상태별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3. 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 조사대상자는 총 1,013명으로, 일반적 특성은 〈표 Ⅲ-5〉와 같음

- 조사대상자는 남성이 54.9%(556명), 여성이 45.1%(457명)이며,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31.5%로 가장 많고, 50대 22.7%, 40대 19.0%, 30대 13.6%, 20대 13.2% 순임. 50대 이상이 54.2%로 절반을 넘어,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경상북도의 인구 구조가 반영됨
- 거주권역은 남부권역이 29.0%로 가장 많고, 서부권역 27.6%, 동부권역 24.3%, 북부권역 19.1% 순임
- 혼인상태는 기혼이 57.5%로 과반을 차지하며, 미혼 32.0%, 이혼·사별 등의 기타는 10.6%임. 기혼자가 많아 가구주와의 관계도 가구주 본인(53.4%)과 배우자(24.7%)가 78.1%를 차지함. 이 밖에 자녀 11.7%, 부모 8.7%이며, 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기타 친인척·비혈연 동거인은 각각 1% 미만임
- 자녀 유무(복수응답)를 보면 성인자녀가 있는 경우가 45.6%로 가장 많고, 자녀가 없는 경우는 36.6%임. 미성년 자녀는 중고등학생 10.4%, 초등학생 8.5%, 영유아 5.2% 순이며, 임신 중인 경우는 1.1%임. 50대 이상 조사대상자가 절반을 넘는 연령 구성에 따라, 자녀 양육기보다 자녀가 성장한 단계의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 재학·졸업이 45.4%로 가장 많고, 고졸 23.9%, 전문대 재학·졸업 19.4%, 대학원 재학 이상 7.3%, 중졸 이하 3.9% 순임
- 직업은 관리·사무직이 24.1%로 가장 많고, 무직 13.9%, 전업주부 12.9%, 기술·기능직 10.0%, 서비스·판매직 9.7%, 전문직 7.9% 순임. 전체적으로 취업자는 63.2%, 학생·전업주부·무직 등 비취업자는 31.2%임

<표 Ⅲ-5>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단위 : N=1,013, 명(%))

구 분		N	%	구 분		N	%
전 체		1,013	100.0	혼인상태*	미혼	324	32.0
성별	남성	556	54.9		기혼	582	57.5
	여성	457	45.1		기타	107	10.6
연령대	20대	134	13.2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본인)	541	53.4
	30대	138	13.6		배우자	250	24.7
	40대	192	19.0		자녀	119	11.7
	50대	230	22.7		부모	88	8.7
	60대 이상	319	31.5		손자녀	3	0.3
최종학력	중졸 이하	40	3.9		조부모	2	0.2
	고졸	242	23.9		형제자매	6	0.6
	전문대 재학/졸업	197	19.4		기타 친인척	1	0.1
	4년제 대학 재학/졸업	460	45.4		비혈연동거인	3	0.3
	대학원 재학 이상	74	7.3	직업	전문직	80	7.9
거주권역	동부권역	246	24.3		연구직	15	1.5
	서부권역	280	27.6		관리/사무직	244	24.1
	남부권역	294	29.0		서비스/판매직	98	9.7
	북부권역	193	19.1		기술/기능직	101	10.0
자녀유무 (복수응답)	임신중	11	1.1		농/임/어업 종사자	43	4.2
	영유아	53	5.2		단순/노무직	59	5.8
	초등학생	86	8.5		학생	45	4.4
	중고등학생	105	10.4		전업주부	131	12.9
	성인자녀	462	45.6		무직	141	13.9
	자녀없음	371	36.6		기타	56	5.5

주 : '미혼'은 동거(사실혼) 포함, '기타'는 이혼.사별.별거를 합함

2) 가구(주) 특성

(1) 가구원의 수

○ 가구원은 혈연이나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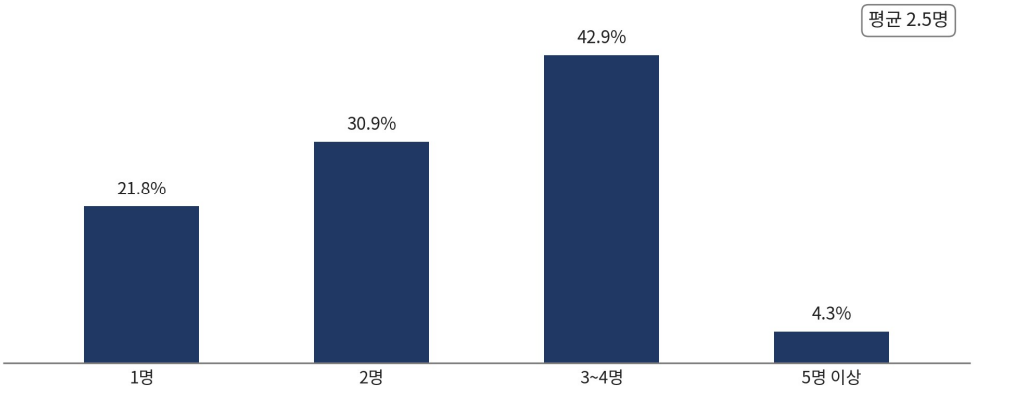
함. 가구원 수는 3~4명이 435명(42.9%)으로 가장 많고, 2명 313명(30.9%), 1명 221명(21.8%), 5명 44명(4.3%)의 순이었음

<표 Ⅲ-6> 가구원 수

(단위 : N=1,013, 명(%))

구 분	1명	2명	3~4명	5명 이상
N(%)	221(21.8)	313(30.9)	435(42.9)	44(4.3)

(단위: N=1,013, %)



[그림 Ⅲ-1] 가구원 수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가구원 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령)** 60대 이상은 '2명'(54.9%)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반면, 20~50대는 '3~4명'이 47.1~56.7%로 가장 많았음. 또한 20대는 '5명 이상'(8.2%)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 **(혼인상태)** 기혼은 '3~4명'(52.6%)과 '2명'(40.7%)이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미혼은 '1명'(41.7%), 기타(별거·이혼·사별)는 '1명'(70.1%)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 **(거주권역)** 남부권은 '1명'(28.2%)의 비율이 다른 권역(16.7~21.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북부권은 '2명'(39.4%), 서부권은 '3~4명'(49.3%)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Ⅲ-7>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구원 수

(단위 : N=1,013, 명(%))

구 분		1명	2명	3~4명	5명 이상	χ2
성별	남성(N=556)	117(21.0)	170(30.6)	245(44.1)	24(4.3)	.74
	여성(N=457)	104(22.8)	143(31.3)	190(41.6)	20(4.4)	
연령	20대(N=134)	28(20.9)	19(14.2)	76(56.7)	11(8.2)	149.48***
	30대(N=138)	35(25.4)	31(22.5)	65(47.1)	7(5.1)	
	40대(N=192)	44(22.9)	33(17.2)	101(52.6)	14(7.3)	
	50대(N=230)	50(21.7)	55(23.9)	114(49.6)	11(4.8)	
	60대 이상(N=319)	64(20.1)	175(54.9)	79(24.8)	1(0.3)	
혼인 상태	미혼(N=324)	135(41.7)	52(16.0)	121(37.3)	16(4.9)	374.02***
	기혼(N=582)	11(1.9)	237(40.7)	306(52.6)	28(4.8)	
	기타(N=107)	75(70.1)	24(22.4)	8(7.5)	0(0.0)	
거주 권역	동부권(N=246)	41(16.7)	87(35.4)	106(43.1)	12(4.9)	30.12***
	서부권(N=280)	55(19.6)	69(24.6)	138(49.3)	18(6.4)	
	남부권(N=294)	83(28.2)	81(27.6)	121(41.2)	9(3.1)	
	북부권(N=193)	42(21.8)	76(39.4)	70(36.3)	5(2.6)	

*p<.05 **p<.01 ***p<.001

(2) 세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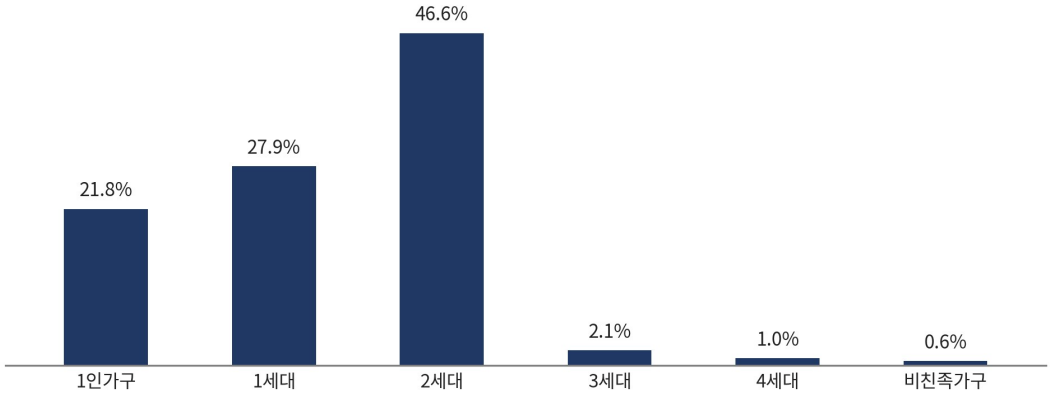
○ 세대 유형은 '2세대'가 472명(46.6%)으로 가장 많았으며, '1세대' 283명(27.9%), '1인가구' 221명(21.8%), '3세대' 21명(2.1%), '4세대' 10명(1.0%), '비친족가구' 6명(0.6%)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8> 세대 유형

(단위 : N=1,013, 명(%))

구 분	1인가구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비친족가구
N(%)	221(21.8)	283(27.9)	472(46.6)	21(2.1)	10(1.0)	6(0.6)

(단위: N=1,013, %)



[그림 Ⅲ-2] 세대유형

○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른 세대유형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성별)** 남성과 여성 모두 '2세대'(45.3%, 48.1%)가 가장 많았으며, 성별 간 분포는 대체로 유사하였음
- **(연령)** 20~50대는 '2세대'가 50.7~60.9%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40대(60.9%)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60대 이상은 '1세대'(51.4%)가 가장 많았음
- **(혼인상태)** 기혼은 '2세대'(53.8%)와 '1세대'(41.4%)의 비율이 높았고, 미혼은 '1인가구'(41.7%)와 '2세대'(40.7%), 기타는 '1인가구'(70.1%)의 비율이 높았음
- **(거주권역)** 서부권은 '2세대'(53.6%), 북부권은 '1세대'(34.2%), 남부권은 '1인가구'(28.2%)의 비율이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Ⅲ-9>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세대 유형

(단위 : N=1,013, 명(%))

구 분		1인가구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비친족가구
성별	남성(N=556)	117(21.0)	163(29.3)	252(45.3)	12(2.2)	9(1.6)	3(0.5)
	여성(N=457)	104(22.8)	120(26.3)	220(48.1)	9(2.0)	1(0.2)	3(0.7)
연령	20대(N=134)	28(20.9)	25(18.7)	71(53.0)	3(2.2)	6(4.5)	1(0.7)
	30대(N=138)	35(25.4)	26(18.8)	70(50.7)	3(2.2)	1(0.7)	3(2.2)
	40대(N=192)	44(22.9)	22(11.5)	117(60.9)	7(3.6)	1(0.5)	1(0.5)
	50대(N=230)	50(21.7)	46(20.0)	127(55.2)	5(2.2)	1(0.4)	1(0.4)
	60대 이상(N=319)	64(20.1)	164(51.4)	87(27.3)	3(0.9)	1(0.3)	-
혼인 상태	미혼(N=324)	135(41.7)	40(12.3)	132(40.7)	6(1.9)	7(2.2)	4(1.2)
	기혼(N=582)	11(1.9)	241(41.4)	313(53.8)	13(2.2)	3(0.5)	1(0.2)
	기타(N=107)	75(70.1)	2(1.9)	27(25.2)	2(1.9)	-	1(0.9)
거주 권역	동부권(N=246)	41(16.7)	77(31.3)	117(47.6)	8(3.3)	-	3(1.2)
	서부권(N=280)	55(19.6)	67(23.9)	150(53.6)	5(1.8)	3(1.1)	-
	남부권(N=294)	83(28.2)	73(24.8)	126(42.9)	6(2.0)	4(1.4)	2(0.7)
	북부권(N=193)	42(21.8)	66(34.2)	79(40.9)	2(1.0)	3(1.6)	1(0.5)

주 : 기대빈도 5 미만 셀이 20%를 초과하여 χ^2 검정 결과는 제시하지 않음

(3) 월평균 가구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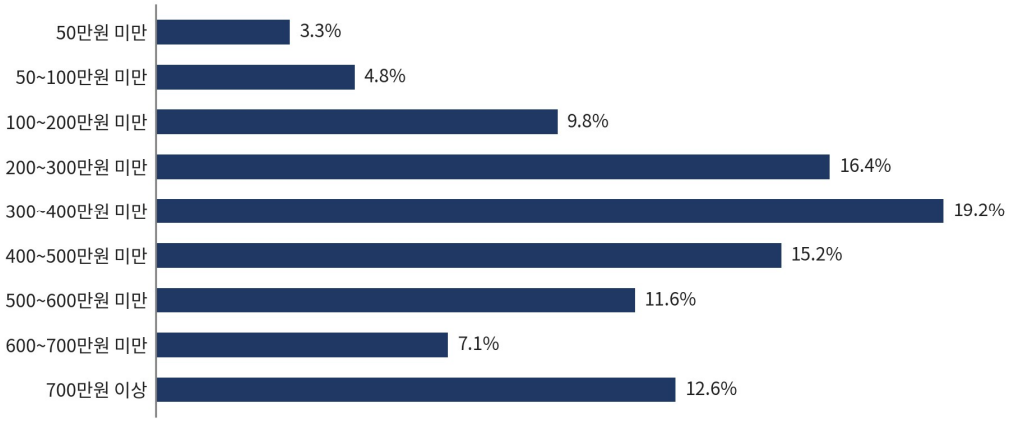
○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400만원 미만'이 194명(19.2%)으로 가장 많았으며, '200~300만원 미만' 166명(16.4%), '400~500만원 미만' 154명(15.2%), '700만원 이상' 128명(12.6%), '500~600만원 미만' 118명(1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는 65.7%, 200만원 미만인 가구는 17.9%였음

<표 Ⅲ-10> 월평균 가구 소득

(단위 : N=1,013, 명(%))

구 분	50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200 만원 미만	200~300 만원 미만	300~400 만원 미만	400~500 만원 미만	500~600 만원 미만	600~700 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N(%)	33(3.3)	49(4.8)	99(9.8)	166(16.4)	194(19.2)	154(15.2)	118(11.6)	72(7.1)	128(12.6)

(단위: N=1,013, %)



[그림 Ⅲ-3] 월평균 가구소득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월평균 가구소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성별, 연령, 혼인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성별)** 남성은 '300~400만원 미만'(21.2%)과 '700만원 이상'(14.2%)의 비율이 여성(16.6%, 10.7%)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여성은 200만원 미만의 비율(20.4%)이 남성(15.8%)보다 높았음
- **(연령)** 30대(24.6%)와 40대(24.5%)는 '300~400만원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는 '700만원 이상'(16.5%)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반면 20대(26.1%)와 60대 이상(21.9%)은 200만원 미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혼인상태)** 기혼은 400만원 이상의 비율이 61.5%로 미혼(28.1%), 기타(21.5%)에 비해 높았으며, 기타는 200만원 미만의 비율이 44.9%로 가장 높았음

<표 Ⅲ-1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 N=1,013, 명(%))

구 분		50만원 미만	50~100 만원미만	100~200 만원미만	200~300 만원미만	300~400 만원미만	400~500 만원미만	500~600 만원미만	600~700 만원미만	700만원 이상	χ2
성별	남성(N=556)	12(2.2)	28(5.0)	48(8.6)	86(15.5)	118(21.2)	83(14.9)	70(12.6)	32(5.8)	79(14.2)	16.29*
	여성(N=457)	21(4.6)	21(4.6)	51(11.2)	80(17.5)	76(16.6)	71(15.5)	48(10.5)	40(8.8)	49(10.7)	
연령	20대(N=134)	6(4.5)	6(4.5)	23(17.2)	26(19.4)	19(14.2)	16(11.9)	12(9.0)	9(6.7)	17(12.7)	59.64**
	30대(N=138)	3(2.2)	3(2.2)	9(6.5)	29(21.0)	34(24.6)	16(11.6)	23(16.7)	7(5.1)	14(10.1)	
	40대(N=192)	7(3.6)	9(4.7)	12(6.3)	24(12.5)	47(24.5)	30(15.6)	22(11.5)	18(9.4)	23(12.0)	
	50대(N=230)	9(3.9)	8(3.5)	16(7.0)	33(14.3)	32(13.9)	39(17.0)	35(15.2)	20(8.7)	38(16.5)	
	60대 이상(N=319)	8(2.5)	23(7.2)	39(12.2)	54(16.9)	62(19.4)	53(16.6)	26(8.2)	18(5.6)	36(11.3)	
혼인 상태	미혼(N=324)	20(6.2)	26(8.0)	50(15.4)	67(20.7)	70(21.6)	29(9.0)	21(6.5)	15(4.6)	26(8.0)	203.92***
	기혼(N=582)	3(0.5)	5(0.9)	29(5.0)	77(13.2)	110(18.9)	114(19.6)	91(15.6)	55(9.5)	98(16.8)	
	기타(N=107)	10(9.3)	18(16.8)	20(18.7)	22(20.6)	14(13.1)	11(10.3)	6(5.6)	2(1.9)	4(3.7)	
거주 권역	동부권(N=246)	5(2.0)	9(3.7)	19(7.7)	34(13.8)	52(21.1)	32(13.0)	36(14.6)	19(7.7)	40(16.3)	33.68
	서부권(N=280)	6(2.1)	15(5.4)	25(8.9)	45(16.1)	50(17.9)	48(17.1)	32(11.4)	28(10.0)	31(11.1)	
	남부권(N=294)	14(4.8)	20(6.8)	36(12.2)	46(15.6)	50(17.0)	47(16.0)	31(10.5)	17(5.8)	33(11.2)	
	북부권(N=193)	8(4.1)	5(2.6)	19(9.8)	41(21.2)	42(21.8)	27(14.0)	19(9.8)	8(4.1)	24(12.4)	

*p<.05 **p<.01 ***p<.001

(4) 주소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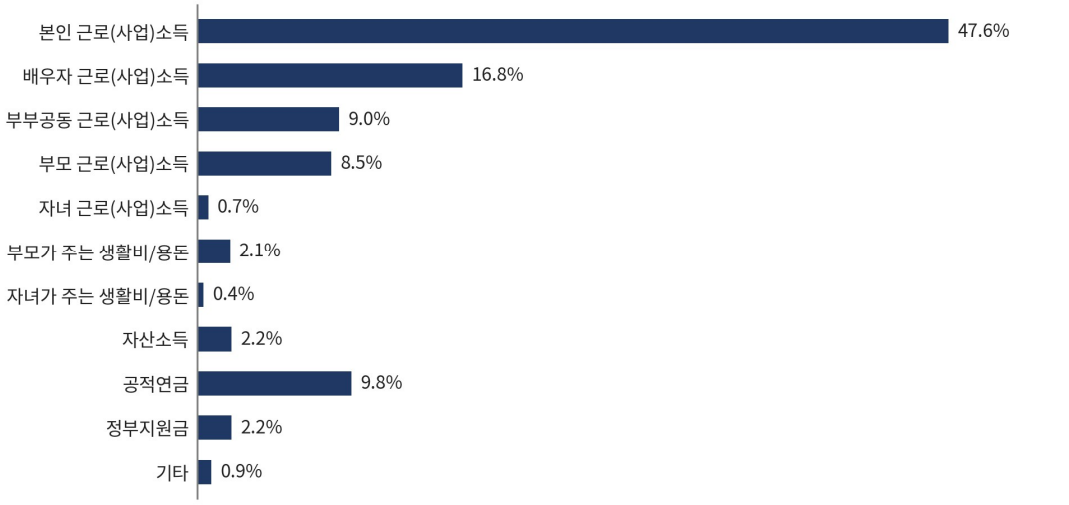
○ 가구의 주소득원은 '본인 근로(사업)소득'이 482명(47.6%)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 근로(사업)소득' 170명(16.8%), '공적연금' 99명(9.8%), '부부공동 근로(사업)소득' 91명(9.0%), '부모 근로(사업)소득' 86명(8.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근로(사업)소득을 주소득원으로 하는 가구는 전체의 82.5%였음

<표 Ⅲ-12> 주소득원

(단위 : N=1,013, 명(%))

구 분	본인 근로 (사업) 소득	배우자 근로 (사업) 소득	부부 공동 소득	부모 근로 (사업) 소득	자녀 근로 (사업) 소득	부모가 주는 생활비/ 용돈	자녀가 주는 생활비/ 용돈	자산 소득	공적 연금	정부 지원금	기타
N(%)	482(47.6)	170(16.8)	91(9.0)	86(8.5)	7(0.7)	21(2.1)	4(0.4)	22(2.2)	99(9.8)	22(2.2)	9(0.9)

(단위: N=1,013, %)



[그림 Ⅲ-4] 주소득원

(5) 가구형태

○ 가구형태를 중복응답으로 살펴본 결과, '맞벌이가족'이 359명(35.4%)으로 가장 많았으며, '1인가구' 221명(21.8%), '주말부부가족' 33명(3.3%), '한부모가족' 14명(1.4%), '기러기가족' 8명(0.8%), '입양가족' 4명(0.4%), '조손가족' 3명(0.3%)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해당하는 가구형태가 없다는 응답은 375명(37.0%)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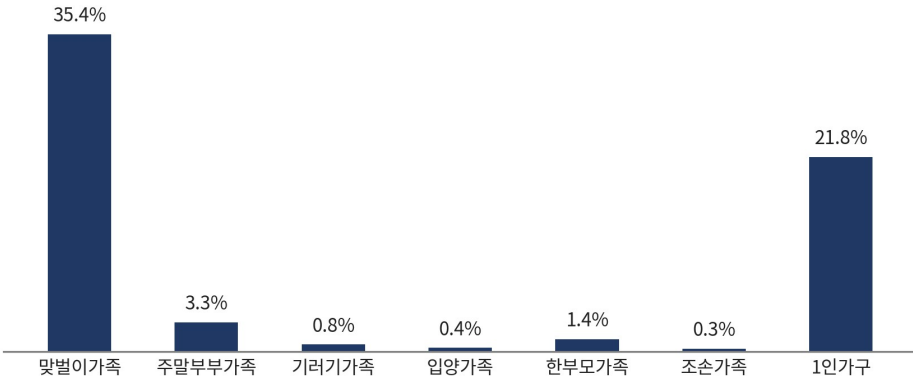
<표 Ⅲ-13> 가구형태

(단위 : 명(%))

구 분	맞벌이가족	주말부부가족	기러기가족	입양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1인가구
N(%)	359(35.4)	33(3.3)	8(0.8)	4(0.4)	14(1.4)	3(0.3)	221(21.8)

주 : 중복응답

(중복응답, 단위: %)



[그림 Ⅲ-5] 가구형태

3)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1) 의지가 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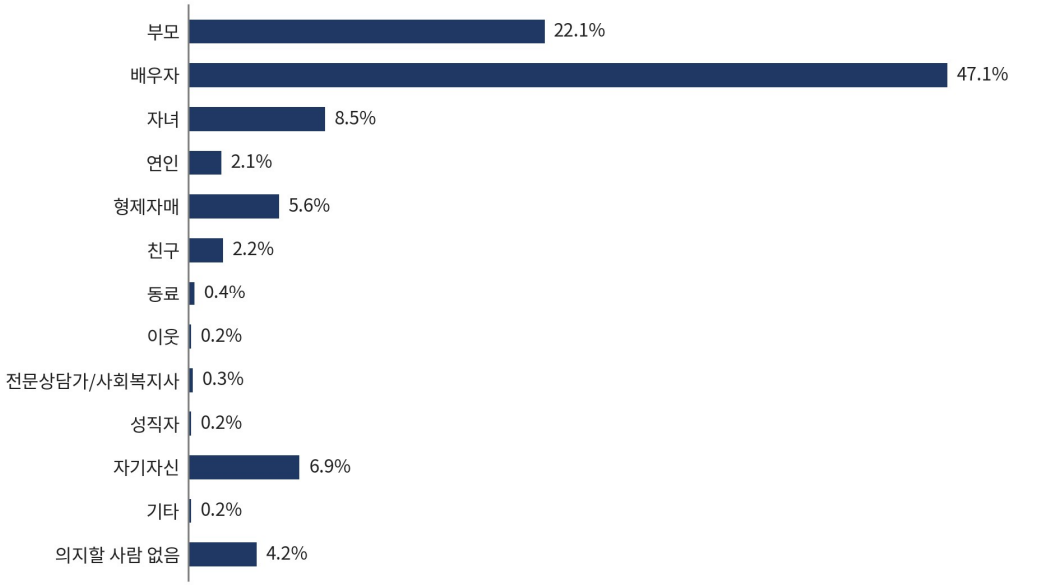
❍ 위기 상황에서 의지가 되는 사람은 '배우자'가 477명(47.1%)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 224명(22.1%), '자녀' 86명(8.5%), '자기 자신' 70명(6.9%), '형제자매' 57명(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의지할 사람 없음'은 43명(4.2%)이었음

<표 Ⅲ-14> 의지가 되는 사람

(단위 : N=1,013, 명(%))

구 분	부모	배우자	자녀	연인	형제자매	친구	동료	이웃	전문상담가/사회복지사	성직자	자기자신	기타	의지할 사람 없음
N(%)	224(22.1)	477(47.1)	86(8.5)	21(2.1)	57(5.6)	22(2.2)	4(0.4)	2(0.2)	3(0.3)	2(0.2)	70(6.9)	2(0.2)	43(4.2)

(단위: N=1,013, %)



[그림 Ⅲ-6] 의지가 되는 사람

(2) 우리 가족에 포함되는 사람

❍ 우리 가족에 포함되는 사람을 중복응답으로 살펴본 결과, '자녀'가 713명(70.4%)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 708명(69.9%), '부모' 672명(66.3%), '형제자매' 576명(56.9%), '배우자의 부모' 318명(31.4%), '자녀의 배우자' 296명(29.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는 과반 이상이 가족으로 인식한 반면, 배우자의 형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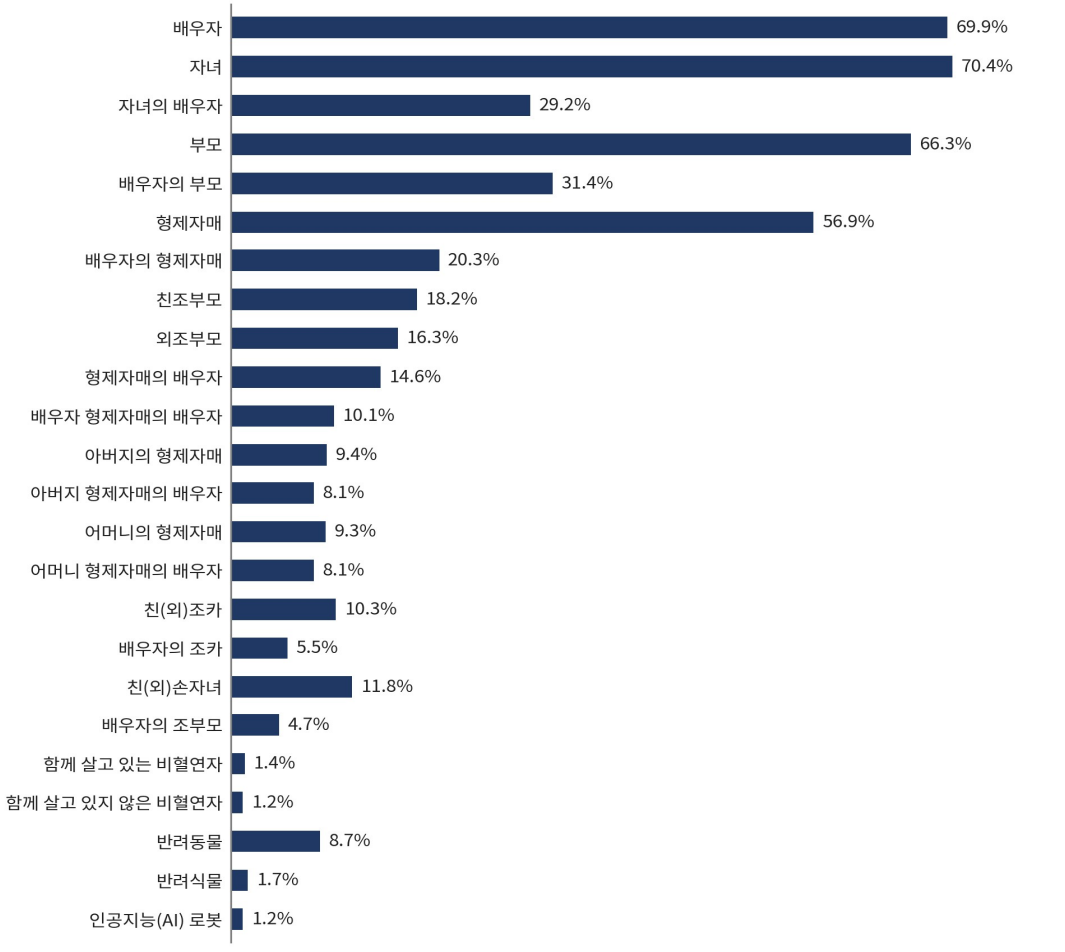
매(20.3%), 조부모(16.3~18.2%), 조카(5.5~10.3%) 등 인척 및 방계 친족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낮았음. 또한 '반려동물'(8.7%), '함께 살고 있는 비혈연자'(1.4%), '인공지능(AI) 로봇'(1.2%)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응답도 일부 있었음

<표 Ⅲ-15> 우리 가족에 포함되는 사람

(단위 : N=1,013, 명(%))

구 분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친조부모
N(%)	708(69.9)	713(70.4)	296(29.2)	672(66.3)	318(31.4)	576(56.9)	206(20.3)	184(18.2)
구 분	외조부모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아버지의 형제자매	아버지 형제자매의 배우자	어머니의 형제자매	어머니 형제자매의 배우자	친(외)조카
N(%)	165(16.3)	148(14.6)	102(10.1)	95(9.4)	82(8.1)	94(9.3)	82(8.1)	104(10.3)
구 분	배우자의 조카	친(외) 손자녀	배우자의 조부모	함께 살고 있는 비혈연자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비혈연자	반려동물	반려식물	인공지능 (AI) 로봇
N(%)	56(5.5)	120(11.8)	48(4.7)	14(1.4)	12(1.2)	88(8.7)	17(1.7)	12(1.2)

(중복응답, 단위: N=1,013, %)



[그림 Ⅲ-7] 우리 가족에 포함되는 사람

(3) 가족에 대한 정의

○ 가족에 대한 정의 인식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결과, '법적인 혼인과 혈연으로 연결되어야만 가족이라 할 수 있다'(3.44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활을 공유하면 가족이라 할 수 있다'(3.07점), '가족은 내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이다'(2.99점),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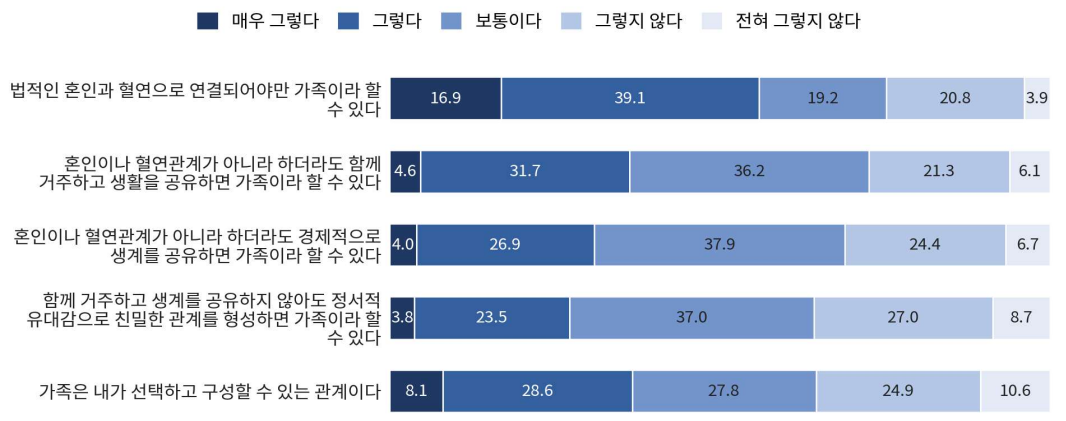
'(2.97점),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감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 가족이라 할 수 있다'(2.87점)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16> 가족에 대한 정의

(단위 : N=1,013, 점, 명(%))

구 분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법적인 혼인과 혈연으로 연결되어야만 가족이라 할 수 있다	3.44	40 (3.9)	211 (20.8)	195 (19.2)	396 (39.1)	171 (16.9)
2)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활을 공유하면 가족이라 할 수 있다	3.07	62 (6.1)	216 (21.3)	367 (36.2)	321 (31.7)	47 (4.6)
3)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라 할 수 있다	2.97	68 (6.7)	247 (24.4)	384 (37.9)	273 (26.9)	41 (4.0)
4)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감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 가족이라 할 수 있다	2.87	88 (8.7)	274 (27.0)	375 (37.0)	238 (23.5)	38 (3.8)
5) 가족은 내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이다	2.99	107 (10.6)	252 (24.9)	282 (27.8)	290 (28.6)	82 (8.1)

(단위: N=1,013, %)



[그림 Ⅲ-8] 가족에 대한 정의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가족에 대한 정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 및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Ⅲ-17〉과 같음

- **(법적인 혼인과 혈연으로 연결되어야만 가족이라 할 수 있다)** 성별, 연령, 혼인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3.54점)이 여성(3.32점)보다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져 60대 이상(3.75점)이 20대(3.07점)보다 높았으며, 기혼과 기타(각 3.58점)가 미혼(3.15점)보다 높았음
-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활을 공유하면 가족이라 할 수 있다)**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대(3.34점)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2.81점)이 가장 낮았으며, 미혼(3.22점)이 기타(2.85점)보다, 동부권(3.20점)과 서부권(3.14점)이 북부권(2.94점)보다 높았음
-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라 할 수 있다)**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대(3.34점)가 60대 이상(2.70점)보다 높았고, 미혼(3.17점)이 기혼(2.91점)과 기타(2.74점)보다, 서부권(3.09점)과 동부권(3.02점)이 북부권(2.83점)보다 높았음
-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감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 가족이라 할 수 있다)** 연령과 혼인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대(3.33점)가 60대 이상(2.48점)보다 높았으며, 미혼(3.14점)이 기혼(2.77점)과 기타(2.58점)보다 높았음
- **(가족은 내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이다)** 연령과 혼인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대(3.63점)가 60대 이상(2.65점)보다 높았으며, 미혼(3.32점)이 기혼(2.86점)과 기타(2.68점)보다 높았음

<표 Ⅲ-17>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에 대한 정의

(단위 : N=1,013,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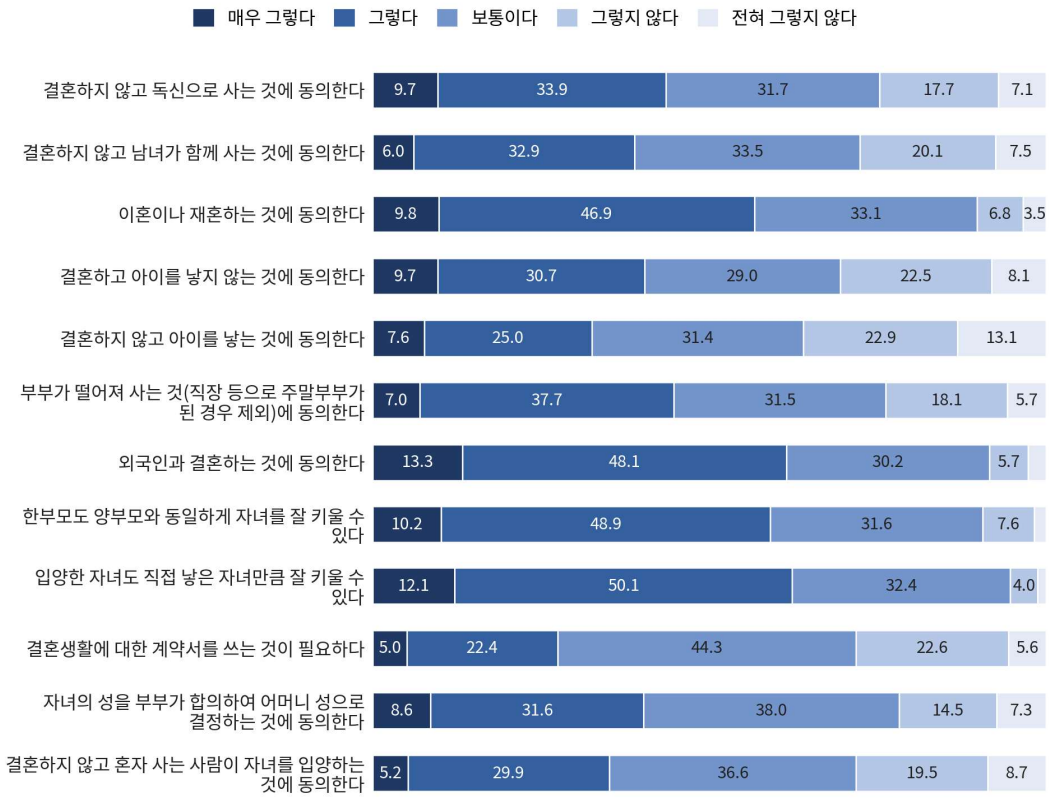
구 분		법적인 혼인과 혈연으로 연결되어야만 가족이라 할 수 있다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활을 공유하면 가족이라 할 수 있다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라 할 수 있다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감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 가족이라 할 수 있다		가족은 내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이다	
		M	SD	M	SD	M	SD	M	SD	M	SD
성별	남성(N=556)	3.54	1.08	3.06	0.97	2.97	0.98	2.89	1.01	2.99	1.13
	여성(N=457)	3.32	1.15	3.09	0.99	2.98	0.96	2.84	0.97	2.98	1.13
	t 값	3.22***		−.59		−.10		.80		.20	
연령	20대(N=134)	3.07a	1.19	3.34b	1.05	3.34c	1.03	3.33c	1.08	3.63d	1.07
	30대(N=138)	3.17ab	1.21	3.18b	1.03	2.93b	1.02	3.07b	1.02	3.19c	1.06
	40대(N=192)	3.31bc	1.07	3.16b	0.84	3.11b	0.83	3.02b	0.88	3.08bc	1.02
	50대(N=230)	3.50c	1.05	3.16b	0.94	3.05b	0.93	2.89b	0.92	2.88b	1.15
	60대 이상(N=319)	3.75d	1.02	2.81a	0.98	2.70a	0.96	2.48a	0.92	2.65a	1.11
	F 값	13.36***		9.76***		13.31***		24.06***		21.41***	
혼인 상태	미혼(N=324)	3.15a	1.16	3.22b	0.98	3.17b	0.96	3.14c	0.99	3.32b	1.07
	기혼(N=582)	3.58b	1.07	3.04b	0.96	2.91a	0.96	2.77b	0.97	2.86a	1.14
	기타(N=107)	3.58b	1.06	2.85a	1.01	2.74a	1.01	2.58a	0.94	2.68a	1.07
	F 값	16.67***		6.72***		11.11***		19.97***		22.60***	
거주 권역	동부권(N=246)	3.42	1.14	3.20c	0.92	3.02c	0.94	2.91	0.93	3.00	1.18
	서부권(N=280)	3.34	1.05	3.14bc	0.93	3.09bc	0.93	2.93	0.98	3.03	1.08
	남부권(N=294)	3.52	1.14	3.00ab	1.01	2.91ab	0.97	2.80	1.00	2.96	1.12
	북부권(N=193)	3.49	1.12	2.94a	1.06	2.83a	1.05	2.81	1.08	2.97	1.17
	F 값	1.45		3.37*		3.16*		1.28		.19	

*p<.05 **p<.01 ***p<.001

(4) 삶의 방식과 가족가치관

❍ 삶의 방식과 가족가치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입양한 자녀도 직접 낳은 자녀만큼 잘 키울 수 있다'(3.68점)가 가장 높았으며,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동의한다'(3.64점), '한부모도 양부모와 동일하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3.58점),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에 동의한다'(3.53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한다'(2.91점)와 '결혼생활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2.99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단위: N=1,013, %)



[그림 Ⅲ-9] 삶의 방식과 가족가치관

<표 Ⅲ-18> 삶의 방식과 가치관

(단위 : N=1,013, 점, 명(%))

구 분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동의한다	3.21	72(7.1)	179(17.7)	321(31.7)	343(33.9)	98(9.7)
2)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에 동의한다	3.10	76(7.5)	204(20.1)	339(33.5)	333(32.9)	61(6.0)
3)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에 동의한다	3.53	35(3.5)	69(6.8)	335(33.1)	475(46.9)	99(9.8)
4)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3.11	82(8.1)	228(22.5)	294(29.0)	311(30.7)	98(9.7)
5)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한다	2.91	133(13.1)	232(22.9)	318(31.4)	253(25.0)	77(7.6)
6)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것(직장 등으로 주말부부가 된 경우 제외)에 동의한다	3.22	58(5.7)	183(18.1)	319(31.5)	382(37.7)	71(7.0)
7)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동의한다	3.64	27(2.7)	58(5.7)	306(30.2)	487(48.1)	135(13.3)
8) 한부모도 양부모와 동일하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3.58	18(1.8)	77(7.6)	320(31.6)	495(48.9)	103(10.2)
9) 입양한 자녀도 직접 낳은 자녀만큼 잘 키울 수 있다	3.68	13(1.3)	41(4.0)	328(32.4)	508(50.1)	123(12.1)
10) 결혼생활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	2.99	57(5.6)	229(22.6)	449(44.3)	227(22.4)	51(5.0)
11) 자녀의 성을 부부가 합의하여 어머니 성으로 결정하는 것에 동의한다	3.20	74(7.3)	147(14.5)	385(38.0)	320(31.6)	87(8.6)
12)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자녀를 입양하는 것에 동의한다'	3.03	88(8.7)	198(19.5)	371(36.6)	303(29.9)	53(5.2)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삶의 방식과 가족가치관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 및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Ⅲ-19〉와 같음

-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동의한다)**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3.43점)이 남성(3.03점)보다 높았고, 20~50대(3.33~3.45점)가 60대 이상(2.81점)보다, 미혼(3.56점)이 기혼(3.04점)과 기타(3.08점)보다 높았으며, 서부권(3.38점)이 다른 권역보다 높았음

-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에 동의한다)**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대(3.53점)와 30대(3.43점)가 60대 이상(2.73점)보다 높았고, 미혼(3.47점)이 기혼(2.93점)과 기타(2.91점)보다, 서부권(3.25점)이 남부권(3.01점)과 북부권(3.04점)보다 높았음
-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에 동의한다)**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대와 30대(각 3.78점)가 60대 이상(3.22점)보다 높았고, 미혼(3.75점)이 기혼(3.43점)과 기타(3.38점)보다 높았으며, 북부권(3.32점)이 다른 권역보다 낮았음
-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3.33점)이 남성(2.94점)보다 높았고, 20대(3.72점)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2.58점)이 가장 낮았으며, 미혼(3.56점)이 기혼(2.93점)과 기타(2.77점)보다, 서부권(3.33점)이 북부권(2.85점)보다 높았음
-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한다)** 연령과 혼인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30대(3.29점)와 20대(3.14점)가 60대 이상(2.66점)보다 높았으며, 미혼(3.24점)이 기혼(2.78점)과 기타(2.61점)보다 높았음
-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것에 동의한다)**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3.33점)이 남성(3.13점)보다 높았음
-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동의한다)**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대(3.97점)와 30대(3.90점)가 60대 이상(3.41점)보다 높았고, 미혼(3.83점)이 기혼(3.56점)과 기타(3.45점)보다 높았으며, 북부권(3.42점)이 다른 권역보다 낮았음

<표 Ⅲ-19>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방식과 가족가치관

(단위 : N=1,013, 점)

구 분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것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성별	남성(N=556)	3.03	1.07	3.10	1.00	3.48	0.86	2.94	1.08	2.97	1.12	3.13	1.00
	여성(N=457)	3.43	1.02	3.09	1.07	3.58	0.91	3.33	1.10	2.84	1.16	3.33	1.02
	t 값	-6.04***		.10		-1.85		-5.72***		1.82		-3.04**	
연령	20대(N=134)	3.45b	1.21	3.53d	1.05	3.78c	0.94	3.72d	1.09	3.14cd	1.32	3.39	1.16
	30대(N=138)	3.45b	1.00	3.43cd	0.95	3.78c	0.84	3.57d	1.02	3.29d	1.11	3.30	1.08
	40대(N=192)	3.42b	0.96	3.28c	0.91	3.60bc	0.77	3.30c	0.96	3.00bc	1.04	3.12	0.96
	50대(N=230)	3.33b	0.99	3.00b	1.05	3.59b	0.82	3.07b	1.05	2.83ab	1.16	3.25	1.00
	60대 이상(N=319)	2.81a	1.04	2.73a	0.97	3.22a	0.92	2.58a	1.04	2.66a	1.05	3.16	0.94
	F 값	18.52***		23.84***		16.42***		41.06***		10.15***		1.97	
혼인 상태	미혼(N=324)	3.56b	1.04	3.47b	1.00	3.75b	0.90	3.56b	1.06	3.24b	1.13	3.31	1.08
	기혼(N=582)	3.04a	1.04	2.93a	1.01	3.43a	0.86	2.93a	1.08	2.78a	1.13	3.16	0.97
	기타(N=107)	3.08a	1.09	2.91a	0.94	3.38a	0.90	2.77a	1.02	2.61a	1.00	3.28	1.01
	F 값	27.18***		32.31***		15.54***		43.13***		22.31***		2.22	
거주 권역	동부권(N=246)	3.16a	1.01	3.07ab	1.02	3.58b	0.76	3.09b	1.00	2.85	1.15	3.22	0.95
	서부권(N=280)	3.38b	1.05	3.25b	1.00	3.65b	0.90	3.33c	1.12	3.00	1.16	3.20	1.06
	남부권(N=294)	3.19a	1.04	3.01a	0.99	3.50b	0.84	3.10b	1.07	2.91	1.10	3.18	1.01
	북부권(N=193)	3.07a	1.18	3.04a	1.14	3.32a	1.06	2.85a	1.24	2.86	1.16	3.31	1.01
	F 값	3.73**		3.13*		5.65***		7.05***		.85		.69	

*p<.05 **p<.01 ***p<.001

<표 Ⅲ-19 계속>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방식과 가족가치관

(단위 : N=1,013, 점)

구 분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		한부모도 양부모와 동일하게 자녀 양육		입양한 자녀도 직접 낳은 자녀만큼 양육		결혼생활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 것이 필요		자녀의 성을 어머니 성으로 결정하는 것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자녀를 입양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성별	남성(N=556)	3.66	0.83	3.51	0.85	3.63	0.77	2.89	0.96	2.95	1.06	3.01	1.02
	여성(N=457)	3.60	0.94	3.66	0.82	3.74	0.81	3.10	0.90	3.49	0.90	3.06	1.04
	t 값	1.07		−2.76**		−2.25*		−3.57***		−8.58***		−.75	
연령	20대(N=134)	3.97c	0.97	3.76c	1.03	3.88b	0.93	3.28b	1.12	3.67c	1.07	3.36b	1.09
	30대(N=138)	3.90c	0.88	3.48a	0.96	3.69a	0.89	2.96a	1.02	3.27b	1.12	2.96a	1.03
	40대(N=192)	3.57ab	0.80	3.48a	0.86	3.54a	0.78	2.84a	0.86	3.31b	0.92	3.00a	1.04
	50대(N=230)	3.66b	0.75	3.67bc	0.78	3.65a	0.75	3.03a	0.90	3.24b	0.95	2.97a	1.03
	60대 이상(N=319)	3.41a	0.90	3.54ab	0.70	3.69a	0.68	2.94a	0.86	2.86a	0.98	3.00a	0.96
	F 값	14.35***		3.53**		3.78**		4.83***		17.53***		3.95**	
혼인 상태	미혼(N=324)	3.83b	0.91	3.62ab	0.96	3.75	0.88	3.15b	0.97	3.39b	1.09	3.24b	1.00
	기혼(N=582)	3.56a	0.82	3.53a	0.79	3.63	0.75	2.85a	0.90	3.10a	0.98	2.90a	1.02
	기타(N=107)	3.45a	1.01	3.75b	0.66	3.72	0.67	3.20b	0.94	3.12a	1.03	3.15b	1.01
	F 값	12.59***		3.65*		2.76		14.06***		8.74***		12.96***	
거주 권역	동부권(N=246)	3.66b	0.81	3.60	0.82	3.68	0.78	2.96b	0.91	3.26b	0.98	2.98	1.02
	서부권(N=280)	3.77b	0.84	3.60	0.89	3.65	0.82	3.09b	0.98	3.33b	1.04	3.03	1.05
	남부권(N=294)	3.64b	0.88	3.59	0.81	3.70	0.81	3.03b	0.93	3.19b	1.00	3.13	0.99
	북부권(N=193)	3.42a	0.98	3.52	0.85	3.69	0.73	2.79a	0.90	2.94a	1.08	2.96	1.04
	F 값	6.13***		.38		.18		4.45**		6.01***		1.28	

*p<.05 **p<.01 ***p<.001

- **(한부모도 양부모와 동일하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성별, 연령, 혼인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3.66점)이 남성(3.51점)보다 높았고, 20대(3.76점)가 30대와 40대(각 3.48점)보다 높았으며, 기타(3.75점)가 기혼(3.53점)보다 높았음
- **(입양한 자녀도 직접 낳은 자녀만큼 잘 키울 수 있다)** 성별과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3.74점)이 남성(3.63점)보다 높았으며, 20대(3.88점)가 다른 연령대(3.54~3.69점)보다 높았음
- **(결혼생활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3.10점)이 남성(2.89점)보다 높았고, 20대(3.28점)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으며, 미혼(3.15점)과 기타(3.20점)가 기혼(2.85점)보다, 북부권(2.79점)이 다른 권역보다 낮았음
- **(자녀의 성을 부부가 합의하여 어머니 성으로 결정하는 것에 동의한다)**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3.49점)이 남성(2.95점)보다 높았고, 20대(3.67점)가 60대 이상(2.86점)보다, 미혼(3.39점)이 기혼(3.10점)과 기타(3.12점)보다 높았으며, 북부권(2.94점)이 다른 권역보다 낮았음
-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자녀를 입양하는 것에 동의한다)** 연령과 혼인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대(3.36점)가 다른 연령대(2.96~3.00점)보다 높았으며, 미혼(3.24점)과 기타(3.15점)가 기혼(2.90점)보다 높았음

(5) 자녀와 자녀양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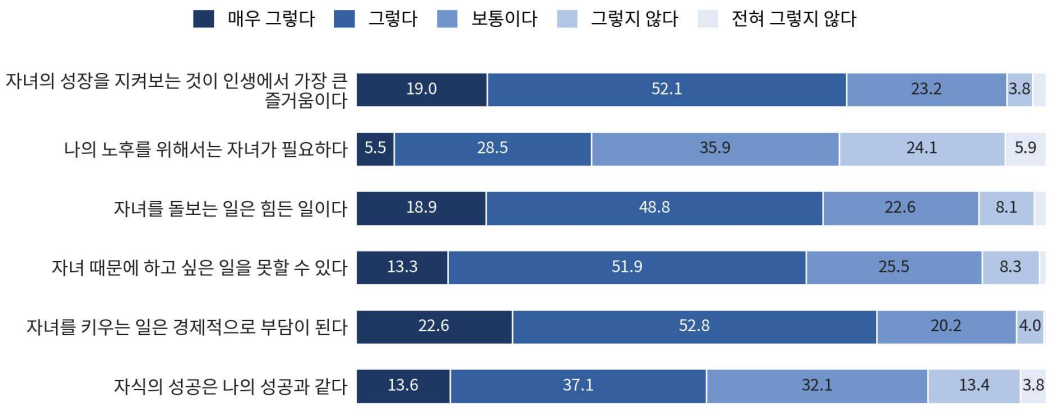
❍ 자녀와 자녀양육에 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자녀를 키우는 일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3.93점)가 가장 높았으며,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3.82점), '자녀를 돌보는 일은 힘든 일이다'(3.75점),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 있다'(3.68점),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3.43점), '나의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3.04점)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20> 자녀와 자녀양육

(단위 : N=1,013, 점, 명(%))

구 분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3.82	20(2.0)	38(3.8)	235(23.2)	528(52.1)	192(19.0)
2) 나의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	3.04	60(5.9)	244(24.1)	364(35.9)	289(28.5)	56(5.5)
3) 자녀를 돌보는 일은 힘든 일이다	3.75	17(1.7)	82(8.1)	229(22.6)	494(48.8)	191(18.9)
4)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 있다	3.68	10(1.0)	84(8.3)	258(25.5)	526(51.9)	135(13.3)
5) 자녀를 키우는 일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3.93	3(0.3)	41(4.0)	205(20.2)	535(52.8)	229(22.6)
6)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	3.43	38(3.8)	136(13.4)	325(32.1)	376(37.1)	138(13.6)

(단위: N=1,013, %)



[그림 Ⅲ-10] 자녀와 자녀양육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자녀와 자녀양육에 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 및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

과는 〈표 Ⅲ-21〉과 같음

-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성별, 연령, 혼인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3.90점)이 여성(3.74점)보다 높았고, 60대 이상(4.05점)이 가장 높고 30대(3.59점)가 가장 낮았으며, 기타(4.00점)와 기혼(3.93점)이 미혼(3.56점)보다 높았음
- **(나의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3.12점)이 여성(2.94점)보다 높았고, 60대 이상(3.33점)이 30대(2.78점)보다 높았으며, 기타(3.24점)가 미혼(2.91점)보다, 북부권(3.21점)이 서부권(2.91점)보다 높았음
- **(자녀를 돌보는 일은 힘든 일이다)**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3.85점)이 남성(3.67점)보다 높았고, 20대(4.02점)와 30대(3.99점)가 60대 이상(3.55점)보다 높았으며, 미혼(3.95점), 기혼(3.70점), 기타(3.42점)의 순으로 높았음. 거주권역별로는 남부권(3.81점)과 서부권(3.80점)이 북부권(3.62점)보다 높았음
-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 있다)**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3.76점)이 남성(3.62점)보다 높았고, 20대와 30대(각 3.93점)가 60대 이상(3.47점)보다, 미혼(3.84점)이 기혼(3.63점)과 기타(3.51점)보다 높았으며, 서부권(3.78점)이 북부권(3.51점)보다 높았음
- **(자녀를 키우는 일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성별, 연령, 혼인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4.07점)이 남성(3.83점)보다 높았고, 20대(4.09점)가 60대 이상(3.86점)보다, 미혼(4.04점)이 기혼(3.88점)보다 높았음
-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 성별, 연령, 혼인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3.52점)이 여성(3.33점)보다 높았고, 60대 이상(3.72점)이 30대(3.14점)보다 높았으며, 기타(3.81점), 기혼(3.47점), 미혼(3.24점)의 순으로 높았음

<표 Ⅲ-2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녀와 자녀양육

(단위 : N=1,013,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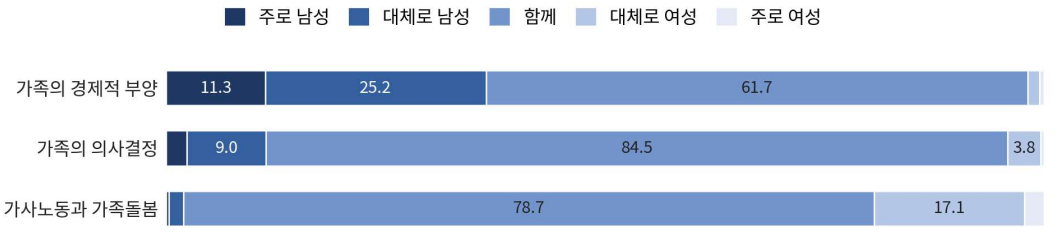
구 분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나의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		자녀를 돌보는 일은 힘든 일이다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 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성별	남성(N=556)	3.90	0.78	3.12	0.98	3.67	0.90	3.62	0.83	3.83	0.78	3.52	1.01
	여성(N=457)	3.74	0.91	2.94	1.00	3.85	0.91	3.76	0.85	4.07	0.77	3.33	1.00
	t 값	3.09**		2.79**		-3.28***		-2.69**		-4.91***		3.11**	
연령	20대(N=134)	3.71ab	0.96	3.11b	1.12	4.02d	0.89	3.93c	0.89	4.09b	0.81	3.42b	1.16
	30대(N=138)	3.59a	1.03	2.78a	1.09	3.99cd	0.89	3.93c	0.86	3.96ab	0.91	3.14a	1.07
	40대(N=192)	3.68ab	0.85	2.85a	0.93	3.81bc	0.89	3.71b	0.80	3.88a	0.81	3.21ab	0.95
	50대(N=230)	3.83b	0.78	2.89a	0.94	3.67ab	0.91	3.66b	0.81	3.98ab	0.73	3.40b	1.00
	60대 이상(N=319)	4.05c	0.69	3.33c	0.88	3.55a	0.89	3.47a	0.81	3.86a	0.72	3.72c	0.87
	F 값	10.55***		13.09***		9.91***		11.72***		2.50*		12.49***	
혼인 상태	미혼(N=324)	3.56a	0.95	2.91a	1.07	3.95c	0.89	3.84b	0.85	4.04b	0.79	3.24a	1.06
	기혼(N=582)	3.93b	0.76	3.07ab	0.96	3.70b	0.89	3.63a	0.83	3.88a	0.78	3.47b	0.97
	기타(N=107)	4.00b	0.78	3.24b	0.88	3.42a	0.94	3.51a	0.78	3.93ab	0.72	3.81c	0.89
	F 값	23.40***		5.45**		15.94***		9.49***		4.41**		14.12***	
거주 권역	동부권(N=246)	3.86	0.81	3.05ab	0.95	3.72ab	0.94	3.68b	0.81	3.92	0.78	3.43	1.00
	서부권(N=280)	3.82	0.87	2.91a	1.04	3.80b	0.91	3.78b	0.87	3.99	0.75	3.39	1.03
	남부권(N=294)	3.83	0.94	3.03ab	1.00	3.81b	0.88	3.70b	0.82	3.94	0.84	3.41	1.01
	북부권(N=193)	3.78	0.72	3.21b	0.93	3.62a	0.90	3.51a	0.85	3.87	0.75	3.54	0.97
	F 값	.36		3.65*		2.20*		3.92**		0.99		1.02	

*p<.05 **p<.01 ***p<.001

(6) 성역할

○ 가족내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인식을 가족의 경제적 부양, 의사결정, 가사노동과 가족돌봄에 대한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세 영역 모두 '함께'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함께' 응답은 가족의 의사결정이 84.5%로 가장 높고, 이어서 가사노동과 가족돌봄 78.7%, 가족의 경제적 부양 61.7% 순으로 나타남

(단위: N=1,013, %)



[그림 Ⅲ-11] 가족 내 성역할

(가) 가족 경제적 부양

○ 가족의 경제적 부양에 대한 성역할 인식은 '함께'가 625명(61.7%)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체로 남성' 255명(25.2%), '주로 남성' 114명(11.3%), '대체로 여성' 14명(1.4%), '주로 여성' 5명(0.5%)의 순으로 나타남. 경제적 부양을 남성의 역할로 인식하는 응답(주로+대체로 남성)은 36.5%였음. 경제적 부양은 여전히 남성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다른 영역보다 강하게 남아 있음

<표 Ⅲ-22> 가족 경제적 부양에 대한 성역할

(단위 : N=1,013, 명(%))

구 분	주로 남성	대체로 남성	함께	대체로 여성	주로 여성
N(%)	114(11.3)	255(25.2)	625(61.7)	14(1.4)	5(0.5)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가족내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음. 다만 '대체로 여성'(1.4%)과 '주로 여성'(0.5%)의 응답 비율이 매우 낮아, 교차분석 시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20.0~40.0%로 χ^2 검정의 기본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로 남성'과 '대체로 남성'을 '주로·대체로 남성'으로, '대체로 여성'과 '주로 여성'을 '주로·대체로 여성'으로 통합하였음. 범주 통합 결과, 성별·혼인상태·거주권역은 기대빈도 5 미만 셀이 20% 이하로 나타나 검정 가정을 충족하였음. 연령은 27%로 기준을 다소 초과하였으나 최소 기대빈도가 1 이상이었으며, Fisher의 정확검정 결과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p=.086) χ^2 검정 결과와 일치하였음. 교차분석 결과, 성별, 혼인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2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 경제적 부양에 대한 성역할

(단위 : N=1,013, 명(%))

구 분		가족의 경제적 부양			χ2
		주로·대체로 남성	함께	주로·대체로 여성	
성별	남성(N=556)	237(42.6)	308(55.4)	11(2.0)	21.01***
	여성(N=457)	132(28.9)	317(69.4)	8(1.8)	
연령	20대(N=134)	41(30.6)	88(65.7)	5(3.7)	13.72
	30대(N=138)	46(33.3)	89(64.5)	3(2.2)	
	40대(N=192)	62(32.3)	125(65.1)	5(2.6)	
	50대(N=230)	83(36.1)	144(62.6)	3(1.3)	
	60대 이상(N=319)	137(42.9)	179(56.1)	3(0.9)	
혼인상태	미혼(N=324)	95(29.3)	221(68.2)	8(2.5)	12.52*
	기혼(N=582)	228(39.2)	346(59.5)	8(1.4)	
	기타(N=107)	46(43.0)	58(54.2)	3(2.8)	
거주권역	동부권(N=246)	99(40.2)	142(57.7)	5(2.0)	6.67
	서부권(N=280)	94(33.6)	184(65.7)	2(0.7)	
	남부권(N=294)	102(34.7)	185(62.9)	7(2.4)	
	북부권(N=193)	74(38.3)	114(59.1)	5(2.6)	

주 : 기대빈도 5미만 셀 비율이 20%를 초과하여 '주로 남성'과 '대체로 남성', '대체로 여성'과 '주로 여성'을 각각 통합함
*p<.05 **p<.01 ***p<.001

- **(성별)** 여성은 '함께'(69.4%)의 비율이 남성(55.4%)보다 높았던 반면, 남성은 경제적 부양을 남성의 역할로 인식하는 비율(42.6%)이 여성(28.9%)보다 높았음
- **(혼인상태)** 미혼은 '함께'(68.2%)의 비율이 기혼(59.5%)과 기타(54.2%)보다 높았으며, 기타는 경제적 부양을 남성의 역할로 인식하는 비율(43.0%)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나) 가족 의사결정

○ 가족 의사결정에 대한 성역할 인식은 '함께'가 856명(84.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대체로 남성' 91명(9.0%), '대체로 여성' 38명(3.8%), '주로 남성' 24명(2.4%), '주로 여성' 4명(0.4%)의 순으로 나타나, 세 영역 중 평등한 인식이 가장 높음

<표 Ⅲ-24> 가족 의사결정에 대한 성역할

(단위 : N=1,013, 명(%))

구 분	주로 남성	대체로 남성	함께	대체로 여성	주로 여성
N(%)	24(2.4)	91(9.0)	856(84.5)	38(3.8)	4(0.4)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가족내 의사결정에서 성역할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성별과 거주권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성별)** 여성은 '함께'(89.3%)의 비율이 남성(80.6%)보다 높았던 반면, 남성은 의사결정을 남성의 역할로 인식하는 비율(16.2%)이 여성(5.5%)보다 높았음
- **(거주권역)** 서부권은 '함께'(88.6%)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북부권(15.0%)과 남부권(14.6%)은 가족 의사결정을 남성의 역할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Ⅲ-2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 의사결정에 대한 성역할

(단위 : N=1,013, 명(%))

구 분		가족 의사결정			χ^2
		주로·대체로 남성	함께	주로·대체로 여성	
성별	남성(N=556)	90(16.2)	448(80.6)	18(3.2)	30.08***
	여성(N=457)	25(5.5)	408(89.3)	24(5.3)	
연령	20대(N=134)	14(10.4)	114(85.1)	6(4.5)	4.67
	30대(N=138)	14(10.1)	117(84.8)	7(5.1)	
	40대(N=192)	17(8.9)	166(86.5)	9(4.7)	
	50대(N=230)	25(10.9)	197(85.7)	8(3.5)	
	60대 이상(N=319)	45(14.1)	262(82.1)	12(3.8)	
혼인 상태	미혼(N=324)	29(9.0)	284(87.7)	11(3.4)	7.22
	기혼(N=582)	67(11.5)	488(83.8)	27(4.6)	
	기타(N=107)	19(17.8)	84(78.5)	4(3.7)	
거주 권역	동부권(N=246)	24(9.8)	211(85.8)	11(4.5)	18.02**
	서부권(N=280)	19(6.8)	248(88.6)	13(4.6)	
	남부권(N=294)	43(14.6)	235(79.9)	16(5.4)	
	북부권(N=193)	29(15.0)	162(83.9)	2(1.0)	

주 : 기대빈도 5미만 셀 비율이 20%를 초과하여 '주로 남성'과 '대체로 남성', '대체로 여성'과 '주로 여성'을 각각 통합함
*p<.05 **p<.01 ***p<.001

(다) 가사노동과 가족돌봄

○ 가사노동과 가족돌봄에 대한 성역할 인식은 '함께'가 797명(78.7%)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체로 여성' 173명(17.1%), '주로 여성' 23명(2.3%), '대체로 남성' 17명(1.7%), '주로 남성' 3명(0.3%)의 순으로 나타남. 가사노동과 가족돌봄을 여성의 역할로 인식하는 응답(주로+대체로 여성)은 19.4%로, 남성의 역할로 인식하는 응답(2.0%)보다 높아 가사·돌봄은 여성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일부 남아 있음

<표 Ⅲ-26> 가사노동과 가족돌봄

(단위 : N=1,013, 명(%))

구 분	주로 남성	대체로 남성	함께	대체로 여성	주로 여성
N(%)	3(0.3)	17(1.7)	797(78.7)	173(17.1)	23(2.3)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가족내 가사노동과 가족돌봄에 대한 성역할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모든 집단에서 '함께'의 비율이 70.1~84.3%로 가장 높았으며, 가사노동과 가족돌봄을 여성의 역할로 인식하는 비율은 14.3~27.1% 수준이었음

<표 Ⅲ-27>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과 가족돌봄에 대한 성역할

(단위 : N=1,013, 명(%))

구 분		가사노동과 가족돌봄			χ^2
		주로·대체로 남성	함께	주로·대체로 여성	
성별	남성(N=556)	15(2.7)	443(79.7)	98(17.6)	5.31
	여성(N=457)	5(1.1)	354(77.5)	98(21.4)	
연령	20대(N=134)	3(2.2)	106(79.1)	25(18.7)	12.71
	30대(N=138)	3(2.2)	101(73.2)	34(24.6)	
	40대(N=192)	3(1.6)	159(82.8)	30(15.6)	
	50대(N=230)	3(1.3)	194(84.3)	33(14.3)	
	60대 이상(N=319)	8(2.5)	237(74.3)	74(23.2)	
혼인 상태	미혼(N=324)	8(2.5)	260(80.2)	56(17.3)	6.52
	기혼(N=582)	9(1.5)	462(79.4)	111(19.1)	
	기타(N=107)	3(2.8)	75(70.1)	29(27.1)	
거주 권역	동부권(N=246)	2(0.8)	192(78.0)	52(21.1)	9.28
	서부권(N=280)	4(1.4)	234(83.6)	42(15.0)	
	남부권(N=294)	9(3.1)	224(76.2)	61(20.7)	
	북부권(N=193)	5(2.6)	147(76.2)	41(21.2)	

*p<.05 **p<.01 ***p<.001

주 : 기대빈도 5미만 셀 비율이 20%를 초과하여 '주로 남성'과 '대체로 남성', '대체로 여성'과 '주로 여성'을 각각 통합하여 분석함. 연령은 통합 후에도 기대빈도 5 미만 셀이 26.7%로 나타나 Fisher의 정확검정 결과를 함께 확인하였으며, 결과는 동일하였음(p=.118)

- **(연령)** 50대(84.3%)와 40대(82.8%)는 '함께'의 비율이 높았던 반면, 30대(24.6%)와 60대 이상(23.2%)은 가사노동과 가족돌봄을 여성의 역할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또한 20대는 '주로 여성'(6.0%)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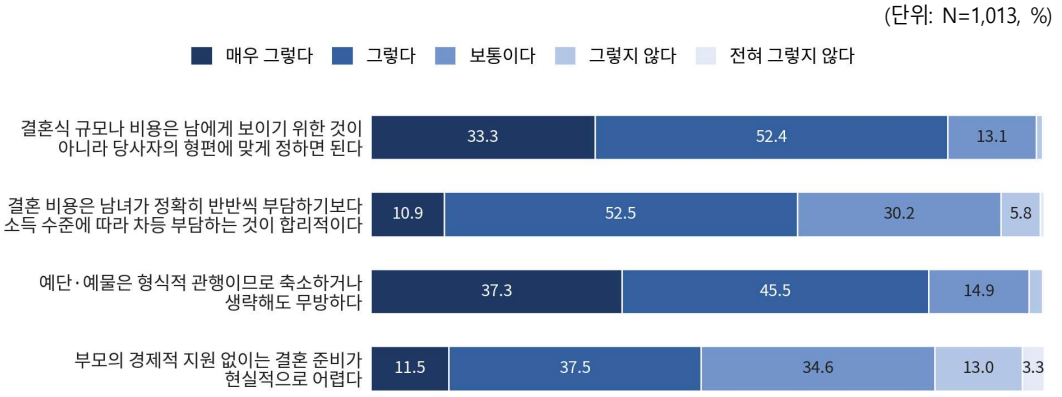
(7) 결혼식 및 비용

○ 결혼식 및 비용에 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예단·예물은 형식적 관행이므로 축소하거나 생략해도 무방하다'(4.18점)와 '결혼식 규모나 비용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형편에 맞게 정하면 된다'(4.17점)가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 비용은 남녀가 정확히 반반씩 부담하기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3.67점),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없이는 결혼 준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3.41점)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28> 결혼식 및 비용

(단위 : N=1,013, 명(%))

구 분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결혼식 규모나 비용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형편에 맞게 정하면 된다	4.17	3(0.3)	9(0.9)	133(13.1)	531(52.4)	337(33.3)
2) 결혼 비용은 남녀가 정확히 반반씩 부담하기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67	6(0.6)	59(5.8)	306(30.2)	532(52.5)	110(10.9)
3) 예단·예물은 형식적 관행이므로 축소하거나 생략해도 무방하다	4.18	3(0.3)	20(2.0)	151(14.9)	461(45.5)	378(37.3)
4)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없이는 결혼 준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3.41	33(3.3)	132(13.0)	351(34.6)	380(37.5)	117(11.5)



[그림 Ⅲ-12] 결혼식 및 비용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결혼식 및 비용에 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 및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Ⅲ-29〉와 같음

- **(결혼식 규모나 비용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형편에 맞게 정하면 된다)** 성별과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4.22점)이 남성(4.13점)보다 높았으며, 60대 이상(4.25점)이 40대(4.06점)보다 높았음
- **(결혼 비용은 남녀가 정확히 반반씩 부담하기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조사대상자 특성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음
- (예단·예물은 형식적 관행이므로 축소하거나 생략해도 무방하다) 성별, 연령, 혼인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4.28점)이 남성(4.09점)보다 높았고, 60대 이상(4.27점)이 20대(4.04점)보다 높았으며, 기혼(4.24점)과 기타(4.22점)가 미혼(4.05점)보다 높았음
-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없이는 결혼 준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3.47점)이 여성(3.33점)보다 높았음

<표 Ⅲ-29>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식 및 비용

(단위 : N=1,013, 점)

구 분		결혼식 규모나 비용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형편에 맞게 정하면 된다		결혼 비용은 남녀가 정확히 반반씩 부담하기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단·예물은 형식적 관행이므로 축소하거나 생략해도 무방하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없이는 결혼 준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M	SD	M	SD	M	SD	M	SD
성별	남성(N=556)	4.13	0.74	3.67	0.77	4.09	0.82	3.47	0.92
	여성(N=457)	4.22	0.65	3.67	0.76	4.28	0.70	3.33	1.01
	t 값	-1.98*		-.06		-3.92***		2.27*	
연령	20대(N=134)	4.18ab	0.77	3.82	0.77	4.04a	0.93	3.35	1.06
	30대(N=138)	4.10ab	0.83	3.66	0.87	4.18bc	0.80	3.45	1.01
	40대(N=192)	4.06a	0.71	3.59	0.77	4.06ab	0.80	3.30	0.99
	50대(N=230)	4.21ab	0.67	3.64	0.77	4.22bc	0.73	3.41	0.98
	60대 이상(N=319)	4.25b	0.62	3.69	0.71	4.27c	0.68	3.49	0.88
	F 값	2.59*		1.99		3.42**		1.34	
혼인 상태	미혼(N=324)	4.13	0.77	3.70	0.79	4.05a	0.87	3.40	0.94
	기혼(N=582)	4.19	0.67	3.66	0.76	4.24b	0.72	3.43	0.99
	기타(N=107)	4.24	0.67	3.64	0.74	4.22b	0.69	3.35	0.90
	F 값	1.26		.38		6.12**		.34	
거주 권역	동부권(N=246)	4.12	0.75	3.65	0.81	4.21	0.78	3.44	1.00
	서부권(N=280)	4.23	0.71	3.74	0.77	4.20	0.77	3.38	1.01
	남부권(N=294)	4.15	0.69	3.65	0.74	4.16	0.78	3.44	0.89
	북부권(N=193)	4.21	0.65	3.64	0.75	4.12	0.75	3.37	0.98
	F 값	1.19		1.00		.60		.38	

*p<.05 **p<.01 ***p<.001

(8) 부모 부양 및 부모의 책임

○ 부모 부양 및 부모의 책임에 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딸도 아들도 똑같이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3.74점)가 가장 높았으며, '자식은 나이 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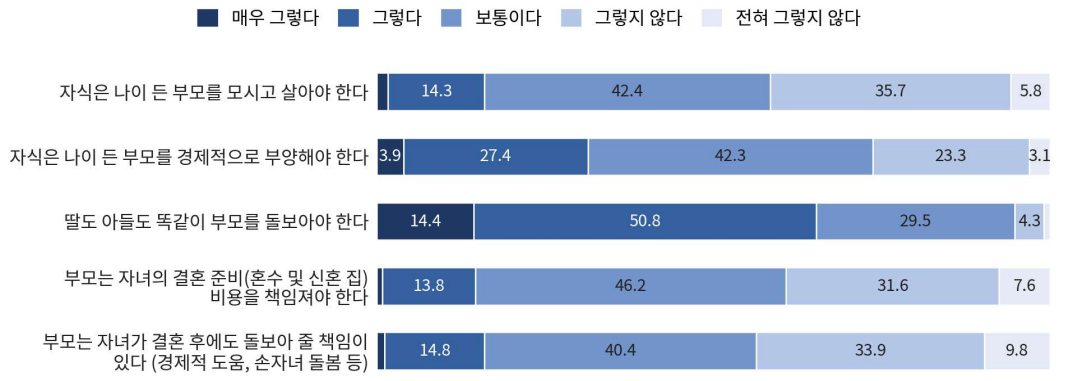
부양해야 한다'(3.06점), '자식은 나이 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2.70점), '부모는 자녀의 결혼 준비(혼수 및 신혼 집)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2.69점), '부모는 자녀가 결혼 후에도 돌보아 줄 책임이 있다'(2.64점)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30> 부모 부양 및 부모의 책임

(단위 : N=1,013, 명(%))

구 분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식은 나이 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2.70	59(5.8)	362(35.7)	430(42.4)	145(14.3)	17(1.7)
2) 자식은 나이 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3.06	31(3.1)	236(23.3)	428(42.3)	278(27.4)	40(3.9)
3) 딸도 아들도 똑같이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	3.74	9(0.9)	44(4.3)	299(29.5)	515(50.8)	146(14.4)
4) 부모는 자녀의 결혼 준비(혼수 및 신혼 집)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2.69	77(7.6)	320(31.6)	468(46.2)	140(13.8)	8(0.8)
5) 부모는 자녀가 결혼 후에도 돌보아 줄 책임이 있다	2.64	99(9.8)	343(33.9)	409(40.4)	150(14.8)	12(1.2)

(단위: N=1,013, %)



[그림 Ⅲ-13] 부모 부양 및 부모의 책임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부모 부양 및 부모의 책임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 및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Ⅲ-31〉과 같음

- **(자식은 나이 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성별, 연령, 혼인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2.91점)이 여성(2.45점)보다 높았고, 20대(2.92점)가 60대 이상(2.47점)보다, 미혼(2.99점)이 기혼(2.58점)과 기타(2.50점)보다 높았음
- **(자식은 나이 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성별, 연령, 혼인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3.20점)이 여성(2.89점)보다 높았고, 20대(3.43점)가 60대 이상(2.83점)보다, 미혼(3.31점)이 기혼(2.95점)과 기타(2.92점)보다 높았음
- **(딸도 아들도 똑같이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 성별, 연령, 혼인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3.83점)이 남성(3.66점)보다 높았고, 20대(4.03점)가 다른 연령대(3.64~3.73점)보다, 미혼(3.85점)이 기혼(3.67점)보다 높았음
- **(부모는 자녀의 결혼 준비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성별과 혼인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2.79점)이 여성(2.56점)보다 높았으며, 기혼(2.75점)이 미혼(2.57점)보다 높았음
- **(부모는 자녀가 결혼 후에도 돌보아 줄 책임이 있다)** 성별과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2.71점)이 여성(2.56점)보다 높았으며, 20대(2.84점)가 40대(2.62점)와 50대(2.50점)보다 높았음

<표 Ⅲ-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 부양 및 부모 책임

(단위 : N=1,013, 점)

구 분		자식은 나이 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자식은 나이 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딸도 아들도 똑같이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결혼 준비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결혼 후에도 돌보아 줄 책임이 있다	
		M	SD	M	SD	M	SD	M	SD	M	SD
성별	남성(N=556)	2.91	0.86	3.20	0.89	3.66	0.78	2.79	0.83	2.71	0.89
	여성(N=457)	2.45	0.76	2.89	0.85	3.83	0.79	2.56	0.82	2.56	0.88
	t 값	9.03***		5.65***		-3.44***		4.49***		2.66**	
연령	20대(N=134)	2.92c	0.91	3.43c	0.89	4.03b	0.84	2.60	0.88	2.84b	1.00
	30대(N=138)	2.82bc	0.81	3.09b	0.93	3.70a	0.91	2.64	0.93	2.67ab	0.98
	40대(N=192)	2.82bc	0.77	3.12b	0.79	3.73a	0.78	2.65	0.82	2.62a	0.87
	50대(N=230)	2.73b	0.86	3.09b	0.86	3.72a	0.71	2.66	0.79	2.50a	0.85
	60대 이상(N=319)	2.47a	0.81	2.83a	0.88	3.64a	0.74	2.78	0.79	2.64a	0.83
	F 값	10.27***		11.69***		6.04***		1.60		3.17*	
혼인 상태	미혼(N=324)	2.99b	0.86	3.31b	0.86	3.85b	0.85	2.57a	0.84	2.62	0.97
	기혼(N=582)	2.58a	0.81	2.95a	0.88	3.67a	0.76	2.75ab	0.83	2.66	0.86
	기타(N=107)	2.50a	0.78	2.92a	0.81	3.76ab	0.71	2.67b	0.76	2.57	0.83
	F 값	29.75***		20.13***		5.23**		5.29**		0.50	
거주 권역	동부권(N=246)	2.72	0.85	3.08	0.92	3.75	0.74	2.73	0.87	2.76	0.89
	서부권(N=280)	2.72	0.90	3.13	0.89	3.76	0.80	2.61	0.86	2.55	0.95
	남부권(N=294)	2.68	0.81	3.05	0.86	3.71	0.78	2.73	0.79	2.64	0.86
	북부권(N=193)	2.69	0.81	2.95	0.88	3.72	0.86	2.67	0.79	2.62	0.85
	F 값	0.20		1.63		0.18		1.28		2.57	

*p<.05 **p<.01 ***p<.001

(9) 자녀에 대한 경제적 책임

○ 자녀에 대한 경제적 책임 종결 시기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가 469명(46.3%)으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할 때까지' 256명(25.3%),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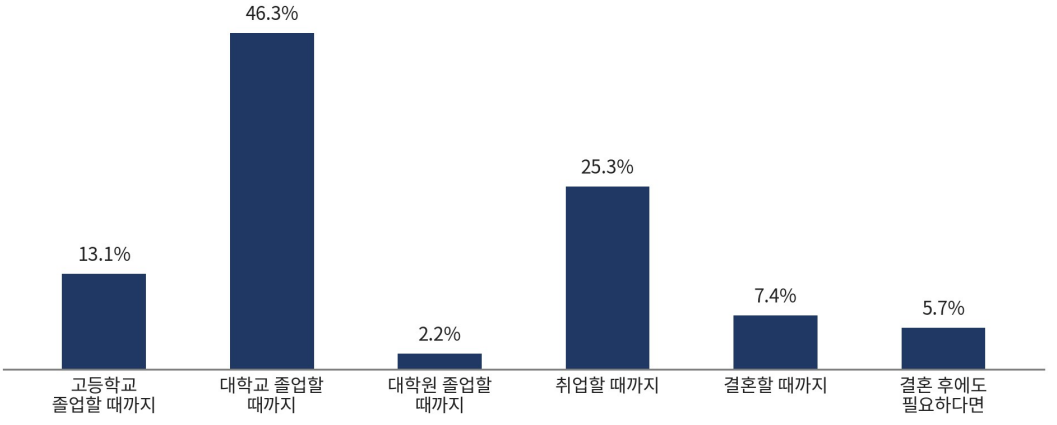
명(13.1%), '결혼할 때까지' 75명(7.4%), '결혼 후에도 필요하다면' 58명(5.7%),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22명(2.2%)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32> 자녀에 대한 경제적 책임

(단위 : N=1,013, 명(%))

구 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취업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결혼 후에도 필요하다면
N(%)	133(13.1)	469(46.3)	22(2.2)	256(25.3)	75(7.4)	58(5.7)

(단위: N=1,013, %)



[그림 Ⅲ-14] 자녀에 대한 경제적 책임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자녀에 대한 경제적 책임 종결 시기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령)** 60대 이상은 '결혼할 때까지'(14.4%)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1.5~7.4%)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40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20.3%), 50대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50.4%)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혼인상태)** 기타는 '결혼할 때까지'(18.7%)의 비율이 기혼(7.2%)과 미혼(4.0%)보다 높았으며, 미혼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17.9%)와 '결혼 후에도 필요하다면'(8.0%), 기혼은 '취업할 때까지'(27.1%)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거주권역)** 남부권은 '결혼할 때까지'(11.2%)의 비율이 다른 권역(4.6~8.3%)보다 높았으며, 북부권은 '취업할 때까지'(29.5%)의 비율이 높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7.3%)의 비율이 낮았음

<표 Ⅲ-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책임

(단위 : N=1,013, 명(%))

구 분		고등학교 졸업할때까지	대학교 졸업할때까지	대학원 졸업할때까지	취업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결혼 후에도 필요하다면	χ2
성별	남성(N=556)	75(13.5)	253(45.5)	15(2.7)	142(25.5)	38(6.8)	33(5.9)	2.53
	여성(N=457)	58(12.7)	216(47.3)	7(1.5)	114(24.9)	37(8.1)	25(5.5)	
연령	20대(N=134)	19(14.2)	62(46.3)	2(1.5)	36(26.9)	2(1.5)	13(9.7)	70.04***
	30대(N=138)	21(15.2)	65(47.1)	4(2.9)	34(24.6)	6(4.3)	8(5.8)	
	40대(N=192)	39(20.3)	96(50.0)	4(2.1)	36(18.8)	4(2.1)	13(6.8)	
	50대(N=230)	29(12.6)	116(50.4)	4(1.7)	59(25.7)	17(7.4)	5(2.2)	
	60대 이상(N=319)	25(7.8)	130(40.8)	8(2.5)	91(28.5)	46(14.4)	19(6.0)	
혼인상태	미혼(N=324)	58(17.9)	149(46.0)	7(2.2)	71(21.9)	13(4.0)	26(8.0)	42.54***
	기혼(N=582)	61(10.5)	277(47.6)	14(2.4)	158(27.1)	42(7.2)	30(5.2)	
	기타(N=107)	14(13.1)	43(40.2)	1(0.9)	27(25.2)	20(18.7)	2(1.9)	
거주권역	동부권(N=246)	39(15.9)	108(43.9)	5(2.0)	67(27.2)	13(5.3)	14(5.7)	27.96*
	서부권(N=280)	42(15.0)	133(47.5)	3(1.1)	72(25.7)	13(4.6)	17(6.1)	
	남부권(N=294)	38(12.9)	136(46.3)	11(3.7)	60(20.4)	33(11.2)	16(5.4)	
	북부권(N=193)	14(7.3)	92(47.7)	3(1.6)	57(29.5)	16(8.3)	11(5.7)	

*p<.05 **p<.01 ***p<.001

4) 가족 형성

(1) 결혼적령기

(가) 결혼적령기 유무 인식

○ 결혼적령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614명(60.6%)으로, '없다' 399명(39.4%)보다 높게 나타남

<표 Ⅲ-34> 결혼적령기 유무 인식

(단위 : N=1,013, 명(%))

구 분	없다	있다
N(%)	399(39.4)	614(60.6)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결혼적령기 유무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성별, 연령, 혼인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성별)** 남성은 결혼적령기가 '있다'는 응답(65.3%)이 여성(54.9%)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음
- **(연령)** 60대 이상(66.1%)과 30대(64.5%)는 '있다'는 응답이 많았던 반면, 40대(54.7%)와 50대(55.7%)는 상대적으로 적었음
- **(혼인상태)** 기혼(63.7%)과 기타(61.7%)는 '있다'는 응답이 미혼(54.6%)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음

<표 Ⅲ-3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적령기 유무 인식

(단위 : N=1,013, 명(%))

구 분		없다	있다	χ^2
성별	남성(N=556)	193(34.7)	363(65.3)	11.29***
	여성(N=457)	206(45.1)	251(54.9)	
연령	20대(N=134)	53(39.6)	81(60.4)	10.15*
	30대(N=138)	49(35.5)	89(64.5)	
	40대(N=192)	87(45.3)	105(54.7)	
	50대(N=230)	102(44.3)	128(55.7)	
	60대 이상(N=319)	108(33.9)	211(66.1)	
혼인 상태	미혼(N=324)	147(45.4)	177(54.6)	7.30*
	기혼(N=582)	211(36.3)	371(63.7)	
	기타(N=107)	41(38.3)	66(61.7)	
거주 권역	동부권(N=246)	104(42.3)	142(57.7)	5.68
	서부권(N=280)	111(39.6)	169(60.4)	
	남부권(N=294)	122(41.5)	172(58.5)	
	북부권(N=193)	62(32.1)	131(67.9)	

*p<.05 **p<.01 ***p<.001

(나) 결혼적령기

○ 결혼적령기가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614명)가 생각하는 결혼적령기는 여성 평균 30.3세, 남성 평균 33.0세로 나타남

<표 Ⅲ-36> 결혼적령기

(단위 : N=614, 세)

구 분	여성 결혼적령기	남성 결혼적령기
평균	30.3	33.0

(2) 혼인 상태

❍ 혼인 상태는 '배우자 있음'이 582명(57.5%)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혼' 324명(32.0%), '별거·이혼' 64명(6.3%), '사별' 43명(4.2%)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37> 혼인 상태

(단위 : N=1,013, 명(%))

구 분	미혼	배우자 있음	별거·이혼	사별
N(%)	324(32.0)	582(57.5)	64(6.3)	4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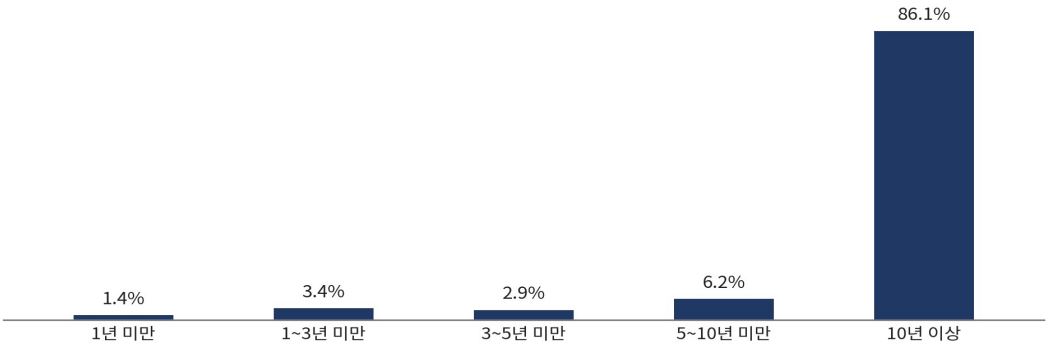
❍ 현재의 배우자와 살기 시작한 기간은 '10년 이상'이 501명(86.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5~10년 미만' 36명(6.2%), '1~3년 미만' 20명(3.4%), '3~5년 미만' 17명(2.9%), '1년 미만' 8명(1.4%)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38> 현재 배우자와의 동거 기간

(단위 : N=582, 명(%))

구 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N(%)	8(1.4)	20(3.4)	17(2.9)	36(6.2)	501(86.1)

(단위: N=582, %)



[그림 Ⅲ-15] 현재 배우자와의 동거 기간

❍ 이혼 또는 별거를 하게 된 이유(순위별 가중치)는 '성격 차이'가 35.4%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 문제' 26.0%,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18.8%, '중독' 5.7%, '부부간의 성문제' 4.2%, '폭력'과 '유기' 각 3.1%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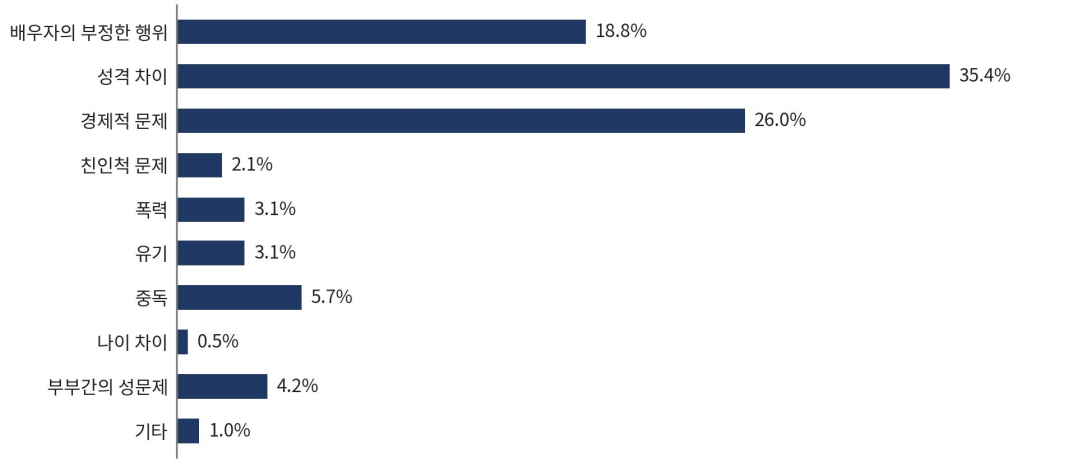
<표 Ⅲ-39> 이혼 및 별거 이유

(단위 : N=64, %)

구 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친인척 문제	폭력	유기	중독	나이 차이	부부간의 성문제	기타
N(%)	18.8	35.4	26.0	2.1	3.1	3.1	5.7	0.5	4.2	1.0

주 : 순위별 가중치

(순위별 가중치 적용, 단위: N=64, %)



[그림 Ⅲ-16] 이혼 및 별거 이유

(3) 자녀 출산

(가) 자녀 유무

❍ 자녀가 '있음'은 642명(63.4%), '없음'은 371명(36.6%)으로 나타남

<표 Ⅲ-40> 자녀 유무

(단위 : N=1,013, 명(%))

구 분	있음	없음
N(%)	642(63.4)	371(36.6)

(나) 자녀 출산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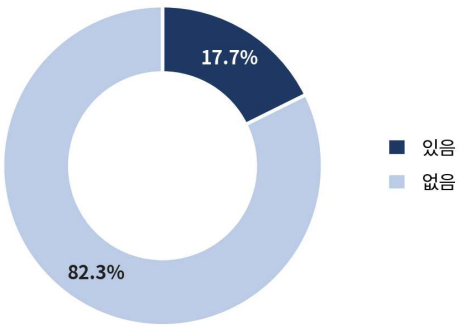
○ 향후 자녀 출산 의향이 '있음'은 179명(17.7%), '없음'은 834명(82.3%)으로 나타났으며, 출산 의향이 있는 조사대상자는 평균 1.74명의 자녀를 낳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

<표 Ⅲ-41> 자녀 출산 의향

(단위 : N=1,013, 명(%))

구 분	있음	없음
N(%)	179(17.7)	834(82.3)

(단위: N=1,013, %)



[그림 Ⅲ-17] 자녀 출산 의향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향후 자녀출산 의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성별, 연령, 혼인상태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성별)** 남성은 출산 의향이 '있다'는 응답(21.0%)이 여성(13.6%)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음
- **(연령)** 출산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0대(59.7%)와 30대(44.9%)에서 많았으며, 40대 15.1%, 50대 3.0%, 60대 이상 0.3%로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졌음. 이는 50대 이상의 경우 생애주기상 출산 가능 시기를 지난 데 따른 것으로, 출산 의향의 집단 간 차이는 20~30대를 중심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혼인상태)** 미혼은 출산 의향이 '있다'는 응답(43.2%)이 기혼(6.2%)과 기타(2.8%)보다 많았음

<표 Ⅲ-4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녀 출산 의향

(단위 : N=1,013, 명(%))

구 분		있다	없다	χ^2
성별	남성(N=556)	117(21.0)	439(79.0)	9.64**
	여성(N=457)	62(13.6)	395(86.4)	
연령	20대(N=134)	80(59.7)	54(40.3)	333.95***
	30대(N=138)	62(44.9)	76(55.1)	
	40대(N=192)	29(15.1)	163(84.9)	
	50대(N=230)	7(3.0)	223(97.0)	
	60대 이상(N=319)	1(0.3)	318(99.7)	
혼인 상태	미혼(N=324)	140(43.2)	184(56.8)	214.29***
	기혼(N=582)	36(6.2)	546(93.8)	
	기타(N=107)	3(2.8)	104(97.2)	
거주 권역	동부권(N=246)	45(18.3)	201(81.7)	1.38
	서부권(N=280)	49(17.5)	231(82.5)	
	남부권(N=294)	56(19.0)	238(81.0)	
	북부권(N=193)	29(15.0)	164(85.0)	

*p<.05 **p<.01 ***p<.001

❍ 자녀 출산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834명)를 대상으로 자녀를 낳을 계획

이 없는 이유(순위별 가중치)를 알아본 결과, '나이가 많아서'가 33.3%로 가장 높았으며, '이미 낳은 자녀로 충분' 30.0%, '경제적 부담' 13.7%, '육아에 대한 부담감' 5.4%, '자녀보다 자신의 삶이 중요' 5.0%, '건강상의 이유' 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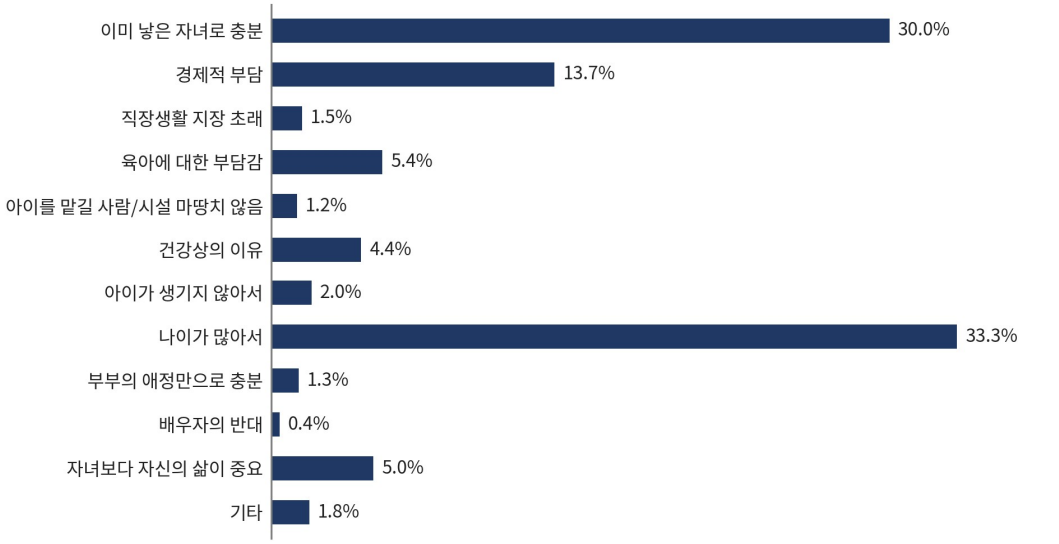
<표 Ⅲ-43> 자녀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

(단위 : N=834, %)

구 분	이미 낳은 자녀로 충분	경제적 부담	직장생활 지장 초래	육아에 대한 부담감	아이를 맡길 사람/시설 마땅치 않음	건강상의 이유
N(%)	30.0	13.7	1.5	5.4	1.2	4.4
구 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나이가 많아서	부부의 애정만으로 충분	배우자의 반대	자녀보다 자신의 삶이 중요	기타
N(%)	2.0	33.3	1.3	0.4	5.0	1.8

주 : 순위별 가중치

(순위별 가중치 적용, 단위: N=834, %)



[그림 Ⅲ-18] 자녀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

(다) 사회적 지원 확대시 자녀 출산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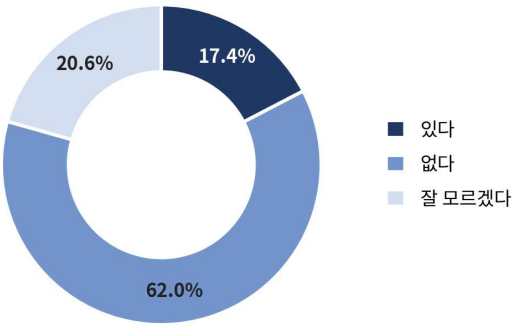
❍ 향후 자녀를 갖고 양육하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된다면 자녀를 더 낳을 의향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없다'가 628명(62.0%)으로 가장 많았으며, '잘 모르겠다' 209명(20.6%), '있다' 176명(17.4%)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44> 사회적 지원 확대시 자녀 출산 의향

(단위 : N=1,013, 명(%))

구 분	있다	없다	잘모르겠다
N(%)	176(17.4)	628(62.0)	209(20.6)

(단위: N=1,013, %)



[그림 Ⅲ-19] 사회적 지원 확대시 자녀 출산 의향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사회적 여건이 마련될 경우 향후 자녀출산 의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성별, 연령, 혼인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성별)** 남성은 '있다'는 응답(21.4%)이 여성(12.5%)보다 많았던 반면, 여성은 '없다'는 응답(66.7%)이 남성(58.1%)보다 많았음

- **(연령)** 30대(36.2%)와 20대(33.6%)는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20대는 '잘 모르겠다'(39.6%)는 응답도 많았음. 반면 50대(74.8%)와 60대 이상(86.8%)은 '없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혼인상태)** 미혼은 '있다'(28.1%)와 '잘 모르겠다'(39.5%)는 응답이 기혼(13.7%, 10.7%)보다 많았으며, 기혼(75.6%)과 기타(77.6%)는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표 Ⅲ-4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원 확대시 자녀 출산 의향

(단위 : N=1,013, 명(%))

구 분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χ^2
성별	남성(N=556)	119(21.4)	323(58.1)	114(20.5)	14.55***
	여성(N=457)	57(12.5)	305(66.7)	95(20.8)	
연령	20대(N=134)	45(33.6)	36(26.9)	53(39.6)	241.96***
	30대(N=138)	50(36.2)	40(29.0)	48(34.8)	
	40대(N=192)	41(21.4)	103(53.6)	48(25.0)	
	50대(N=230)	25(10.9)	172(74.8)	33(14.3)	
	60대 이상(N=319)	15(4.7)	277(86.8)	27(8.5)	
혼인상태	미혼(N=324)	91(28.1)	105(32.4)	128(39.5)	187.53***
	기혼(N=582)	80(13.7)	440(75.6)	62(10.7)	
	기타(N=107)	5(4.7)	83(77.6)	19(17.8)	
거주권역	동부권(N=246)	49(19.9)	149(60.6)	48(19.5)	3.74
	서부권(N=280)	45(16.1)	171(61.1)	64(22.9)	
	남부권(N=294)	52(17.7)	180(61.2)	62(21.1)	
	북부권(N=193)	30(15.5)	128(66.3)	35(18.1)	

*p<.05 **p<.01 ***p<.001

○ 사회적 여건이 마련될 경우 자녀를 더 출산할 생각이 '있다' 또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385명)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여건에 따른 향후 자녀 출산 의향을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결과,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하여도 급여가 충분하다면'(3.32점)이 가장 높았으며,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면'(3.25점), '정부의 육

아수당(현금이나 바우처 지원)이 늘어난다면'(3.24점), '근무 시간이 줄어들고,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육아시간이 주어진다면'(3.21점),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3.2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배우자가 육아에 함께 참여한다면'(3.01점)과 '믿고 맡길만한 기관이나 사람이 있다면'(3.06점)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다만, 응답자 중 50대 이상이 약 4분의 1을 차지하므로전체 평균이 실제 출산 연령층의 요구보다 낮게 나왔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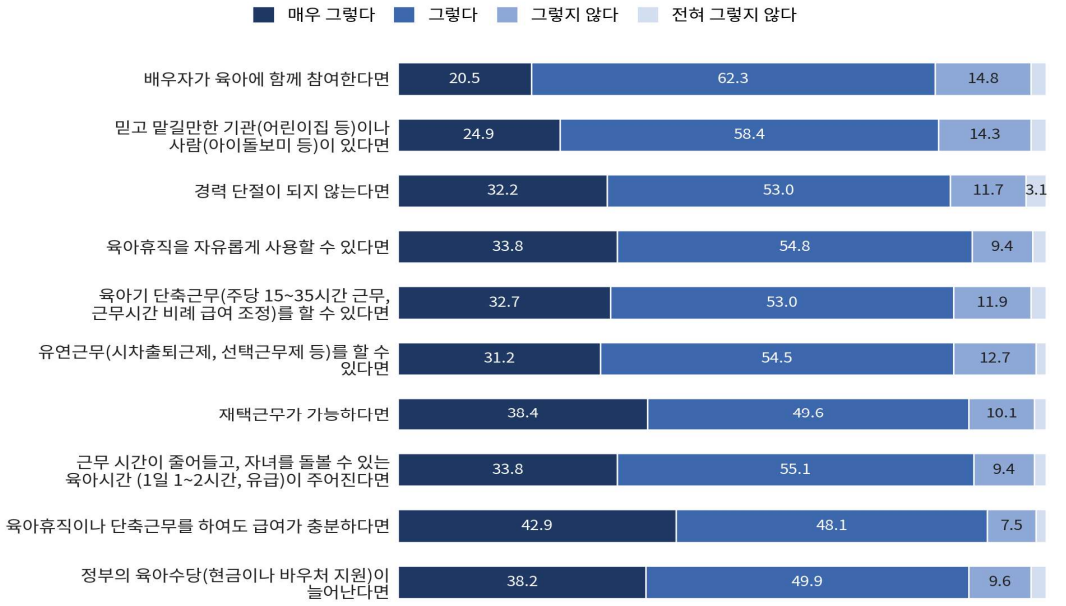
<표 Ⅲ-46> 자녀 출산 의향 확대 사회적 여건

(단위 : N=385, 점, 명(%))

구 분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배우자가 육아에 함께 참여한다면	3.01	9(2.3)	57(14.8)	240(62.3)	79(20.5)
2) 믿고 맡길만한 기관(어린이집 등)이나 사람(아이돌보미 등)이 있다면	3.06	9(2.3)	55(14.3)	225(58.4)	96(24.9)
3) 경력 단절이 되지 않는다면	3.14	12(3.1)	45(11.7)	204(53.0)	124(32.2)
4)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3.20	8(2.1)	36(9.4)	211(54.8)	`130(33.8)
5) 육아기 단축근무(주당 15~35시간 근무, 근무시간 비례 급여 조정)를 할 수 있다면	3.16	9(2.3)	46(11.9)	204(53.0)	126(32.7)
6) 유연근무(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등)를 할 수 있다면	3.15	6(1.6)	49(12.7)	210(54.5)	120(31.2)
7)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면	3.25	7(1.8)	39(10.1)	191(49.6)	148(38.4)
8) 근무 시간이 줄어들고,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육아시간 (1일 1~2시간, 유급)이 주어진다면	3.21	7(1.8)	36(9.4)	212(55.1)	130(33.8)
9)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하여도 급여가 충분하다면	3.32	6(1.6)	29(7.5)	185(48.1)	165(42.9)
10) 정부의 육아수당(현금이나 바우처 지원)이 늘어난다면	3.24	9(2.3)	37(9.6)	192(49.9)	147(38.2)

주 : 평균: 1점~4점 환산

(단위: N=385, %)



[그림 Ⅲ-20] 자녀 출산 의향 확대 사회적 여건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구체적인 여건에 따른 향후 자녀 출산 의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 및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Ⅲ-47〉과 같음. 성별과 거주권역에 따른 차이는 모든 여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연령)** 10개 여건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출산 의향이 높았음. 20대는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하여도 급여가 충분하다면'(3.50점), '경력 단절이 되지 않는다면'(3.43점),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면'(3.43점) 등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60대 이상은 모든 여건에서 2.57~3.10점으로 가장 낮았음
- **(혼인상태)** '배우자가 육아에 함께 참여한다면', '믿고 맡길만한 기관이나 사람이 있다면', '경력 단절이 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육아기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면', '육아시간이 주어진다면', '급여가 충분하다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미혼(3.08~3.36

점)이 기타(2.54~3.00점)보다 높았으며, 특히 '경력 단절이 되지 않는다면'은 미혼(3.24점)과 기혼(3.10점)이 기타(2.54점)보다 높았음

<표 Ⅲ-4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녀 출산 의향 확대 사회적 여건

(단위 : N=385, 점)

구 분		배우자가 육아에 함께 참여한다면		믿고 맡길만한 기관이나 사람이 있다면		경력 단절이 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육아기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면	
		M	SD	M	SD	M	SD	M	SD	M	SD
성별	남성(N=233)	3.01	0.66	3.09	0.67	3.12	0.72	3.21	0.68	3.18	0.68
	여성(N=152)	3.01	0.69	3.01	0.73	3.18	0.77	3.19	0.71	3.13	0.77
	t 값	-0.07		1.21		-0.75		0.27		0.65	
연령	20대(N=98)	3.23c	0.67	3.24c	0.66	3.43c	0.67	3.37b	0.63	3.32c	0.67
	30대(N=98)	3.08bc	0.68	3.16bc	0.70	3.19bc	0.81	3.24b	0.75	3.21bc	0.78
	40대(N=89)	2.96b	0.66	3.00b	0.72	3.02ab	0.66	3.16ab	0.64	3.13abc	0.66
	50대(N=58)	2.91b	0.54	2.97b	0.65	3.02ab	0.66	3.12ab	0.68	3.03ab	0.72
	60대 이상(N=42)	2.57a	0.59	2.64a	0.58	2.79a	0.75	2.93a	0.71	2.90a	0.73
	F 값	8.64***		6.88***		7.77***		3.55**		3.17*	
혼인 상태	미혼(N=219)	3.08b	0.63	3.14b	0.64	3.24b	0.70	3.26b	0.64	3.20b	0.67
	기혼(N=142)	2.95ab	0.72	2.99ab	0.74	3.10b	0.73	3.17b	0.69	3.17b	0.72
	기타(N=24)	2.71a	0.62	2.75a	0.74	2.54a	0.88	2.88a	0.95	2.75a	0.94
	F 값	4.34*		4.79**		10.51***		3.70*		4.35*	
거주 권역	동부권(N=97)	3.01	0.68	3.11	0.73	3.14	0.75	3.25	0.69	3.12	0.77
	서부권(N=109)	3.03	0.67	3.03	0.70	3.15	0.70	3.21	0.65	3.17	0.71
	남부권(N=114)	3.03	0.62	3.11	0.63	3.18	0.73	3.22	0.70	3.24	0.70
	북부권(N=65)	2.95	0.74	2.95	0.74	3.08	0.80	3.09	0.72	3.06	0.70
	F 값	0.20		0.94		0.25		0.72		0.94	

*p<.05 **p<.01 ***p<.001

<표 Ⅲ-47 계속>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녀 출산 의향 확대 사회적 여건

(단위 : N=385, 점)

구 분		유연근무(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등)를 할 수 있다면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면		근무 시간이 줄어들고,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육아시간이 주어진다면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하여도 급여가 충분하다면		정부의 육아수당(이 늘어난다면	
		M	SD	M	SD	M	SD	M	SD	M	SD
성별	남성(N=233)	3.15	0.69	3.25	0.68	3.23	0.64	3.32	0.64	3.28	0.67
	여성(N=152)	3.15	0.70	3.24	0.74	3.17	0.73	3.32	0.74	3.17	0.78
	t 값	0.04		0.22		0.86		-0.01		1.50	
연령	20대(N=98)	3.31c	0.69	3.43b	0.61	3.36b	0.61	3.50c	0.63	3.40b	0.68
	30대(N=98)	3.23bc	0.73	3.27ab	0.78	3.26b	0.72	3.37bc	0.72	3.23ab	0.80
	40대(N=89)	3.09abc	0.67	3.17a	0.64	3.17ab	0.66	3.27abc	0.64	3.21ab	0.67
	50대(N=58)	3.05ab	0.60	3.14a	0.69	3.12ab	0.65	3.19ab	0.63	3.21ab	0.67
	60대 이상(N=42)	2.88a	0.67	3.10a	0.82	2.95a	0.73	3.10a	0.76	2.98a	0.72
	F 값	3.76**		2.79*		3.17*		3.73**		2.71*	
혼인 상태	미혼(N=219)	3.21b	0.66	3.26	0.66	3.23b	0.63	3.36b	0.65	3.26	0.70
	기혼(N=142)	3.11ab	0.73	3.27	0.74	3.23b	0.70	3.32b	0.69	3.25	0.72
	기타(N=24)	2.88a	0.74	3.00	0.83	2.88a	0.90	3.00a	0.83	2.96	0.86
	F 값	2.95		1.57		3.10*		3.07*		1.99	
거주 권역	동부권(N=97)	3.15	0.75	3.22	0.68	3.21	0.66	3.32	0.67	3.29	0.68
	서부권(N=109)	3.15	0.64	3.31	0.69	3.24	0.69	3.33	0.71	3.24	0.76
	남부권(N=114)	3.20	0.67	3.28	0.68	3.18	0.67	3.36	0.64	3.28	0.67
	북부권(N=65)	3.08	0.74	3.12	0.80	3.20	0.71	3.25	0.73	3.09	0.79
	F 값	0.45		1.12		0.12		0.39		1.19	

*p<.05 **p<.01 ***p<.001

5) 가족관계

(1) 가족관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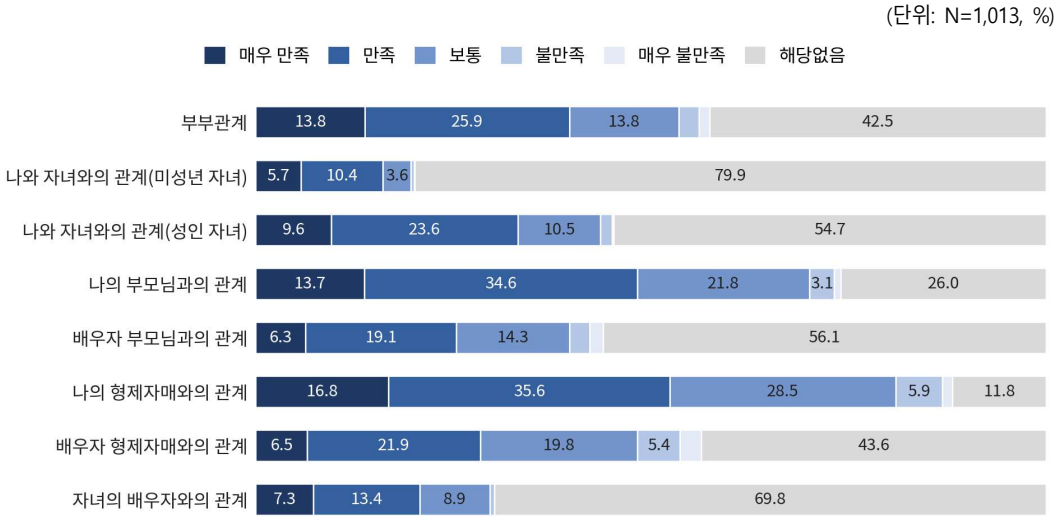
○ 가족관계 만족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결과(해당없음 제외), '나와 자녀와의 관계(미성년 자녀)'(4.05점)가 가장 높았으며, '자녀의 배우자와의 관계'(3.91점), '나와 자녀와의 관계(성인 자녀)'(3.90점), '부부관계'(3.84점),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3.77점), '나의 형제자매와의 관계'(3.69점), '배우자 부모님과의 관계'(3.59점),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3.43점)의 순으로 나타남. 배우자 쪽 인척과의 관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표 Ⅲ-48>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 N=1,013, 점, 명(%))

구 분	평균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부부관계	3.84	14(1.4)	26(2.6)	140(13.8)	262(25.9)	140(13.8)
2) 나와 자녀와의 관계(미성년 자녀)	4.05	1(0.1)	4(0.4)	36(3.6)	105(10.4)	58(5.7)
3) 나와 자녀와의 관계(성인 자녀)	3.90	2(0.2)	15(1.5)	106(10.5)	239(23.6)	97(9.6)
4)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	3.77	9(0.9)	31(3.1)	221(21.8)	350(34.6)	139(13.7)
5) 배우자 부모님과의 관계	3.59	17(1.7)	26(2.6)	145(14.3)	193(19.1)	64(6.3)
6) 나의 형제자매와의 관계	3.69	13(1.3)	60(5.9)	289(28.5)	361(35.6)	170(16.8)
7)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	3.43	27(2.7)	55(5.4)	201(19.8)	222(21.9)	66(6.5)
8) 자녀의 배우자와의 관계	3.91	-	6(0.6)	90(8.9)	136(13.4)	74(7.3)

주 : 평균은 해당없음을 제외하고 산출함



[그림 Ⅲ-21] 가족관계 만족도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가족관계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 및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Ⅲ-49〉와 같음. 혼인상태는 부부관계, 배우자 가족, 자녀 관계 등 가족관계의 해당 여부와 직접 관련되어 문항별로 비교 가능한 집단이 구성되지 않으므로 차이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부부관계)**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3.94점)이 여성(3.71점)보다 높았음
- **(나와 자녀와의 관계(미성년 자녀))**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30대(4.39점)가 가장 높고 50대(3.79점)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대(3.98점)가 40대 이상(3.69~3.72점)보다 높았음
- (배우자 부모님과의 관계)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3.75점)이 여성(3.39점)보다 높았음
- (나의 형제자매와의 관계)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대(3.95점)가 다른 연령대(3.56~3.73점)보다 높았음

-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 성별과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3.60점)이 여성(3.24점)보다 높았으며, 20대(4.00점)가 40대 이상(3.29~3.45점)보다 높았음
- **(자녀의 배우자와의 관계)** 연령과 거주권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60대 이상(4.00점)이 40대(3.42점)보다 높았으며, 북부권(4.13점)이 서부권(3.72점)과 남부권(3.84점)보다 높았음
- **(나와 자녀와의 관계(성인 자녀))** 조사대상자 특성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음

<표 Ⅲ-49>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 분		부부관계			미성년 자녀와의 관계			성인자녀와의 관계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		
		N	M	SD	N	M	SD	N	M	SD	N	M	SD
성별	남성	321	3.94	0.86	115	3.98	0.79	231	3.91	0.76	395	3.81	0.82
	여성	261	3.71	0.98	89	4.15	0.72	228	3.89	0.80	355	3.73	0.86
t 값		2.95**			−1.52			0.20			1.31		
연령	20대	7	4.29	0.95	7	4.14	0.90	1	-	-	120	3.98b	0.95
	30대	57	4.12	0.87	36	4.39	0.60	-	-	-	118	3.85ab	0.83
	40대	113	3.83	0.97	100	4.09	0.75	16	3.81	1.17	170	3.71a	0.79
	50대	159	3.74	0.94	58	3.79	0.77	147	3.86	0.73	186	3.69a	0.82
	60대 이상	246	3.83	0.89	3	3.67	1.15	295	3.92	0.78	156	3.72a	0.80
F 값		2.28			3.91**			0.38			2.84*		
거주권역	동부권	159	3.94	0.96	50	4.16	0.82	116	3.97	0.75	185	3.85	0.79
	서부권	162	3.82	1.01	73	4.01	0.81	109	3.92	0.79	221	3.70	0.92
	남부권	139	3.68	0.87	44	4.00	0.78	136	3.76	0.80	215	3.73	0.83
	북부권	122	3.91	0.78	37	4.05	0.57	98	3.99	0.74	129	3.86	0.77
F 값		2.19			0.46			2.20			1.77		

*p<.05 **p<.01 ***p<.001
주1 : 문항별로 해당 관계가 있는 응답자만 분석하여 N이 다름
주2 : '성인 자녀와의 관계', 20대의 '자녀의 배우자와의 관계'의 20대는 응답자가 1명으로 평균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분석에서 제외함
주3 : -는 해당 응답자가 없거나 표준편차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임

<표 Ⅲ-49 계속>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 분		배우자 부모님과의 관계			나의 형제자매와의 관계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			자녀의 배우자와의 관계		
		N	M	SD	N	M	SD	N	M	SD	N	M	SD
성별	남성	244	3.75	0.81	472	3.70	0.88	305	3.60	0.85	163	3.92	0.78
	여성	201	3.39	1.04	421	3.68	0.93	266	3.24	1.07	143	3.90	0.78
t 값		4.03***			0.29			4.40***			0.28		
연령	20대	7	4.00	1.15	108	3.95b	1.01	7	4.00b	1.15	1	-	-
	30대	52	3.79	1.04	111	3.73a	0.94	50	3.72ab	0.86	-	-	-
	40대	107	3.55	0.82	167	3.71a	0.89	108	3.45a	0.85	12	3.42a	0.67
	50대	138	3.51	0.92	213	3.56a	0.86	153	3.29a	0.98	65	3.69ab	0.81
	60대 이상	141	3.60	0.99	294	3.65a	0.87	253	3.43a	1.03	228	4.00b	0.76
F 값		1.23			3.58**			2.55*			6.52**		
거주 권역	동부권	117	3.69	0.94	214	3.72	0.91	155	3.52	0.99	71	3.96ab	0.80
	서부권	132	3.48	0.94	252	3.68	0.88	159	3.33	1.04	65	3.72a	0.80
	남부권	106	3.58	0.97	260	3.61	0.91	140	3.34	0.87	99	3.84a	0.72
	북부권	90	3.62	0.88	167	3.78	0.93	117	3.55	0.98	71	4.13b	0.77
F 값		1.14			1.44			1.99			3.53*		

주1 : 문항별로 해당 관계가 있는 응답자만 분석하여 N이 다름
주2 : '성인 자녀와의 관계', 20대의 '자녀의 배우자와의 관계'의 20대는 응답자가 1명으로 평균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분석에서 제외함
주3 : -는 해당 응답자가 없거나 표준편차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임

(2) 가사수행

(가) 가사수행 분담

○ 현재 배우자가 있는 조사대상자(582명)를 대상으로 가사수행 분담 정도를 알아본 결과, '가사노동'은 '아내'가 담당한다는 응답이 385명(66.2%)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 양육과 교육'은 '두 사람 똑같이'(49.7%)와 '아내'(46.9%)가 비슷한 수준이었음. 반면, '본인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류'(51.9%), '배우자 부모 또는 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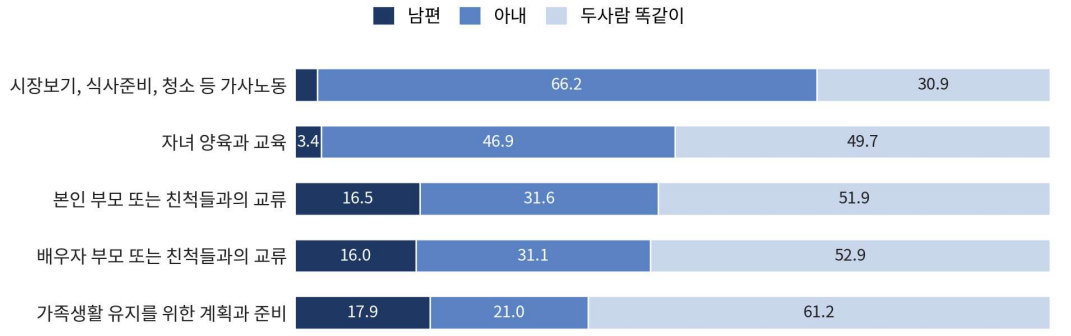
척들과의 교류'(52.9%), '가족생활 유지를 위한 계획과 준비'(61.2%)는 '두 사람 똑같이'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남편'이 담당한다는 응답은 모든 영역에서 2.9~17.9%로 낮았음

<표 Ⅲ-50> 가사수행 분담

(단위 : N=582, 명(%))

구 분	남편	아내	두사람 똑같이
1) 가사노동	17(2.9)	385(66.2)	180(30.9)
2) 자녀 양육과 교육	20(3.4)	273(46.9)	289(49.7)
3) 본인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류	96(16.5)	184(31.6)	302(51.9)
4) 배우자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류	93(16.0)	181(31.1)	308(52.9)
5) 가족생활 유지를 위한 계획과 준비	104(17.9)	122(21.0)	356(61.2)

(단위: N=582, %)



[그림 Ⅲ-22] 가사수행 분담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거주권역에 따라 가사수행 분담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음. '가사노동'의 연령과 거주권역, '자녀 양육과 교육'의 연령은 '남편' 응답과 20대(7명)의 사례수가 적어 기대빈도 5 미만인 셀이 20%를 초과하였으므로, χ^2 검정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음. 교차분석 결과 성별은 모든 영역에서, 연령은 '본인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류'와 '배우자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거주권역에

따른 차이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하지 않았음

<표 Ⅲ-5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사수행 분담

(단위 : N=582, 명(%))

구 분		가사노동			자녀 양육과 교육			본인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류		
		남편	아내	두 사람 똑같이	남편	아내	두 사람 똑같이	남편	아내	두 사람 똑같이
성별	남성(N=321)	13(4.0)	186(57.9)	122(38.0)	16(5.0)	120(37.4)	185(57.6)	89(27.7)	54(16.8)	178(55.5)
	여성(N=261)	4(1.5)	199(76.2)	58(22.2)	4(1.5)	153(58.6)	104(39.8)	7(2.7)	130(49.8)	124(47.5)
	χ^2	22.01***			28.00***			106.03***		
연령	20대(N=7)	0(0.0)	2(28.6)	5(71.4)	0(0.0)	0(0.0)	7(100.0)	1(14.3)	0(0.0)	6(85.7)
	30대(N=57)	2(3.5)	32(56.1)	23(40.4)	2(3.5)	25(43.9)	30(52.6)	8(14.0)	18(31.6)	31(54.4)
	40대(N=113)	5(4.4)	71(62.8)	37(32.7)	4(3.5)	64(56.6)	45(39.8)	10(8.8)	43(38.1)	60(53.1)
	50대(N=159)	4(2.5)	112(70.4)	43(27.0)	5(3.1)	85(53.5)	69(43.4)	40(25.2)	53(33.3)	66(41.5)
	60대 이상(N=246)	6(2.4)	168(68.3)	72(29.3)	9(3.7)	99(40.2)	138(56.1)	37(15.0)	70(28.5)	139(56.5)
	χ^2	-			-			22.36**		
거주 권역	동부권(N=159)	4(2.5)	102(64.2)	53(33.3)	3(1.9)	74(46.5)	82(51.6)	17(10.7)	49(30.8)	93(58.5)
	서부권(N=162)	7(4.3)	104(64.2)	51(31.5)	6(3.7)	83(51.2)	73(45.1)	25(15.4)	61(37.7)	76(46.9)
	남부권(N=139)	2(1.4)	98(70.5)	39(28.1)	9(6.5)	62(44.6)	68(48.9)	29(20.9)	39(28.1)	71(51.1)
	북부권(N=122)	4(3.3)	81(66.4)	37(30.3)	2(1.6)	54(44.3)	66(54.1)	25(20.5)	35(28.7)	62(50.8)
	χ^2	-			8.32			11.09		

*p<.05 **p<.01 ***p<.001
주 : -는 기대빈도 5 미만 셀이 20%를 초과하여 χ^2 검정 결과를 제시하지 않음

- **(가사노동)**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은 '아내'가 담당한다는 응답(76.2%)이 남성(57.9%)보다 많았던 반면, 남성은 '두 사람 똑같이'라는 응답(38.0%)이 여성(22.2%)보다 많았음
- **(자녀 양육과 교육)**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은 '아내'가 담당한다는 응답(58.6%)이 남성(37.4%)보다 많았던 반면, 남성은 '두 사람 똑같이'라는 응답(57.6%)이 여성(39.8%)보다 많았음

- **(본인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류)** 성별과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은 '남편'이 담당한다는 응답(27.7%)이, 여성은 '아내'가 담당한다는 응답(49.8%)이 상대적으로 많아, 자신의 원가족과의 교류는 본인이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는 50대의 '남편' 응답(25.2%)이 다른 연령대(8.8~15.0%)보다 많았음

<표 Ⅲ-51 계속>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사수행 분담

(단위 : N=582, 명(%))

구 분		배우자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류			가족생활 유지를 위한 계획과 준비		
		남편	아내	두 사람 똑같이	남편	아내	두 사람 똑같이
성별	남성(N=233)	25(7.8)	118(36.8)	178(55.5)	83(25.9)	40(12.5)	198(61.7)
	여성(N=152)	68(26.1)	63(24.1)	130(49.8)	21(8.0)	82(31.4)	158(60.5)
	t 값	38.30***			50.26***		
연령	20대(N=98)	0(0.0)	0(0.0)	7(100.0)	0(0.0)	0(0.0)	7(100.0)
	30대(N=98)	11(19.3)	11(19.3)	35(61.4)	7(12.3)	9(15.8)	41(71.9)
	40대(N=89)	20(17.7)	31(27.4)	62(54.9)	19(16.8)	27(23.9)	67(59.3)
	50대(N=58)	33(20.8)	59(37.1)	67(42.1)	37(23.3)	37(23.3)	85(53.5)
	60대 이상(N=42)	29(11.8)	80(32.5)	137(55.7)	41(16.7)	49(19.9)	156(63.4)
	F 값	21.55**			12.92		
거주 권역	동부권(N=97)	26(16.4)	42(26.4)	91(57.2)	19(11.9)	32(20.1)	108(67.9)
	서부권(N=109)	30(18.5)	54(33.3)	78(48.1)	35(21.6)	33(20.4)	94(58.0)
	남부권(N=114)	17(12.2)	49(35.3)	73(52.5)	23(16.5)	36(25.9)	80(57.6)
	북부권(N=65)	20(16.4)	36(29.5)	66(54.1)	27(22.1)	21(17.2)	74(60.7)
	F 값	5.45			10.02		

*p<.05 **p<.01 ***p<.001
주 : -는 기대빈도 5 미만 셀이 20%를 초과하여 χ^2 검정 결과를 제시하지 않음

- **(배우자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류)** 성별과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은 '아내'가 담당한다는 응답(36.8%)이, 여성은 '남편'이 담당한다는 응답(26.1%)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연령별로는 30대의 '두 사람 똑같이' 응답(61.4%)이 많았던 반면, 50대는 '아내' 응답(37.1%)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 **(가족생활 유지를 위한 계획과 준비)**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은 '남편'이 담당한다는 응답(25.9%)이 여성(8.0%)보다 많았고, 여성은 '아내'가 담당한다는 응답(31.4%)이 남성(12.5%)보다 많아, 남녀 모두 본인이 더 많이 담당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음

(나) 가사수행 분담 공평성

○ 가사수행 분담 정도의 공평성 인식을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결과, '가족생활 유지를 위한 계획과 준비'(3.01점)가 가장 높았으며, '배우자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류'(2.91점), '본인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류'(2.90점), '자녀 양육과 교육'(2.86점), '가사노동'(2.73점)의 순으로 나타남. 특히 가사노동은 불공평하다는 응답(매우+약간 불공평)이 37.9%로 다른 영역보다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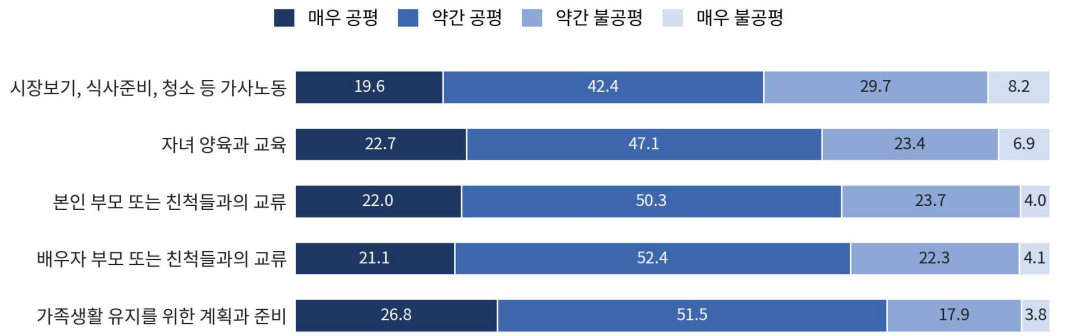
<표 Ⅲ-52> 가사수행 분담 공평성

(단위 : N=582, 점, 명(%))

구 분	평균	매우 불공평	약간 불공평	약간 공평	매우 공평
1) 가사노동	2.73	48(8.2)	173(29.7)	247(42.4)	114(19.6)
2) 자녀 양육과 교육	2.86	40(6.9)	136(23.4)	274(47.1)	132(22.7)
3) 본인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류	2.90	23(4.0)	138(23.7)	293(50.3)	128(22.0)
4) 배우자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류	2.91	24(4.1)	130(22.3)	305(52.4)	123(21.1)
5) 가족생활 유지를 위한 계획과 준비	3.01	22(3.8)	104(17.9)	300(51.5)	156(26.8)

주 : 평균: 1점~4점 환산

(단위: N=582, %)



[그림 Ⅲ-23] 가사수행 분담 공평성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거주권역에 따라 가사수행 분담 정도의 공평성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 및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Ⅲ-53〉과 같음

- **(성별)**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2.96~3.17점)이 여성(2.46~2.83점)보다 공평하다고 인식하였음. 특히 가사노동은 남성(2.96점)과 여성(2.46점)의 차이가 가장 컸음
- **(연령)** '자녀 양육과 교육', '배우자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류', '가족생활 유지를 위한 계획과 준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체로 20~30대가 높고 50대가 낮았으며, '자녀 양육과 교육'은 30대(3.16점)가 50대(2.70점)보다, '가족생활 유지를 위한 계획과 준비'는 20대(3.43점)와 30대(3.21점)가 50대(2.89점)보다 높았음
- **(거주권역)** '가족생활 유지를 위한 계획과 준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동부권(3.13점)이 남부권(2.86점)보다 높았음

<표 Ⅲ-5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사수행 분담 공평성

(단위 : N=582, 점)

구 분		가사노동		자녀 양육과 교육		본인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류		배우자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류		가족생활 유지를 위한 계획과 준비	
		M	SD	M	SD	M	SD	M	SD	M	SD
성별	남성(N=321)	2.96	0.74	3.07	0.73	3.06	0.73	3.06	0.70	3.17	0.71
	여성(N=261)	2.46	0.93	2.60	0.91	2.71	0.79	2.71	0.81	2.83	0.81
	t 값	6.99***		6.74***		5.42***		5.51***		5.28***	
연령	20대(N=7)	3.14	0.90	3.29b	0.76	2.86	1.07	3.14	0.69	3.43b	0.79
	30대(N=57)	2.98	0.92	3.16ab	0.82	3.19	0.81	3.25	0.74	3.21ab	0.75
	40대(N=113)	2.78	0.83	2.82ab	0.90	2.93	0.73	2.92	0.73	3.01ab	0.81
	50대(N=159)	2.62	0.86	2.70a	0.79	2.81	0.78	2.81	0.78	2.89a	0.79
	60대 이상(N=246)	2.72	0.87	2.89ab	0.84	2.89	0.77	2.88	0.77	3.04ab	0.74
	F 값	2.33		3.73***		2.62		3.79**		2.60*	
거주 권역	동부권(N=159)	2.77	0.89	2.87	0.85	2.96	0.73	2.97	0.72	3.13b	0.69
	서부권(N=162)	2.72	0.89	2.80	0.85	2.91	0.81	2.88	0.81	3.02ab	0.79
	남부권(N=139)	2.68	0.81	2.85	0.80	2.83	0.75	2.82	0.73	2.86a	0.81
	북부권(N=122)	2.78	0.87	2.92	0.90	2.90	0.83	2.94	0.81	3.02ab	0.80
	F 값	0.41		0.45		0.61		1.14		2.91*	

*p<.05 **p<.01 ***p<.001

(3) 의사결정

○ 가정에서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에 대해 알아본 결과, 모든 영역에서 '부부가 함께'의 비율이 37.5~69.8%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자녀 출산'(69.8%)과 '가족 여가'(65.5%)는 부부가 함께 결정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영역별로는 '가사 등 집안일'(51.4%), '생활비 지출'(43.5%), '자녀 교육'(40.1%)은 아내가 주도한다는 응답이, '투자 및 자산관리'(36.5%)와 '취업, 직장 이동'(29.2%)은 남편이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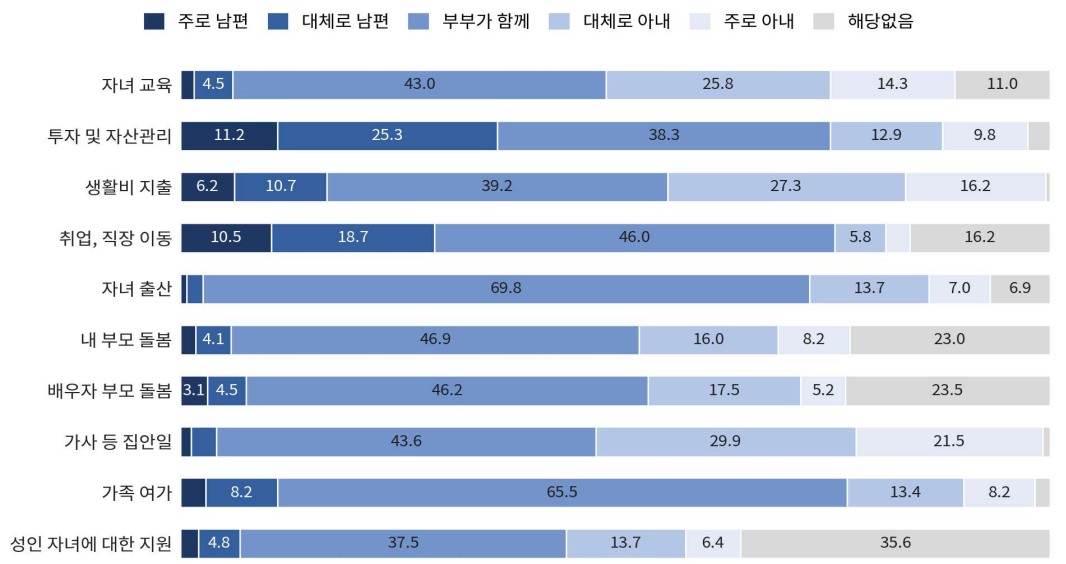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한편, '성인 자녀에 대한 지원'(35.6%), '배우자 부모 돌봄'(23.5%), '내 부모 돌봄'(23.0%)은 '해당없음'의 비율이 높았음

<표 Ⅲ-54> 영역별 의사결정

(단위 : N=582, 명(%))

구 분	주로 남편	대체로 남편	부부가 함께	대체로 아내	주로 아내	해당없음
1) 자녀 교육	9(1.5)	26(4.5)	250(43.0)	150(25.8)	83(14.3)	64(11.0)
2) 투자 및 자산관리	65(11.2)	147(25.3)	223(38.3)	75(12.9)	57(9.8)	15(2.6)
3) 생활비 지출	36(6.2)	62(10.7)	228(39.2)	159(27.3)	94(16.2)	3(0.5)
4) 취업, 직장 이동	61(10.5)	109(18.7)	268(46.0)	34(5.8)	16(2.7)	94(16.2)
5) 자녀 출산	4(0.7)	11(1.9)	406(69.8)	80(13.7)	41(7.0)	40(6.9)
6) 내 부모 돌봄	10(1.7)	24(4.1)	273(46.9)	93(16.0)	48(8.2)	134(23.0)
7) 배우자 부모 돌봄	18(3.1)	26(4.5)	269(46.2)	102(17.5)	30(5.2)	137(23.5)
8) 가사 등 집안일	7(1.2)	17(2.9)	254(43.6)	174(29.9)	125(21.5)	5(0.9)
9) 가족 여가	17(2.9)	48(8.2)	381(65.5)	78(13.4)	48(8.2)	10(1.7)
10) 성인 자녀에 대한 지원	12(2.1)	28(4.8)	218(37.5)	80(13.7)	37(6.4)	207(35.6)

(단위: N=582, %)



[그림 Ⅲ-24] 영역별 의사결정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거주권역에 따라 영역별 주도적 의사결정자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음. 다만 '주로 남편', '대체로 남편', '주로 아내'의 응답 비율이 낮아 교차분석 시 기대빈도 5 미만인 셀이 20%를 초과하였음. 이에 '주로 남편'과 '대체로 남편'을 '남편 주도'로, '대체로 아내'와 '주로 아내'를 '아내 주도'로 통합하였으며, '해당없음'은 검정에서 제외하였음. 범주 통합 후에도 연령은 20대(7명)의 사례수가 적어 8개 영역에서 검정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자녀 출산'의 거주권역도 검정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여 χ^2 검정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음. 교차분석 결과 '자녀 출산'을 제외한 9개 영역에서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과 거주권역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 **(자녀 교육, 생활비 지출, 가사 등 집안일, 가족 여가)** 남성은 '부부가 함께'라는 응답이, 여성은 '아내 주도'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특히 '가사 등 집안일'은 여성의 '아내 주도' 응답(65.9%)이 남성(39.6%)보다 크게 높았던 반면, 남성은 '부부가 함께'라는 응답(55.5%)이 여성(29.1%)보다 높아 성별 간 인식 차이가 가장 컸음
- **(투자 및 자산관리, 취업·직장 이동)** 남성은 '남편 주도'라는 응답(41.1%, 35.5%)이 여성(30.7%, 21.5%)보다 많았음. '투자 및 자산관리'에서 여성은 '아내 주도'라는 응답(33.3%)이 남성(14.0%)보다 많았음
- **(내 부모 돌봄, 배우자 부모 돌봄)** 자신의 부모 돌봄은 본인이 주도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내 부모 돌봄'에서 여성은 '아내 주도'(37.5%)가 남성(13.4%)보다 많았고, '배우자 부모 돌봄'에서 여성은 '남편 주도'(13.0%)가 남성(3.1%)보다 많았음
- **(성인 자녀에 대한 지원)** 여성은 '아내 주도'라는 응답(25.7%)이 남성(15.6%)보다 많았던 반면, 남성은 '부부가 함께'라는 응답(41.4%)이 여성(32.6%)보다 많았음

<표 Ⅲ-5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역별 의사결정

(단위 : N=582, 명(%))

구 분		자녀 교육				투자 및 자산관리			
		남편 주도	부부가 함께	아내 주도	해당 없음	남편 주도	부부가 함께	아내 주도	해당 없음
성별	남성(N=321)	23(7.2)	152(47.4)	105(32.7)	41(12.8)	132(41.1)	139(43.3)	45(14.0)	5(1.6)
	여성(N=261)	12(4.6)	98(37.5)	128(49.0)	23(8.8)	80(30.7)	84(32.2)	87(33.3)	10(3.8)
	χ^2	14.08***				32.66***			
연령	20대(N=7)	2(28.6)	1(14.3)	1(14.3)	3(42.9)	3(42.9)	4(57.1)	0(0.0)	0(0.0)
	30대(N=57)	0(0.0)	21(36.8)	20(35.1)	16(28.1)	22(38.6)	21(36.8)	12(21.1)	2(3.5)
	40대(N=113)	6(5.3)	40(35.4)	55(48.7)	12(10.6)	41(36.3)	50(44.2)	21(18.6)	1(0.9)
	50대(N=159)	9(5.7)	66(41.5)	78(49.1)	6(3.8)	55(34.6)	53(33.3)	48(30.2)	3(1.9)
	60대 이상(N=246)	18(7.3)	122(49.6)	79(32.1)	27(11.0)	91(37.0)	95(38.6)	51(20.7)	9(3.7)
	χ^2	-				9.73			
거주 권역	동부권(N=159)	7(4.4)	82(51.6)	61(38.4)	9(5.7)	55(34.6)	71(44.7)	31(19.5)	2(1.3)
	서부권(N=162)	7(4.3)	72(44.4)	70(43.2)	13(8.0)	57(35.2)	62(38.3)	40(24.7)	3(1.9)
	남부권(N=139)	11(7.9)	58(41.7)	53(38.1)	17(12.2)	50(36.0)	51(36.7)	29(20.9)	9(6.5)
	북부권(N=122)	10(8.2)	38(31.1)	49(40.2)	25(20.5)	50(41.0)	39(32.0)	32(26.2)	1(0.8)
	χ^2	9.06				5.47			

*p<.05 **p<.01 ***p<.001

주1 :기대빈도 5 미만 셀 비율이 20%를 초과하여 '주로 남편'과 '대체로 남편'을 '남편 주도'로, '대체로 아내'와 '주로 아내'를 '아내 주도'로 통합함

주2 : χ^2 검정은 '해당없음'을 제외하고 실시함

주3 : -는 범주 통합 후에도 기대빈도 5 미만 셀이 20%를 초과하거나 최소 기대빈도가 1 미만이어서 χ^2 검정 결과를 제시하지 않음

<표 Ⅲ-55 계속 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역별 의사결정

(단위 : N=582, 명(%))

구 분		생활비 지출				취업, 직장 이동			
		남편 주도	부부가 함께	아내 주도	해당 없음	남편 주도	부부가 함께	아내 주도	해당 없음
성별	남성(N=321)	62(19.3)	132(41.1)	125(38.9)	2(0.6)	114(35.5)	141(43.9)	20(6.2)	46(14.3)
	여성(N=261)	36(13.8)	96(36.8)	128(49.0)	1(0.4)	56(21.5)	127(48.7)	30(11.5)	48(18.4)
	χ^2	6.67*				14.88***			
연령	20대(N=7)	2(28.6)	4(57.1)	1(14.3)	0(0.0)	2(28.6)	5(71.4)	0(0.0)	0(0.0)
	30대(N=57)	11(19.3)	23(40.4)	22(38.6)	1(1.8)	13(22.8)	35(61.4)	5(8.8)	4(7.0)
	40대(N=113)	18(15.9)	52(46.0)	43(38.1)	0(0.0)	32(28.3)	63(55.8)	11(9.7)	7(6.2)
	50대(N=159)	25(15.7)	57(35.8)	76(47.8)	1(0.6)	56(35.2)	72(45.3)	13(8.2)	18(11.3)
	60대 이상(N=246)	42(17.1)	92(37.4)	111(45.1)	1(0.4)	67(27.2)	93(37.8)	21(8.5)	65(26.4)
	χ^2	6.81				-			
거주 권역	동부권(N=159)	29(18.2)	56(35.2)	72(45.3)	2(1.3)	46(28.9)	80(50.3)	11(6.9)	22(13.8)
	서부권(N=162)	19(11.7)	74(45.7)	69(42.6)	0(0.0)	47(29.0)	81(50.0)	18(11.1)	16(9.9)
	남부권(N=139)	20(14.4)	56(40.3)	62(44.6)	1(0.7)	42(30.2)	63(45.3)	10(7.2)	24(17.3)
	북부권(N=122)	30(24.6)	42(34.4)	50(41.0)	0(0.0)	35(28.7)	44(36.1)	11(9.0)	32(26.2)
	χ^2	10.98				3.67			

*p<.05 **p<.01 ***p<.001

주1 :기대빈도 5 미만 셀 비율이 20%를 초과하여 '주로 남편'과 '대체로 남편'을 '남편 주도'로, '대체로 아내'와 '주로 아내'를 '아내 주도'로 통합함

주2 : χ^2 검정은 '해당없음'을 제외하고 실시함

주3 : -는 범주 통합 후에도 기대빈도 5 미만 셀이 20%를 초과하거나 최소 기대빈도가 1 미만이어서 χ^2 검정 결과를 제시하지 않음

<표 Ⅲ-55 계속 ②>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역별 의사결정

(단위 : N=582, 명(%))

구 분		자녀 출산				내 부모 돌봄			
		남편 주도	부부가 함께	아내 주도	해당 없음	남편 주도	부부가 함께	아내 주도	해당 없음
성별	남성(N=321)	11(3.4)	225(70.1)	58(18.1)	27(8.4)	33(10.3)	171(53.3)	43(13.4)	74(23.1)
	여성(N=261)	4(1.5)	181(69.3)	63(24.1)	13(5.0)	1(0.4)	102(39.1)	98(37.5)	60(23.0)
	χ^2	4.37				64.97***			
연령	20대(N=7)	1(14.3)	5(71.4)	1(14.3)	0(0.0)	1(14.3)	6(85.7)	0(0.0)	0(0.0)
	30대(N=57)	0(0.0)	45(78.9)	8(14.0)	4(7.0)	0(0.0)	37(64.9)	10(17.5)	10(17.5)
	40대(N=113)	3(2.7)	81(71.7)	23(20.4)	6(5.3)	8(7.1)	59(52.2)	32(28.3)	14(12.4)
	50대(N=159)	4(2.5)	111(69.8)	38(23.9)	6(3.8)	16(10.1)	73(45.9)	41(25.8)	29(18.2)
	60대 이상(N=246)	7(2.8)	164(66.7)	51(20.7)	24(9.8)	9(3.7)	98(39.8)	58(23.6)	81(32.9)
	χ^2	-				-			
거주 권역	동부권(N=159)	5(3.1)	119(74.8)	32(20.1)	3(1.9)	8(5.0)	81(50.9)	38(23.9)	32(20.1)
	서부권(N=162)	2(1.2)	116(71.6)	37(22.8)	7(4.3)	8(4.9)	80(49.4)	45(27.8)	29(17.9)
	남부권(N=139)	3(2.2)	95(68.3)	29(20.9)	12(8.6)	13(9.4)	64(46.0)	30(21.6)	32(23.0)
	북부권(N=122)	5(4.1)	76(62.3)	23(18.9)	18(14.8)	5(4.1)	48(39.3)	28(23.0)	41(33.6)
	χ^2	-				5.08			

*p<.05 **p<.01 ***p<.001

주1 :기대빈도 5 미만 셀 비율이 20%를 초과하여 '주로 남편'과 '대체로 남편'을 '남편 주도'로, '대체로 아내'와 '주로 아내'를 '아내 주도'로 통합함

주2 : χ^2 검정은 '해당없음'을 제외하고 실시함

주3 : -는 범주 통합 후에도 기대빈도 5 미만 셀이 20%를 초과하거나 최소 기대빈도가 1 미만이어서 χ^2 검정 결과를 제시하지 않음

<표 Ⅲ-55 계속 ③>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역별 의사결정

(단위 : N=582, 명(%))

구 분		배우자 부모 돌봄				가사 등 집안일			
		남편 주도	부부가 함께	아내 주도	해당 없음	남편 주도	부부가 함께	아내 주도	해당 없음
성별	남성(N=321)	10(3.1)	160(49.8)	80(24.9)	71(22.1)	14(4.4)	178(55.5)	127(39.6)	2(0.6)
	여성(N=261)	34(13.0)	109(41.8)	52(19.9)	66(25.3)	10(3.8)	76(29.1)	172(65.9)	3(1.1)
	χ^2	22.24***				42.43***			
연령	20대(N=7)	2(28.6)	5(71.4)	0(0.0)	0(0.0)	1(14.3)	5(71.4)	1(14.3)	0(0.0)
	30대(N=57)	6(10.5)	37(64.9)	3(5.3)	11(19.3)	5(8.8)	26(45.6)	24(42.1)	2(3.5)
	40대(N=113)	13(11.5)	59(52.2)	28(24.8)	13(11.5)	3(2.7)	52(46.0)	58(51.3)	0(0.0)
	50대(N=159)	16(10.1)	72(45.3)	35(22.0)	36(22.6)	4(2.5)	63(39.6)	90(56.6)	2(1.3)
	60대 이상(N=246)	7(2.8)	96(39.0)	66(26.8)	77(31.3)	11(4.5)	108(43.9)	126(51.2)	1(0.4)
	χ^2	-				-			
거주 권역	동부권(N=159)	14(8.8)	75(47.2)	33(20.8)	37(23.3)	7(4.4)	69(43.4)	82(51.6)	1(0.6)
	서부권(N=162)	17(10.5)	78(48.1)	35(21.6)	32(19.8)	8(4.9)	72(44.4)	80(49.4)	2(1.2)
	남부권(N=139)	5(3.6)	62(44.6)	37(26.6)	35(25.2)	3(2.2)	63(45.3)	72(51.8)	1(0.7)
	북부권(N=122)	8(6.6)	54(44.3)	27(22.1)	33(27.0)	6(4.9)	50(41.0)	65(53.3)	1(0.8)
	χ^2	6.32				2.31			

*p<.05 **p<.01 ***p<.001
주1 :기대빈도 5 미만 셀 비율이 20%를 초과하여 '주로 남편'과 '대체로 남편'을 '남편 주도'로, '대체로 아내'와 '주로 아내'를 '아내 주도'로 통합함
주2 : χ^2 검정은 '해당없음'을 제외하고 실시함
주3 : -는 범주 통합 후에도 기대빈도 5 미만 셀이 20%를 초과하거나 최소 기대빈도가 1 미만이어서 χ^2 검정 결과를 제시하지 않음

<표 Ⅲ-55 계속 ④>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역별 의사결정

(단위 : N=582, 명(%))

구 분		가족 여가				성인 자녀에 대한 지원			
		남편 주도	부부가 함께	아내 주도	해당 없음	남편 주도	부부가 함께	아내 주도	해당 없음
성별	남성(N=321)	47(14.6)	222(69.2)	49(15.3)	3(0.9)	25(7.8)	133(41.4)	50(15.6)	113(35.2)
	여성(N=261)	18(6.9)	159(60.9)	77(29.5)	7(2.7)	15(5.7)	85(32.6)	67(25.7)	94(36.0)
	χ^2	22.70***				11.19**			
연령	20대(N=7)	1(14.3)	5(71.4)	1(14.3)	0(0.0)	0(0.0)	0(0.0)	0(0.0)	7(100.0)
	30대(N=57)	7(12.3)	39(68.4)	8(14.0)	3(5.3)	0(0.0)	0(0.0)	0(0.0)	57(100.0)
	40대(N=113)	11(9.7)	79(69.9)	23(20.4)	0(0.0)	3(2.7)	6(5.3)	6(5.3)	98(86.7)
	50대(N=159)	21(13.2)	95(59.7)	40(25.2)	3(1.9)	18(11.3)	72(45.3)	32(20.1)	37(23.3)
	60대 이상(N=246)	25(10.2)	163(66.3)	54(22.0)	4(1.6)	19(7.7)	140(56.9)	79(32.1)	8(3.3)
	χ^2	-				-			
거주 권역	동부권(N=159)	12(7.5)	113(71.1)	30(18.9)	4(2.5)	12(7.5)	62(39.0)	31(19.5)	54(34.0)
	서부권(N=162)	18(11.1)	100(61.7)	42(25.9)	2(1.2)	8(4.9)	55(34.0)	30(18.5)	69(42.6)
	남부권(N=139)	17(12.2)	93(66.9)	28(20.1)	1(0.7)	10(7.2)	56(40.3)	29(20.9)	44(31.7)
	북부권(N=122)	18(14.8)	75(61.5)	26(21.3)	3(2.5)	10(8.2)	45(36.9)	27(22.1)	40(32.8)
	χ^2	6.94				1.02			

*p<.05 **p<.01 ***p<.001
주1 :기대빈도 5 미만 셀 비율이 20%를 초과하여 '주로 남편'과 '대체로 남편'을 '남편 주도'로, '대체로 아내'와 '주로 아내'를 '아내 주도'로 통합함
주2 : χ^2 검정은 '해당없음'을 제외하고 실시함
주3 : -는 범주 통합 후에도 기대빈도 5 미만 셀이 20%를 초과하거나 최소 기대빈도가 1 미만이어서 χ^2 검정 결과를 제시하지 않음

(4) 배우자와의 갈등

❍ 최근 1년 동안 배우자와의 갈등 이유(순위별 가중치)는 '배우자의 성격/사고방식'이 17.2%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 문제' 14.9%, '배우자의 생활방식' 10.5%, '자녀의 교육문제' 8.4%, '배우자 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 6.7%, '내 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 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갈등 겪은 적 없음'은 17.8%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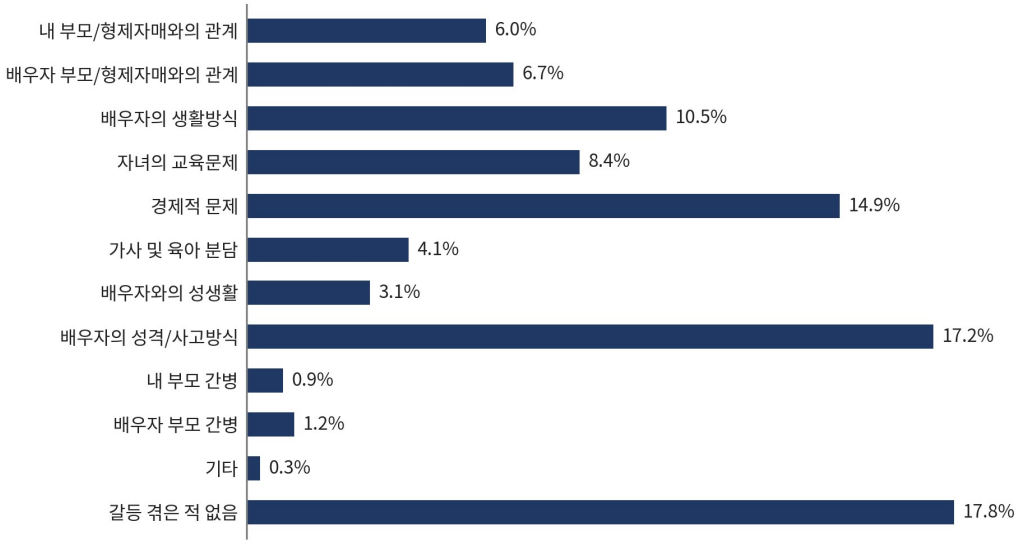
<표 Ⅲ-56> 배우자와의 갈등 이유

(단위 : N=582, %)

구 분	내 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	배우자 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	배우자의 생활방식	자녀의 교육문제	경제적 문제	가사 및 육아 분담
%	6.0	6.7	10.5	8.4	14.9	4.1
구 분	배우자와의 성생활	배우자의 성격/사고방식	내 부모 간병	배우자 부모 간병	기타	갈등 겪은 적 없음
%	3.1	17.2	0.9	1.2	0.3	17.8

주 : 순위별 가중치

(순위별 가중치 적용, 단위: N=582, %)



[그림 Ⅲ-25] 배우자와의 갈등 이유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거주권역에 따라 배우자와의 갈등 이유(순위별 가중치)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집단에서 '배우자의 성격/사고방식'과 '경제적 문제'가 주된 갈등 이유로 나타났으나, 집단별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갈등 이유에는 차이가 있었음

<표 Ⅲ-57>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배우자와의 갈등 이유

(단위 : N=582, %)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전체(N=582)		6.0	6.7	10.5	8.4	14.9	4.1	3.1	17.2	0.9	1.2	0.3	17.8
성별	남성(N=321)	8.5	5.7	7.8	8.4	16.2	3.5	3.3	16.2	1.6	1.0	0.3	18.3
	여성(N=261)	2.9	7.9	13.9	8.3	13.3	4.7	2.8	18.5	0.1	1.4	0.4	17.1
연령	20대(N=7)	-	9.5	9.5	-	-	9.5	19.0	9.5	-	-	-	28.6
	30대(N=57)	6.4	8.2	14.0	5.8	11.7	12.3	2.9	13.5	-	-	0.6	16.4
	40대(N=113)	5.6	6.5	7.4	14.7	15.0	6.8	4.4	13.0	-	0.3	0.6	17.1
	50대(N=159)	8.4	7.3	10.9	13.4	16.1	1.7	2.5	15.3	1.0	1.9	0.6	13.8
	60대 이상(N=246)	4.7	6.0	11.0	3.0	15.2	2.3	2.4	21.5	1.5	1.5	-	20.6
거주권역	동부권(N=159)	7.5	5.2	11.7	6.9	13.2	5.2	4.0	17.4	0.6	0.6	0.4	18.0
	서부권(N=162)	5.8	9.5	9.5	9.7	17.1	3.3	2.9	16.9	1.0	0.8	0.2	15.6
	남부권(N=139)	4.1	6.7	11.3	9.8	17.5	4.8	2.2	18.7	1.0	1.9	0.5	14.4
	북부권(N=122)	6.6	4.9	9.6	6.8	11.2	2.7	3.3	15.8	1.1	1.6	0.3	24.0

주 : 순위별 가중치
① 내 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 ② 배우자 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 ③ 배우자의 생활방식, ④ 자녀의 교육문제, ⑤ 경제적 문제, ⑥ 가사 및 육아 분담, ⑦ 배우자와의 성생활, ⑧ 배우자의 성격/사고방식, ⑨ 내 부모 간병, ⑩ 배우자 부모 간병, ⑪ 기타, ⑫ 갈등 겪은 적 없음

- **(성별)** 남성은 '경제적 문제'와 '배우자의 성격/사고방식'이 각각 16.2%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은 '배우자의 성격/사고방식'(18.5%)이 가장 높았음. 남성은 '내 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8.5%)가 여성(2.9%)보다 높았던 반면, 여성은 '배우자의 생활방식'(13.9%)과 '배우자 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7.9%)가 남성(7.8%, 5.7%)보다 높았음. 이는 남녀 모두 남편 쪽 원가족과의 관계를 갈등 이유로 상대적으로 많이 꼽고 있음을 보여줌

- **(연령)** 30대는 '가사 및 육아 분담'(12.3%)이 다른 연령대(2.3~7.4%)보다 높았으며, 40대와 50대는 '자녀의 교육문제'(14.7%, 13.4%)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50대는 '경제적 문제'(16.1%)가, 60대 이상은 '배우자의 성격/사고방식'(21.5%)이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은 '갈등 겪은 적 없음'(20.6%)도 높게 나타나 생애주기에 따라 갈등 이유가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음
- **(거주권역)** 남부권은 '배우자의 성격/사고방식'(18.7%)과 '경제적 문제'(17.5%)가, 서부권은 '경제적 문제'(17.1%)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북부권은 '갈등 겪은 적 없음'(24.0%)이 다른 권역(14.4~18.0%)보다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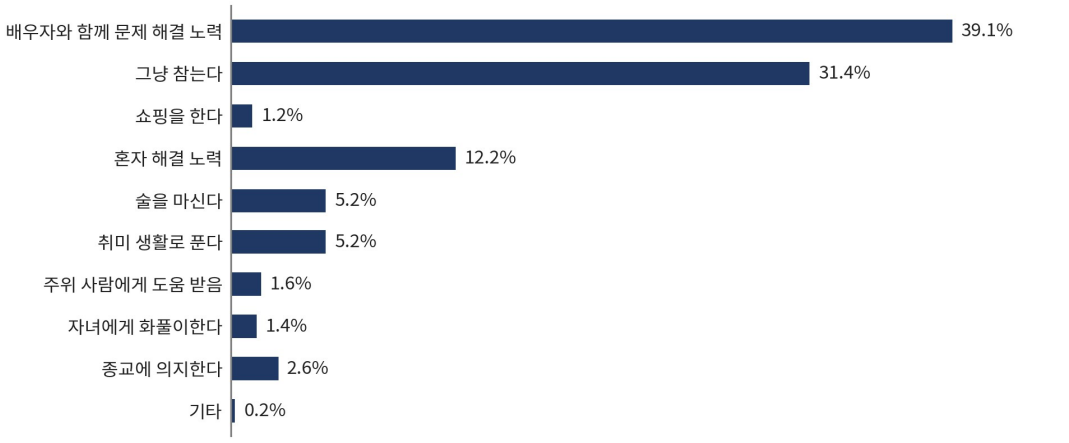
❍ 배우자와 갈등이 생길 경우 대처 방식은 '배우자와 함께 문제 해결 노력'이 167명(39.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냥 참는다' 134명(31.4%), '혼자 해결 노력' 52명(12.2%), '술을 마신다'와 '취미생활로 푼다' 각 22명(5.2%)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58> 배우자와 갈등 시 대처 방식

(단위 : N=427, 명(%))

구 분	배우자와 함께 문제 해결 노력	그냥 참는다	쇼핑을 한다	혼자 해결 노력	술을 마신다	취미 생활로 푼다	주위 사람에게 도움받음	자녀에게 화풀이 한다	종교에 의지 한다	기타
N(%)	167(39.1)	134(31.4)	5(1.2)	52(12.2)	22(5.2)	22(5.2)	7(1.6)	6(1.4)	11(2.6)	1(0.2)

(단위: N=427, %)



[그림 Ⅲ-26] 배우자와 갈등 시 대처 방식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거주권역에 따른 배우자와 갈등 시 대처 방식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집단에서 '배우자와 함께 문제 해결 노력'과 '그냥 참는다'가 주된 대처 방식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별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 대처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음

<표 Ⅲ-59>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배우자와 갈등 시 대처 방식

(단위 : N=427, 명(%))

구 분		배우자와 함께 문제해결 노력	그냥 참는다	쇼핑을 한다	혼자 해결 노력	술을 마신다	취미 생활로 푼다	주위 사람 도움 받음	자녀에게 화풀이	종교 의지	기타
전체(N=427)		167(39.1)	134(31.4)	5(1.2)	52(12.2)	22(5.2)	22(5.2)	7(1.6)	6(1.4)	11(2.6)	1(0.2)
성별	남성(N=233)	105(45.1)	67(28.8)	1(0.4)	26(11.2)	17(7.3)	10(4.3)	3(1.3)	2(0.9)	2(0.9)	-
	여성(N=194)	62(32.0)	67(34.5)	4(2.1)	26(13.4)	5(2.6)	12(6.2)	4(2.1)	4(2.1)	9(4.6)	1(0.5)
연령	20대(N=4)	2(50.0)	-	-	1(25.0)	-	1(25.0)	-	-	-	-
	30대(N=43)	25(58.1)	8(18.6)	-	4(9.3)	3(7.0)	1(2.3)	-	2(4.7)	-	-
	40대(N=84)	35(41.7)	26(31.0)	3(3.6)	6(7.1)	4(4.8)	4(4.8)	2(2.4)	3(3.6)	1(1.2)	-
	50대(N=126)	52(41.3)	34(27.0)	-	16(12.7)	7(5.6)	8(6.3)	5(4.0)	-	3(2.4)	1(0.8)
	60대 이상(N=170)	53(31.2)	66(38.8)	2(1.2)	25(14.7)	8(4.7)	8(4.7)	-	1(0.6)	7(4.1)	-
거주 권역	동부권(N=116)	51(44.0)	33(28.4)	1(0.9)	21(18.1)	1(0.9)	3(2.6)	3(2.6)	-	3(2.6)	-
	서부권(N=124)	47(37.9)	39(31.5)	-	17(13.7)	10(8.1)	6(4.8)	1(0.8)	1(0.8)	3(2.4)	-
	남부권(N=109)	41(37.6)	33(30.3)	2(1.8)	10(9.2)	5(4.6)	7(6.4)	1(0.9)	5(4.6)	4(3.7)	1(0.9)
	북부권(N=78)	28(35.9)	29(37.2)	2(2.6)	4(5.1)	6(7.7)	6(7.7)	2(2.6)	-	1(1.3)	-

주 : 기대빈도 5 미만 셀이 20%를 초과하여 χ^2 검정 결과는 제시하지 않음

- **(성별)** 남성은 '배우자와 함께 문제 해결 노력'(45.1%)이 가장 많았던 반면, 여성은 '그냥 참는다'(34.5%)가 가장 많았음. 남성은 '술을 마신다'(7.3%)가 여성(2.6%)보다 많았으며, 여성은 '취미생활로 푼다'(6.2%)와 '종교에 의지한다'(4.6%)가 남성(4.3%, 0.9%)보다 많았음
- **(연령)** 30대는 '배우자와 함께 문제 해결 노력'(58.1%)이 다른 연령대

(31.2~41.7%)보다 많았던 반면, 60대 이상은 '그냥 참는다'(38.8%)가 '배우자와 함께 문제 해결 노력'(31.2%)보다 많아 연령이 높을수록 갈등을 직접 해결하기보다 참는 경향이 나타났음

- **(거주권역)** 동부권은 '배우자와 함께 문제 해결 노력'(44.0%)과 '혼자 해결 노력'(18.1%)이 다른 권역보다 많았으며, 북부권은 '그냥 참는다'(37.2%)가 '배우자와 함께 문제 해결 노력'(35.9%)보다 많았음

(5) 자녀와의 갈등

○ 자녀가 있는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은 어려움(순위별 가중치)을 알아본 결과, '경제적 부담'이 35.0%로 가장 높았으며, '진로 문제' 13.4%, '대화 단절' 11.0%, '학업 성적'과 '게임/SNS 중독' 각 8.2% 등의 순으로 나타남. '없음'은 7.9%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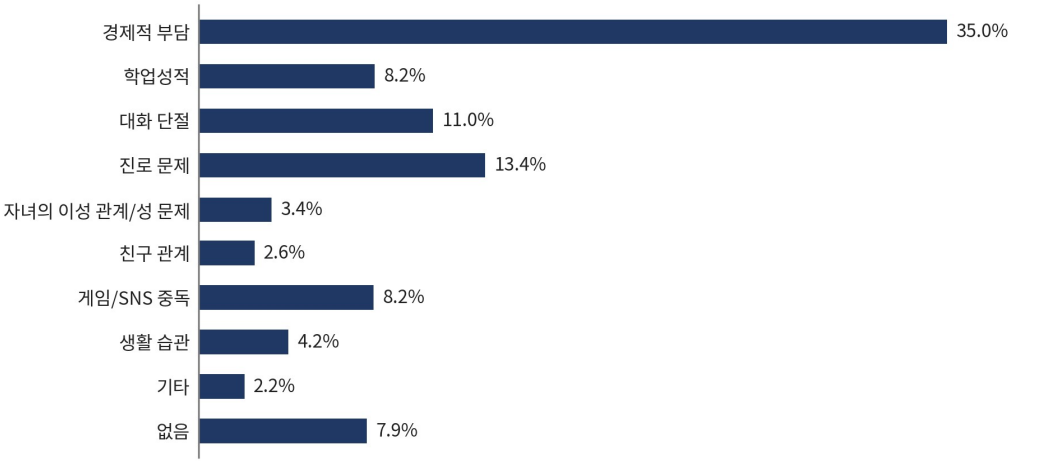
<표 Ⅲ-60> 자녀양육시 어려움

(단위 : N=635, %)

구 분	경제적 부담	학업 성적	대화 단절	진로 문제	자녀의 이성관계/성 문제	친구 관계	게임/SNS 중독	생활 습관	기타	없음
N(%)	35.0	8.2	11.0	13.4	3.4	2.6	8.2	4.2	2.2	7.9

주 : 순위별 가중치

(순위별 가중치 적용, 단위: N=635, %)



[그림 Ⅲ-27] 자녀양육시 어려움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거주권역에 따라 자녀양육시 어려움(순위별 가중치)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집단에서 '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았으나 자녀의 성장 단계와 관련된 연령에 따라 주된 어려움에 차이가 나타났음

- **(성별)** 남성(33.3%)과 여성(36.7%) 모두 '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았음. 남성은 '대화 단절'(13.0%)과 '게임/SNS 중독'(9.3%)이 여성(8.8%, 7.0%)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 **(연령)** 40대는 '게임/SNS 중독'(14.1%)이 다른 연령대(4.6~8.6%)보다 높았으며, 50대는 '진로 문제'(15.0%)와 '학업 성적'(11.0%)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60대 이상은 '경제적 부담'(37.6%)과 '대화 단절'(13.1%)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한편, 30대는 '없음'(25.9%)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가 어려 아직 양육상의 어려움을 크게 경험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임. 이처럼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미디어 이용, 학업·진로, 경제적 지원과 관계 단절로 양육의 어려움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음
- **(거주권역)** 북부권은 '경제적 부담'(40.1%)이 다른 권역(31.7~37.2%)보다 높았으며, 동부권은 '학업 성적'(12.2%)과 '진로 문제'(16.1%)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남부권은 '게임/SNS 중독'(10.0%)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Ⅲ-6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녀양육시 어려움

(단위 : N=635, %)

구 분		경제적 부담	학업 성적	대화 단절	진로 문제	자녀의 이성관계 /성문제	친구 관계	게임/ SNS 중독	생활 습관	기타	없음
전체(N=635)		35.0	8.2	11.0	13.4	3.4	2.6	8.2	4.2	2.2	7.9
성별	남성(N=331)	33.3	7.7	13.0	13.6	4.2	2.2	9.3	3.6	1.5	7.7
	여성(N=304)	36.7	8.9	8.8	13.2	2.5	3.1	7.0	4.8	2.9	8.1
연령	20대(N=8)	37.5	-	16.7	4.2	20.8	8.3	-	8.3	4.2	-
	30대(N=36)	27.8	4.6	3.7	2.8	0.9	3.7	4.6	6.5	6.5	25.9
	40대(N=109)	28.7	9.5	5.8	11.0	3.1	5.2	14.1	3.4	1.8	11.6
	50대(N=182)	35.7	11.0	11.7	15.0	2.9	3.1	8.6	4.8	1.1	4.0
	60대 이상(N=300)	37.6	6.8	13.1	14.8	3.7	1.1	6.4	3.8	2.3	6.9
거주 권역	동부권(N=161)	31.7	12.2	9.9	16.1	3.1	3.1	7.5	3.7	2.1	7.0
	서부권(N=167)	31.7	7.4	10.0	11.0	5.4	3.2	9.2	3.6	3.0	10.4
	남부권(N=174)	37.2	6.3	11.9	11.1	3.3	2.1	10.0	6.3	2.1	6.5
	북부권(N=133)	40.1	7.0	12.3	16.0	1.5	2.0	5.5	2.8	1.3	7.5

주 : 순위별 가중치

○ 최근 1년 동안 자녀와의 갈등 이유(순위별 가중치)는 '생활습관'이 21.2%로 가장 높았으며, '학업/진로' 16.1%, '경제관념' 11.8%, '취업' 6.6%, '결혼 문제' 4.5% 등의 순으로 나타남. '없음'은 21.2%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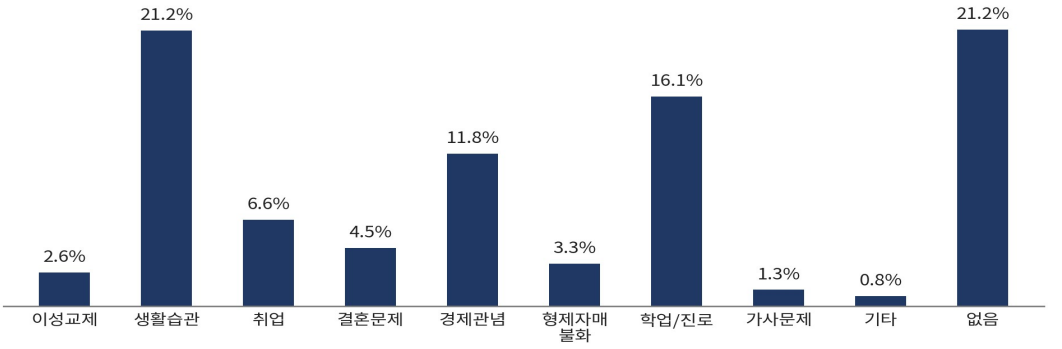
<표 Ⅲ-62> 자녀와의 갈등 이유

(단위 : N=635, %)

구 분	이성 교제	생활 습관	취업	결혼 문제	경제 관념	형제자매 불화	학업 /진로	가사 문제	기타	없음
N(%)	2.6	21.2	6.6	4.5	11.8	3.3	16.1	1.3	0.8	21.2

주 : 순위별 가중치

(순위별 가중치 적용, 단위: N=635, %)



[그림 Ⅲ-28] 자녀와의 갈등 이유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거주권역에 따라 자녀와의 갈등 이유(순위별 가중치)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집단에서 '생활습관'과 '학업/진로'가 주된 갈등 이유로 나타났으나, 자녀의 성장 단계와 관련된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음

- **(성별)** 남성과 여성 모두 '생활습관'(20.5%, 21.8%)과 '학업/진로'(16.0%, 16.2%)가 높아 큰 차이가 없었음. 다만 남성은 '경제관념'(13.0%)이 여성(10.4%)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 **(연령)** 40대는 '학업/진로'(27.2%)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으며, 50대는 '생활습관'(26.4%)과 '학업/진로'(22.9%)가 함께 높았음. 60대 이상은 '경제관념'(13.6%)과 '결혼 문제'(5.7%)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학업/진로'(9.9%)는 낮았음. 30대는 '없음'(42.6%)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가 어려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적은 데 따른 것으로 보임. 이처럼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학업·진로에서 생활습관, 경제관념과 결혼 문제로 갈등 이유가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음
- **(거주권역)** 남부권은 '생활습관'(24.7%)이, 동부권은 '학업/진로'(19.3%)가 다른 권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북부권은 '없음'(30.1%)이 다른 권역(16.1~20.8%)보다 높았던 반면 '생활습관'(14.0%)은 낮았음

<표 Ⅲ-6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녀와의 갈등 이유

(단위 : N=635, %)

구 분		이성 교제	생활 습관	취업	결혼 문제	경제 관념	형제 자매 불화	학업 /진로	가사 문제	기타	없음
전체(N=635)		2.6	21.2	6.6	4.5	11.8	3.3	16.1	1.3	0.8	21.2
성별	남성(N=331)	2.6	20.5	6.1	5.4	13.0	3.0	16.0	1.5	0.5	20.7
	여성(N=304)	2.5	21.8	7.1	3.4	10.4	3.5	16.2	1.0	1.1	21.7
연령	20대(N=8)	12.5	-	4.2	25.0	12.5	4.2	4.2	-	-	25.0
	30대(N=36)	-	17.6	1.9	-	3.7	8.3	2.8	-	1.9	42.6
	40대(N=109)	1.8	22.9	2.8	2.1	8.0	5.2	27.2	0.6	0.9	19.0
	50대(N=182)	3.5	26.4	8.4	3.8	12.6	3.8	22.9	0.5	1.5	11.0
	60대 이상(N=300)	2.3	18.3	7.6	5.7	13.6	1.6	9.9	2.1	0.2	25.6
거주 권역	동부권(N=161)	2.7	22.6	8.1	5.6	11.2	3.9	19.3	1.4	1.0	16.1
	서부권(N=167)	2.8	21.8	6.6	5.0	11.2	3.8	17.0	0.4	0.4	20.8
	남부권(N=174)	3.1	24.7	5.6	2.9	12.6	3.3	15.1	1.9	0.8	19.5
	북부권(N=133)	1.5	14.0	6.3	4.5	12.0	1.8	12.5	1.3	1.0	30.1

주 : 순위별 가중치

6) 가족돌봄

(1) 영유아 자녀 돌봄

○ 가족내 취학전 영유아 자녀가 있는 조사대상자는 69명(10.9%)으로 나타남

<표 Ⅲ-64> 취학전 영유아 유무

(단위 : N=635, 명(%))

구 분	있음	없음
N(%)	69(10.9)	566(89.1)

(가) 기관 이용 영유아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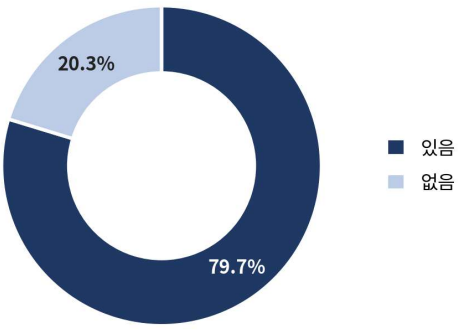
❍ 가족내 취학전 영유아 자녀가 있는 조사대상자 자녀가 낮시간에 다니는 기관이 있는 조사대상자는 55명(79.7%), 없는 조사대상자는 14명(20.3%)으로 나타남

<표 Ⅲ-65> 기관 이용 영유아 자녀 유무

(단위 : N=69, 명(%))

구 분	있음	없음
N(%)	55(79.7)	14(20.3)

(단위: N=69, %)



[그림 Ⅲ-29] 기관 이용 영유아 자녀 유무

❍ 낮시간에 다니는 기관이 있는 영유아 자녀가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기관에 대해 알아본 결과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기관은 '어린이집'이 31명(56.4%)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치원' 23명(41.8%), '학원' 1명(1.8%)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66> 영유아 자녀 이용 기관

(단위 : N=55, 명(%))

구 분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N(%)	31(56.4)	23(41.8)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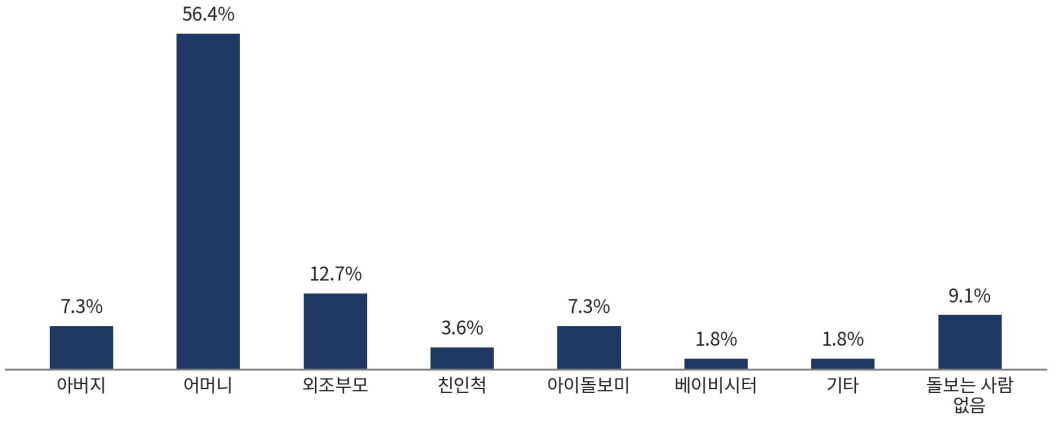
❍ 기관에 다니는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어머니'가 31명(56.4%)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조부모' 7명(12.7%), '아버지'와 '아이돌보미' 각 4명(7.3%), '친인척' 2명(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돌보는 사람 없음'도 5명(9.1%)이었음

<표 Ⅲ-67> 기관 이용 시간 외 주 돌봄자

(단위 : N=55, 명(%))

구 분	아버지	어머니	외조부모	친인척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기타	돌보는 사람 없음
N(%)	4(7.3)	31(56.4)	7(12.7)	2(3.6)	4(7.3)	1(1.8)	1(1.8)	5(9.1)

(단위: N=55, %)



[그림 Ⅲ-30] 기관 이용 시간 외 주 돌봄자

(나) 기관 미이용 영유아 자녀 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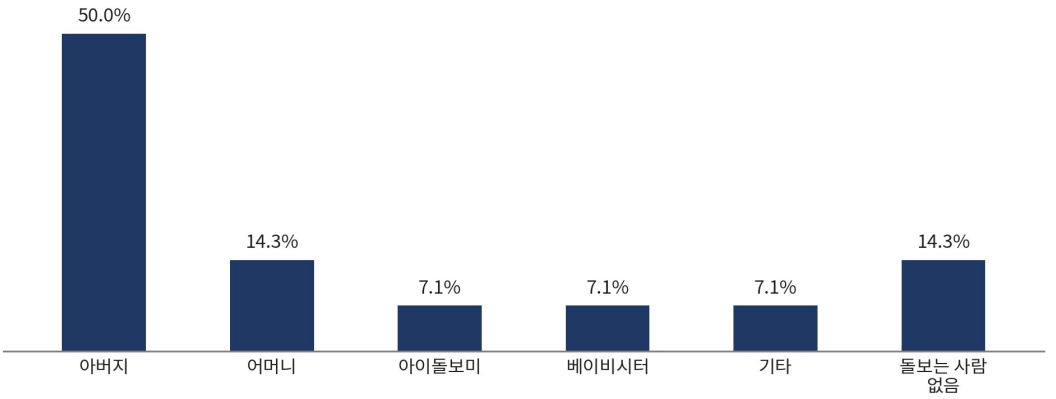
○ 낮시간에 가족내 취학전 영유아가 기관에 다니지 않는 조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에 대해 알아본 결과 '어머니'가 7명(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조부모'와 '돌보는 사람 없음' 각 2명(14.3%),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기타' 각 1명(7.1%)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68> 기관 미이용 자녀 주 돌봄자

(단위 : N=14, 명(%))

구 분	어머니	외조부모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기타	돌보는 사람 없음
N(%)	7(50.0)	2(14.3)	1(7.1)	1(7.1)	1(7.1)	2(14.3)

(단위: N=14, %)



[그림 Ⅲ-31] 기관 미이용 자녀 주 돌봄자

○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이 낮시간에 기관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 자녀를 돌보는 시간에 대해 알아본 결과 주 돌봄자가 기관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 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12시간 이상'이 6명(42.9%)으로 가장 많았으며, '6시간 미만' 5명(35.7%), '6~12시간 미만' 3명(21.4%)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69> 기관 미이용 영유아 돌봄 시간

(단위 : N=14, 명(%))

구 분	6시간 미만	6~12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N(%)	5(35.7)	3(21.4)	6(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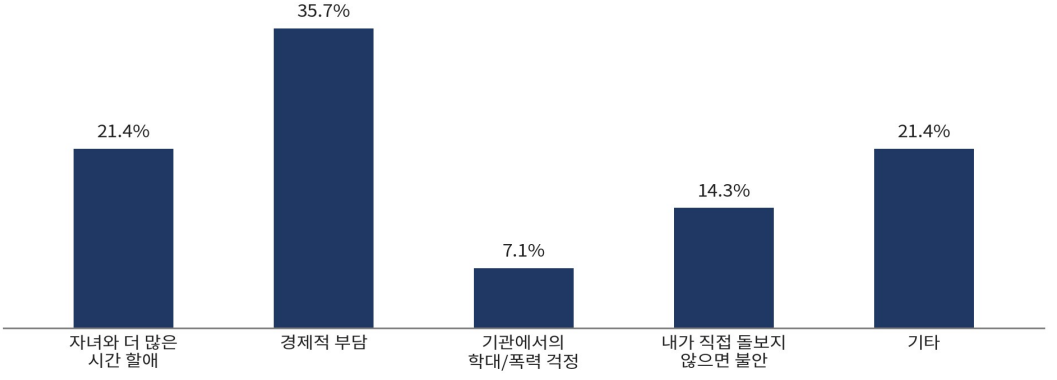
❍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경제적 부담'이 5명(3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와 더 많은 시간 할애'와 '기타' 각 3명(21.4%), '내가 직접 돌보지 않으면 불안' 2명(14.3%), '기관에서의 학대/폭력 걱정' 1명(7.1%)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70> 기관 미이용 이유

(단위 : N=14, 명(%))

구 분	자녀와 더 많은 시간 할애	경제적 부담	기관에서의 학대/폭력 걱정	내가 직접 돌보지 않으면 불안	기타
N(%)	3(21.4)	5(35.7)	1(7.1)	2(14.3)	3(21.4)

(단위: N=14, %)



[그림 Ⅲ-32] 기관 미이용 이유

(다) 보육시설(교육기관) 선택시 고려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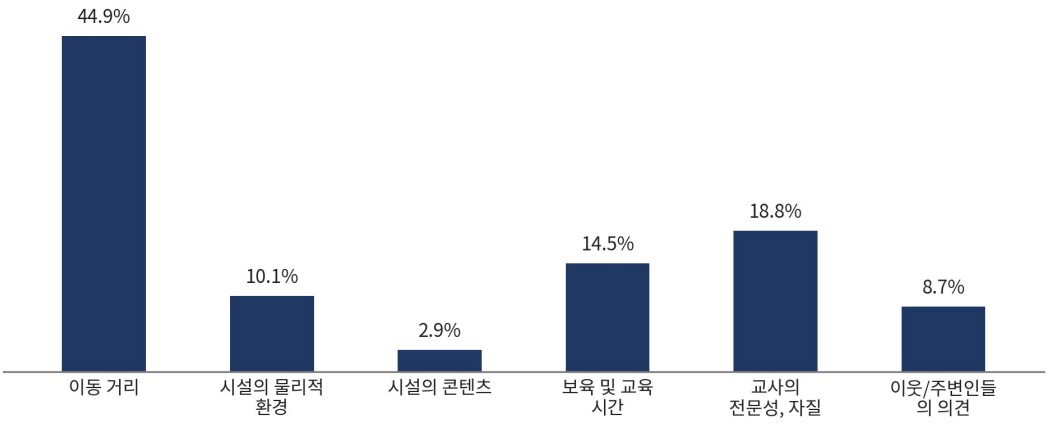
❍ 취학 전 영유아 자녀가 있는 조사대상자(69명)가 보육시설이나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이동 거리'가 31명(44.9%)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사의 전문성, 자질' 13명(18.8%), '보육 및 교육 시간' 10명(14.5%), '시설의 물리적 환경' 7명(10.1%), '이웃/주변인들의 의견' 6명(8.7%), '시설의 콘텐츠' 2명(2.9%)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71> 보육시설(교육기관) 선택시 고려 사항

(단위 : N=69, 명(%))

구 분	이동 거리	시설의 물리적 환경	시설의 콘텐츠	보육 및 교육 시간	교사의 전문성, 자질	이웃/주변인들의 의견
N(%)	31(44.9)	7(10.1)	2(2.9)	10(14.5)	13(18.8)	6(8.7)

(단위: N=69, %)



[그림 Ⅲ-33] 보육시설(교육기관) 선택시 고려 사항

(라) 위급(긴급) 상황시 자녀 돌봄

❍ 영유아를 돌보는 사람이 아프거나 급한 일이 있을 경우 자녀를 주로 돌봐주는 사람(기관)은 '어머니'가 22명(31.9%)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조부모' 14명(20.3%), '아버지' 10명(14.5%), '친조부모' 7명(10.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특별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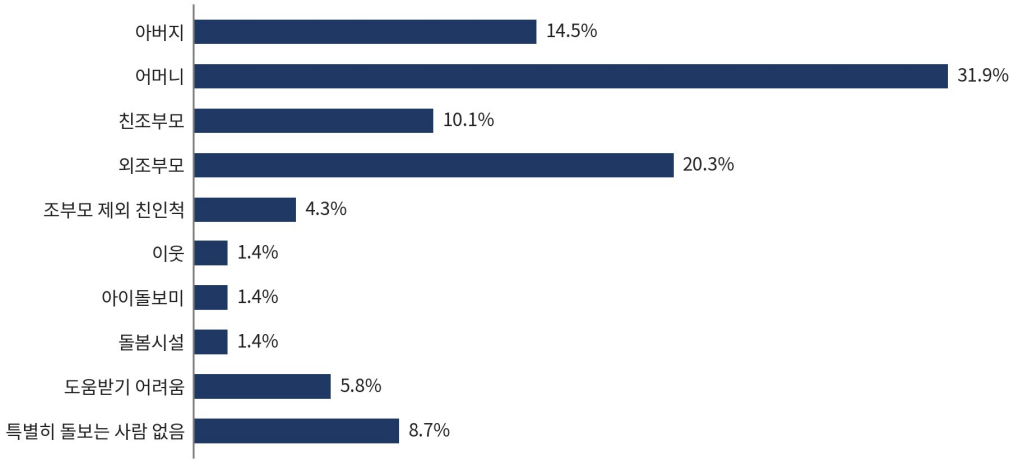
돌보는 사람 없음'(8.7%)과 '도움받기 어려움'(5.8%)도 14.5%였음

<표 Ⅲ-72> 위급(긴급) 상황시 자녀 돌봄

(단위 : N=69, 명(%))

구 분	아버지	어머니	친조부모	외조부모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	이웃	아이 돌보미	돌봄 시설	도움받기 어려움	특별히 돌보는 사람 없음
N(%)	10(14.5)	22(31.9)	7(10.1)	14(20.3)	3(4.3)	1(1.4)	1(1.4)	1(1.4)	4(5.8)	6(8.7)

(단위: N=69, %)



[그림 Ⅲ-34] 위급(긴급) 상황시 자녀 돌봄

(마) 영유아 자녀돌봄 서비스 필요 시간

❍ 평일 중 영유아 자녀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대를 중복응답으로 알아본 결과, '오후 4~5시'가 38명(55.1%)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후 6~7시' 36명(52.2%), '오후 5~6시' 33명(47.8%), '오전 8~9시' 25명(36.2%), '오후 3~4시' 23명(33.3%) 등의 순으로 나타나 주로 기관 하원 이후 시간대와 등원 시간대에 돌봄 수요가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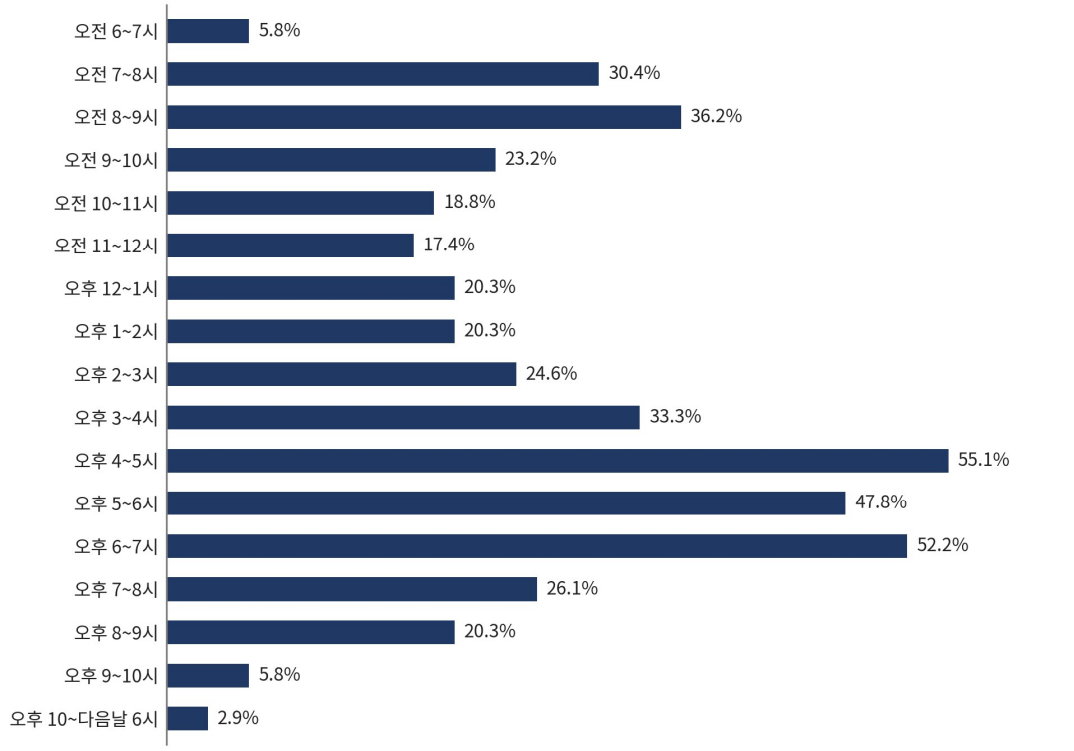
<표 Ⅲ-73> 평일 영유아 자녀돌봄 서비스 필요 시간

(단위 : N=69, 명(%))

구 분	오전 6~7시	오전 7~8시	오전 8~9시	오전 9~10시	오전 10~11시	오전 11~12시
N(%)	4(5.8)	21(30.4)	25(36.2)	16(23.2)	13(18.8)	12(17.4)
구 분	오후 12~1시	오후 1~2시	오후 2~3시	오후 3~4시	오후 4~5시	오후 5~6시
N(%)	14(20.3)	14(20.3)	17(24.6)	23(33.3)	38(55.1)	33(47.8)
구 분	오후 6~7시	오후 7~8시	오후 8~9시	오후 9~10시	오후 10~다음날 6시	
N(%)	36(52.2)	18(26.1)	14(20.3)	4(5.8)	2(2.9)	

주 : 중복응답

(중복응답, 단위: N=69, %)



[그림 Ⅲ-35] 평일 영유아 자녀돌봄 서비스 필요 시간

(2) 초등학생 자녀 돌봄

○ 가족내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조사대상자는 111명(11.0%)으로 나타남

<표 Ⅲ-74> 초등학생 자녀 유무

(단위 : N=1,013, 명(%))

구 분	있음	없음
N(%)	111(11.0)	902(89.0)

(가) 방과후 초등학생 자녀 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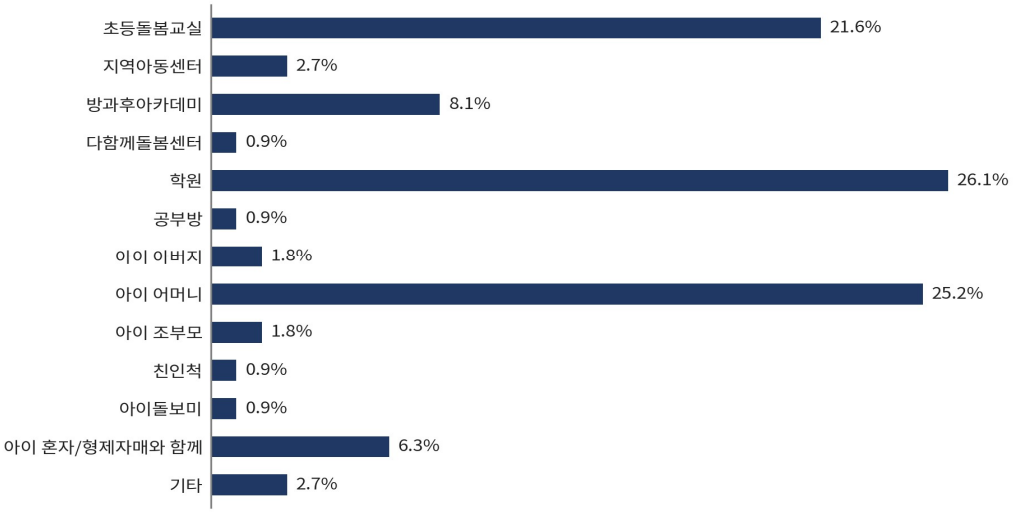
○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조사대상자(111명)를 대상으로 방과후 낮시간 동안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기관)을 알아본 결과, '아이 부모'가 30명(27.0%)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원' 29명(26.1%), '초등돌봄교실' 24명(21.6%), '방과후아카데미' 9명(8.1%), '아이 혼자/형제자매와 함께' 7명(6.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75> 방과후 초등학생 자녀 돌봄

(단위 : N=111, 명(%))

구 분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학원	공부방
N(%)	24(21.6)	3(2.7)	9(8.1)	1(0.9)	29(26.1)	1(0.9)
구 분	아이 부모	아이 조부모	친인척	아이돌보미	아이 혼자/형제자매와 함께	기타
N(%)	30(27.0)	2(1.8)	1(0.9)	1(0.9)	7(6.3)	3(2.7)

(단위: N=111, %)



[그림 Ⅲ-36] 방과후 초등학생 자녀 돌봄

(나) 방과후 자녀 혼자 있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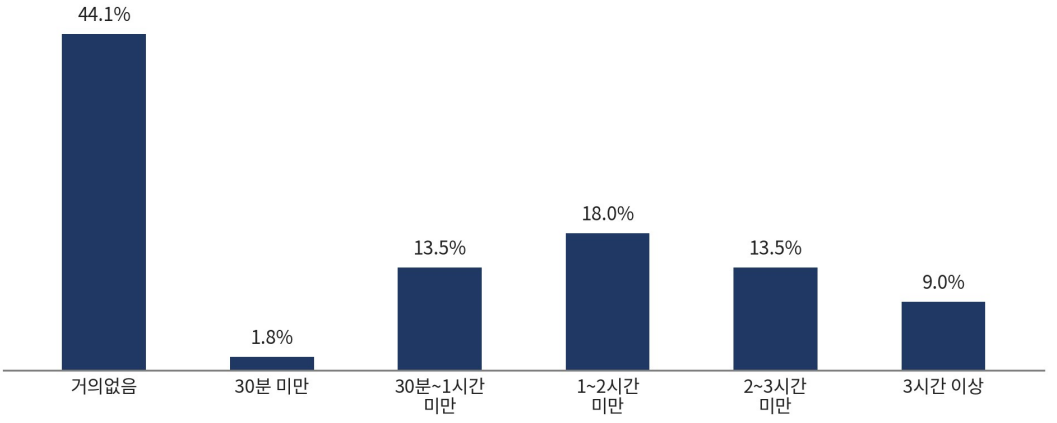
❍ 초등학생 자녀가 방과후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지내는 시간은 '거의 없음'이 49명(44.1%)으로 가장 많았으며, '1~2시간 미만' 20명(18.0%), '30분~1시간 미만'과 '2~3시간 미만' 각 15명(13.5%), '3시간 이상' 10명(9.0%), '30분 미만' 2명(1.8%)의 순으로 나타남. 하루 1시간 이상 혼자 지내는 경우도 40.5%였음

<표 Ⅲ-76> 방과후 자녀 혼자 있는 시간

(단위 : N=111, 명(%))

구 분	거의없음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N(%)	49(44.1)	2(1.8)	15(13.5)	20(18.0)	15(13.5)	10(9.0)

(단위: N=111, %)



[그림 Ⅲ-37] 방과후 자녀 혼자 있는 시간

(다) 초등학생 자녀돌봄 서비스 필요 시간

○ 평일 중 초등학생 자녀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대를 중복응답으로 알아본 결과, '오후 4~5시'가 61명(55.0%)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후 5~6시' 54명(48.6%), '오후 3~4시' 51명(45.9%), '오후 6~7시' 36명(32.4%), '오후 2~3시' 27명(24.3%) 등의 순으로 나타나 방과후 오후 시간대에 돌봄 수요가 집중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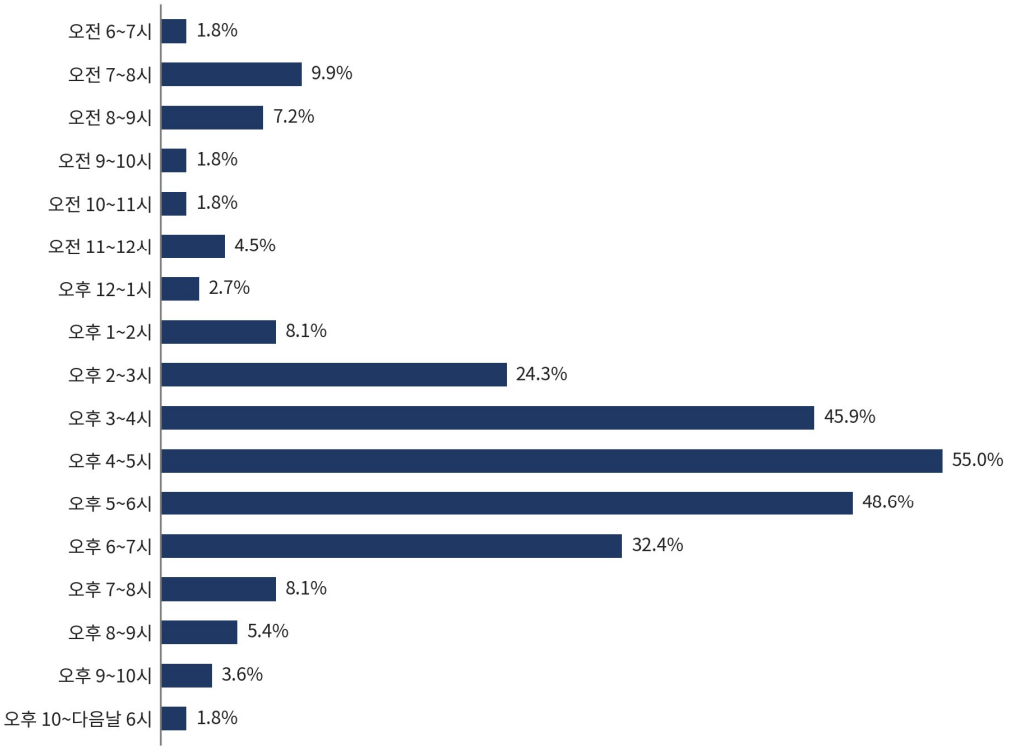
<표 Ⅲ-77> 평일 초등학생 자녀돌봄 서비스 필요 시간

(단위 : N=111, 명(%))

구 분	오전 6~7시	오전 7~8시	오전 8~9시	오전 9~10시	오전 10~11시	오전 11~12시
N(%)	2(1.8)	11(9.9)	8(7.2)	2(1.8)	2(1.8)	5(4.5)
구 분	오후 12~1시	오후 1~2시	오후 2~3시	오후 3~4시	오후 4~5시	오후 5~6시
N(%)	3(2.7)	9(8.1)	27(24.3)	51(45.9)	61(55.0)	54(48.6)
구 분	오후 6~7시	오후 7~8시	오후 8~9시	오후 9~10시	오후 10~다음날 6시	
N(%)	36(32.4)	9(8.1)	6(5.4)	4(3.6)	2(1.8)	

주 : 중복응답

(중복응답, 단위: N=111, %)



[그림 Ⅲ-38] 평일 초등학생 자녀돌봄 서비스 필요 시간

7) 가족생활

(1) 가사노동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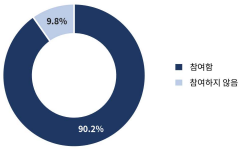
❍ 가사노동 참여 여부를 알아본 결과, '청소 및 정리'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937명(92.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 준비, 상차리기 및 식후 정리 등' 914명(90.2%), '음식물 및 재활용 쓰레기 처리' 893명(88.2%), '의류 손질 및 세탁' 837명(82.6%), '기타 가정관리' 818명(80.8%)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78> 가사노동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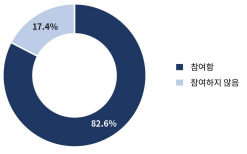
(단위 : N=1,013, 명(%))

구 분	가사노동에 참여함	가사노동에 참여하지 않음
1) 음식 준비, 상차리기 및 식후 정리 등	914(90.2)	99(9.8)
2) 의류 손질 및 세탁	837(82.6)	176(17.4)
3) 청소 및 정리	937(92.5)	76(7.5)
4) 음식물 및 재활용 쓰레기 처리	893(88.2)	120(11.8)
5) 기타 가정관리	818(80.8)	195(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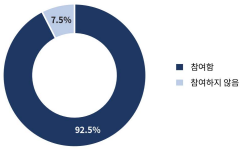
(단위: N=1,0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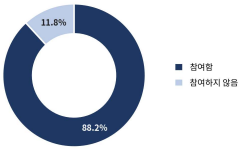
<음식준비, 상차리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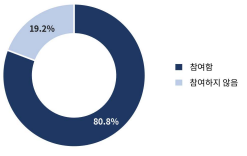
<의류손질 및 세탁>



<청소 및 정리>



<쓰레기 처리>



<기타 가정관리>

[그림 Ⅲ-39] 가사노동 참여

○ 가사노동 참여자의 주 평균 참여 횟수는 '음식 준비, 상차리기 및 식후 정리 등'이 7.11회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 및 정리' 4.05회, '의류 손질 및 세탁' 3.64회, '음식물 및 재활용 쓰레기 처리' 3.50회, '기타 가정관리' 2.81회의 순으로 나타남. 1회 평균 소요 시간은 '음식 준비, 상차리기 및 식후 정리 등'이 35.03분으로 가장 길었으며, '의류 손질 및 세탁' 31.69분, '청소 및 정리' 31.14분, '기타 가정관리' 24.93분, '음식물 및 재활용 쓰레기 처리' 14.70분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79> 주 평균 가사노동 참여 횟수 및 1회 평균 소요 시간

(단위 : N=1,013, 명, 회, 분))

구 분	주 평균 가사노동 참여 횟수		1회 평균 소요 시간	
	N	M	N	M
1) 음식 준비, 상차리기 및 식후 정리 등	914	7.11	914	35.03
2) 의류 손질 및 세탁	837	3.64	837	31.69
3) 청소 및 정리	937	4.05	937	31.14
4) 음식물 및 재활용 쓰레기 처리	893	3.50	893	14.70
5) 기타 가정관리	818	2.81	818	24.93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가사노동 참여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음식 준비, 상차리기 및 식후 정리 등)** 성별, 연령, 혼인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96.9%)이 남성(84.7%)보다 참여율이 높았고, 50대(94.8%)와 40대(93.2%)가 60대 이상(86.2%)과 30대(87.7%)보다 높았으며, 기타(97.2%)가 미혼(89.2%)과 기혼(89.5%)보다 높았음
- **(의류 손질 및 세탁)** 성별과 혼인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93.4%)이 남성(73.7%)보다 참여율이 높았으며, 기타(92.5%)가 기혼(80.6%)과 미혼(83.0%)보다 높았음
- **(청소 및 정리)** 성별,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96.5%)이 남성(89.2%)보다 참여율이 높았고, 기타(99.1%)가 기혼(91.4%)보다 높았으며, 북부권(87.0%)이 다른 권역(93.5~93.9%)보다 낮았음
- **(음식물 및 재활용 쓰레기 처리)** 혼인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타(96.3%)가 미혼(87.0%)과 기혼(87.3%)보다 참여율이 높았음

- **(기타 가정관리)** 연령과 혼인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50대(89.1%)와 40대(88.5%)가 20대(59.0%)와 30대(75.4%)보다 참여율이 높았으며, 기혼(85.9%)이 미혼(71.6%)보다 높았음

<표 Ⅲ-80>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 참여

(단위 : N=1,013, 명(%))

구 분		음식 준비, 상차리기 및 식후 정리 등				의류 손질 및 세탁				청소 및 정리			
		참여함		참여하지 않음		참여함		참여하지 않음		참여함		참여하지 않음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성(N=556)	471	84.7	85	15.3	410	73.7	146	26.3	496	89.2	60	10.8
	여성(N=457)	443	96.9	14	3.1	427	93.4	30	6.6	441	96.5	16	3.5
	χ^2	42.51***				67.77***				19.21***			
연령	20대(N=134)	121	90.3	13	9.7	106	79.1	28	20.9	128	95.5	6	4.5
	30대(N=138)	121	87.7	17	12.3	121	87.7	17	12.3	124	89.9	14	10.1
	40대(N=192)	179	93.2	13	6.8	162	84.4	30	15.6	173	90.1	19	9.9
	50대(N=230)	218	94.8	12	5.2	195	84.8	35	15.2	218	94.8	12	5.2
	60대 이상(N=319)	275	86.2	44	13.8	253	79.3	66	20.7	294	92.2	25	7.8
	χ^2	14.24**				7.21				6.52			
혼인 상태	미혼(N=324)	289	89.2	35	10.8	269	83.0	55	17.0	299	92.3	25	7.7
	기혼(N=582)	521	89.5	61	10.5	469	80.6	113	19.4	532	91.4	50	8.6
	기타(N=107)	104	97.2	3	2.8	99	92.5	8	7.5	106	99.1	1	0.9
	χ^2	6.61*				9.03*				7.67*			
거주 권역	동부권(N=246)	228	92.7	18	7.3	207	84.1	39	15.9	230	93.5	16	6.5
	서부권(N=280)	252	90.0	28	10.0	237	84.6	43	15.4	263	93.9	17	6.1
	남부권(N=294)	266	90.5	28	9.5	241	82.0	53	18.0	276	93.9	18	6.1
	북부권(N=193)	168	87.0	25	13.0	152	78.8	41	21.2	168	87.0	25	13.0
	χ^2	3.93				3.29				10.25*			

*p<.05 **p<.01 ***p<.001

<표 Ⅲ-80 계속>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 참여

(단위 : N=1,013, 명(%))

구 분		음식물 및 재활용 쓰레기 처리				기타 가정관리			
		참여함		참여하지 않음		참여함		참여하지 않음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성(N=556)	489	87.9	67	12.1	440	79.1	116	20.9
	여성(N=457)	404	88.4	53	11.6	378	82.7	79	17.3
	χ^2	0.05				2.06			
연령	20대(N=134)	115	85.8	19	14.2	79	59.0	55	41.0
	30대(N=138)	116	84.1	22	15.9	104	75.4	34	24.6
	40대(N=192)	171	89.1	21	10.9	170	88.5	22	11.5
	50대(N=230)	212	92.2	18	7.8	205	89.1	25	10.9
	60대 이상(N=319)	279	87.5	40	12.5	260	81.5	59	18.5
	χ^2	6.77				61.53***			
혼인 상태	미혼(N=324)	282	87.0	42	13.0	232	71.6	92	28.4
	기혼(N=582)	508	87.3	74	12.7	500	85.9	82	14.1
	기타(N=107)	103	96.3	4	3.7	86	80.4	21	19.6
	χ^2	7.54*				27.41***			
거주 권역	동부권(N=246)	218	88.6	28	11.4	207	84.1	39	15.9
	서부권(N=280)	254	90.7	26	9.3	224	80.0	56	20.0
	남부권(N=294)	258	87.8	36	12.2	228	77.6	66	22.4
	북부권(N=193)	163	84.5	30	15.5	159	82.4	34	17.6
	χ^2	4.38				4.19			

*p<.05 **p<.01 ***p<.001

(2) 함께하는 식사 및 대화

○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빈도는 '매일 1끼 이상'이 429명(42.3%)으로 가장 많았으며, '1주일에 2~3회' 177명(17.5%), '거의 하지 않음' 172명(17.0%), '매끼'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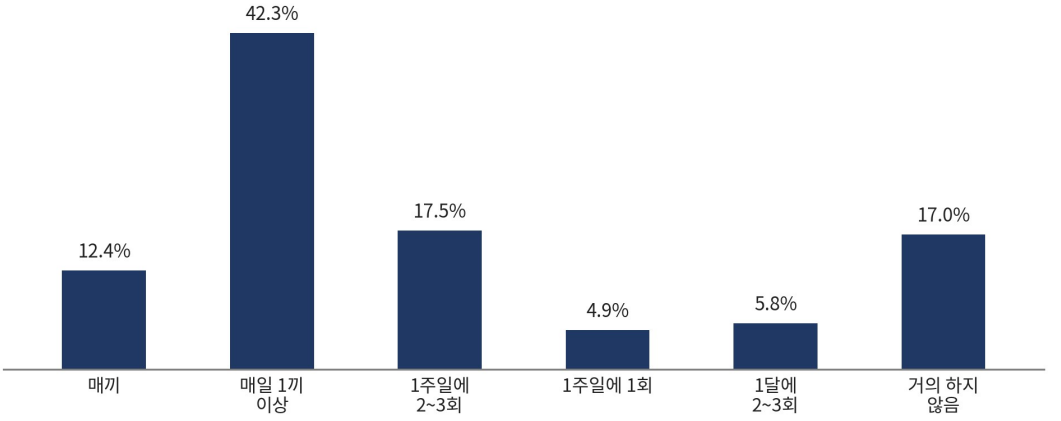
명(12.4%), '1달에 2~3회' 59명(5.8%), '1주일에 1회' 50명(4.9%)의 순으로 나타남. 매일 1끼 이상 가족과 식사하는 경우는 54.7%였음

<표 Ⅲ-81> 가족과의 식사 빈도

(단위 : N=1,013, 명(%))

구 분	매끼	매일 1끼 이상	1주일에 2~3회	1주일에 1회	1달에 2~3회	거의 하지 않음
N(%)	126(12.4)	429(42.3)	177(17.5)	50(4.9)	59(5.8)	172(17.0)

(단위: N=1,013, %)



[그림 Ⅲ-40] 가족과의 식사 빈도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가족과의 식사 빈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거주권역과 혼인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혼인상태)** 기혼은 '매일 1끼 이상'(52.6%)과 '매끼'(15.6%)를 합해 68.2%가 매일 가족과 식사하는 반면, '거의 하지 않음'은 4.6%에 그쳤음. 미혼은 '거의 하지 않음'이 31.2%였으며, 기타는 '거의 하지 않음'(41.1%)이 가장 많고 매일 식사하는 비율(22.5%)은 가장 낮아, 혼인 해체 가구의 가족 간 교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거주권역)** 북부권은 '매일 1끼 이상'(47.7%)과 '매끼'(16.1%)의 비율이 다른 권역보다 높아, 매일 가족과 식사하는 비율이 63.8%로 가장 높았음. 반면 남부권은 '거의 하지 않음'(21.1%)이 다른 권역(14.6~16.1%)보다 많았고 '매일 1끼 이상'(35.4%)은 가장 적었음

<표 Ⅲ-8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과의 식사 빈도

(단위 : N=1,013, 명(%))

구 분		매끼	매일 1끼 이상	1주일에 2~3회	1주일에 1회	1달에 2~3회	거의 하지 않음	χ2
성별	남성(N=556)	70(12.6)	229(41.2)	108(19.4)	31(5.6)	28(5.0)	90(16.2)	5.89
	여성(N=457)	56(12.3)	200(43.8)	69(15.1)	19(4.2)	31(6.8)	82(17.9)	
연령	20대(N=134)	15(11.2)	56(41.8)	21(15.7)	4(3.0)	12(9.0)	26(19.4)	29.99
	30대(N=138)	15(10.9)	57(41.3)	27(19.6)	6(4.3)	6(4.3)	27(19.6)	
	40대(N=192)	20(10.4)	92(47.9)	29(15.1)	8(4.2)	10(5.2)	33(17.2)	
	50대(N=230)	18(7.8)	92(40.0)	50(21.7)	18(7.8)	15(6.5)	37(16.1)	
	60대 이상(N=319)	58(18.2)	132(41.4)	50(15.7)	14(4.4)	16(5.0)	49(15.4)	
혼인 상태	미혼(N=324)	30(9.3)	104(32.1)	44(13.6)	16(4.9)	29(9.0)	101(31.2)	223.19***
	기혼(N=582)	91(15.6)	306(52.6)	119(20.4)	26(4.5)	13(2.2)	27(4.6)	
	기타(N=107)	5(4.7)	19(17.8)	14(13.1)	8(7.5)	17(15.9)	44(41.1)	
거주 권역	동부권(N=246)	33(13.4)	110(44.7)	42(17.1)	13(5.3)	10(4.1)	38(15.4)	31.48**
	서부권(N=280)	22(7.9)	123(43.9)	61(21.8)	18(6.4)	15(5.4)	41(14.6)	
	남부권(N=294)	40(13.6)	104(35.4)	54(18.4)	14(4.8)	20(6.8)	62(21.1)	
	북부권(N=193)	31(16.1)	92(47.7)	20(10.4)	5(2.6)	14(7.3)	31(16.1)	

*p<.05 **p<.01 ***p<.001

❍ 가족과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은 '30분~1시간 미만'이 306명(30.2%)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분 미만' 237명(23.4%), '1~2시간 미만' 190명(18.8%), '거의 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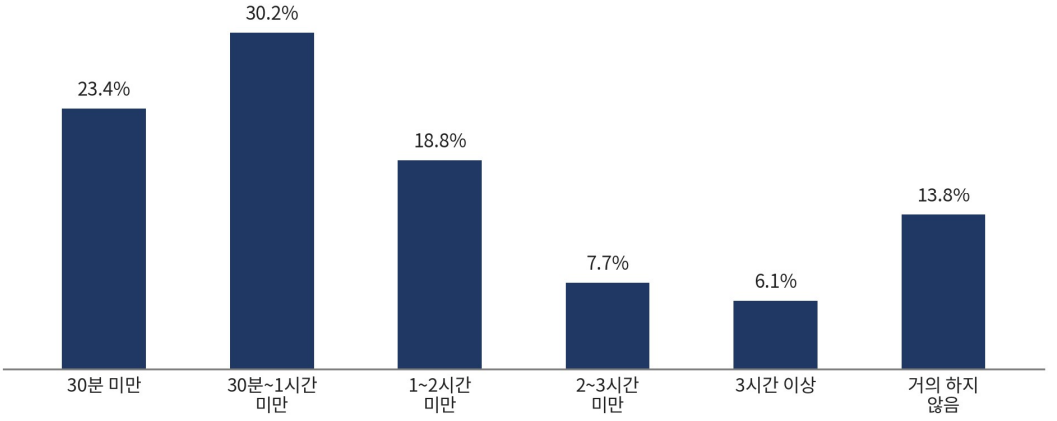
않음' 140명(13.8%), '2~3시간 미만' 78명(7.7%), '3시간 이상' 62명(6.1%)의 순으로 나타남. 하루 대화 시간이 1시간 미만(거의 하지 않음 포함)인 경우가 67.4%였음

<표 Ⅲ-83> 가족과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

(단위 : N=1,013, 명(%))

구 분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거의 하지 않음
N(%)	237(23.4)	306(30.2)	190(18.8)	78(7.7)	62(6.1)	140(13.8)

(단위: N=1,013, %)



[그림 Ⅲ-41] 가족과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가족과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 20대는 하루 2시간 이상 대화한다는 응답이 24.6%로 다른 연령대보다 많았으며, 30대는 '1~2시간 미만'(25.4%)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은 '30분 미만'(27.0%, 29.5%)과 '30분~1시간 미만'(30.9%, 31.7%)이 많았고, 60대 이상은 '거의 하지 않음'(16.6%)도 상대적으로 많아 연령이 높을수

록 가족 간 대화 시간이 짧은 경향을 보였음

- **(혼인상태)** 기혼은 하루 1시간 이상 대화한다는 응답이 38.6%로 많았으며, '거의 하지 않음'은 4.1%에 그쳤음. 반면 미혼은 '거의 하지 않음'이 22.5%였으며, 기타는 '거의 하지 않음'(40.2%)과 '30분 미만'(29.9%)을 합해 70.1%로 가족 간 대화가 매우 적었음
- **(거주권역)** 남부권은 '30분 미만'(27.6%)과 '거의 하지 않음'(17.3%)이 다른 권역보다 많았던 반면, 동부권은 '30분~1시간 미만'(35.0%)과 '1~2시간 미만'(21.5%)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표 Ⅲ-8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과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

(단위 : N=1,013, 명(%))

구 분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거의 하지 않음	χ2
성별	남성(N=556)	135(24.3)	182(32.7)	101(18.2)	37(6.7)	25(4.5)	76(13.7)	10.33
	여성(N=457)	102(22.3)	124(27.1)	89(19.5)	41(9.0)	37(8.1)	64(14.0)	
연령	20대(N=134)	26(19.4)	40(29.9)	24(17.9)	14(10.4)	19(14.2)	11(8.2)	62.98**
	30대(N=138)	21(15.2)	35(25.4)	35(25.4)	17(12.3)	12(8.7)	18(13.0)	
	40대(N=192)	34(17.7)	59(30.7)	46(24.0)	19(9.9)	10(5.2)	24(12.5)	
	50대(N=230)	62(27.0)	71(30.9)	39(17.0)	15(6.5)	9(3.9)	34(14.8)	
	60대 이상(N=319)	94(29.5)	101(31.7)	46(14.4)	13(4.1)	12(3.8)	53(16.6)	
혼인상태	미혼(N=324)	76(23.5)	82(25.3)	52(16.0)	18(5.6)	23(7.1)	73(22.5)	151.67***
	기혼(N=582)	129(22.2)	205(35.2)	129(22.2)	58(10.0)	37(6.4)	24(4.1)	
	기타(N=107)	32(29.9)	19(17.8)	9(8.4)	2(1.9)	2(1.9)	43(40.2)	
거주권역	동부권(N=246)	49(19.9)	86(35.0)	53(21.5)	19(7.7)	10(4.1)	29(11.8)	25.87*
	서부권(N=280)	56(20.0)	95(33.9)	53(18.9)	26(9.3)	19(6.8)	31(11.1)	
	남부권(N=294)	81(27.6)	69(23.5)	56(19.0)	17(5.8)	20(6.8)	51(17.3)	
	북부권(N=193)	51(26.4)	56(29.0)	28(14.5)	16(8.3)	13(6.7)	29(15.0)	

*p<.05 **p<.01 ***p<.001

(3) 가족여가활동

(가) 가족여가활동 여부

○ 최근 6개월 동안 가족과의 여가활동 여부를 알아본 결과 최근 6개월 동안 가족과 여가활동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638명(63.0%), '없다'는 응답은 375명(37.0%)으로 나타남

<표 Ⅲ-85> 가족여가활동 여부

(단위 : N=1,013, 명(%))

구 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N(%)	638(63.0)	375(37.0)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가족과의 여가활동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혼인상태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Ⅲ-86>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여가활동 여부

(단위 : N=1,013, 명(%))

구 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χ^2
		빈도	%	빈도	%	
성별	남성(N=556)	342	61.5	214	38.5	1.14
	여성(N=457)	296	64.8	161	35.2	
연령	20대(N=134)	85	63.4	49	36.6	1.91
	30대(N=138)	85	61.6	53	38.4	
	40대(N=192)	128	66.7	64	33.3	
	50대(N=230)	146	63.5	84	36.5	
	60대 이상(N=319)	194	60.8	125	39.2	
혼인 상태	미혼(N=324)	166	51.2	158	48.8	80.81***
	기혼(N=582)	432	74.2	150	25.8	
	기타(N=107)	40	37.4	67	62.6	
거주 권역	동부권(N=246)	164	66.7	82	33.3	6.50
	서부권(N=280)	186	66.4	94	33.6	
	남부권(N=294)	170	57.8	124	42.2	
	북부권(N=193)	118	61.1	75	38.9	

*p<.05 **p<.01 ***p<.001

- **(혼인상태)** 기혼(74.2%)은 가족여가활동을 한 비율이 미혼(51.2%)과 기타(37.4%)보다 높았음

(나) 가장 자주한 가족여가활동

○ 최근 6개월 동안 가족과 가장 자주한 여가활동(순위별 가중치)은 평일의 경우 'TV/모바일 콘텐츠 시청'이 34.4%로 가장 높았으며, '외식' 11.4%, '산책' 11.3%, '여행' 9.5%, '문화예술/스포츠 경기 관람' 9.2%, '쇼핑' 9.0%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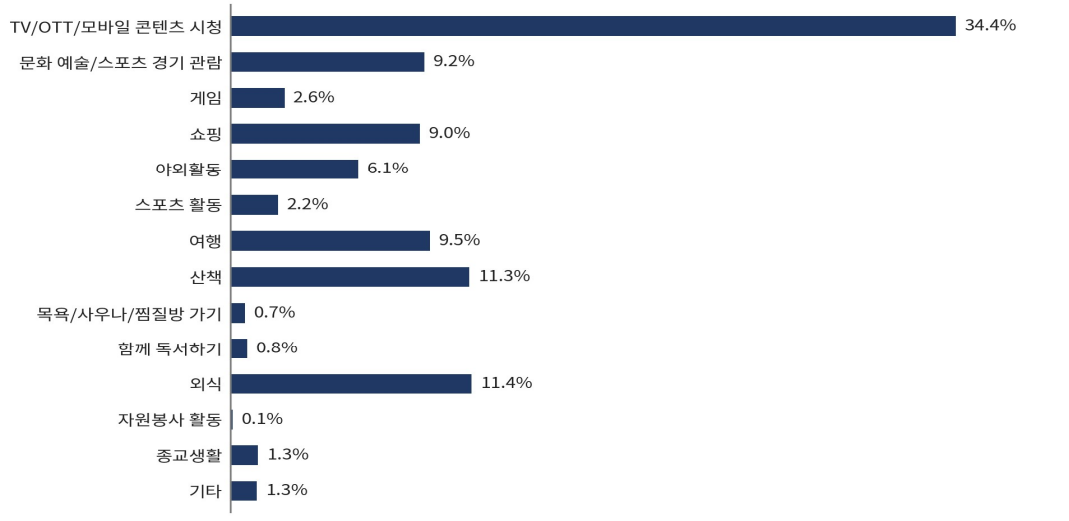
<표 Ⅲ-87> 평일 가족여가활동

(단위 : N=638, %)

구분	TV/모바일 콘텐츠 시청	문화 예술/스포츠 경기 관람	게임	쇼핑	야외 활동	스포츠 활동	여행	산책	목욕/사우나/찜질방	함께 독서하기	외식	자원봉사 활동	종교생활	기타
%	34.4	9.2	2.6	9.0	6.1	2.2	9.5	11.3	0.7	0.8	11.4	0.1	1.3	1.3

주 : 순위별 가중치

(순위별 가중치 적용, 단위: N=638, %)



[그림 Ⅲ-42] 평일 가족여가활동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른 평일 가족여가활동(순위별 가중치)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집단에서 'TV/모바일 콘텐츠 시청'(30.5~39.2%)이 가장 높았으나, 그 밖의 여가활동에서는 집단별로 차이가 나타났음

<표 Ⅲ-88>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평일 가족여가활동

(단위 : N=638, %)

구 분		TV/모바일 콘텐츠 시청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게임	쇼핑	야외활동	스포츠 활동	여행	산책	목욕/사우나/찜질방	함께 독서하기	외식	자원봉사 활동	종교생활	기타
전체(N=638)		34.4	9.2	2.6	9.0	6.1	2.2	9.5	11.3	0.7	0.8	11.4	0.1	1.3	1.3
성별	남성(N=342)	34.7	8.6	3.7	8.7	7.5	3.1	10.3	9.8	0.4	0.4	10.7	-	1.2	0.9
	여성(N=296)	34.1	9.9	1.2	9.3	4.4	1.2	8.4	13.1	1.0	1.2	12.3	0.2	1.5	1.7
연령	20대(N=85)	39.2	9.8	7.5	5.9	5.1	0.8	9.4	8.6	-	-	12.5	-	0.4	0.8
	30대(N=85)	38.0	7.8	2.4	5.5	7.5	2.4	5.5	12.2	-	1.2	16.1	-	-	1.6
	40대(N=128)	33.3	8.1	4.4	9.1	7.8	0.8	9.1	10.9	0.5	2.3	11.5	-	1.0	1.0
	50대(N=146)	31.7	11.9	1.6	8.7	5.9	3.0	12.1	8.0	0.7	0.7	12.6	-	2.1	1.1
	60대 이상(N=194)	33.5	8.2	-	12.0	4.8	3.3	9.5	14.9	1.4	-	8.1	0.3	1.9	1.5
혼인상태	미혼(N=166)	36.1	8.6	5.0	8.0	5.0	0.6	7.8	8.8	0.8	-	17.5	-	0.6	1.0
	기혼(N=432)	33.6	9.5	1.9	9.3	6.6	2.9	10.0	12.8	0.7	1.1	8.7	-	1.7	1.3
	기타(N=40)	36.7	8.3	-	10.0	5.0	1.7	10.0	5.8	-	0.8	15.8	1.7	-	1.7
거주권역	동부권(N=164)	38.8	8.7	2.6	6.9	4.9	2.8	8.7	11.4	1.2	0.2	10.6	-	1.4	1.6
	서부권(N=186)	30.5	8.2	2.7	10.6	7.5	2.2	10.2	11.3	0.4	0.9	13.3	-	1.4	0.9
	남부권(N=170)	33.7	12.9	1.8	11.4	4.7	1.0	8.6	10.8	0.6	0.2	11.8	0.4	1.2	1.0
	북부권(N=118)	35.6	5.9	3.4	5.9	7.3	3.4	10.5	12.1	0.6	2.3	9.3	-	1.1	1.7

주 : 순위별 가중치

- **(성별)** 남성은 '야외활동'(7.5%), '여행'(10.3%), '게임'(3.7%)이 여성(4.4%, 8.4%, 1.2%)보다 높았던 반면, 여성은 '산책'(13.1%)과 '외식'(12.3%)이 남성(9.8%, 10.7%)보다 높았음
- **(연령)** 20대는 'TV/모바일 콘텐츠 시청'(39.2%)과 '게임'(7.5%)이 다른 연령대보

다 높았으며, 30대는 '외식'(16.1%)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50대는 '문화예술/스포츠 관람'(11.9%)과 '여행'(12.1%)이, 60대 이상은 '산책'(14.9%)과 '쇼핑'(12.0%)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혼인상태)** 미혼은 '외식'(17.5%)과 '게임'(5.0%)이 기혼(8.7%, 1.9%)보다 높았던 반면, 기혼은 '산책'(12.8%)과 '여행'(10.0%)이 미혼(8.8%, 7.8%)보다 높았음
- **(거주권역)** 동부권은 'TV/모바일 콘텐츠 시청'(38.8%)이 다른 권역보다 높았으며, 남부권은 '문화예술/스포츠 관람'(12.9%)과 '쇼핑'(11.4%)이, 서부권은 '외식'(13.3%)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북부권은 '산책'(12.1%)과 '여행'(10.5%)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문화예술/스포츠 관람'(5.9%)은 가장 낮았음

❍ 주말의 경우에도 'TV/모바일 콘텐츠 시청'이 24.1%로 가장 높았으나 평일보다 낮았으며, '외식' 15.4%, '산책' 11.4%, '여행' 10.4%, '야외활동' 9.1%, '쇼핑' 8.9% 등의 순으로 나타나 평일에 비해 외식과 야외활동의 비중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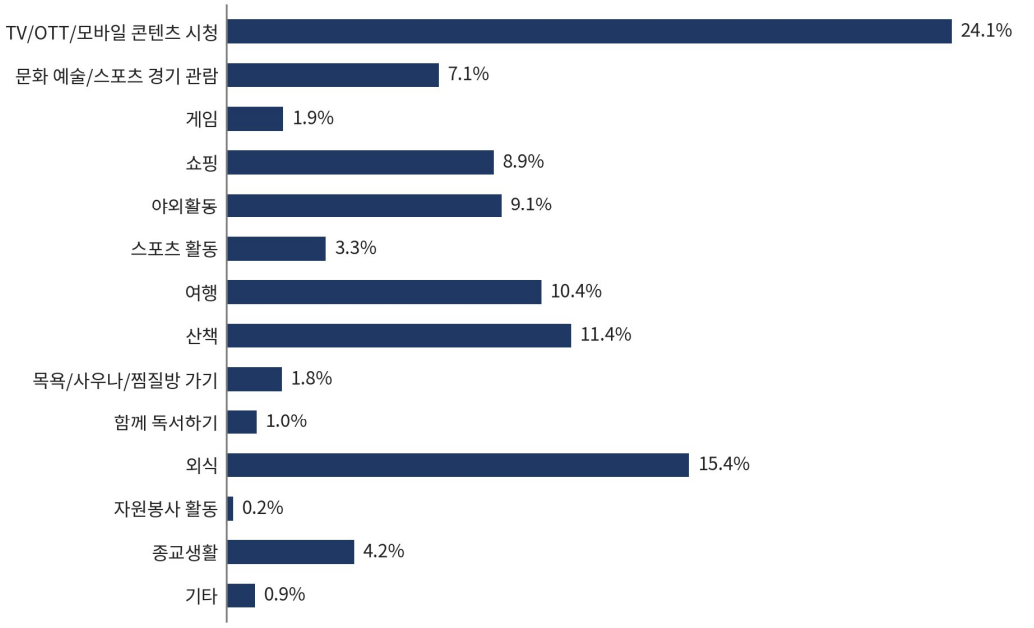
<표 Ⅲ-89> 주말 가족여가활동

(단위 : N=638, %)

구분	TV/모바일 콘텐츠 시청	문화예술/스포츠 경기 관람	게임	쇼핑	야외활동	스포츠 활동	여행	산책	목욕/사우나/찜질방	함께 독서하기	외식	자원봉사 활동	종교생활	기타
%	24.1	7.1	1.9	8.9	9.1	3.3	10.4	11.4	1.8	1.0	15.4	0.2	4.2	0.9

주 : 순위별 가중치

(순위별 가중치 적용, 단위: N=638, %)



[그림 Ⅲ-43] 주말 가족여가활동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른 주말 가족여가활동(순위별 가중치)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집단에서 'TV/모바일 콘텐츠 시청'(20.3~34.2%)이 가장 높았으며, 평일에 비해 '외식'(13.6~19.7%)과 '야외활동'의 비중이 높아져 집단별로 다양한 여가활동이 나타났음

- **(성별)** 남성은 '야외활동'(10.6%)과 '스포츠 활동'(4.4%)이 여성(7.4%, 2.0%)보다 높았던 반면, 여성은 '외식'(16.4%), '산책'(12.4%), '여행'(11.5%), '종교생활'(5.4%)이 남성(14.4%, 10.6%, 9.6%, 3.2%)보다 높았음
- **(연령)** 20대는 'TV/모바일 콘텐츠 시청'(28.2%)과 '외식'(18.8%)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으며, 30대와 40대는 '야외활동'(12.9%, 12.8%)이, 30대는 '여행'(12.2%)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50대는 '외식'(16.7%)과 '종교생활'(6.6%)이, 60대 이상은 '산책'(17.4%)과 '쇼핑'(10.3%)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혼인상태)** 미혼은 '외식'(19.7%)과 '게임'(4.0%)이 기혼(13.6%, 1.2%)보다 높았던 반면, 기혼은 '산책'(12.7%), '여행'(11.0%), '야외활동'(9.6%)이 미혼(9.2%,

9.2%, 8.0%)보다 높았음

- **(거주권역)** 남부권은 'TV/모바일 콘텐츠 시청'(26.9%)과 '쇼핑'(12.4%)이, 동부권은 '산책'(13.4%)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북부권은 '외식'(17.2%)과 '야외활동'(10.7%)이, 서부권은 '여행'(11.8%)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Ⅲ-90>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말 가족여가활동

(단위 : N=638, %)

구 분		TV/모바일 콘텐츠 시청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게임	쇼핑	야외활동	스포츠 활동	여행	산책	목욕/사우나/찜질방	함께 독서하기	외식	자원봉사 활동	종교생활	기타
전체(N=638)		24.1	7.1	1.9	8.9	9.1	3.3	10.4	11.4	1.8	1.0	15.4	0.2	4.2	0.9
성별	남성(N=342)	24.1	7.8	2.4	8.9	10.6	4.4	9.6	10.6	1.8	0.9	14.4	-	3.2	1.0
	여성(N=296)	24.1	6.2	1.2	8.9	7.4	2.0	11.5	12.4	1.9	1.1	16.4	0.5	5.4	0.9
연령	20대(N=85)	28.2	9.0	3.9	4.7	9.4	2.7	11.4	7.5	3.1	0.4	18.8	-	-	0.8
	30대(N=85)	27.8	8.2	2.0	8.6	12.9	1.6	12.2	8.6	0.4	1.2	14.5	-	1.2	0.8
	40대(N=128)	20.3	8.3	2.9	8.6	12.8	3.4	10.4	9.9	2.3	2.9	14.6	0.3	3.1	0.3
	50대(N=146)	21.0	7.8	1.8	9.8	8.9	4.6	10.0	8.9	1.8	0.9	16.7	0.7	6.6	0.5
	60대 이상(N=194)	25.4	4.3	0.3	10.3	5.2	3.3	9.6	17.4	1.5	-	13.7	-	6.4	1.9
혼인상태	미혼(N=166)	25.3	7.8	4.0	7.6	8.0	2.6	9.2	9.2	2.8	1.0	19.7	-	1.6	1.0
	기혼(N=432)	22.7	6.8	1.2	9.4	9.6	3.9	11.0	12.7	1.5	1.1	13.6	0.3	4.9	0.9
	기타(N=40)	34.2	6.7	-	8.3	8.3	-	9.2	7.5	0.8	-	16.7	-	7.5	0.8
거주권역	동부권(N=164)	25.4	6.1	1.8	6.1	9.3	3.5	10.4	13.4	2.2	0.8	15.0	0.6	4.9	0.4
	서부권(N=186)	21.9	7.5	2.9	9.7	9.9	3.4	11.8	10.0	1.6	1.1	15.2	-	4.1	0.9
	남부권(N=170)	26.9	8.0	1.4	12.4	7.1	2.9	8.4	10.8	1.8	0.4	14.5	0.2	4.7	0.6
	북부권(N=118)	21.8	6.2	1.1	6.5	10.7	3.4	11.3	11.9	1.7	2.0	17.2	-	2.8	2.3

주 : 순위별 가중치

(다) 가족여가활동을 하기 어려운 이유

○ 가족여가활동을 하지 않은 조사대상자(375명)를 대상으로 가족이 함께 여가를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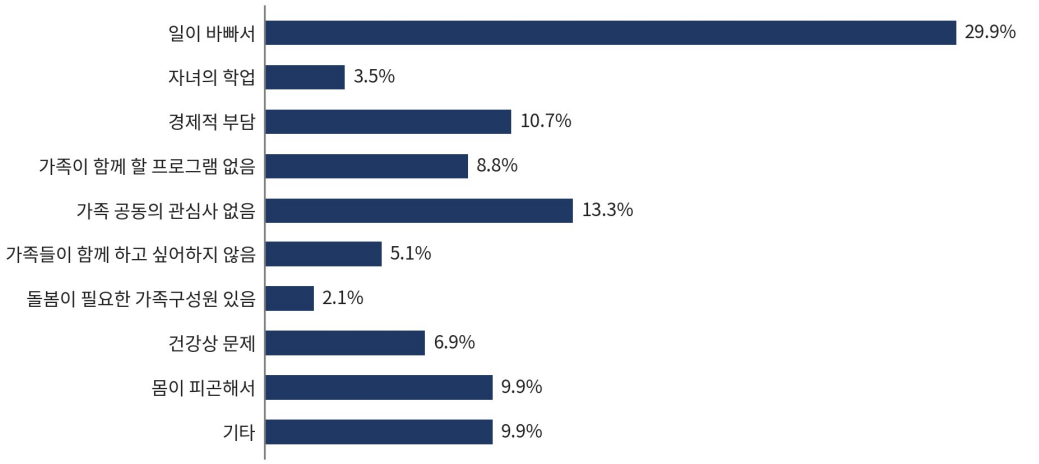
내기 어려운 이유를 알아본 결과, '일이 바빠서'가 112명(29.9%)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 공동의 관심사 없음' 50명(13.3%), '경제적 부담' 40명(10.7%), '몸이 피곤해서'와 '기타' 각 37명(9.9%), '가족이 함께 할 프로그램 없음' 33명(8.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91> 가족여가활동 제약 요인

(단위 : N=375, 명(%))

구 분	일이 바빠서	자녀의 학업	경제적 부담	가족이 함께 할 프로그램 없음	가족 공동의 관심사 없음	가족들이 함께 하고 싶어하지 않음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 있음	건강상 문제	몸이 피곤해서	기타
N(%)	112(29.9)	13(3.5)	40(10.7)	33(8.8)	50(13.3)	19(5.1)	8(2.1)	26(6.9)	37(9.9)	37(9.9)

(단위: N=375, %)



[그림 Ⅲ-44] 가족여가활동 제약 요인

❍ 가족 동반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가족여가활동 제약 요인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집단에서 '일이 바빠서'가 가장 많았으나, 그 밖의 제약 요인은 집단별로 차이가 있었음. 다만 일부 특성에서 기대빈도 5 미만인 셀이 20%를 초과하여 χ^2 검정 결과는 제시하지 않았음

<표 Ⅲ-9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여가활동 제약 요인

(단위 : N=375, 명(%))

구 분		일이 바빠서	자녀의 학업	경제적 부담	가족이 함께 할 프로그램 없음	가족 공동의 관심사 없음	가족들이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음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 있음	건강상 문제	몸이 피곤해서	기타
성별	남성(N=214)	72(33.6)	8(3.7)	21(9.8)	19(8.9)	32(15.0)	12(5.6)	3(1.4)	11(5.1)	19(8.9)	17(7.9)
	여성(N=161)	40(24.8)	5(3.1)	19(11.8)	14(8.7)	18(11.2)	7(4.3)	5(3.1)	15(9.3)	18(11.2)	20(12.4)
연령	20대(N=49)	23(46.9)	-	5(10.2)	2(4.1)	5(10.2)	4(8.2)	1(2.0)	1(2.0)	4(8.2)	4(8.2)
	30대(N=53)	21(39.6)	-	3(5.7)	3(5.7)	8(15.1)	4(7.5)	-	1(1.9)	10(18.9)	3(5.7)
	40대(N=64)	13(20.3)	3(4.7)	15(23.4)	-	9(14.1)	3(4.7)	1(1.6)	5(7.8)	11(17.2)	4(6.2)
	50대(N=84)	19(22.6)	8(9.5)	10(11.9)	9(10.7)	13(15.5)	3(3.6)	1(1.2)	6(7.1)	5(6.0)	10(11.9)
	60대 이상(N=125)	36(28.8)	2(1.6)	7(5.6)	19(15.2)	15(12.0)	5(4.0)	5(4.0)	13(10.4)	7(5.6)	16(12.8)
혼인 상태	미혼(N=158)	53(33.5)	-	18(11.4)	6(3.8)	24(15.2)	10(6.3)	3(1.9)	8(5.1)	20(12.7)	16(10.1)
	기혼(N=150)	44(29.3)	10(6.7)	17(11.3)	20(13.3)	22(14.7)	5(3.3)	2(1.3)	10(6.7)	15(10.0)	5(3.3)
	기타(N=67)	15(22.4)	3(4.5)	5(7.5)	7(10.4)	4(6.0)	4(6.0)	3(4.5)	8(11.9)	2(3.0)	16(23.9)
거주 권역	동부권(N=82)	27(32.9)	2(2.4)	10(12.2)	10(12.2)	7(8.5)	5(6.1)	-	7(8.5)	10(12.2)	4(4.9)
	서부권(N=94)	30(31.9)	6(6.4)	8(8.5)	11(11.7)	16(17.0)	3(3.2)	-	7(7.4)	6(6.4)	7(7.4)
	남부권(N=124)	37(29.8)	2(1.6)	13(10.5)	7(5.6)	18(14.5)	9(7.3)	4(3.2)	7(5.6)	13(10.5)	14(11.3)
	북부권(N=75)	18(24.0)	3(4.0)	9(12.0)	5(6.7)	9(12.0)	2(2.7)	4(5.3)	5(6.7)	8(10.7)	12(16.0)

*p<.05 **p<.01 ***p<.001
주 : 일부 특성에서 기대빈도 5 미만 셀이 20%를 초과하여 χ^2 검정 결과는 제시하지 않음

- **(성별)** 남성은 '일이 바빠서'(33.6%)와 '가족 공동의 관심사 없음'(15.0%)이 여성(24.8%, 11.2%)보다 많았던 반면, 여성은 '건강상 문제'(9.3%), '몸이 피곤해서'**(11.2%),** '기타'(12.4%)가 남성(5.1%, 8.9%, 7.9%)보다 많았음
- **(연령)** 20대(46.9%)와 30대(39.6%)는 '일이 바빠서'가 많았으며, 30대와 40대는 '몸이 피곤해서'(18.9%, 17.2%)도 상대적으로 많았음. 40대는 '경제적 부담'(23.4%)이, 50대는 '자녀의 학업'(9.5%)이 다른 연령대보다 많았으며, 60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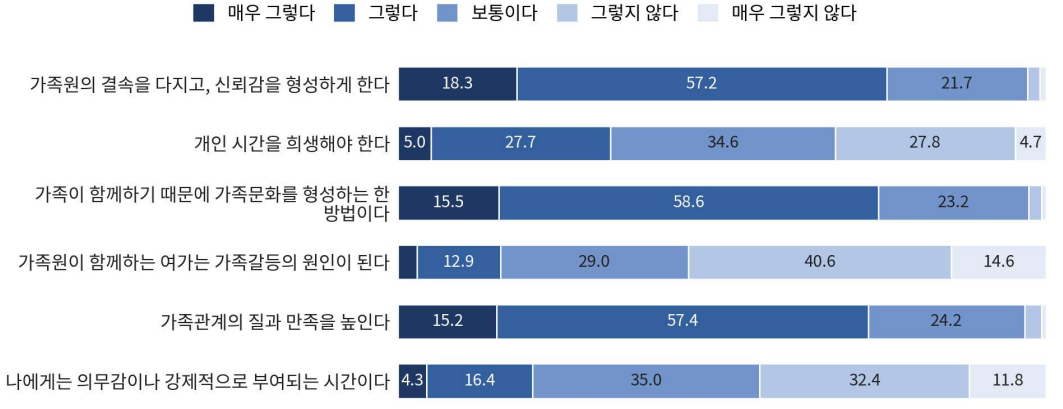
상은 '가족이 함께 할 프로그램 없음'(15.2%)과 '건강상 문제'(10.4%)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혼인상태)** 미혼은 '일이 바빠서'(33.5%)가 가장 많았으며, 기혼은 '가족이 함께 할 프로그램 없음'(13.3%)이 미혼(3.8%)보다 크게 많았음. 기타는 '기타'(23.9%)와 '건강상 문제'(11.9%)가 다른 집단보다 많았음
- **(거주권역)** 동부권은 '일이 바빠서'(32.9%)와 '가족이 함께 할 프로그램 없음'(12.2%)이, 서부권은 '가족 공동의 관심사 없음'(17.0%)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북부권은 '기타'(16.0%)와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 있음'(5.3%)이 다른 권역보다 많았음

(라) 가족여가활동의 의미

❍ 가족여가활동의 의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가족원의 결속을 다지고, 신뢰감을 형성하게 한다'(3.90점)가 가장 높았으며, '가족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족문화를 형성하는 한 방법이다'(3.86점), '가족관계의 질과 만족을 높인다'(3.84점), '개인 시간을 희생해야 한다'(3.00점), '나에게는 의무감이나 강제적으로 부여되는 시간이다'(2.69점), '가족원이 함께하는 여가는 가족갈등의 원인이 된다'(2.49점)의 순으로 나타나 가족여가활동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단위: N=1,013, %)



[그림 Ⅲ-45] 가족여가활동 의미

<표 Ⅲ-93> 가족여가활동 의미

(단위 : N=1,013, 점, 명(%))

구 분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족원의 결속을 다지고, 신뢰감을 형성하게 한다	3.90	10(1.0)	19(1.9)	220(21.7)	579(57.2)	185(18.3)
2) 개인 시간을 희생해야 한다	3.00	48(4.7)	282(27.8)	351(34.6)	281(27.7)	51(5.0)
3) 가족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족문화를 형성하는 한 방법이다	3.86	7(0.7)	20(2.0)	235(23.2)	594(58.6)	157(15.5)
4) 가족원이 함께하는 여가는 가족갈등의 원인이 된다	2.49	148(14.6)	411(40.6)	294(29.0)	131(12.9)	29(2.9)
5) 가족관계의 질과 만족을 높인다	3.84	7(0.7)	26(2.6)	245(24.2)	581(57.4)	154(15.2)
6) 나에게는 의무감이나 강제적으로 부여되는 시간이다	2.69	120(11.8)	328(32.4)	355(35.0)	166(16.4)	44(4.3)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가족여가활동의 의미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 및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Ⅲ-94〉와 같음

- **(가족원의 결속을 다지고, 신뢰감을 형성하게 한다)** 혼인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혼(3.96점)이 미혼(3.79점)보다 높았음
- **(개인 시간을 희생해야 한다)** 연령과 혼인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30대(3.24점)와 20대(3.20점)가 50대(2.93점)와 60대 이상(2.87점)보다 높았으며, 미혼(3.16점)과 기타(3.10점)가 기혼(2.90점)보다 높았음
- **(가족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족문화를 형성하는 한 방법이다)** 혼인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미혼(3.76점)이 기타(3.85점)보다 낮았음
- **(가족원이 함께하는 여가는 가족갈등의 원인이 된다)** 연령과 혼인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대(2.85점)와 30대(2.82점)가 40대(2.47점)와 50대(2.48점)보다, 40~50대가 60대 이상(2.21점)보다 높았으며, 미혼(2.78점)이 기혼(2.34점)과 기타(2.42점)보다 높았음

- **(가족관계의 질과 만족을 높인다)** 혼인상태와 거주권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혼(3.91점)이 미혼(3.74점)과 기타(3.71점)보다 높았으며, 동부권(3.92점)과 서부권(3.88점)이 북부권(3.74점)보다 높았음
- **(나에게는 의무감이나 강제적으로 부여되는 시간이다)** 성별, 연령, 혼인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2.75점)이 여성(2.62점)보다 높았고, 20대(2.87점)와 30대(2.95점)가 50대(2.60점)와 60대 이상(2.53점)보다 높았으며, 미혼(2.90점)이 기혼(2.61점)과 기타(2.49점)보다 높았음

<표 Ⅲ-9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여가활동 의미

(단위 : N=1,013, 점)

구 분		가족원의 결속을 다지고, 신뢰감을 형성하게 한다		개인 시간을 희생해야 한다		가족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족문화를 형성하는 한 방법이다	
		M	SD	M	SD	M	SD
성별	남성(N=556)	3.88	0.78	3.04	0.98	3.88	0.74
	여성(N=457)	3.92	0.71	2.97	0.96	3.84	0.68
	t 값	-0.72		1.12		1.00	
연령	20대(N=134)	3.93	0.86	3.20bc	1.01	3.94	0.81
	30대(N=138)	3.79	0.88	3.24c	1.11	3.82	0.89
	40대(N=192)	3.90	0.69	3.02ab	0.91	3.79	0.65
	50대(N=230)	3.87	0.68	2.93a	0.95	3.87	0.64
	60대 이상(N=319)	3.95	0.71	2.87a	0.92	3.89	0.67
	F 값	1.27		5.42***		1.22	
혼인상태	미혼(N=324)	3.79a	0.84	3.16b	1.01	3.76a	0.82
	기혼(N=582)	3.96b	0.70	2.90a	0.96	3.92ab	0.64
	기타(N=107)	3.91ab	0.64	3.10b	0.86	3.85b	0.70
	F 값	5.29**		8.44***		5.52**	
거주권역	동부권(N=246)	3.96	0.77	3.02	0.98	3.90	0.73
	서부권(N=280)	3.95	0.73	3.02	1.01	3.91	0.68
	남부권(N=294)	3.85	0.75	3.02	0.95	3.83	0.73
	북부권(N=193)	3.82	0.71	2.95	0.94	3.80	0.72
	F 값	1.87		0.27		1.32	

*p<.05 **p<.01 ***p<.001

<표 Ⅲ-94 계속>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여가활동 의미

(단위 : N=1,013, 점)

구 분		가족원이 함께하는 여가는 가족갈등의 원인이 된다		가족관계의 질과 만족을 높인다		나에게는 의무감이나 강제적으로 부여되는 시간이다	
		M	SD	M	SD	M	SD
성별	남성(N=556)	2.50	1.02	3.85	0.74	2.75	1.03
	여성(N=457)	2.48	0.94	3.82	0.72	2.62	1.00
	t 값	0.28		0.78		2.01*	
연령	20대(N=134)	2.85c	1.18	3.87	0.83	2.87b	1.13
	30대(N=138)	2.82c	1.03	3.78	0.82	2.95b	1.08
	40대(N=192)	2.47b	0.84	3.82	0.68	2.74ab	0.99
	50대(N=230)	2.48b	0.97	3.85	0.64	2.60a	1.02
	60대 이상(N=319)	2.21a	0.88	3.85	0.74	2.53a	0.93
	F 값	15.60***		0.35		5.90***	
혼인 상태	미혼(N=324)	2.78b	1.01	3.74a	0.82	2.90b	1.05
	기혼(N=582)	2.34a	0.96	3.91b	0.67	2.61a	1.00
	기타(N=107)	2.42a	0.87	3.71a	0.71	2.49a	0.96
	F 값	22.59***		7.59***		11.10***	
거주 권역	동부권(N=246)	2.47	1.04	3.92b	0.72	2.67	1.04
	서부권(N=280)	2.52	0.97	3.88b	0.70	2.70	1.05
	남부권(N=294)	2.49	0.93	3.80ab	0.72	2.67	1.00
	북부권(N=193)	2.47	1.03	3.74a	0.78	2.73	1.00
	F 값	0.15		2.95*		0.16	

*p<.05 **p<.01 ***p<.001

(마) 가족여가활동 충분도 및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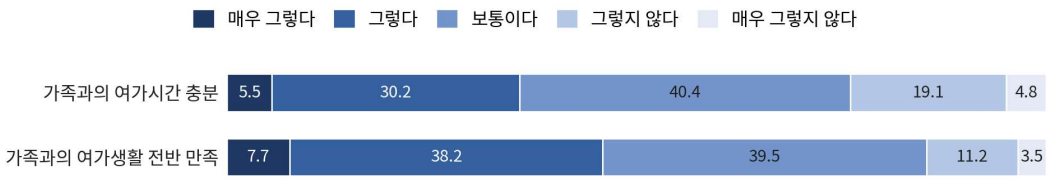
❍ 가족여가활동의 충분도와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가족과의 여가생활 전반 만족'은 3.36점, '가족과의 여가시간 충분'은 3.13점으로 나타남. 가족과의 여가시간이 충분하다는 응답(그렇다+매우 그렇다)은 35.7%로, 여가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45.9%)보다 낮았음

<표 Ⅲ-95> 가족여가활동 충분도 및 만족도

(단위 : N=1,013, 점, 명(%))

구 분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족과의 여가시간 충분	3.13	49(4.8)	193(19.1)	409(40.4)	306(30.2)	56(5.5)
2) 가족과의 여가생활 전반 만족	3.36	35(3.5)	113(11.2)	400(39.5)	387(38.2)	78(7.7)

(단위: N=1,013, %)



[그림 Ⅲ-46] 가족여가활동 충분도 및 만족도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가족여가활동의 충분도와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 및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Ⅲ-96〉과 같음

- **(가족과의 여가시간 충분)** 연령과 혼인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대(3.51점)가 가장 높고 50대(2.92점)가 가장 낮았으며, 미혼(3.17점)과 기혼(3.16점)이 기타(2.80점)보다 높았음
- **(가족과의 여가생활 전반 만족)** 연령과 혼인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대(3.67점)가 다른 연령대(3.20~3.38점)보다 높았으며, 미혼(3.39점)과 기혼(3.40점)이 기타(3.03점)보다 높았음

<표 Ⅲ-96>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여가활동 충분도 및 만족도

(단위 : N=1,013, 점)

구 분		가족과의 여가시간 충분도		가족과의 여가생활 전반 만족도	
		M	SD	M	SD
성별	남성(N=556)	3.12	0.95	3.37	0.89
	여성(N=457)	3.13	0.94	3.34	0.92
	t 값	-0.11		0.38	
연령	20대(N=134)	3.51c	0.94	3.67b	0.95
	30대(N=138)	3.13b	1.05	3.38a	0.99
	40대(N=192)	3.12b	0.89	3.34a	0.85
	50대(N=230)	2.92a	0.91	3.20a	0.84
	60대 이상(N=319)	3.11b	0.91	3.34a	0.89
	F 값	8.76***		6.10***	
혼인 상태	미혼(N=324)	3.17b	1.01	3.39b	0.95
	기혼(N=582)	3.16b	0.89	3.40b	0.86
	기타(N=107)	2.80a	0.98	3.03a	0.95
	F 값	7.02***		8.00***	
거주 권역	동부권(N=246)	3.17	0.89	3.46	0.87
	서부권(N=280)	3.15	0.97	3.38	0.87
	남부권(N=294)	3.05	0.93	3.27	0.93
	북부권(N=193)	3.15	0.99	3.33	0.95
	F 값	0.91		2.14	

*p<.05 **p<.01 ***p<.001

8) 일·생활 균형

(1) 근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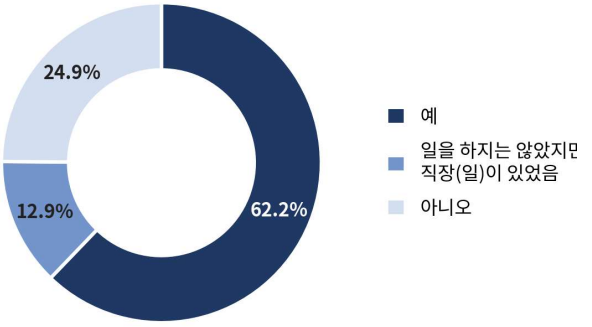
○ 조사대상자의 근로 여부는 '예'가 630명(62.2%),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일)이 있었음'이 131명(12.9%)으로 취업자는 761명(75.1%)이었으며, '아니오'는 252명(24.9%)으로 나타남

<표 Ⅲ-97> 근로 상태

(단위 : N=1,013, 명(%))

구 분	예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일)이 있었음	아니오
N(%)	630(62.2)	131(12.9)	252(24.9)

(단위: N=1,013, %)



[그림 Ⅲ-47] 근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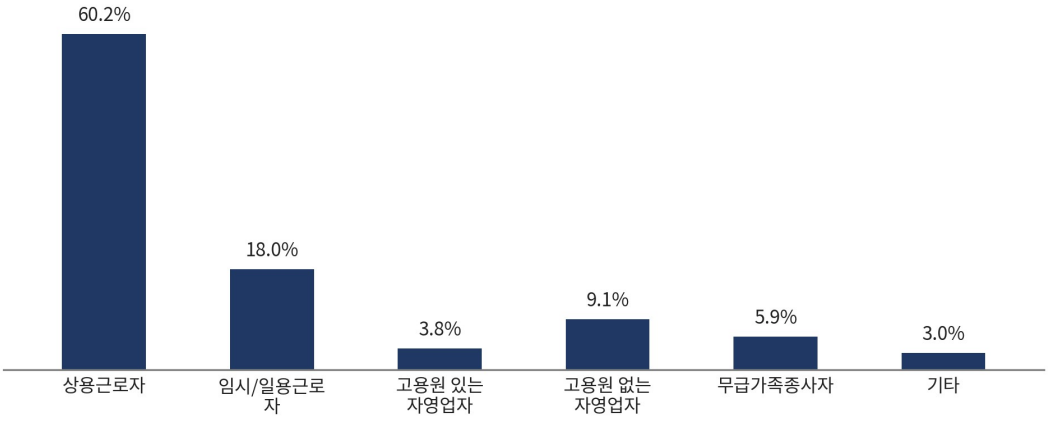
○ 취업자(761명)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가 458명(60.2%)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시/일용근로자' 137명(18.0%),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69명(9.1%), '무급가족종사자' 45명(5.9%),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29명(3.8%), '기타' 23명(3.0%)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98> 종사상 지위

(단위 : N=761, 명(%))

구 분	상용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기타
N(%)	458(60.2)	137(18.0)	29(3.8)	69(9.1)	45(5.9)	23(3.0)

(단위: N=761, %)



[그림 Ⅲ-48] 종사상 지위

(2) 일·생활 균형

(가) 일·생활 갈등 및 균형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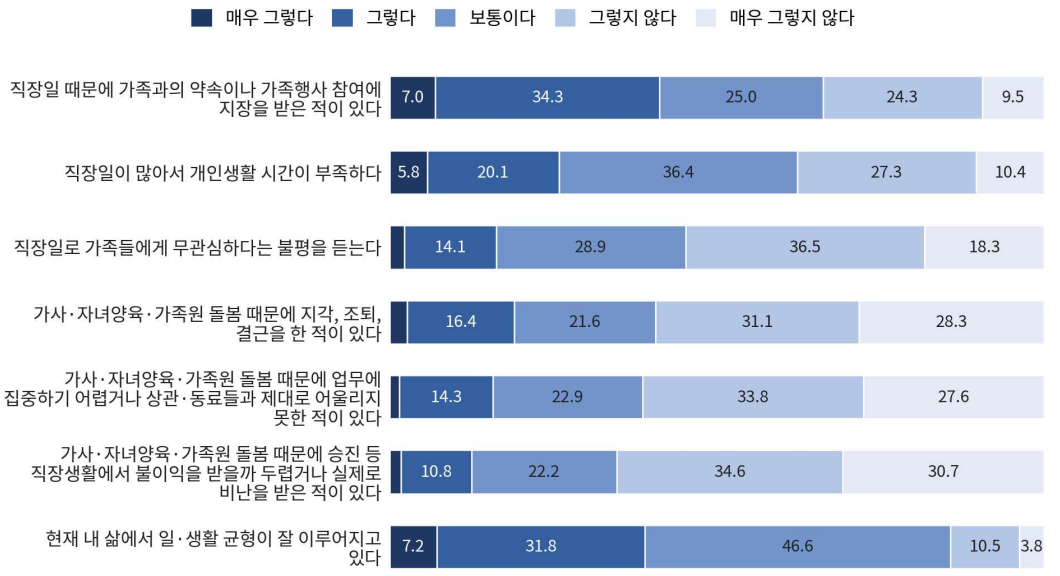
○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조사대상자(761명)를 대상으로 일·생활 갈등 및 균형 정도를 알아본 결과, '현재 내 삶에서 일·생활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가 3.2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갈등 경험 정도는 '직장일 때문에 가족과의 약속이나 가족행사 참여에 지장을 받은 적이 있다'(3.05점), '직장일이 많아서 개인생활 시간이 부족하다'(2.84점), '직장일로 가족들에게 무관심하다는 불평을 듣는다'(2.45점), '가사·자녀양육·가족원 돌봄 때문에 지각, 조퇴, 결근을 한 적이 있다'(2.34점), '가사·자녀양육·가족원 돌봄 때문에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거나 상관·동료들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한 적이 있다'(2.28점), '가사·자녀양육·가족원 돌봄 때문에 승진 등 직장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렵거나 실제로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2.18점)의 순으로 나타남. 직장일이 가족생활에 지장을 주는 갈등이 가족 돌봄이 직장생활에 지장을 주는 갈등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Ⅲ-99> 일·생활 갈등 및 균형 정도

(단위 : N=761, 점, 명(%))

구 분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직장일 때문에 가족과의 약속이나 가족행사 참여에 지장을 받은 적이 있다	3.05	72(9.5)	185(24.3)	190(25.0)	261(34.3)	53(7.0)
2) 직장일이 많아서 개인생활 시간이 부족하다	2.84	79(10.4)	208(27.3)	277(36.4)	153(20.1)	44(5.8)
3) 직장일로 가족들에게 무관심하다는 불평을 듣는다	2.45	139(18.3)	278(36.5)	220(28.9)	107(14.1)	17(2.2)
4) 가사·자녀양육·가족원 돌봄 때문에 지각, 조퇴, 결근을 한 적이 있다	2.34	215(28.3)	237(31.1)	164(21.6)	125(16.4)	20(2.6)
5) 가사·자녀양육·가족원 돌봄 때문에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거나 상관·동료들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한 적이 있다	2.28	210(27.6)	257(33.8)	174(22.9)	109(14.3)	11(1.4)
6) 가사·자녀양육·가족원 돌봄 때문에 승진 등 직장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렵거나 실제로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2.18	234(30.7)	263(34.6)	169(22.2)	82(10.8)	13(1.7)
7) 현재 내 삶에서 일·생활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3.28	29(3.8)	80(10.5)	355(46.6)	242(31.8)	55(7.2)

(단위: N=761, %)



[그림 Ⅲ-49] 일·생활 갈등 및 균형 정도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일을 하면서 경험한 일·생활 갈등 및 균형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 및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Ⅲ-100〉과 같음

- **(성별)** 6개 갈등 문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2.29~3.16점)이 여성(2.02~2.89점)보다 일·생활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 6개 갈등 문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직장일로 인한 갈등('가족행사 참여 지장', '개인생활 시간 부족')은 20~30대가 높고 60대 이상이 낮았으며, 가족 돌봄으로 인한 갈등('지각, 조퇴, 결근', '업무 집중 곤란', '승진 등 불이익')은 40대(2.41~2.63점)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1.96~2.08점)이 가장 낮았음
- **(혼인상태)** 7개 문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갈등 문항은 대체로 미혼과 기혼이 기타보다 높았으며, 특히 가족 돌봄으로 인한 '

지각, 조퇴, 결근'은 기혼(2.47점)이 미혼(2.21점)과 기타(2.03점)보다 높았음. '현재 내 삶에서 일·생활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혼(3.35점)이 가장 높고 미혼(3.18점)이 가장 낮았음

<표 Ⅲ-100>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생활 갈등 및 균형 정도

(단위 : N=761, 점)

구 분		직장일 때문에 가족과의 약속이나 가족행사 참여에 지장을 받은 적이 있다		직장일이 많아서 개인생활 시간이 부족하다		직장일로 가족들에게 무관심하다는 불평을 듣는다		가사·자녀양육·가족원 돌봄 때문에 지각, 조퇴, 결근을 한 적이 있다	
		M	SD	M	SD	M	SD	M	SD
성별	남성(N=455)	3.16	1.09	2.94	1.03	2.60	1.03	2.43	1.14
	여성(N=306)	2.89	1.13	2.69	1.06	2.24	0.96	2.21	1.11
	t 값	3.29**		3.23**		5.04***		2.64**	
연령	20대(N=95)	3.26b	1.18	3.11c	1.18	2.43ab	1.21	2.07a	1.09
	30대(N=117)	3.21b	1.14	3.09c	1.10	2.50b	1.15	2.52b	1.33
	40대(N=151)	3.17b	1.04	2.93bc	0.99	2.56b	0.98	2.63b	1.15
	50대(N=192)	3.06b	1.08	2.81b	0.96	2.57b	0.93	2.42b	1.06
	60대 이상(N=206)	2.76a	1.10	2.52a	0.99	2.25a	0.91	2.08a	0.99
	F 값	5.47***		8.43***		3.19*		7.81***	
혼인 상태	미혼(N=244)	3.14b	1.08	3.01b	1.04	2.49b	1.08	2.21a	1.10
	기혼(N=442)	3.06b	1.11	2.81b	1.03	2.50b	0.99	2.47b	1.15
	기타(N=75)	2.71a	1.18	2.44a	1.04	2.11a	0.86	2.03a	0.99
	F 값	4.46*		9.21***		4.95**		7.39***	
거주 권역	동부권(N=182)	3.02	1.10	2.79	1.10	2.49	1.00	2.38	1.12
	서부권(N=219)	3.11	1.12	2.93	1.04	2.37	1.05	2.36	1.18
	남부권(N=217)	3.05	1.13	2.83	1.01	2.52	1.01	2.34	1.09
	북부권(N=143)	3.01	1.10	2.76	1.04	2.43	0.98	2.26	1.14
	F 값	0.30		0.90		0.85		0.37	

*p<.05 **p<.01 ***p<.001

<표 Ⅲ-100 계속>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생활 갈등 및 균형 정도

(단위 : N=761, 점)

구 분		가사·자녀양육·가족원 돌봄 때문에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거나 상관·동료들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한 적이 있다		가사·자녀양육·가족원 돌봄 때문에 승진 등 직장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렵거나 실제로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현재 내 삶에서 일·생활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M	SD	M	SD	M	SD
성별	남성(N=455)	2.36	1.07	2.29	1.07	3.29	0.88
	여성(N=306)	2.17	1.05	2.02	0.98	3.27	0.90
	t 값	2.41*		3.53***		0.34	
연령	20대(N=95)	2.13a	1.17	2.11ab	1.15	3.29	1.10
	30대(N=117)	2.29ab	1.16	2.22bc	1.18	3.29	0.88
	40대(N=151)	2.52b	1.09	2.41c	1.07	3.24	0.81
	50대(N=192)	2.42b	1.04	2.26bc	0.99	3.22	0.88
	60대 이상(N=206)	2.05a	0.90	1.96a	0.87	3.36	0.84
	F 값	5.64***		4.75***		0.73	
혼인 상태	미혼(N=244)	2.19ab	1.07	2.13b	1.05	3.18	0.96
	기혼(N=442)	2.38b	1.08	2.26b	1.05	3.35	0.84
	기타(N=75)	2.01a	0.88	1.89a	0.86	3.21	0.87
	F 값	5.11**		4.51*		3.30*	
거주 권역	동부권(N=182)	2.24	1.05	2.23	1.06	3.38	0.86
	서부권(N=219)	2.34	1.11	2.20	1.08	3.31	0.93
	남부권(N=217)	2.35	1.04	2.18	0.99	3.17	0.88
	북부권(N=143)	2.14	1.03	2.10	1.04	3.27	0.85
	F 값	1.48		0.46		2.04	

*p<.05 **p<.01 ***p<.001

(나) 취업자의 일·생활 균형 저해 요인

❍ 취업자(761명)의 일·생활 균형 저해 요인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부족'이 21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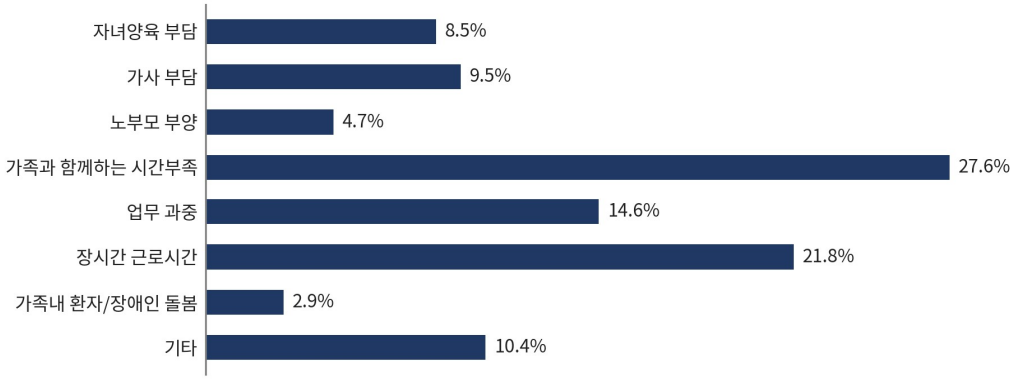
(27.6%)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시간 근로시간' 166명(21.8%), '업무 과중' 111명(14.6%), '가사 부담' 72명(9.5%), '자녀양육 부담' 65명(8.5%), '노부모 부양' 36명(4.7%), '가족 내 환자/장애인 돌봄' 22명(2.9%)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101> 취업자의 일·생활 균형 저해 요인

(단위 : N=761, 명(%))

구 분	자녀양육 부담	가사 부담	노부모 부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부족	업무 과중	장시간 근로시간	가족내 환자/장애인 돌봄	기타
N(%)	65(8.5)	72(9.5)	36(4.7)	210(27.6)	111(14.6)	166(21.8)	22(2.9)	79(10.4)

(단위: N=761, %)



[그림 Ⅲ-50] 일·생활 균형 저해 요인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일·생활 균형 저해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성별, 연령, 혼인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성별)** 남성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부족'(30.8%)과 '장시간 근로시간'(24.2%)의 비율이 여성(22.9%, 18.3%)보다 높았던 반면, 여성은 '가사 부담'(17.3%)의 비율이 남성(4.2%)보다 높았음
- **(연령)** 20~30대는 '장시간 근로시간'(29.5%, 29.1%)과 '업무 과중'(25.3%, 24.8%)의 비율이 높았고, 30~40대는 '자녀양육 부담'(15.4%, 13.9%)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으며, 50대 이상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부족'(31.8~36.4%)의 비율이 높았음

- **(혼인상태)** 미혼은 '장시간 근로시간'(32.0%)과 '업무 과중'(20.5%)의 비율이 높았으며, 기혼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부족'(30.5%), '자녀양육 부담'(11.5%), '가사 부담'(11.3%)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Ⅲ-10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자의 일·생활 균형 저해 요인

(단위 : N=761, 명(%))

구 분		자녀양육 부담	가사 부담	노부모 부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부족	업무 과중	장시간 근로시간	가족 내 환자장애인 돌봄	기타
성별	남성(N=455)	39(8.6)	19(4.2)	23(5.1)	140(30.8)	72(15.8)	110(24.2)	12(2.6)	40(8.8)
	여성(N=306)	26(8.5)	53(17.3)	13(4.2)	70(22.9)	39(12.7)	56(18.3)	10(3.3)	39(12.7)
	χ2	44.88***							
연령	20대(N=95)	5(5.3)	4(4.2)	1(1.1)	20(21.1)	24(25.3)	28(29.5)	5(5.3)	8(8.4)
	30대(N=117)	18(15.4)	4(3.4)	3(2.6)	21(17.9)	29(24.8)	34(29.1)	2(1.7)	6(5.1)
	40대(N=151)	21(13.9)	14(9.3)	10(6.6)	33(21.9)	25(16.6)	34(22.5)	4(2.6)	10(6.6)
	50대(N=192)	19(9.9)	22(11.5)	13(6.8)	61(31.8)	19(9.9)	35(18.2)	6(3.1)	17(8.9)
	60대 이상(N=206)	2(1.0)	28(13.6)	9(4.4)	75(36.4)	14(6.8)	35(17.0)	5(2.4)	38(18.4)
	χ2	117.61***							
혼인 상태	미혼(N=244)	10(4.1)	13(5.3)	19(7.8)	46(18.9)	50(20.5)	78(32.0)	9(3.7)	19(7.8)
	기혼(N=442)	51(11.5)	50(11.3)	17(3.8)	135(30.5)	57(12.9)	81(18.3)	11(2.5)	40(9.0)
	기타(N=75)	4(5.3)	9(12.0)	0(0.0)	29(38.7)	4(5.3)	7(9.3)	2(2.7)	20(26.7)
	χ2	91.04***							
거주 권역	동부권(N=182)	16(8.8)	22(12.1)	12(6.6)	54(29.7)	27(14.8)	32(17.6)	6(3.3)	13(7.1)
	서부권(N=219)	25(11.4)	14(6.4)	7(3.2)	50(22.8)	34(15.5)	56(25.6)	7(3.2)	26(11.9)
	남부권(N=217)	15(6.9)	20(9.2)	8(3.7)	67(30.9)	27(12.4)	50(23.0)	7(3.2)	23(10.6)
	북부권(N=143)	9(6.3)	16(11.2)	9(6.3)	39(27.3)	23(16.1)	28(19.6)	2(1.4)	17(11.9)
	χ2	22.64							

*p<.05 **p<.01 ***p<.001

(3) 미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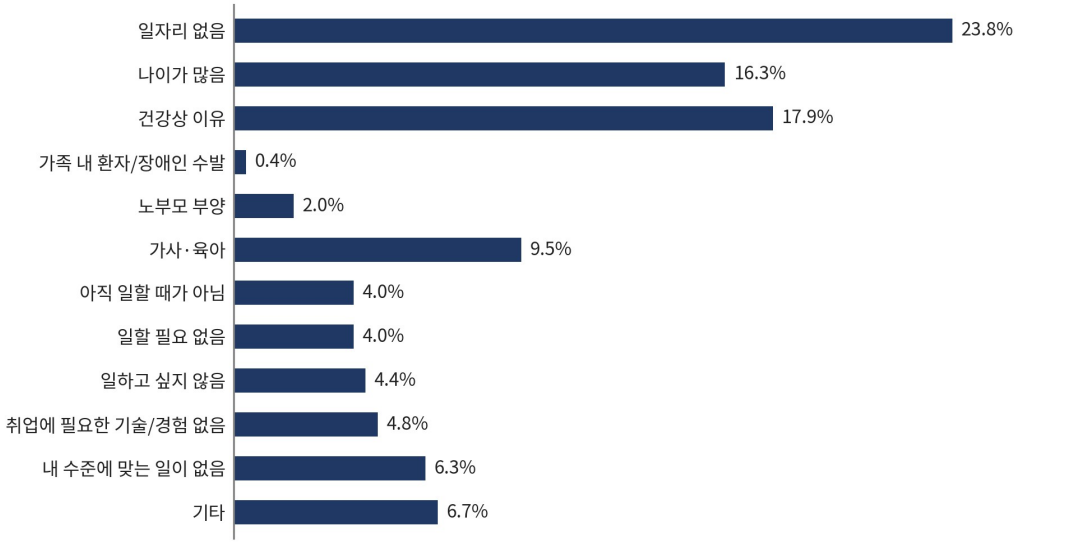
❍ 미취업자(252명)가 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일자리 없음'이 60명(23.8%)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상 이유' 45명(17.9%), '나이가 많음' 41명(16.3%), '가사·육아' 24명(9.5%), '내 수준에 맞는 일이 없음' 16명(6.3%), '취업에 필요한 기술/경험 없음' 12명(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103> 일을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N=252, 명(%))

구분	일자리 없음	나이가 많음	건강상 이유	가족 내 환자/장애인 수발	노부모 부양	가사·육아	아직 일할 때가 아님	일할 필요 없음	일하고 싶지 않음	취업에 필요한 기술/경험 없음	내 수준에 맞는 일이 없음	기타
N(%)	60(23.8)	41(16.3)	45(17.9)	1(0.4)	5(2.0)	24(9.5)	10(4.0)	10(4.0)	11(4.4)	12(4.8)	16(6.3)	17(6.7)

(단위: N=252, %)



[그림 Ⅲ-51] 미취업 이유

○ 미취업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른 미취업 이유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일자리 없음'이 가장 많았으나 생애주기에 따라 주된 이유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음

<표 Ⅲ-10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취업 이유

(단위 : N=252, 명(%))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성별	남성(N=101)	31(30.7)	17(16.8)	15(14.9)	-	1(1.0)	-	4(4.0)	6(5.9)	7(6.9)	3(3.0)	7(6.9)	10(9.9)
	여성(N=151)	29(19.2)	24(15.9)	30(19.9)	1(0.7)	4(2.6)	24(15.9)	6(4.0)	4(2.6)	4(2.6)	9(6.0)	9(6.0)	7(4.6)
연령	20대(N=39)	14(35.9)	-	6(15.4)	-	-	-	7(17.9)	4(10.3)	1(2.6)	3(7.7)	-	4(10.3)
	30대(N=21)	10(47.6)	-	1(4.8)	-	-	6(28.6)	-	-	-	-	3(14.3)	1(4.8)
	40대(N=41)	7(17.1)	1(2.4)	10(24.4)	-	-	13(31.7)	1(2.4)	-	3(7.3)	2(4.9)	2(4.9)	2(4.9)
	50대(N=38)	8(21.1)	3(7.9)	12(31.6)	1(2.6)	-	2(5.3)	1(2.6)	-	3(7.9)	1(2.6)	3(7.9)	4(10.5)
	60대 이상(N=113)	21(18.6)	37(32.7)	16(14.2)	-	5(4.4)	3(2.7)	1(0.9)	6(5.3)	4(3.5)	6(5.3)	8(7.1)	6(5.3)
혼인상태	미혼(N=80)	28(35.0)	1(1.2)	17(21.2)	-	-	-	8(10.0)	4(5.0)	6(7.5)	4(5.0)	3(3.8)	9(11.2)
	기혼(N=140)	29(20.7)	28(20.0)	17(12.1)	1(0.7)	4(2.9)	24(17.1)	2(1.4)	5(3.6)	5(3.6)	6(4.3)	11(7.9)	8(5.7)
	기타(N=32)	3(9.4)	12(37.5)	11(34.4)	-	1(3.1)	-	-	1(3.1)	-	2(6.2)	2(6.2)	-
거주권역	동부권(N=64)	12(18.8)	11(17.2)	8(12.5)	-	2(3.1)	4(6.2)	5(7.8)	3(4.7)	3(4.7)	5(7.8)	6(9.4)	5(7.8)
	서부권(N=61)	18(29.5)	7(11.5)	9(14.8)	-	-	8(13.1)	2(3.3)	4(6.6)	3(4.9)	3(4.9)	3(4.9)	4(6.6)
	남부권(N=77)	18(23.4)	12(15.6)	22(28.6)	1(1.3)	2(2.6)	5(6.5)	1(1.3)	1(1.3)	1(1.3)	3(3.9)	5(6.5)	6(7.8)
	북부권(N=50)	12(24.0)	11(22.0)	6(12.0)	-	1(2.0)	7(14.0)	2(4.0)	2(4.0)	4(8.0)	1(2.0)	2(4.0)	2(4.0)

*p<.05 **p<.01 ***p<.001
주 : 일부 특성에서 기대빈도 5 미만 셀이 20%를 초과하여 χ^2 검정 결과는 제시하지 않음
① 일자리 없음, ② 나이가 많음, ③ 건강상 이유, ④ 가족 내 환자/장애인 수발, ⑤ 노부모 부양, ⑥ 가사육아, ⑦ 아직 일할 때가 아님, ⑧ 일할 필요 없음, ⑨ 일하고 싶지 않음, ⑩ 취업에 필요한 기술/경험 없음, ⑪ 내 수준에 맞는 일이 없음, ⑫ 기타

- **(성별)** 남성은 '일자리 없음'(30.7%)이 여성(19.2%)보다 많았던 반면, 여성은 '건

강상 이유'(19.9%)와 '가사·육아'(15.9%)가 남성(14.9%, 0.0%)보다 많았음. 특히 '가사·육아'로 일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여성에게서만 나타났음

- **(연령)** 20대는 '일자리 없음'(35.9%)과 '아직 일할 때가 아님'(17.9%)이, 30대는 '일자리 없음'(47.6%)과 '가사·육아'(28.6%)가 많았음. 40대는 '가사·육아'(31.7%)가 가장 많았고, 50대는 '건강상 이유'(31.6%)가, 60대 이상은 '나이가 많음'(32.7%)이 가장 많아, 연령이 높아질수록 미취업 이유가 일자리 부족과 돌봄에서 건강과 연령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였음
- **(혼인상태)** 미혼은 '일자리 없음'(35.0%)과 '건강상 이유'(21.3%)가 많았으며, 기혼은 '일자리 없음'(20.7%), '나이가 많음'(20.0%), '가사·육아'(17.1%)가 고르게 나타났음
- **(거주권역)** 서부권은 '일자리 없음'(29.5%)이, 남부권은 '건강상 이유'(28.6%)가 다른 권역보다 많았으며, 북부권은 '나이가 많음'(22.0%)과 '가사·육아'(14.0%)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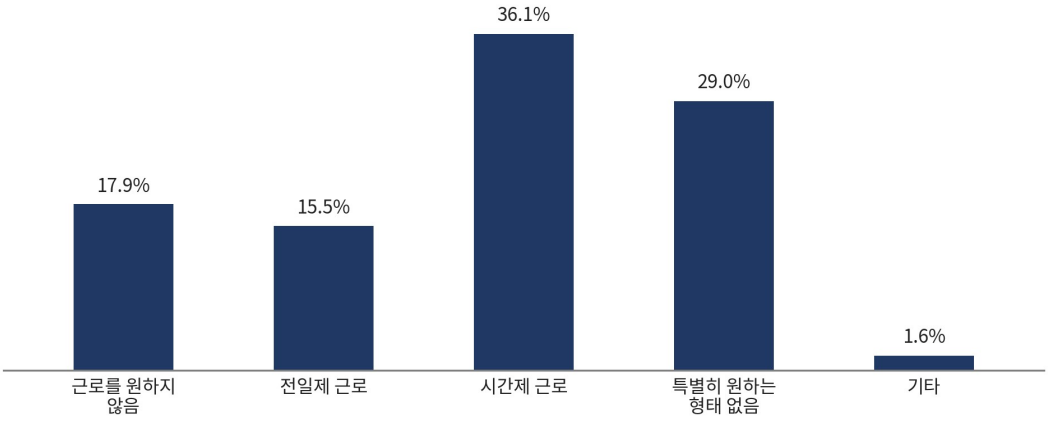
❍ 미취업자가 선호하는 근로형태는 '시간제 근로'가 91명(36.1%)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별히 원하는 형태 없음' 73명(29.0%), '근로를 원하지 않음' 45명(17.9%), '전일제 근로' 39명(15.5%), '기타' 4명(1.6%)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105> 미취업자 선호 근로형태

(단위 : N=252, 명(%))

구 분	근로를 원하지 않음	전일제 근로	시간제 근로	특별히 원하는 형태 없음	기타
N(%)	45(17.9)	39(15.5)	91(36.1)	73(29.0)	4(1.6)

(단위: N=252, %)



[그림 Ⅲ-52] 선호 근로형태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미취업자의 선호하는 근로형태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성별)** 여성은 '시간제 근로'(45.3%)의 비율이 남성(24.0%)보다 높았던 반면, 남성은 '특별히 원하는 형태 없음'(36.0%)과 '근로를 원하지 않음'(21.0%)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음
- **(연령)** 20대는 '전일제 근로'(31.6%)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고, 50대는 '시간제 근로'(57.9%)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은 '근로를 원하지 않음'(30.9%)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혼인상태)** 기혼은 '시간제 근로'(47.8%)의 비율이 높았으며, 미혼은 '전일제 근로'(30.8%), 기타는 '근로를 원하지 않음'(31.2%)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거주권역)** 동부권은 '시간제 근로'(45.3%)의 비율이 높았으며, 북부권은 '근로를 원하지 않음'(35.4%)의 비율이 다른 권역보다 높았음

<표 Ⅲ-106>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취업자의 선호 근로형태

(단위 : N=248, 명(%))

구 분		근로를 원하지 않음	전일제 근로	시간제 근로	특별히 원하는 형태없음	χ^2
성별	남성(N=100)	21(21.0)	19(19.0)	24(24.0)	36(36.0)	11.71**
	여성(N=148)	24(16.2)	20(13.5)	67(45.3)	37(25.0)	
연령	20대(N=38)	0(0.0)	12(31.6)	9(23.7)	17(44.7)	46.39***
	30대(N=21)	2(9.5)	6(28.6)	7(33.3)	6(28.6)	
	40대(N=41)	6(14.6)	9(22.0)	14(34.1)	12(29.3)	
	50대(N=38)	3(7.9)	5(13.2)	22(57.9)	8(21.1)	
	60대 이상(N=110)	34(30.9)	7(6.4)	39(35.5)	30(27.3)	
혼인 상태	미혼(N=78)	6(7.7)	24(30.8)	16(20.5)	32(41.0)	41.96***
	기혼(N=138)	29(21.0)	10(7.2)	66(47.8)	33(23.9)	
	기타(N=32)	10(31.2)	5(15.6)	9(28.1)	8(25.0)	
거주 권역	동부권(N=64)	10(15.6)	10(15.6)	29(45.3)	15(23.4)	17.37*
	서부권(N=61)	5(8.2)	12(19.7)	22(36.1)	22(36.1)	
	남부권(N=75)	13(17.3)	11(14.7)	28(37.3)	23(30.7)	
	북부권(N=48)	17(35.4)	6(12.5)	12(25.0)	13(27.1)	

주 : '기타' 응답(4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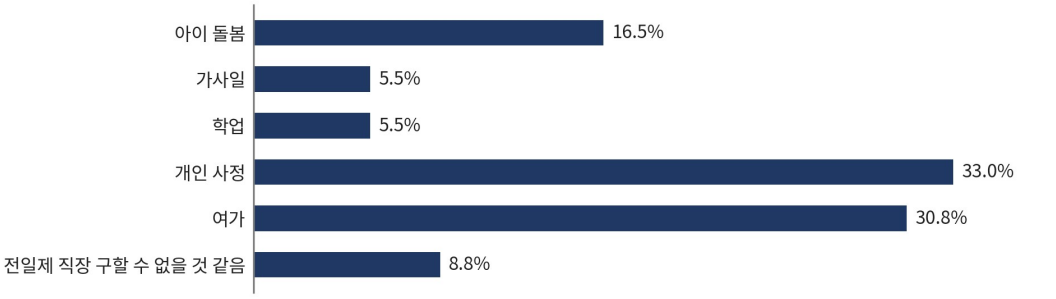
❍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조사대상자(91명)의 희망 이유는 '개인 사정'이 30명(33.0%)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가' 28명(30.8%), '아이 돌봄' 15명(16.5%), '전일제 직장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음' 8명(8.8%), '가사일'과 '학업' 각 5명(5.5%)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107> 시간제 근로 희망 이유

(단위 : N=91,명(%))

구 분	아이 돌봄	가사일	학업	개인 사정	여가	전일제 직장 구할 수 없을 것 같음
N(%)	15(16.5)	5(5.5)	5(5.5)	30(33.0)	28(30.8)	8(8.8)

(단위: N=91, %)



[그림 Ⅲ-53] 시간제 근로 희망 이유

(4) 일·생활 균형 위한 우선 추진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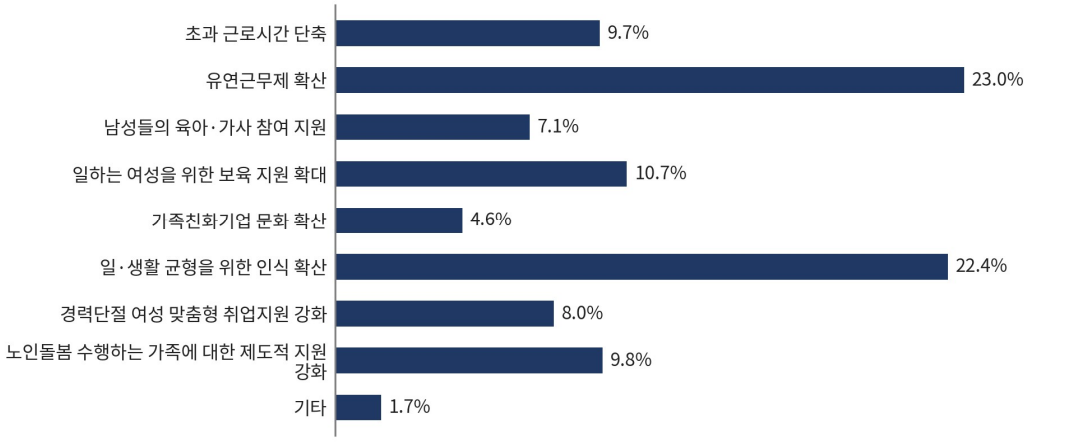
❍ 일·생활 균형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은 '유연근무제 확산'이 233명(23.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인식 확산' 227명(22.4%),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 108명(10.7%), '노인돌봄 수행하는 가족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 99명(9.8%), '초과근로시간 단축' 98명(9.7%),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81명(8.0%), '남성들의 육아·가사 참여 지원' 72명(7.1%), '가족친화기업 문화 확산' 47명(4.6%)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108> 일·생활 균형 우선 추진 정책

(단위 : N=1,013, 명(%))

구 분	초과 근로 시간 단축	유연 근무제 확산	남성들의 육아가사 참여 지원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 지원 확대	가족 친화 기업 문화 확산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인식 확산	경력 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노인돌봄 수행하는 가족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	기타	무응답
N(%)	98(9.7)	233(23.0)	72(7.1)	108(10.7)	47(4.6)	227(22.4)	81(8.0)	99(9.8)	17(1.7)	31(3.1)

(단위: N=1,013, %)



[그림 Ⅲ-54] 일·생활 균형 우선 추진 정책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일·생활 균형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성별, 연령, 혼인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 남성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인식 확산'(27.9%)과 '초과 근로시간 단축'(13.5%)이 여성(15.8%, 5.0%)보다 많았던 반면, 여성은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14.7%)와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 지원 확대'(14.4%)가 남성(2.5%, 7.6%)보다 많았음

<표 Ⅲ-109>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생활 균형 우선 추진 정책

(단위 : N=1,013, 명(%))

구 분		초과 근로 시간 단축	유연 근무제 확산	남성 육아·가사 참여 지원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 지원 확대	가족 친화 기업 문화 확산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인식 확산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	노인돌봄 수행 가족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	기타
성별	남성(N=556)	75(13.5)	126(22.7)	36(6.5)	42(7.6)	30(5.4)	155(27.9)	14(2.5)	54(9.7)	24(4.3)
	여성(N=457)	23(5.0)	107(23.4)	36(7.9)	66(14.4)	17(3.7)	72(15.8)	67(14.7)	45(9.8)	24(5.3)
	χ^2	95.15***								
연령	20대(N=134)	21(15.7)	36(26.9)	14(10.4)	12(9.0)	5(3.7)	33(24.6)	3(2.2)	7(5.2)	3(2.2)
	30대(N=138)	18(13.0)	35(25.4)	17(12.3)	22(15.9)	6(4.3)	27(19.6)	7(5.1)	3(2.2)	3(2.2)
	40대(N=192)	17(8.9)	52(27.1)	14(7.3)	18(9.4)	7(3.6)	46(24.0)	22(11.5)	12(6.2)	4(2.1)
	50대(N=230)	27(11.7)	51(22.2)	12(5.2)	17(7.4)	15(6.5)	50(21.7)	25(10.9)	29(12.6)	4(1.7)
	60대 이상(N=319)	15(4.7)	59(18.5)	15(4.7)	39(12.2)	14(4.4)	71(22.3)	24(7.5)	48(15.0)	34(10.7)
	χ^2	114.62***								
혼인 상태	미혼(N=324)	42(13.0)	86(26.5)	24(7.4)	25(7.7)	10(3.1)	93(28.7)	10(3.1)	26(8.0)	8(2.5)
	기혼(N=582)	50(8.6)	126(21.6)	43(7.4)	72(12.4)	30(5.2)	112(19.2)	61(10.5)	63(10.8)	25(4.3)
	기타(N=107)	6(5.6)	21(19.6)	5(4.7)	11(10.3)	7(6.5)	22(20.6)	10(9.3)	10(9.3)	15(14.0)
	χ^2	64.92***								
거주 권역	동부권(N=246)	24(9.8)	60(24.4)	15(6.1)	29(11.8)	12(4.9)	51(20.7)	25(10.2)	25(10.2)	5(2.0)
	서부권(N=280)	30(10.7)	64(22.9)	24(8.6)	30(10.7)	17(6.1)	61(21.8)	21(7.5)	27(9.6)	6(2.1)
	남부권(N=294)	29(9.9)	74(25.2)	20(6.8)	29(9.9)	8(2.7)	66(22.4)	22(7.5)	27(9.2)	19(6.5)
	북부권(N=193)	15(7.8)	35(18.1)	13(6.7)	20(10.4)	10(5.2)	49(25.4)	13(6.7)	20(10.4)	18(9.3)
	χ^2	30.87								

*p<.05 **p<.01 ***p<.001
주 : '기타'는 무응답을 포함함

- **(연령)** 20대와 30대는 '초과 근로시간 단축'(15.7%, 13.0%)과 '남성들의 육아·가사 참여 지원'(10.4%, 12.3%)이 다른 연령대보다 많았으며, 30대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 지원 확대'(15.9%)도 상대적으로 많았음. 40대는 '유연근무제 확산'(27.1%)과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11.5%)가, 50대와 60대 이상은 '노인돌봄 수행 가족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12.6%, 15.0%)가 상대적으로 많아, 생애주기에 따라 요구하는 정책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음
- **(혼인상태)** 미혼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인식 확산'(28.7%), '유연근무제 확산'(26.5%), '초과 근로시간 단축'(13.0%)이 기혼(19.2%, 21.6%, 8.6%)보다 많았던 반면, 기혼은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 지원 확대'(12.4%),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10.5%), '노인돌봄 수행 가족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10.8%)가 미혼(7.7%, 3.1%, 8.0%)보다 많았음

9) 생활 및 경제 수준

(1) 지역 거주 기간 및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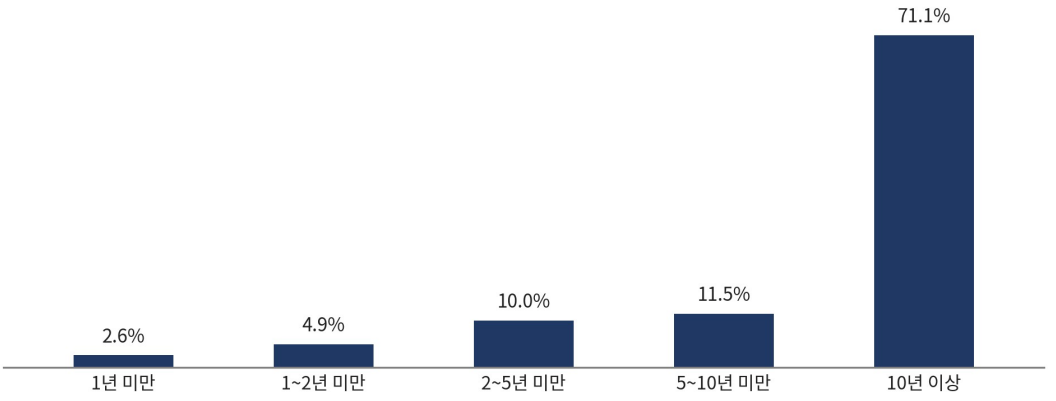
❍ 현 지역 거주 기간은 '10년 이상'이 720명(71.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5~10년 미만' 116명(11.5%), '2~5년 미만' 101명(10.0%), '1~2년 미만' 50명(4.9%), '1년 미만' 26명(2.6%)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110> 지역 거주 기간

(단위 : N=1,013, 명(%))

구 분	1년 미만	1~2년 미만	2~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N(%)	26(2.6)	50(4.9)	101(10.0)	116(11.5)	720(71.1)

(단위: N=1,013, %)



[그림 Ⅲ-55] 거주기간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지역 거주 기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연령과 혼인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령)** 60대 이상(80.9%)과 50대(75.7%)는 '10년 이상'의 비율이 높았던 반면, 30대(55.8%)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20대는 '1~2년 미만'(11.2%), 30대는 '2~5년 미만'(18.1%)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음
- **(혼인상태)** 기혼(73.0%)과 기타(72.9%)는 '10년 이상'의 비율이 미혼(67.0%)보다 높았으며, 미혼은 '2~5년 미만'(14.5%)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Ⅲ-11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역 거주 기간

(단위 : N=1,013, 명(%))

구 분		1년 미만	1~2년미만	2~5년미만	5~10년미만	10년 이상	χ2
성별	남성(N=556)	15(2.7)	26(4.7)	57(10.3)	59(10.6)	399(71.8)	1.19
	여성(N=457)	11(2.4)	24(5.3)	44(9.6)	57(12.5)	321(70.2)	
연령	20대(N=134)	6(4.5)	15(11.2)	21(15.7)	4(3.0)	88(65.7)	72.05***
	30대(N=138)	4(2.9)	9(6.5)	25(18.1)	23(16.7)	77(55.8)	
	40대(N=192)	6(3.1)	8(4.2)	24(12.5)	31(16.1)	123(64.1)	
	50대(N=230)	5(2.2)	10(4.3)	16(7.0)	25(10.9)	174(75.7)	
	60대 이상(N=319)	5(1.6)	8(2.5)	15(4.7)	33(10.3)	258(80.9)	
혼인 상태	미혼(N=324)	12(3.7)	21(6.5)	47(14.5)	27(8.3)	217(67.0)	21.70**
	기혼(N=582)	11(1.9)	27(4.6)	44(7.6)	75(12.9)	425(73.0)	
	기타(N=107)	3(2.8)	2(1.9)	10(9.3)	14(13.1)	78(72.9)	
거주 권역	동부권(N=246)	4(1.6)	12(4.9)	20(8.1)	27(11.0)	183(74.4)	7.41
	서부권(N=280)	9(3.2)	15(5.4)	24(8.6)	31(11.1)	201(71.8)	
	남부권(N=294)	8(2.7)	12(4.1)	36(12.2)	39(13.3)	199(67.7)	
	북부권(N=193)	5(2.6)	11(5.7)	21(10.9)	19(9.8)	137(71.0)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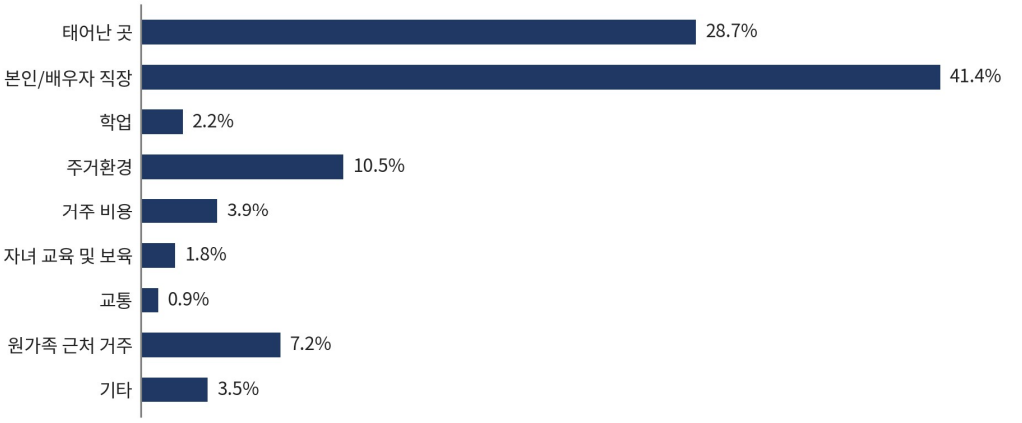
❍ 현 지역에 정착하게 된 이유는 '본인/배우자 직장'이 419명(41.4%)으로 가장 많았으며, '태어난 곳' 291명(28.7%), '주거환경' 106명(10.5%), '원가족 근처 거주' 73명(7.2%), '거주 비용' 40명(3.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112> 거주 지역 정착 이유

(단위 : N=1,013, 명(%))

구 분	태어난 곳	본인/배우자 직장	학업	주거환경	거주 비용	자녀 교육 및 보육	교통	원가족 근처 거주	기타
N(%)	291(28.7)	419(41.4)	22(2.2)	106(10.5)	40(3.9)	18(1.8)	9(0.9)	73(7.2)	35(3.5)

(단위: N=1,013, %)



[그림 Ⅲ-56] 거주 지역 정착 이유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거주 지역 정착 이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음. 다만 '자녀 교육 및 보육'과 '교통'의 응답 비율이 낮아 기대빈도 5 미만인 셀이 20%를 초과하였으므로, 두 범주를 '기타'에 통합하였음. 교차분석 결과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 남성은 '태어난 곳'(31.8%)이 여성(24.9%)보다 많았던 반면, 여성은 '본인/배우자 직장'(44.2%)과 '원가족 근처 거주'(10.5%)가 남성(39.0%, 4.5%)보다 많았음
- **(연령)** 20대는 '태어난 곳'(54.5%)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학업'(10.4%)도 다른 연령대보다 많았으며, 30대는 '태어난 곳'(39.1%) 다음으로 '본인/배우자 직장'(34.1%)과 '원가족 근처 거주'(10.1%)가 많았음. 40대 이상은 '본인/배우자 직장'(41.7~50.0%)이 가장 많았으며, 60대 이상은 '주거환경'(17.2%)도 상대적으로 많아, 연령이 높아질수록 출생지보다 직장과 주거여건이 정착의 주된 이유로 나타났음
- **(혼인상태)** 미혼은 '태어난 곳'(49.1%)이 가장 많았던 반면, 기혼은 '본인/배우자 직장'(54.1%)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주거환경'(12.7%)도 상대적으로 많았음

- **(거주권역)** 북부권은 '태어난 곳'(36.8%)이 다른 권역(24.3~28.9%)보다 많았으며, 동부권은 '본인/배우자 직장'(48.0%)이 가장 많았음. 남부권은 '주거환경'(12.9%)과 '학업'(4.8%)이, 서부권은 '거주비용'(6.1%)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표 Ⅲ-11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거주 지역 정착 이유

(단위 : N=1,013, 명(%))

구 분		태어난 곳	본인/배우자 직장	학업	주거환경	거주비용	원가족 근처 거주	기타	χ2
성별	남성(N=556)	177(31.8)	217(39.0)	15(2.7)	64(11.5)	24(4.3)	25(4.5)	34(6.1)	21.61**
	여성(N=457)	114(24.9)	202(44.2)	7(1.5)	42(9.2)	16(3.5)	48(10.5)	28(6.1)	
연령	20대(N=134)	73(54.5)	23(17.2)	14(10.4)	7(5.2)	4(3.0)	6(4.5)	7(5.2)	163.19***
	30대(N=138)	54(39.1)	47(34.1)	3(2.2)	6(4.3)	4(2.9)	14(10.1)	10(7.2)	
	40대(N=192)	54(28.1)	80(41.7)	1(0.5)	15(7.8)	11(5.7)	18(9.4)	13(6.8)	
	50대(N=230)	46(20.0)	115(50.0)	3(1.3)	23(10.0)	11(4.8)	16(7.0)	16(7.0)	
	60대 이상(N=319)	64(20.1)	154(48.3)	1(0.3)	55(17.2)	10(3.1)	19(6.0)	16(5.0)	
혼인상태	미혼(N=324)	159(49.1)	67(20.7)	17(5.2)	19(5.9)	19(5.9)	21(6.5)	22(6.8)	181.16***
	기혼(N=582)	109(18.7)	315(54.1)	4(0.7)	74(12.7)	13(2.2)	35(6.0)	32(5.5)	
	기타(N=107)	23(21.5)	37(34.6)	1(0.9)	13(12.1)	8(7.5)	17(15.9)	8(7.5)	
거주권역	동부권(N=246)	71(28.9)	118(48.0)	4(1.6)	24(9.8)	7(2.8)	10(4.1)	12(4.9)	19.03***
	서부권(N=280)	68(24.3)	121(43.2)	3(1.1)	26(9.3)	17(6.1)	25(8.9)	20(7.1)	
	남부권(N=294)	81(27.6)	99(33.7)	14(4.8)	38(12.9)	15(5.1)	28(9.5)	19(6.5)	
	북부권(N=193)	71(36.8)	81(42.0)	1(0.5)	18(9.3)	1(0.5)	10(5.2)	11(5.7)	

*p<.05 **p<.01 ***p<.001
주 : 기대빈도 5 미만 셀 비율이 20%를 초과하여 '자녀 교육 및 보육', '교통'을 '기타'에 통합함

(2) 이주 의향 및 이유

○ 현 지역에 계속 거주할 의향은 '계속 살겠다'가 422명(41.7%)으로 가장 많았으며, '살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다' 285명(28.1%), '가급적 살고 싶다' 19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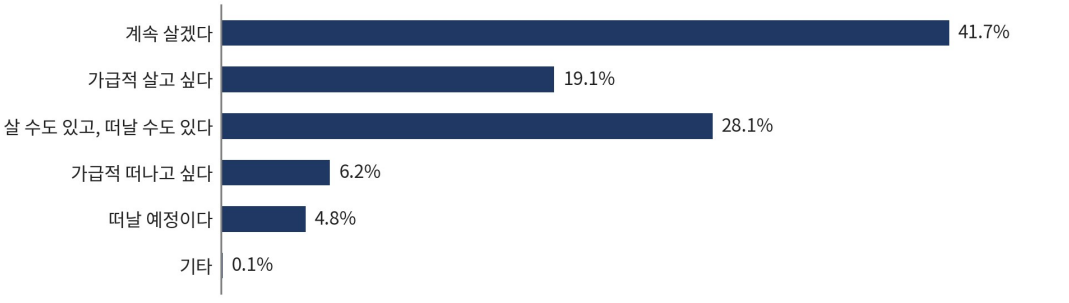
(19.1%), '가급적 떠나고 싶다' 63명(6.2%), '떠날 예정이다' 49명(4.8%)의 순으로 나타남. 거주 지속 의향(계속 살겠다+가급적 살고 싶다)은 60.8%, 이주 의향(가급적 떠나고 싶다+떠날 예정이다)은 11.0%였음

<표 Ⅲ-114> 이주 의향

(단위 : N=1,013, 명(%))

구 분	계속 살겠다	가급적 살고 싶다	살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다	가급적 떠나고 싶다	떠날 예정이다	기타
N(%)	422(41.7)	193(19.1)	285(28.1)	63(6.2)	49(4.8)	1(0.1)

(단위: N=1,013, %)



[그림 Ⅲ-57] 거주 지속 의향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이주 의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령)** 60대 이상은 '계속 살겠다'(54.2%)의 비율이 높았던 반면, 20대는 20.1%로 가장 낮았으며, 20대는 '가급적 떠나고 싶다'(13.4%)와 '떠날 예정이다'(10.4%)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음
- **(혼인상태)** 기타(53.3%)와 기혼(46.0%)은 '계속 살겠다'의 비율이 미혼(29.9%)보다 높았으며, 미혼은 '살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다'(33.6%)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거주권역)** 북부권은 '계속 살겠다'(51.8%)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서부권(33.2%)은 가장 낮았으며 '살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다'(34.3%)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Ⅲ-11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역 이주 의향

(단위 : N=1,013, 명(%))

구 분		계속 살겠다	가급적 살고싶다	살 수도 있고, 떠날수도 있다	가급적 떠나고 싶다	떠날 예정이다	χ2
성별	남성(N=556)	235(42.3)	117(21.0)	149(26.8)	35(6.3)	20(3.6)	7.94
	여성(N=457)	187(40.9)	76(16.6)	136(29.8)	28(6.1)	30(6.6)	
연령	20대(N=134)	27(20.1)	28(20.9)	47(35.1)	18(13.4)	14(10.4)	70.62***
	30대(N=138)	49(35.5)	31(22.5)	40(29.0)	10(7.2)	8(5.8)	
	40대(N=192)	72(37.5)	44(22.9)	57(29.7)	15(7.8)	4(2.1)	
	50대(N=230)	101(43.9)	40(17.4)	68(29.6)	9(3.9)	12(5.2)	
	60대 이상(N=319)	173(54.2)	50(15.7)	73(22.9)	11(3.4)	12(3.8)	
혼인 상태	미혼(N=324)	97(29.9)	64(19.8)	109(33.6)	30(9.3)	24(7.4)	40.70***
	기혼(N=582)	268(46.0)	118(20.3)	148(25.4)	28(4.8)	20(3.4)	
	기타(N=107)	57(53.3)	11(10.3)	28(26.2)	5(4.7)	6(5.6)	
거주 권역	동부권(N=246)	108(43.9)	45(18.3)	64(26.0)	17(6.9)	12(4.9)	28.73**
	서부권(N=280)	93(33.2)	60(21.4)	96(34.3)	17(6.1)	14(5.0)	
	남부권(N=294)	121(41.2)	66(22.4)	81(27.6)	16(5.4)	10(3.4)	
	북부권(N=193)	100(51.8)	22(11.4)	44(22.8)	13(6.7)	14(7.3)	

*p<.05 **p<.01 ***p<.001

○ 지역에 계속 거주하겠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를 제외한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거주 지역을 떠나고 싶은 이유(순위별 가중치)를 알아본 결과, '좋은 일자리 부족'이 24.3%로 가장 높았으며, '문화여가시설 부족' 13.3%, '가족과 함께 거주' 12.0%,

'지역이 너무 폐쇄적' 10.2%, '교통/편의/의료시설 부족' 8.8%, '지역이 쇠퇴할 것 같음' 7.6%, '자녀 양육과 교육' 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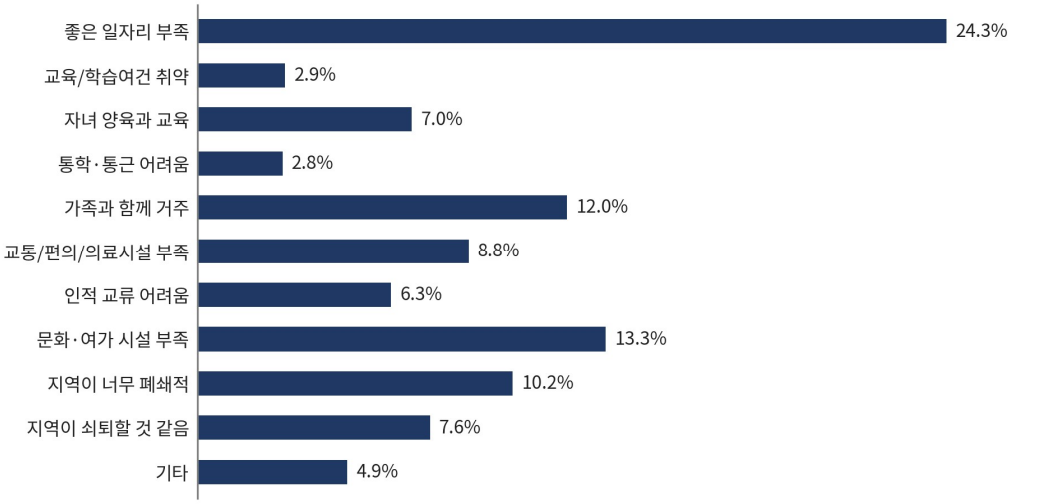
<표 Ⅲ-116> 이주 이유

(단위 : N=397, %)

구 분	좋은 일자리 부족	교육/학습여건 취약	자녀 양육과 교육	통학·통근 어려움	가족과 함께 거주	교통/편의/의료시설 부족	인적 교류 어려움	문화여가 시설 부족	지역이 너무 폐쇄적	지역이 쇠퇴할 것 같음	기타
%	24.3	2.9	7.0	2.8	12.0	8.8	6.3	13.3	10.2	7.6	4.9

주 : 순위별 가중치

(순위별 가중치 적용, 단위: N=397, %)



[그림 Ⅲ-58] 거주지 이전 주된 이유

❍ 거주지 이전을 희망하는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른 거주지 이전 주된 이유(순위별 가중치)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집단에서 '좋은 일자리 부족'이 가장 높았으나, 연령과 혼인상태에 따라 주된 이유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음

<표 Ⅲ-11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주 이유

(단위 : N=397, %)

구 분		좋은 일자리 부족	교육/학습 여건 취약	자녀 양육과 교육	통학·통근 어려움	가족과 함께 거주	교통/편의/의료시설 부족	인적 교류 어려움	문화·여가시설 부족	지역이 너무 폐쇄적	지역이 쇠퇴할 것 같음	기타
전체(N=397)		24.3	2.9	7.0	2.8	12.0	8.8	6.3	13.3	10.2	7.6	4.9
성별	남성(N=203)	23.6	3.1	7.2	2.1	12.6	7.6	7.6	13.1	10.3	7.7	4.9
	여성(N=194)	25.1	2.6	6.7	3.4	11.3	10.1	5.0	13.4	10.1	7.4	4.8
연령	20대(N=79)	38.8	5.5	3.8	4.2	7.2	3.4	3.8	13.1	5.9	9.3	5.1
	30대(N=58)	27.0	3.4	10.9	4.0	5.7	10.9	2.3	16.1	11.5	6.9	1.1
	40대(N=75)	26.2	4.4	12.9	3.6	7.1	10.7	3.1	12.4	8.0	10.7	0.9
	50대(N=89)	19.5	1.1	5.2	2.2	15.4	8.2	10.5	13.1	9.0	7.9	7.9
	60대 이상(N=96)	13.9	0.7	4.2	0.7	20.5	11.1	9.4	12.5	16.0	3.8	7.3
혼인상태	미혼(N=162)	33.7	3.9	2.7	2.9	7.2	8.6	4.5	13.4	9.5	9.7	3.9
	기혼(N=196)	17.0	2.6	11.2	2.9	15.0	9.0	6.8	13.6	10.4	6.3	5.3
	기타(N=39)	22.2	-	3.4	1.7	17.1	8.5	11.1	11.1	12.8	5.1	6.8
거주권역	동부권(N=93)	22.2	4.7	6.1	1.8	12.9	7.9	6.1	17.2	7.9	7.5	5.7
	서부권(N=127)	23.6	2.1	6.8	3.9	11.5	8.9	6.6	14.4	9.2	9.4	3.4
	남부권(N=107)	26.2	2.8	5.3	4.0	10.6	11.5	6.2	9.0	11.8	6.2	6.2
	북부권(N=70)	25.7	1.9	11.0	-	13.8	5.7	6.2	12.4	12.9	6.2	4.3

주 : 순위별 가중치

- **(성별)** 남성과 여성 모두 '좋은 일자리 부족'(23.6%, 25.1%)이 가장 높았으며, 여성은 '교통/편의/의료시설 부족'(10.1%)이 남성(7.6%)보다, 남성은 '인적 교류 어려움'(7.6%)이 여성(5.0%)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 **(연령)** 20대는 '좋은 일자리 부족'(38.8%)이 다른 연령대보다 크게 높았으며, 30대와 40대는 '자녀 양육과 교육'(10.9%, 12.9%)과 '교통/편의/의료시설 부족'(10.9%, 10.7%)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30대는 '문화·여가시설 부족'(16.1%)도 높았음.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은 '가족과 함께 거주'(15.4%, 20.5%)가 높았으

며, 60대 이상은 '지역이 너무 폐쇄적'(16.0%)도 상대적으로 높아, 생애주기에 따라 일자리에서 양육·생활여건, 가족으로 이전 이유가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음

- **(혼인상태)** 미혼은 '좋은 일자리 부족'(33.7%)이 기혼(17.0%)보다 높았던 반면, 기혼은 '가족과 함께 거주'(15.0%)와 '자녀 양육과 교육'(11.2%)이 미혼(7.2%, 2.7%)보다 높았음
- **(거주권역)** 동부권은 '문화·여가시설 부족'(17.2%)이, 남부권은 '교통/편의/의료시설 부족'(11.5%)과 '지역이 너무 폐쇄적'(11.8%)이 다른 권역보다 높았으며, 북부권은 '자녀 양육과 교육'(11.0%)과 '지역이 너무 폐쇄적'(12.9%)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2) 경제적 상황

(가)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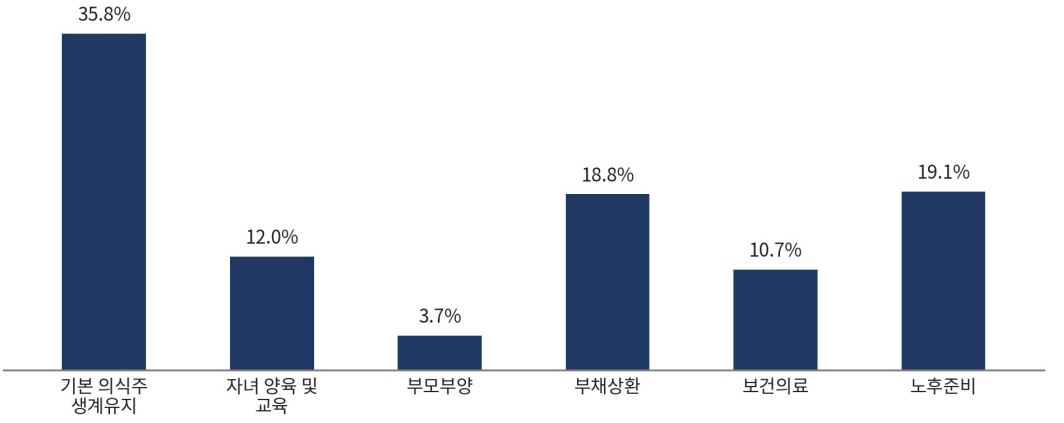
○ 생활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지출 항목은 '기본 의식주 생계유지'가 363명(35.8%)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후준비' 193명(19.1%), '부채상환' 190명(18.8%), '자녀 양육 및 교육' 122명(12.0%), '보건의료' 108명(10.7%), '부모부양' 37명(3.7%)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118>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

(단위 : N=1,013, 명(%))

구 분	기본 의식주 생계유지	자녀 양육 및 교육	부모부양	부채상환	보건의료	노후준비
N(%)	363(35.8)	122(12.0)	37(3.7)	190(18.8)	108(10.7)	193(19.1)

(단위: N=1,013, %)



[그림 Ⅲ-59] 경제적 부담 지출 항목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지출 항목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연령과 혼인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령)** 20대(70.9%)와 30대(47.1%)는 '기본 의식주 생계유지'의 비율이 높았고, 30~40대는 '부채상환'(26.1%, 25.5%), 40~50대는 '자녀 양육 및 교육'(21.4%, 20.9%)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60대 이상은 '노후준비'(33.2%)와 '보건의료'(20.1%)의 비율이 높았음
- **(혼인상태)** 미혼은 '기본 의식주 생계유지'(58.6%)의 비율이 높았으며, 기혼은 '노후준비'(23.9%), '부채상환'(21.0%), '자녀 양육 및 교육'(18.0%), 기타는 '보건의료'(22.4%)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Ⅲ-119>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담이 되는 지출

(단위 : N=1,013, 명(%))

구 분		기본 의식주 생계유지	자녀 양육 및교육	부모부양	부채상환	보건의료	노후준비
성별	남성(N=556)	214(38.5)	64(11.5)	19(3.4)	110(19.8)	52(9.4)	97(17.4)
	여성(N=457)	149(32.6)	58(12.7)	18(3.9)	80(17.5)	56(12.3)	96(21.0)
	χ2	7.25					
연령	20대(N=134)	95(70.9)	4(3.0)	3(2.2)	18(13.4)	9(6.7)	5(3.7)
	30대(N=138)	65(47.1)	12(8.7)	5(3.6)	36(26.1)	8(5.8)	12(8.7)
	40대(N=192)	65(33.9)	41(21.4)	8(4.2)	49(25.5)	7(3.6)	22(11.5)
	50대(N=230)	53(23.0)	48(20.9)	14(6.1)	47(20.4)	20(8.7)	48(20.9)
	60대 이상(N=319)	85(26.6)	17(5.3)	7(2.2)	40(12.5)	64(20.1)	106(33.2)
	χ2	249.48***					
혼인 상태	미혼(N=324)	190(58.6)	4(1.2)	13(4.0)	48(14.8)	30(9.3)	39(12.0)
	기혼(N=582)	140(24.1)	105(18.0)	22(3.8)	122(21.0)	54(9.3)	139(23.9)
	기타(N=107)	33(30.8)	13(12.1)	2(1.9)	20(18.7)	24(22.4)	15(14.0)
	χ2	156.86***					
거주 권역	동부권(N=246)	89(36.2)	28(11.4)	8(3.3)	41(16.7)	23(9.3)	57(23.2)
	서부권(N=280)	91(32.5)	42(15.0)	11(3.9)	62(22.1)	28(10.0)	46(16.4)
	남부권(N=294)	107(36.4)	29(9.9)	11(3.7)	53(18.0)	36(12.2)	58(19.7)
	북부권(N=193)	76(39.4)	23(11.9)	7(3.6)	34(17.6)	21(10.9)	32(16.6)
	χ2	12.64					

*p<.05 **p<.01 ***p<.001

(나) 생활 및 경제 수준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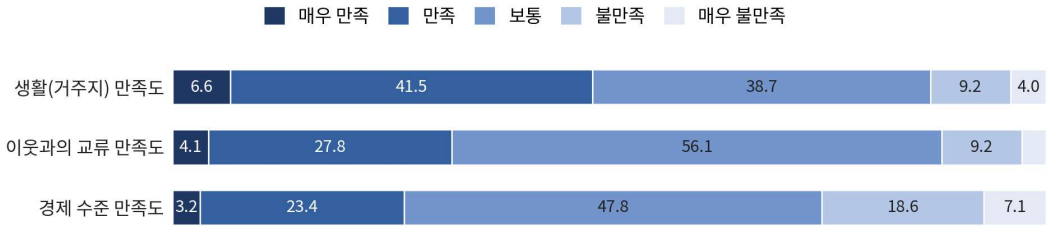
○ 현재 생활 및 경제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생활(거주지) 만족도'가 3.3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웃과의 교류 만족도' 3.21점, '경제 수준 만족도' 2.97점의 순으로 나타남. 특히 경제 수준에 불만족한다는 응답(매우 불만족+불만족)이 25.7%로 다른 항목보다 높았음

<표 Ⅲ-120> 생활 및 경제 수준 만족도

(단위 : N=1,013, 명(%))

구 분	평균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생활(거주지) 만족도	3.37	41(4.0)	93(9.2)	392(38.7)	420(41.5)	67(6.6)
2) 이웃과의 교류 만족도	3.21	28(2.8)	93(9.2)	568(56.1)	282(27.8)	42(4.1)
3) 경제 수준 만족도	2.97	72(7.1)	188(18.6)	484(47.8)	237(23.4)	32(3.2)

(단위: N=1,013, %)



[그림 Ⅲ-60] 현재 생활 및 경제 수준 만족도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생활 및 경제 수준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 및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Ⅲ-121〉과 같음

- **(생활(거주지) 만족도)** 연령과 혼인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대(3.53점)와 60대 이상(3.46점)이 40대(3.27점)와 50대(3.24점)보다 높았으며, 기혼(3.45점)이 기타(3.19점)보다 높았음
- **(이웃과의 교류 만족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60대 이상(3.42점)이 다른 연령대(3.07~3.16점)보다 높았고, 기혼(3.30점)과 기타(3.27점)가 미혼(3.04점)보다 높았으며, 북부권(3.38점)이 다른 권역(3.14~3.22점)보다 높았음
- **(경제 수준 만족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대(3.11점)가 40대(2.87점)와 50대(2.86점)보다 높았고,

기혼(3.12점), 미혼(2.82점), 기타(2.64점)의 순으로 높았으며, 동부권(3.11점)과 북부권(3.09점)이 서부권(2.87점)과 남부권(2.86점)보다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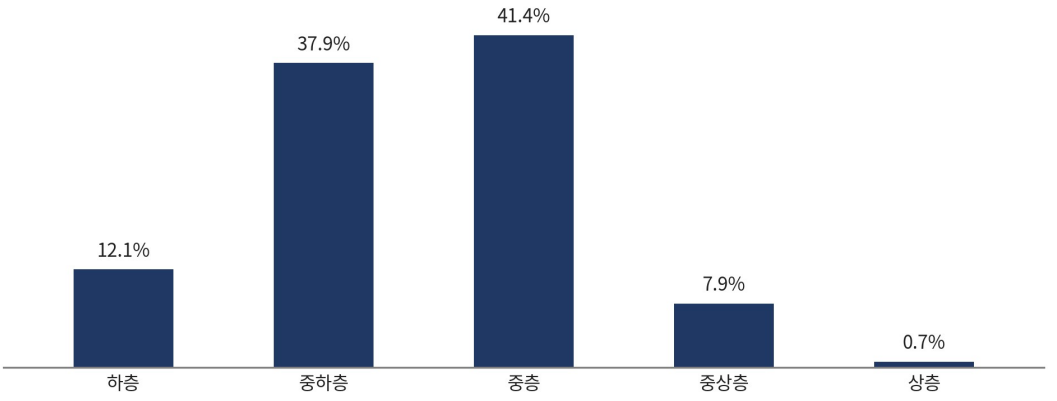
<표 Ⅲ-12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 및 경제 수준 만족도

(단위 : N=1,013, 점)

구 분		생활(거주지) 만족도		이웃과의 교류 만족도		경제 수준 만족도	
		M	SD	M	SD	M	SD
성별	남성(N=556)	3.40	0.89	3.23	0.80	3.02	0.92
	여성(N=457)	3.35	0.90	3.19	0.74	2.91	0.89
	t 값	0.92		0.89		1.80	
연령	20대(N=134)	3.53b	0.92	3.16a	0.93	3.11b	0.92
	30대(N=138)	3.40ab	0.94	3.09a	0.90	2.96ab	1.04
	40대(N=192)	3.27a	0.84	3.07a	0.74	2.87a	0.89
	50대(N=230)	3.24a	0.89	3.15a	0.66	2.86a	0.88
	60대 이상(N=319)	3.46b	0.87	3.42b	0.71	3.05ab	0.87
	F 값	3.88**		8.94***		2.86*	
혼인 상태	미혼(N=324)	3.30ab	0.95	3.04a	0.85	2.82b	0.98
	기혼(N=582)	3.45b	0.83	3.30b	0.71	3.12c	0.85
	기타(N=107)	3.19a	0.96	3.27b	0.81	2.64a	0.85
	F 값	5.68**		12.34***		19.82***	
거주 권역	동부권(N=246)	3.41	0.85	3.16a	0.75	3.11b	0.83
	서부권(N=280)	3.32	0.94	3.14a	0.79	2.87a	0.95
	남부권(N=294)	3.34	0.88	3.22a	0.75	2.86a	0.92
	북부권(N=193)	3.46	0.89	3.38b	0.81	3.09b	0.89
	F 값	1.23		4.41**		5.62***	

*p<.05 **p<.01 ***p<.001

(단위: N=1,013, %)



[그림 Ⅲ-61] 사회경제적 지위 계층

(다)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 조사대상자가 지각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층'이 419명(41.4%)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하층' 384명(37.9%), '하층' 123명(12.1%), '중상층' 80명(7.9%), '상층' 7명(0.7%)의 순으로 나타남. 중하층 이하로 인식하는 비율은 50.0%였음

<표 Ⅲ-122>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단위 : N=1,013, 명(%))

구 분	하층	중하층	중층	중상층	상층
N(%)	123(12.1)	384(37.9)	419(41.4)	80(7.9)	7(0.7)

○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성별)** 남성은 '중층'(44.1%)이 가장 많았던 반면, 여성은 '중하층'(40.7%)이 가장 많았음
- **(연령)** 20대와 30대는 '중층'(49.3%, 47.8%)이 가장 많았고, 40대와 50대는 '중하층'(40.6%, 41.3%)이 가장 많았으며, 60대 이상은 '중층'(39.8%)과 '중하층

'(38.6%)이 비슷한 수준이었음

- **(혼인상태)** 기혼은 '중층'(48.1%)과 '중상층'(10.3%)의 비율이 높았던 반면, 기타는 '하층'(28.0%)과 '중하층'(50.5%)의 비율이 높았으며, 미혼도 '하층'(19.1%)의 비율이 기혼(5.3%)보다 높았음
- **(거주권역)** 동부권과 북부권은 '중층'(48.0%, 45.6%)이, 서부권과 남부권은 '중하층'(39.6%, 41.5%)이 가장 많았음

<표 Ⅲ-12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단위 : N=1,013, 명(%))

구 분		하층	중하층	중층	중상층	상층
성별	남성(N=556)	61(11.0)	198(35.6)	245(44.1)	47(8.5)	5(0.9)
	여성(N=457)	62(13.6)	186(40.7)	174(38.1)	33(7.2)	2(0.4)
연령	20대(N=134)	14(10.4)	41(30.6)	66(49.3)	10(7.5)	3(2.2)
	30대(N=138)	13(9.4)	47(34.1)	66(47.8)	11(8.0)	1(0.7)
	40대(N=192)	28(14.6)	78(40.6)	73(38.0)	12(6.2)	1(0.5)
	50대(N=230)	35(15.2)	95(41.3)	87(37.8)	12(5.2)	1(0.4)
	60대 이상(N=319)	33(10.3)	123(38.6)	127(39.8)	35(11.0)	1(0.3)
혼인상태	미혼(N=324)	62(19.1)	122(37.7)	119(36.7)	17(5.2)	4(1.2)
	기혼(N=582)	31(5.3)	208(35.7)	280(48.1)	60(10.3)	3(0.5)
	기타(N=107)	30(28.0)	54(50.5)	20(18.7)	3(2.8)	-
거주권역	동부권(N=246)	26(10.6)	81(32.9)	118(48.0)	19(7.7)	2(0.8)
	서부권(N=280)	40(14.3)	111(39.6)	102(36.4)	26(9.3)	1(0.4)
	남부권(N=294)	41(13.9)	122(41.5)	111(37.8)	17(5.8)	3(1.0)
	북부권(N=193)	16(8.3)	70(36.3)	88(45.6)	18(9.3)	1(0.5)

주 : 기대빈도 5 미만 셀이 20%를 초과하여 χ^2 검정 결과는 제시하지 않음

10) 1인가구

○ 조사대상자 중 1인가구는 221명(21.8%)으로 나타남

<표 Ⅲ-124> 1인가구 여부

(단위 : N=1,013, 명(%))

구 분	예	아니오
N(%)	221(21.8)	792(78.2)

(1) 1인가구 생활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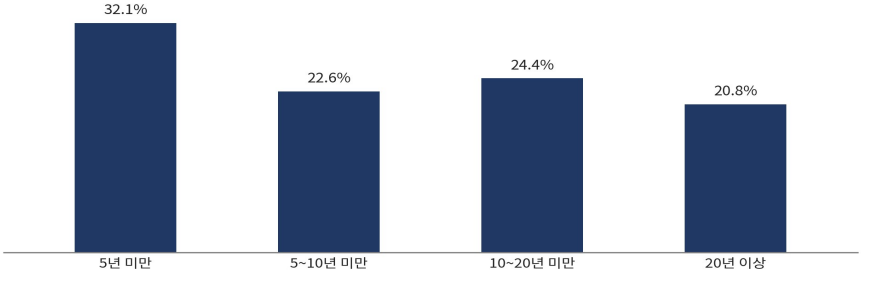
○ 1인가구로 생활한 기간은 '5년 미만'이 71명(32.1%)으로 가장 많았으며, '10~20년 미만' 54명(24.4%), '5~10년 미만' 50명(22.6%), '20년 이상' 46명(20.8%)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125> 1인가구 생활 기간

(단위 : N=221, 명(%))

구 분	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년 이상
N(%)	71(32.1)	50(22.6)	54(24.4)	46(20.8)

(단위: N=221, %)



[그림 Ⅲ-62] 1인가구 생활 기간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1인가구로 생활한 기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연령과 거주권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령)** 20대(78.6%)와 30대(42.9%)는 '5년 미만'의 비율이 높았던 반면, 50대

(32.0%)와 60대 이상(28.1%)은 '20년 이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거주권역)** 북부권은 '5년 미만'(42.9%), 동부권은 '5~10년 미만'(39.0%), 서부권은 '10~20년 미만'(30.9%)의 비율이 다른 권역보다 높았음

<표 Ⅲ-126> 일반적 특성에 따른 1인가구 생활 기간

(단위 : N=221, 명(%))

구 분		5년 미만	5~10년미만	10~20년미만	20년 이상	χ2
성별	남성(N=117)	40(34.2)	25(21.4)	29(24.8)	23(19.7)	0.68
	여성(N=104)	31(29.8)	25(24.0)	25(24.0)	23(22.1)	
연령	20대(N=28)	22(78.6)	6(21.4)	-	-	52.46***
	30대(N=35)	15(42.9)	11(31.4)	8(22.9)	1(2.9)	
	40대(N=44)	10(22.7)	9(20.5)	14(31.8)	11(25.0)	
	50대(N=50)	11(22.0)	11(22.0)	12(24.0)	16(32.0)	
	60대 이상(N=64)	13(20.3)	13(20.3)	20(31.2)	18(28.1)	
혼인 상태	미혼(N=135)	45(33.3)	28(20.7)	30(22.2)	32(23.7)	3.52
	기혼(N=11)	3(27.3)	3(27.3)	4(36.4)	1(9.1)	
	기타(N=75)	23(30.7)	19(25.3)	20(26.7)	13(17.3)	
거주 권역	동부권(N=41)	8(19.5)	16(39.0)	10(24.4)	7(17.1)	20.73*
	서부권(N=55)	16(29.1)	7(12.7)	17(30.9)	15(27.3)	
	남부권(N=83)	29(34.9)	19(22.9)	23(27.7)	12(14.5)	
	북부권(N=42)	18(42.9)	8(19.0)	4(9.5)	12(28.6)	

*p<.05 **p<.01 ***p<.001
주 : 혼인상태 중 기혼(N=11)은 사례 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2) 1인가구로 생활하는 이유

○ 1인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는 '혼자 살고 싶어서'가 64명(29.0%)으로 가장 많았으며, '본인 학업/직장' 48명(21.7%), '본인 이혼' 34명(15.4%), '배우자 사망' 30명(13.6%), '가족과 지내는 것이 불편' 12명(5.4%), '부모/자녀 사망' 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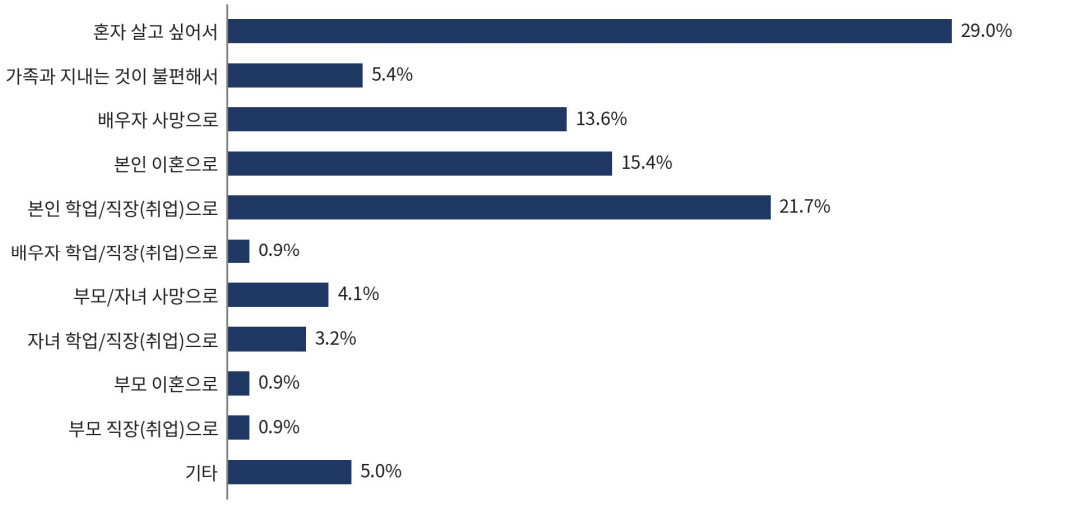
(4.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127> 1인가구로 생활하는 이유

(단위 : N=221, 명(%))

구분	혼자 살고 싶어서	가족과 지내는 것이 불편	배우자 사망	본인 이혼	본인 학업/직장	배우자 학업/직장	부모/자녀 사망	자녀 학업/직장	부모 이혼	부모 직장	기타
N(%)	64(29.0)	12(5.4)	30(13.6)	34(15.4)	48(21.7)	2(0.9)	9(4.1)	7(3.2)	2(0.9)	2(0.9)	11(5.0)

(단위: N=221, %)



[그림 Ⅲ-63] 1인가구 생활 이유

(3) 경제 상황

(가) 생활비 마련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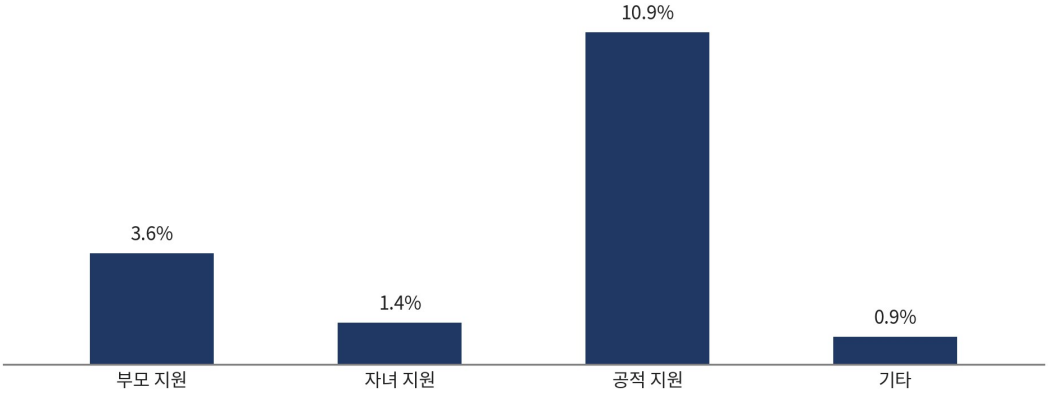
○ 1인가구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이 184명(83.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공적 지원' 24명(10.9%), '부모 지원' 8명(3.6%), '자녀 지원' 3명(1.4%), '기타' 2명(0.9%)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128> 1인가구 생활비 마련 방법

(단위 : N=221, 명(%))

구 분	본인	부모 지원	자녀 지원	공적 지원	기타
N(%)	184(83.3)	8(3.6)	3(1.4)	24(10.9)	2(0.9)

(단위: N=221, %)



[그림 Ⅲ-64] 1인가구 생활비 조달 방법

(나) 부담이 되는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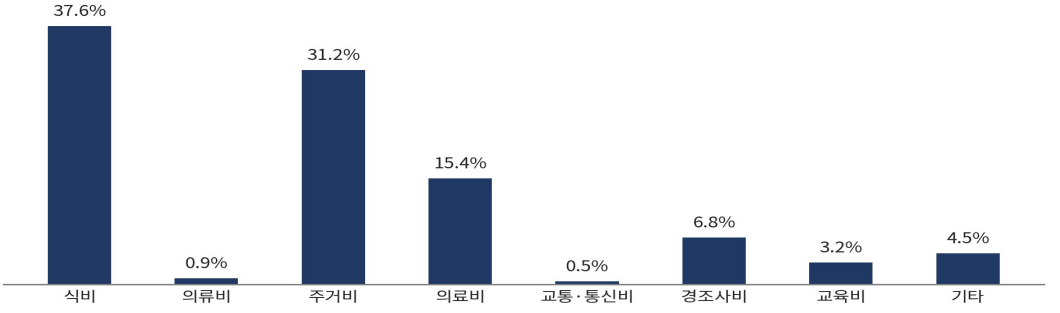
❍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항목은 '식비'가 83명(37.6%)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거비' 69명(31.2%), '의료비' 34명(15.4%), '경조사비' 15명(6.8%), '교육비' 7명(3.2%)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129> 1인가구 생활비 부담 지출

(단위 : N=221, 명(%))

구 분	식비	의류비	주거비	의료비	교통·통신비	경조사비	교육비	기타
N(%)	83(37.6)	2(0.9)	69(31.2)	34(15.4)	1(0.5)	15(6.8)	7(3.2)	10(4.5)

(단위: N=221, %)



[그림 Ⅲ-65] 1인가구 부담 지출 항목

(다) 주거 마련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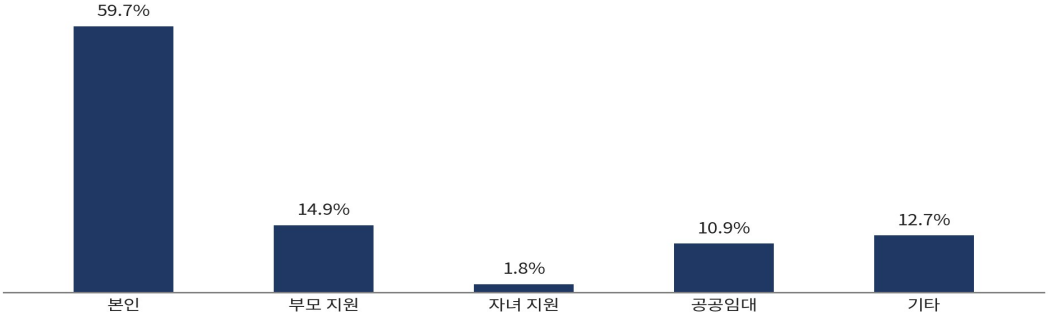
○ 현재 살고 있는 집 마련 방법은 '본인'이 132명(59.7%)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 지원' 33명(14.9%), '기타' 28명(12.7%), '공공임대' 24명(10.9%), '자녀 지원' 4명(1.8%)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130> 1인가구 주거 마련 방법

(단위 : N=221, 명(%))

구 분	본인	부모 지원	자녀 지원	공공임대	기타
N(%)	132(59.7)	33(14.9)	4(1.8)	24(10.9)	28(12.7)

(단위: N=221, %)



[그림 Ⅲ-66] 1인가구 주택 취득 방법

(4) 걱정거리에 대한 의논 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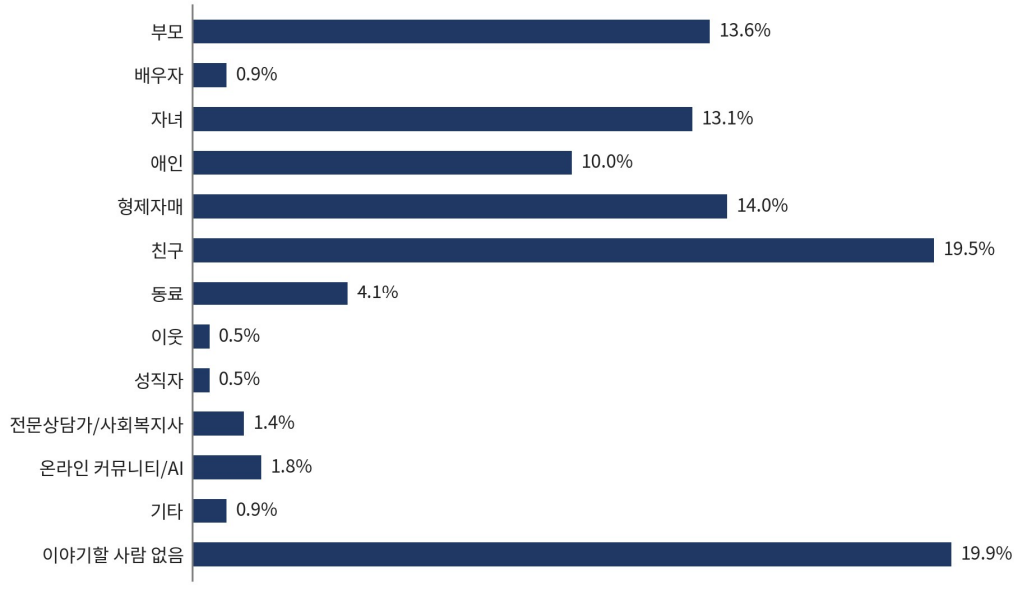
❍ 본인의 문제나 걱정거리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은 '친구'가 43명(19.5%)으로 가장 많았으며, '형제자매' 31명(14.0%), '부모' 30명(13.6%), '자녀' 29명(13.1%), '애인' 22명(1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이야기할 사람 없음'도 44명(19.9%)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Ⅲ-131> 1인가구 고민 상담 대상

(단위 : N=221, 명(%))

구 분	부모	배우자	자녀	애인	형제자매	친구	동료	이웃	성직자	전문상담가/사회복지사	온라인 커뮤니티/AI	기타	이야기할 사람 없음
N(%)	30(13.6)	2(0.9)	29(13.1)	22(10.0)	31(14.0)	43(19.5)	9(4.1)	1(0.5)	1(0.5)	3(1.4)	4(1.8)	2(0.9)	44(19.9)

(단위: N=221, %)



[그림 Ⅲ-67] 1인가구 고민 상담 대상

(5) 1인가구로서의 생활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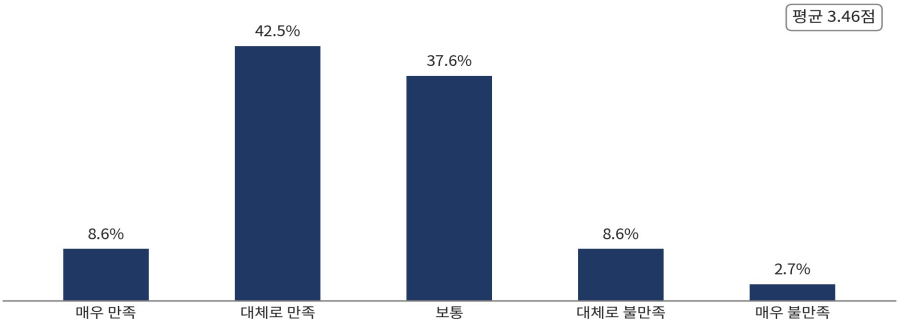
❍ 1인가구로서의 생활만족도 평균은 3.46점으로, '대체로 만족' 94명(42.5%), '보통' 83명(37.6%), '대체로 불만족' 19명(8.6%), '매우 만족' 19명(8.6%), '매우 불만족' 6명(2.7%)의 순으로 나타남. 만족한다는 응답(대체로+매우 만족)은 51.1%였음

<표 Ⅲ-132> 1인가구로서의 생활 만족도

(단위 : N=221, 점, 명(%))

구 분	평균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생활만족도	3.46	6(2.7)	19(8.6)	83(37.6)	94(42.5)	19(8.6)

(단위: N=221, %)



[그림 Ⅲ-68] 1인가구 생활 만족도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1인가구로서의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 및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령)** 30대(3.86점)와 20대(3.82점)가 40대(3.16점), 50대(3.38점), 60대 이상(3.34점)보다 높았음

<표 Ⅲ-1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1인가구 생활만족도

(단위 : N=221, 점)

구 분		1인가구 생활만족도	
		M	SD
성별	남성(N=117)	3.37	0.81
	여성(N=104)	3.56	0.93
	t 값	-1.63	
연령	20대(N=28)	3.82b	0.55
	30대(N=35)	3.86b	0.81
	40대(N=44)	3.16a	1.08
	50대(N=50)	3.38a	0.85
	60대 이상(N=64)	3.34a	0.76
	F 값	5.08***	
혼인 상태	미혼(N=135)	3.57	0.89
	기혼(N=11)	3.36	0.67
	기타(N=75)	3.27	0.83
	F 값	3.05	
거주 권역	동부권(N=41)	3.63	0.92
	서부권(N=55)	3.47	0.88
	남부권(N=83)	3.37	0.82
	북부권(N=42)	3.43	0.91
	F 값	0.84	

*p<.05 **p<.01 ***p<.001

(6) 1인가구 생활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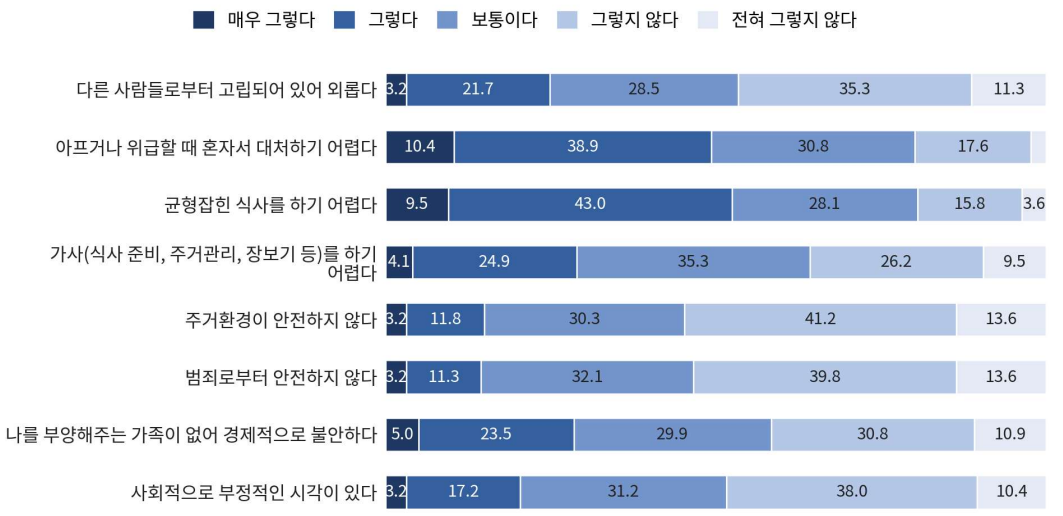
○ 1인가구 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균형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3.39점)와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다'(3.38점)가 높게 나타났으며, '가사(식사 준비, 주거관리, 장보기 등)를 하기 어렵다'(2.88점), '나를 부양해주는 가족이 없어 경제적으로 불안하다'(2.81점),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어 외롭다'(2.70점),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2.65점),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2.51점), '주거환경이 안전하지 않다'(2.50점)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134> 1인가구 생활 어려움

(단위 : N=221, 명(%))

구 분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어 외롭다	2.70	25(11.3)	78(35.3)	63(28.5)	48(21.7)	7(3.2)
2)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다	3.38	5(2.3)	39(17.6)	68(30.8)	86(38.9)	23(10.4)
3) 균형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	3.39	8(3.6)	35(15.8)	62(28.1)	95(43.0)	21(9.5)
4) 가사(식사 준비, 주거관리, 장보기 등)를 하기 어렵다	2.88	21(9.5)	58(26.2)	78(35.3)	55(24.9)	9(4.1)
5) 주거환경이 안전하지 않다	2.50	30(13.6)	91(41.2)	67(30.3)	26(11.8)	7(3.2)
6)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2.51	30(13.6)	88(39.8)	71(32.1)	25(11.3)	7(3.2)
7) 나를 부양해주는 가족이 없어 경제적으로 불안하다	2.81	24(10.9)	68(30.8)	66(29.9)	52(23.5)	11(5.0)
8)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2.65	23(10.4)	84(38.0)	69(31.2)	38(17.2)	7(3.2)

(단위: N=221, %)



[그림 Ⅲ-69] 1인가구 생활 어려움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1인가구의 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 및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Ⅲ-135〉와 같음

<표 Ⅲ-135> 일반적 특성에 따른 1인가구 생활의 어려움

(단위 : N=221, 점)

구 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어 외롭다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다		균형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		가사(식사 준비, 주거관리, 장보기 등)를 하기 어렵다	
		M	SD	M	SD	M	SD	M	SD
성별	남성(N=117)	2.76	1.09	3.35	0.91	3.50	0.97	2.94	0.99
	여성(N=104)	2.63	0.97	3.40	1.03	3.26	0.99	2.81	1.06
	t 값	0.91		−0.41		1.86		0.96	
연령	20대(N=28)	2.86	1.08	3.57b	1.00	3.68b	1.09	3.36b	1.28
	30대(N=35)	2.37	0.94	2.91a	0.98	3.00a	1.00	2.57a	1.09
	40대(N=44)	2.86	1.15	3.43b	1.02	3.55b	1.02	2.82a	0.95
	50대(N=50)	2.74	1.07	3.54b	0.81	3.30ab	1.04	2.90a	0.93
	60대 이상(N=64)	2.67	0.93	3.38b	0.97	3.44ab	0.79	2.86a	0.92
	F 값	1.37		2.76*		2.46*		2.44*	
혼인 상태	미혼(N=135)	2.69	1.03	3.31	0.95	3.32	1.04	2.84	1.07
	기혼(N=11)	2.18	0.87	3.18	1.08	3.18	1.08	2.91	0.94
	기타(N=75)	2.80	1.04	3.52	0.98	3.55	0.84	2.95	0.96
	F 값	1.76		1.36		1.56		0.28	
거주 권역	동부권(N=41)	2.59	1.12	3.32	0.99	3.27	1.00	2.93ab	0.98
	서부권(N=55)	2.64	1.04	3.24	1.00	3.33	1.17	2.69a	1.05
	남부권(N=83)	2.90	0.97	3.57	0.83	3.58	0.78	3.12b	0.98
	북부권(N=42)	2.50	1.02	3.24	1.12	3.21	1.02	2.60a	1.01
	F 값	1.86		1.81		1.77		3.38*	

*p<.05 **p<.01 ***p<.001

<표 Ⅲ-135 계속> 일반적 특성에 따른 1인가구 생활의 어려움

(단위 : N=221, 점)

구 분		주거환경이 안전하지 않다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나를 부양해주는 가족이 없어 경제적으로 불안하다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M	SD	M	SD	M	SD	M	SD
성별	남성(N=117)	2.50	1.03	2.42	0.98	2.83	1.09	2.72	1.03
	여성(N=104)	2.49	0.91	2.61	0.95	2.79	1.06	2.57	0.93
	t 값	0.11		−1.43		0.28		1.13	
연령	20대(N=28)	2.32	0.94	2.75	1.17	2.43a	1.14	2.11a	0.88
	30대(N=35)	2.26	1.07	2.43	1.17	2.34a	1.06	2.23a	1.00
	40대(N=44)	2.73	1.09	2.55	0.98	2.98b	1.05	2.91b	1.01
	50대(N=50)	2.50	0.99	2.42	0.91	3.20b	1.11	3.02b	0.96
	60대 이상(N=64)	2.55	0.82	2.48	0.80	2.81ab	0.91	2.64b	0.86
	F 값	1.42		0.62		4.79**		6.89***	
혼인 상태	미혼(N=135)	2.46	1.01	2.56	1.03	2.76	1.11	2.59	1.03
	기혼(N=11)	2.36	0.67	2.27	0.90	2.64	1.03	2.91	0.83
	기타(N=75)	2.59	0.96	2.45	0.86	2.93	1.00	2.71	0.93
	F 값	0.52		0.60		0.82		0.73	
거주 권역	동부권(N=41)	2.54	0.95	2.46	0.90	2.85	1.01	2.59	0.92
	서부권(N=55)	2.44	1.08	2.36	1.01	2.84	1.18	2.73	0.99
	남부권(N=83)	2.58	0.91	2.64	0.92	2.78	1.00	2.60	0.95
	북부권(N=42)	2.38	0.99	2.48	1.09	2.79	1.14	2.69	1.14
	F 값	0.48		0.95		0.06		0.26	

*p<.05 **p<.01 ***p<.001

-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다)**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30대(2.91점)가 다른 연령대(3.38~3.57점)보다 낮았음
- **(균형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남. 20대(3.68점)와 40대(3.55점)가 30대(3.00점)보다 높았음

- **(가사(식사 준비, 주거관리, 장보기 등)를 하기 어렵다)** 연령과 거주권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대(3.36점)가 다른 연령대(2.57~2.90점)보다 높았으며, 남부권(3.12점)이 서부권(2.69점)과 북부권(2.60점)보다 높았음
- **(나를 부양해주는 가족이 없어 경제적으로 불안하다)**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50대(3.20점)와 40대(2.98점)가 20대(2.43점)와 30대(2.34점)보다 높았음
-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40대 이상(2.64~3.02점)이 20대(2.11점)와 30대(2.23점)보다 높았음

(7) 1인가구 지속 의향

❍ 향후에도 1인가구로 살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183명(82.8%), '없다'는 응답은 38명(17.2%)으로 나타남

<표 Ⅲ-136> 1인가구 지속 의향

(단위 : N=221, 명(%))

구 분	예	아니오
N(%)	183(82.8)	38(17.2)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1인가구 지속 의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성별)** 여성은 1인가구 지속 의향이 있다는 비율(90.4%)이 남성(76.1%)보다 높았음

- **(연령)** 60대 이상(89.1%)과 40대(88.6%)는 지속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높았던 반면, 30대(62.9%)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음
- **(혼인상태)** 기타는 지속 의향이 있다는 비율(93.3%)이 미혼(78.5%)보다 높았음
- **(거주권역)** 남부권(90.4%)과 서부권(85.5%)은 지속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높았던 반면, 북부권(71.4%)과 동부권(75.6%)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표 Ⅲ-137> 일반적 특성에 따른 1인가구 지속 의향

(단위 : N=221, 명(%))

구 분		예	아니오	χ^2
성별	남성(N=117)	89(76.1)	28(23.9)	7.93**
	여성(N=104)	94(90.4)	10(9.6)	
연령	20대(N=28)	23(82.1)	5(17.9)	12.65*
	30대(N=35)	22(62.9)	13(37.1)	
	40대(N=44)	39(88.6)	5(11.4)	
	50대(N=50)	42(84.0)	8(16.0)	
	60대 이상(N=64)	57(89.1)	7(10.9)	
혼인 상태	미혼(N=135)	106(78.5)	29(21.5)	10.42**
	기혼(N=11)	7(63.6)	4(36.4)	
	기타(N=75)	70(93.3)	5(6.7)	
거주 권역	동부권(N=41)	31(75.6)	10(24.4)	8.91*
	서부권(N=55)	47(85.5)	8(14.5)	
	남부권(N=83)	75(90.4)	8(9.6)	
	북부권(N=42)	30(71.4)	12(28.6)	

주: 혼인상태 중 기혼(N=11)은 사례 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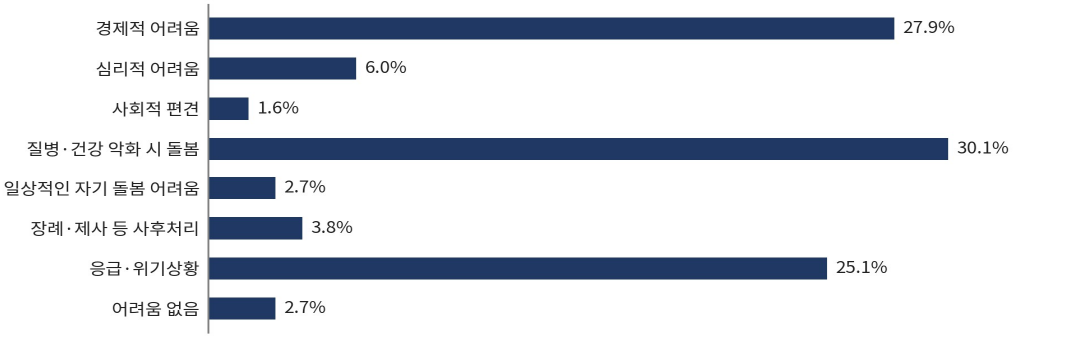
○ 향후에도 1인가구로 살 의향이 있는 조사대상자(183명)가 가장 걱정하는 어려움은 '질병·건강 악화 시 돌봄'이 55명(30.1%)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어려움' 51명(27.9%), '응급·위기 상황' 46명(25.1%), '심리적 어려움' 11명(6.0%), '장례·제사 등 사후처리' 7명(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138> 향후 1인가구 지속시 우려 사항

(단위 : N=183, 명(%))

구 분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질병·건강 악화 시 돌봄	일상적인 자기 돌봄 어려움	장례·제사 등 사후처리	응급·위기 상황	어려움 없음
N(%)	51(27.9)	11(6.0)	3(1.6)	55(30.1)	5(2.7)	7(3.8)	46(25.1)	5(2.7)

(단위: N=183, %)



[그림 Ⅲ-70] 향후 1인가구 지속 시 우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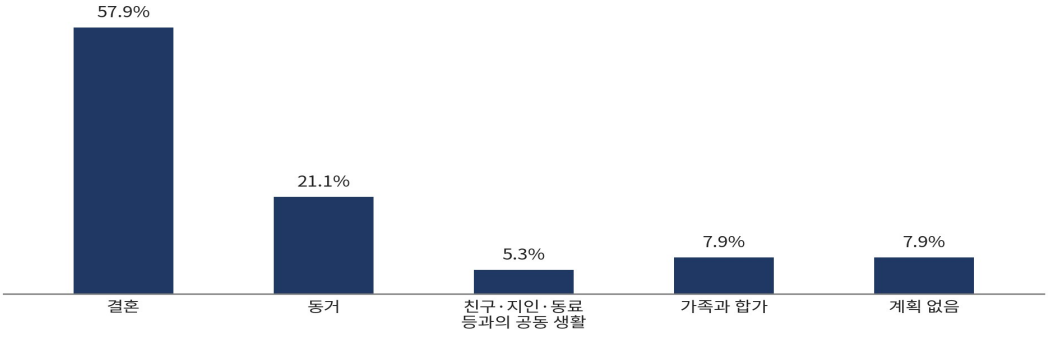
❍ 향후에는 1인가구로 살 의향이 없는 조사대상자(38명)의 향후 계획은 '결혼'이 22명(57.9%)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거' 8명(21.1%), '가족과 합가'와 '계획 없음' 각 3명(7.9%), '친구·지인·동료 등과의 공동 생활' 2명(5.3%)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139> 비1인가구 전환 시 향후 계획

(단위 : N=38, 명(%))

구 분	결혼	동거	친구·지인·동료 등과의 공동 생활	가족과 합가	계획 없음
N(%)	22(57.9)	8(21.1)	2(5.3)	3(7.9)	3(7.9)

(단위: N=38, %)



[그림 Ⅲ-71] 비1인가구로 전환 시 향후 계획

(8) 1인가구 위한 우선 추진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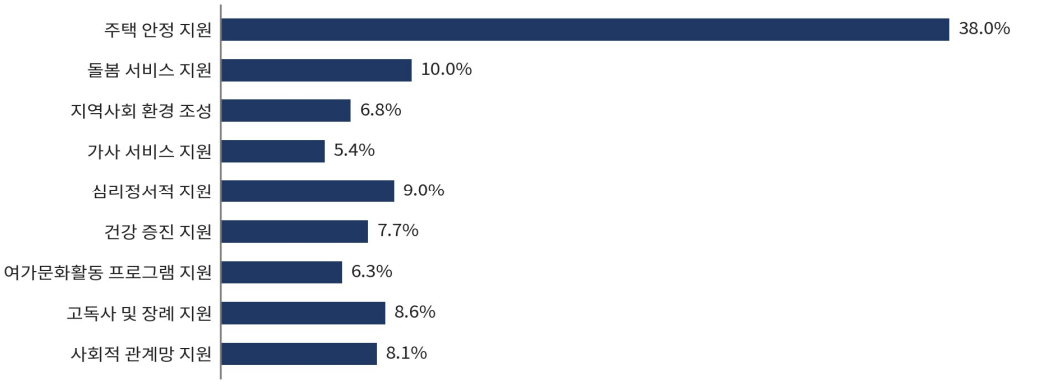
❍ 경상북도에 필요한 1인가구 정책은 '주택 안정 지원'이 84명(38.0%)으로 가장 많았으며, '돌봄 서비스 지원' 22명(10.0%), '심리정서적 지원' 20명(9.0%), '고독사 및 장례 지원' 19명(8.6%), '사회적 관계망 지원' 18명(8.1%), '건강 증진 지원' 17명(7.7%)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140> 1인가구 우선 추진 정책

(단위 : N=221, 명(%))

구분	주택 안정 지원	돌봄 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환경 조성	가사 서비스 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건강 증진 지원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지원	고독사 및 장례 지원	사회적 관계망 지원
N(%)	84(38.0)	22(10.0)	15(6.8)	12(5.4)	20(9.0)	17(7.7)	14(6.3)	19(8.6)	18(8.1)

(단위: N=221, %)



[그림 Ⅲ-72] 1인가구 우선 추진 정책

11) 가족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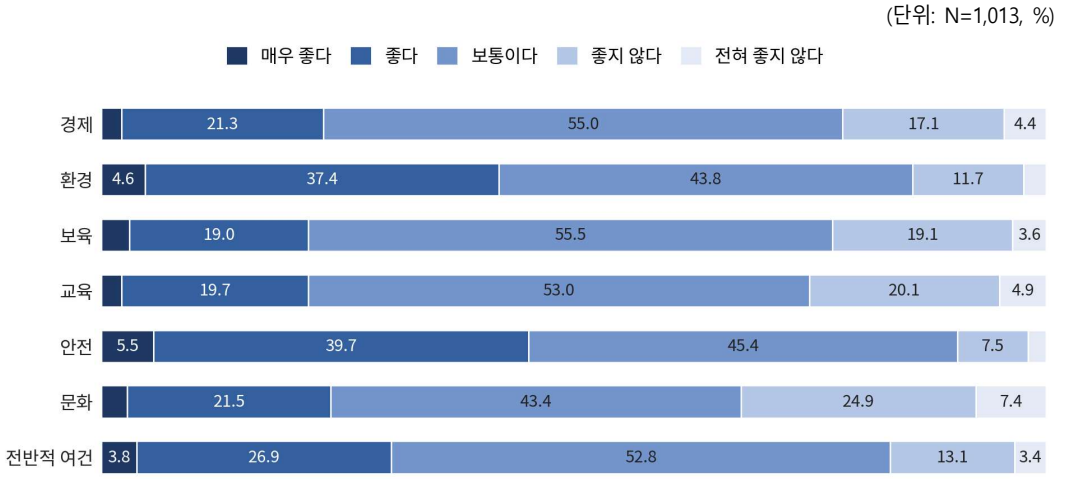
(1) 지역 가족 여건 인식

○ 경상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족이 살기에 좋은 지역이라는 인식은 '안전'이 3.3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환경' 3.30점, '전반적 여건' 3.15점, '경제' 3.00점, '보육' 2.99점, '교육' 2.94점, '문화' 2.87점의 순으로 나타남. 특히 문화는 좋지 않다는 응답(전혀 좋지 않다+좋지 않다)이 32.3%로 가장 높았음

<표 Ⅲ-141> 지역 가족 여건 인식

(단위 : N=1,013, 명(%))

구 분	평균	전혀 좋지 않다	좋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좋다	매우 좋다
1) 경제	3.00	45(4.4)	173(17.1)	557(55.0)	216(21.3)	22(2.2)
2) 환경	3.30	24(2.4)	119(11.7)	444(43.8)	379(37.4)	47(4.6)
3) 보육	2.99	36(3.6)	193(19.1)	562(55.5)	192(19.0)	30(3.0)
4) 교육	2.94	50(4.9)	204(20.1)	537(53.0)	200(19.7)	22(2.2)
5) 안전	3.39	19(1.9)	76(7.5)	460(45.4)	402(39.7)	56(5.5)
6) 문화	2.87	75(7.4)	252(24.9)	440(43.4)	218(21.5)	28(2.8)
7) 전반적 여건	3.15	34(3.4)	133(13.1)	535(52.8)	273(26.9)	38(3.8)



[그림 Ⅲ-73] 타 지역 대비 가족이 살기 좋은 정도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경북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 및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Ⅲ-142〉와 같음

- **(성별)** '문화'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2.94점)이 여성(2.79점)보다 높았음
- **(연령)** '보육'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체로 20대와 60대 이상이 높고 30~40대가 낮았으며, '전반적 여건'은 20대(3.26점)와 60대 이상(3.24점)이 30대(3.06점)와 40대(3.01점)보다 높았음
- **(혼인상태)** '환경'과 '안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타(3.46점, 3.52점)가 미혼(3.23점, 3.29점)보다 높았음
- **(거주권역)** '환경'과 '문화'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환경'은 북부권(3.42점)과 남부권(3.35점)이 동부권(3.19점)보다, '문화'는 남부권(3.08점)이 다른 권역(2.74~2.82점)보다 높았음

<표 Ⅲ-14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 관련 경북에 대한 인식

(단위 : N=1,013, 점)

구 분		경제		환경		보육		교육	
		M	SD	M	SD	M	SD	M	SD
성별	남성(N=556)	3.01	0.83	3.29	0.83	2.98	0.82	2.96	0.85
	여성(N=457)	2.98	0.78	3.31	0.82	3.00	0.77	2.91	0.79
	t 값	0.44		−0.30		−0.38		0.99	
연령	20대(N=134)	3.14c	0.94	3.37bc	0.97	3.10b	0.95	3.07c	0.95
	30대(N=138)	2.87a	0.85	3.20ab	0.84	2.89a	0.92	2.80a	0.88
	40대(N=192)	2.88a	0.74	3.08a	0.81	2.90a	0.73	2.82ab	0.78
	50대(N=230)	2.96ab	0.82	3.31bc	0.82	2.98ab	0.78	2.96abc	0.79
	60대 이상(N=319)	3.09b	0.73	3.45c	0.73	3.04ab	0.73	3.00bc	0.79
	F 값	4.13**		6.98***		2.17		3.28*	
혼인 상태	미혼(N=324)	2.98	0.84	3.23a	0.89	2.94	0.86	2.91	0.86
	기혼(N=582)	2.99	0.79	3.31ab	0.79	3.00	0.79	2.96	0.82
	기타(N=107)	3.07	0.78	3.46b	0.80	3.06	0.70	2.94	0.72
	F 값	0.45		3.15*		1.10		0.33	
거주 권역	동부권(N=246)	3.00	0.79	3.19a	0.82	3.00	0.79	2.95	0.83
	서부권(N=280)	3.06	0.81	3.27ab	0.81	3.03	0.79	2.94	0.78
	남부권(N=294)	2.97	0.82	3.35b	0.81	3.02	0.79	2.99	0.81
	북부권(N=193)	2.95	0.80	3.42b	0.86	2.87	0.84	2.85	0.90
	F 값	0.84		3.23*		1.90		1.05	

*p<.05 **p<.01 ***p<.001

<표 Ⅲ-142 계속>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 관련 경북에 대한 인식

(단위 : N=1,013, 점)

구 분		안전		문화		전반적 여건	
		M	SD	M	SD	M	SD
성별	남성(N=455)	3.41	0.83	2.94	0.92	3.19	0.84
	여성(N=306)	3.38	0.72	2.79	0.93	3.10	0.79
	t 값	0.53		2.55*		1.69	
연령	20대(N=95)	3.36ab	0.93	3.00bc	1.06	3.26b	0.97
	30대(N=117)	3.26a	0.93	2.73a	1.03	3.06a	0.89
	40대(N=151)	3.23a	0.73	2.68a	0.86	3.01a	0.80
	50대(N=192)	3.43bc	0.72	2.83ab	0.89	3.12ab	0.80
	60대 이상(N=206)	3.54c	0.69	3.03c	0.85	3.24b	0.71
	F 값	5.96***		6.17***		3.61**	
혼인 상태	미혼(N=244)	3.29a	0.85	2.80	0.98	3.12	0.89
	기혼(N=442)	3.43ab	0.73	2.88	0.91	3.16	0.80
	기타(N=75)	3.52b	0.81	3.04	0.79	3.16	0.68
	F 값	4.95**		2.68		0.18	
거주 권역	동부권(N=182)	3.43	0.77	2.74a	0.93	3.10	0.79
	서부권(N=219)	3.42	0.76	2.81a	0.90	3.12	0.84
	남부권(N=217)	3.35	0.79	3.08b	0.87	3.19	0.77
	북부권(N=143)	3.38	0.82	2.82a	0.99	3.17	0.88
	F 값	0.66		7.26***		0.73	

*p<.05 **p<.01 ***p<.001

(2) 지원이 가장 필요한 가족형태

○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족형태(순위별 가중치)는 '노인 1인가구'가 18.5%로 가장 높았으며, '환자 돌봄 가족' 15.1%, '장애인 가족' 13.5%, '한부모 가족' 9.4%, '맞벌이 가족' 9.3%, '조손 가족' 6.3%, '가족돌봄청년' 5.7%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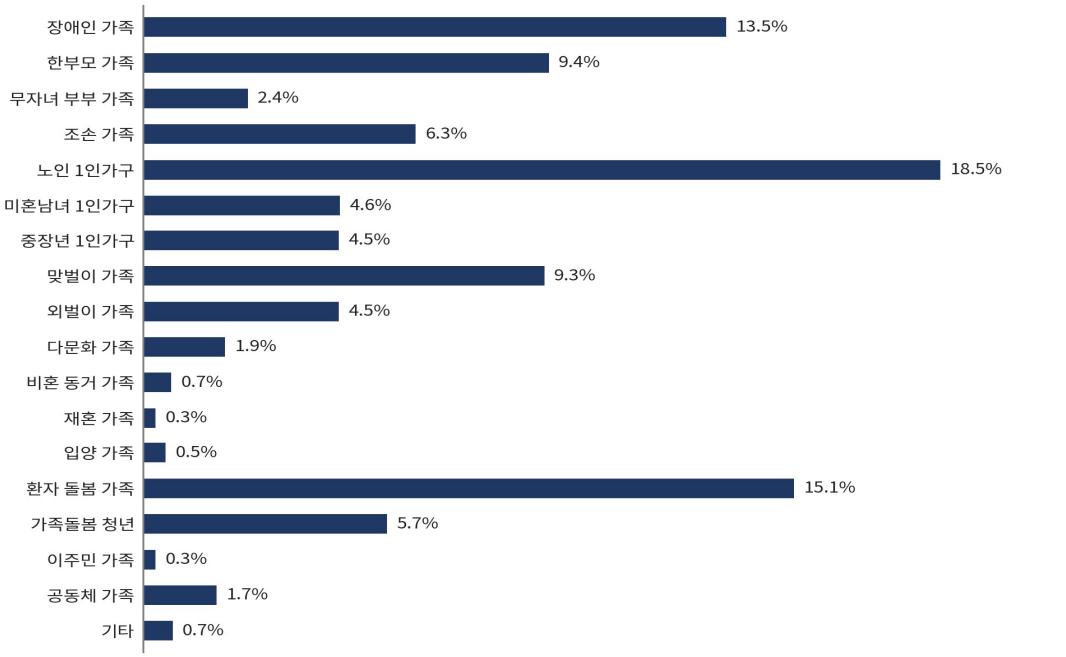
<표 Ⅲ-143> 중점 지원 필요 가족 형태

(단위 : N=1,013, %)

구 분	장애인 가족	한부모 가족	무자녀 부부 가족	조손 가족	노인 1인가구	미혼남녀 1인가구	중장년 1인가구	맞벌이 가족	외벌이 가족
N(%)	13.5	9.4	2.4	6.3	18.5	4.6	4.5	9.3	4.5
구 분	다문화 가족	비혼 동거 가족	재혼 가족	입양 가족	환자 돌봄 가족	가족돌봄 청년	이주민 가족	공동체 가족	기타
N(%)	1.9	0.7	0.3	0.5	15.1	5.7	0.3	1.7	0.7

주 : 순위별 가중치

(순위별 가중치 적용, 단위: N=1,013, %)



[그림 Ⅲ-74] 중점 지원이 필요한 가족형태

(3) 가족지원서비스

(가) 가족지원서비스 인지도

❍ 가족지원서비스 인지도(1~3점)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1.8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1.65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1.62점, '공동육아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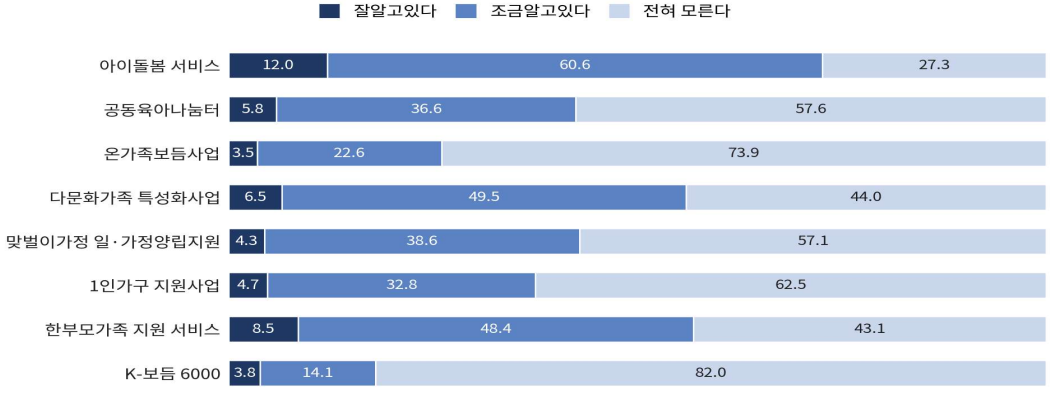
눔터' 1.48점,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1.47점, '1인가구 지원사업' 1.42점, '온가족보듬사업' 1.30점, 'K-보듬 6000' 1.22점의 순으로 나타남. '아이돌봄 서비스'는 알고 있다는 응답(조금+잘 알고 있다)이 72.6%였던 반면, 'K-보듬 6000'(82.0%)과 '온가족보듬사업'(73.9%)은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높았음

<표 Ⅲ-144> 가족지원서비스 인지도

(단위 : N=1,013, 명(%))

구 분	평균	전혀 모른다	조금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1) 아이돌봄 서비스	1.85	277(27.3)	614(60.6)	122(12.0)
2) 공동육아나눔터	1.48	583(57.6)	371(36.6)	59(5.8)
3) 온가족보듬사업	1.30	749(73.9)	229(22.6)	35(3.5)
4)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1.62	446(44.0)	501(49.5)	66(6.5)
5)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1.47	578(57.1)	391(38.6)	44(4.3)
6) 1인가구 지원사업	1.42	633(62.5)	332(32.8)	48(4.7)
7)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1.65	437(43.1)	490(48.4)	86(8.5)
8) K-보듬 6000	1.22	831(82.0)	143(14.1)	39(3.8)

(단위: N=1,013, %)



[그림 Ⅲ-75] 가족지원서비스 인지도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가족지원서비스 인지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 및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Ⅲ-145〉와 같음. 거주권역에 따른 차이는 모든 서비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Ⅲ-14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인지도

(단위 : N=1,013, 점)

구 분		아이돌봄 서비스		공동육아 나눔터		온가족 보듬사업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M	SD	M	SD	M	SD	M	SD
성별	남성(N=556)	1.78	0.57	1.45	0.56	1.33	0.54	1.62	0.57
	여성(N=457)	1.93	0.64	1.52	0.65	1.25	0.51	1.63	0.64
	t 값	−4.07***		−1.79		2.65**		−0.15	
연령	20대(N=134)	1.81	0.65	1.40	0.58	1.31	0.56	1.57	0.65
	30대(N=138)	1.78	0.64	1.54	0.71	1.27	0.56	1.54	0.62
	40대(N=192)	1.85	0.62	1.55	0.65	1.32	0.54	1.65	0.60
	50대(N=230)	1.93	0.60	1.48	0.59	1.33	0.55	1.69	0.60
	60대 이상(N=319)	1.82	0.57	1.45	0.55	1.26	0.47	1.62	0.58
	F 값	1.85		1.89		0.85		1.62	
혼인 상태	미혼(N=324)	1.69a	0.62	1.34a	0.55	1.23a	0.50	1.51a	0.61
	기혼(N=582)	1.95b	0.59	1.59b	0.63	1.34b	0.55	1.69b	0.60
	기타(N=107)	1.76a	0.56	1.34a	0.49	1.21a	0.46	1.60ab	0.58
	F 값	22.44***		22.10***		5.91**		9.52***	
거주 권역	동부권(N=246)	1.84	0.60	1.45	0.58	1.30	0.53	1.64	0.58
	서부권(N=280)	1.85	0.59	1.51	0.64	1.28	0.53	1.61	0.62
	남부권(N=294)	1.85	0.62	1.47	0.59	1.33	0.54	1.65	0.62
	북부권(N=193)	1.85	0.64	1.50	0.61	1.26	0.50	1.59	0.60
	F 값	0.01		0.56		0.67		0.46	

*p<.05 **p<.01 ***p<.001
주 : 평균은 1점(전혀 모른다)~3점(잘 알고 있다)으로 환산함

<표 Ⅲ-145 계속>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인지도

(단위 : N=1,013, 점)

구 분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 지원		1인가구 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K-보듬 6000	
		M	SD	M	SD	M	SD	M	SD
성별	남성(N=556)	1.50	0.56	1.48	0.60	1.63	0.62	1.28	0.55
	여성(N=457)	1.44	0.60	1.35	0.55	1.69	0.65	1.15	0.42
	t 값	1.64		3.75***		-1.54		4.29***	
연령	20대(N=134)	1.48	0.62	1.69b	0.71	1.71	0.67	1.28b	0.57
	30대(N=138)	1.38	0.56	1.41a	0.64	1.58	0.65	1.30b	0.62
	40대(N=192)	1.46	0.59	1.38a	0.55	1.64	0.59	1.26b	0.50
	50대(N=230)	1.53	0.57	1.35a	0.52	1.73	0.67	1.23ab	0.51
	60대 이상(N=319)	1.48	0.58	1.39a	0.53	1.61	0.60	1.13a	0.36
	F 값	1.31		8.48***		1.93		4.41**	
혼인 상태	미혼(N=324)	1.39a	0.56	1.46b	0.64	1.55a	0.63	1.23	0.51
	기혼(N=582)	1.53b	0.58	1.43b	0.56	1.71b	0.62	1.23	0.51
	기타(N=107)	1.40a	0.56	1.29a	0.50	1.66ab	0.66	1.15	0.38
	F 값	7.83***		3.38*		6.****		1.14	
거주 권역	동부권(N=246)	1.48	0.58	1.39	0.54	1.67	0.61	1.20	0.48
	서부권(N=280)	1.45	0.56	1.41	0.58	1.62	0.62	1.20	0.49
	남부권(N=294)	1.51	0.59	1.48	0.61	1.70	0.65	1.24	0.51
	북부권(N=193)	1.44	0.59	1.40	0.60	1.61	0.63	1.24	0.51
	F 값	0.76		1.26		1.36		0.51	

*p<.05 **p<.01 ***p<.001
주 : 평균은 1점(전혀 모른다)~3점(잘 알고 있다)으로 환산함

- **(성별)** '아이돌봄 서비스'는 여성(1.93점)이 남성(1.78점)보다 높았던 반면, '온가족보듬사업', '1인가구 지원사업', 'K-보듬 6000'은 남성(1.33점, 1.48점, 1.28점)이 여성(1.25점, 1.35점, 1.15점)보다 높았음

- **(연령)** '1인가구 지원사업'은 20대(1.69점)가 다른 연령대(1.35~1.41점)보다 높았으며, 'K-보듬 6000'은 20~40대(1.26~1.30점)가 60대 이상(1.13점)보다 높았음
- **(혼인상태)** 'K-보듬 6000'을 제외한 7개 서비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기혼은 '아이돌봄 서비스'(1.95점), '공동육아나눔터'(1.59점),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1.53점),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1.71점) 등에서 미혼(1.69점, 1.34점, 1.39점, 1.55점)보다 인지도가 높았음. 반면 '1인가구 지원사업'은 미혼(1.46점)과 기혼(1.43점)이 기타(1.29점)보다 높았음

(나) 가족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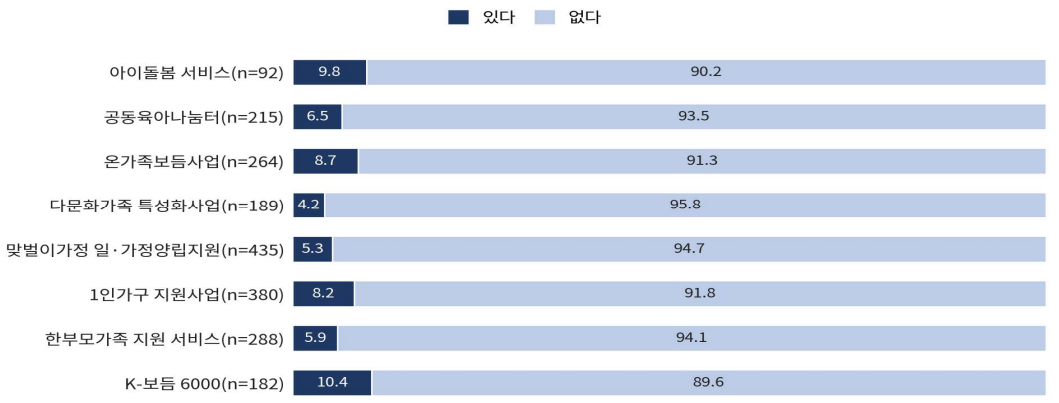
❍ 각 가족지원서비스를 알고 있는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이용 여부를 알아본 결과,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K-보듬 6000'이 10.4%로 가장 높았으며, '아이돌봄 서비스' 9.8%, '온가족보듬사업' 8.7%, '1인가구 지원사업' 8.2%, '공동육아나눔터' 6.5%,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5.9%,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5.3%,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4.2%의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낮았음

<표 Ⅲ-146> 가족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단위 : 명(%))

구 분	N	있다	없다
1) 아이돌봄 서비스	736	72(9.8)	664(90.2)
2) 공동육아나눔터	430	28(6.5)	402(93.5)
3) 온가족보듬사업	264	23(8.7)	241(91.3)
4)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567	24(4.2)	543(95.8)
5)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435	23(5.3)	412(94.7)
6) 1인가구 지원사업	380	31(8.2)	349(91.8)
7)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576	34(5.9)	542(94.1)
8) K-보듬 6000	182	19(10.4)	163(89.6)

(단위: %)



[그림 Ⅲ-76] 가족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다) 가족지원서비스 이용 후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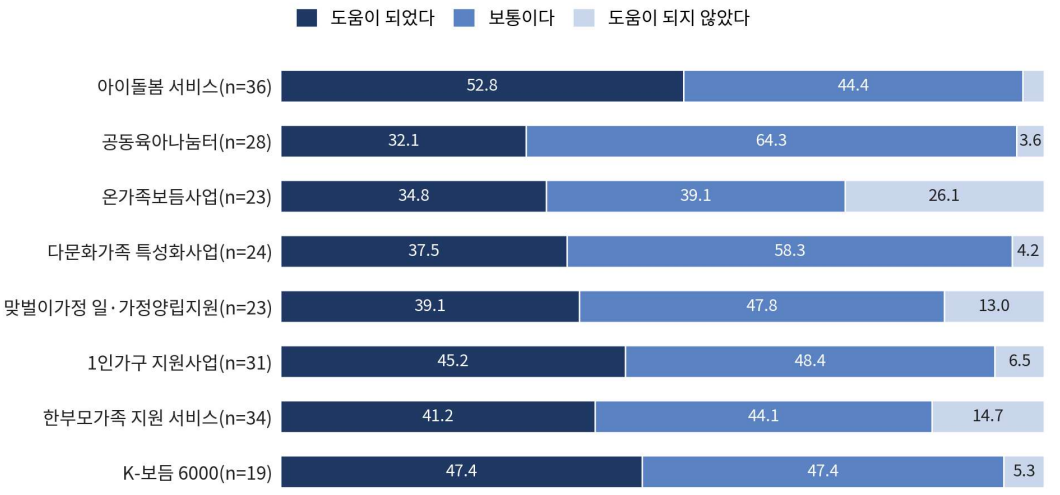
○ 가족지원서비스 이용 후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아이돌봄 서비스'가 52.8%로 가장 높았으며, 'K-보듬 6000' 47.4%, '1인가구 지원사업' 45.2%,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41.2%,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39.1%,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37.5%, '온가족보듬사업' 34.8%, '공동육아나눔터' 32.1%의 순으로 나타남. '온가족보듬사업'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26.1%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Ⅲ-147> 가족지원서비스 이용 후 도움

(단위 : 명(%))

구 분	N	평균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도움이 되었다
1) 아이돌봄 서비스	72	2.50	2(2.8)	32(44.4)	38(52.8)
2) 공동육아나눔터	28	2.29	1(3.6)	18(64.3)	9(32.1)
3) 온가족보듬사업	23	2.09	6(26.1)	9(39.1)	8(34.8)
4)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24	2.33	1(4.2)	14(58.3)	9(37.5)
5)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23	2.26	3(13.0)	11(47.8)	9(39.1)
6) 1인가구 지원사업	31	2.39	2(6.5)	15(48.4)	14(45.2)
7)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34	2.26	5(14.7)	15(44.1)	14(41.2)
8) K-보듬 6000	19	2.42	1(5.3)	9(47.4)	9(47.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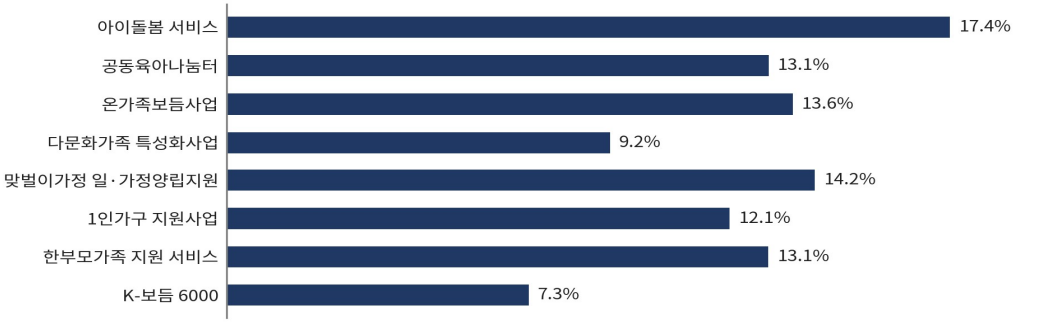


[그림 Ⅲ-77] 가족지원서비스 이용 후 도움 정도

(라) 가족지원서비스 필요도

❍ 가족지원서비스 가족지원 서비스별 필요도를 1~8순위 가중치를 적용하여 살펴보면, '아이돌봄 서비스'가 17.4%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어서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14.2%, '온가족보듬사업' 13.6%, '공동육아나눔터'·'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각 13.1%, '1인가구 지원사업' 12.1% 순으로 나타남

(순위별 가중치 적용, 단위: N=1,013, %)



[그림 Ⅲ-78] 가족지원서비스 필요도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필요도(순위별 가중치)를 살펴본 결과, 모든 집단에서 '아이돌봄 서비스'(16.2~18.1%)가 가장 높았으며, 'K-보듬 6000'(6.8~7.7%)이 가장 낮아 집단 간 서비스별 필요도의 순위는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음. 그러나 생애주기와 가구 특성에 따라 일부 서비스의 필요도에 차이가 있었음

<표 Ⅲ-148>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필요도

(단위 : N=1,013, %)

구 분		아이돌봄 서비스	공동육아 나눔터	온가족 보듬 사업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	맞벌이 가정 일·가정 양립지원	1인가구 지원 사업	한부모 가족 지원 서비스	K-보듬 6000
전체(N=1,013)		17.4	13.1	13.6	9.2	14.2	12.1	13.1	7.3
성별	남성(N=556)	17.1	12.9	13.7	9.8	14.1	12.5	12.6	7.2
	여성(N=457)	17.8	13.3	13.5	8.5	14.2	11.6	13.6	7.4
연령	20대(N=134)	16.2	12.1	12.9	9.7	14.5	13.6	13.5	7.6
	30대(N=138)	17.9	13.0	13.6	8.1	16.0	11.1	12.7	7.7
	40대(N=192)	17.0	12.8	13.9	9.1	15.0	11.5	13.1	7.5
	50대(N=230)	17.5	12.3	13.3	9.9	14.0	12.0	13.9	7.1
	60대 이상(N=319)	18.0	14.2	14.1	9.2	12.9	12.4	12.4	6.9
혼인상태	미혼(N=324)	16.4	11.8	13.4	8.7	14.2	14.7	13.4	7.5
	기혼(N=582)	18.1	13.8	13.8	9.7	14.6	10.1	12.7	7.2
	기타(N=107)	17.2	12.8	13.7	8.7	11.6	15.1	14.1	6.8
거주권역	동부권(N=246)	17.7	12.9	13.3	9.4	14.3	11.5	14.0	7.0
	서부권(N=280)	17.4	13.3	13.2	9.0	14.5	12.2	13.1	7.3
	남부권(N=294)	17.5	12.8	13.9	8.8	13.9	12.8	12.9	7.4
	북부권(N=193)	17.1	13.3	14.4	10.1	14.0	11.7	12.0	7.4

주 : 순위별 가중치

- **(성별)** 남성과 여성 모두 '아이돌봄 서비스'(17.1%, 17.8%)가 가장 높았으며, 여성은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13.6%)가 남성(12.6%)보다, 남성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9.8%)이 여성(8.5%)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 **(연령)** 30대와 40대는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16.0%, 15.0%)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으며, 20대는 '1인가구 지원사업'(13.6%)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60대 이상은 '아이돌봄 서비스'(18.0%)와 '공동육아나눔터'(14.2%)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음
- **(혼인상태)** 미혼과 기타는 '1인가구 지원사업'(14.7%, 15.1%)이 기혼(10.1%)보다 높았던 반면, 기혼은 '아이돌봄 서비스'(18.1%), '공동육아나눔터'(13.8%),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14.6%)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거주권역)** 권역 간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북부권은 '온가족보듬사업'(14.4%)과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10.1%)이, 동부권은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14.0%)가 다른 권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4) 가족지원서비스 및 가족정책 인지 경로

○ 가족지원서비스 및 가족정책 인지 경로(순위별 가중치)는 '홈페이지·SNS 등 온라인'이 24.7%로 가장 높았으며, '관공서 안내' 20.8%, '주변사람들의 소개 및 안내' 17.3%, '신문·방송매체 홍보' 15.1%, '홍보지·현수막 등 광고' 14.1%, '관련 기관의 홍보' 8.0%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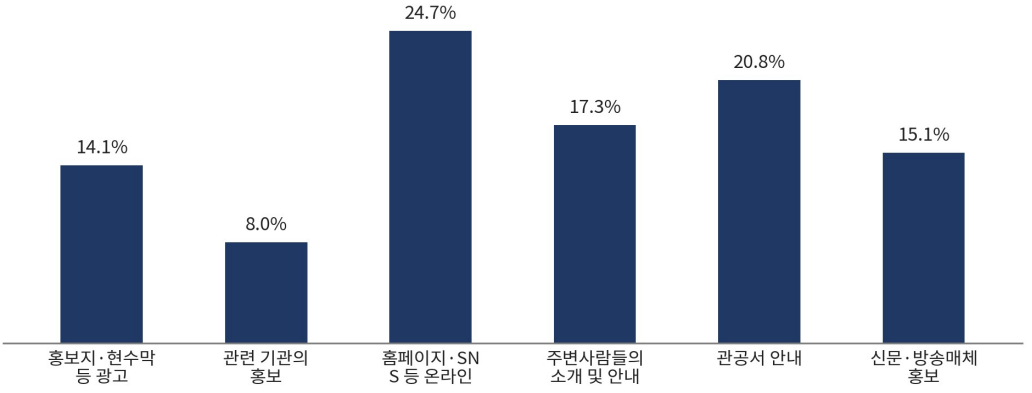
<표 Ⅲ-149> 가족지원서비스 및 가족정책 인지 경로

(단위 : N=846, %)

구 분	홍보지·현수막 등 광고	관련 기관의 홍보	홈페이지·SNS 등 온라인	주변사람들의 소개 및 안내	관공서 안내	신문·방송 매체 홍보
%	14.1	8.0	24.7	17.3	20.8	15.1

주 : 순위별 가중치

(순위별 가중치 적용, 단위: N=846, %)



[그림 Ⅲ-79] 가족지원서비스 및 가족정책 인지 경로

❍ 가족지원서비스를 알고 있는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및 가족정책 인지 경로(순위별 가중치)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홈페이지·SNS 등 온라인'이 가장 높았으나, 연령에 따라 주된 인지 경로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음

- **(성별)** 남성은 '관련 기관의 홍보'(10.2%)와 '신문·방송 매체 홍보'(16.5%)가 여성(5.3%, 13.4%)보다 높았던 반면, 여성은 '주변 사람들의 소개 및 안내'(20.7%)와 '관공서 안내'(22.8%)가 남성(14.4%, 19.2%)보다 높았음
- **(연령)** 20대(39.3%)와 30대(33.7%)는 '홈페이지·SNS 등 온라인'이 다른 연령대보다 크게 높았으며, 40대는 '관공서 안내'(23.6%)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반면 60대 이상은 '홈페이지·SNS 등 온라인'(14.7%)이 가장 낮았고, '관공서 안내'(21.8%), '주변 사람들의 소개 및 안내'(21.2%), '신문·방송 매체 홍보'(19.8%)가 높아, 연령이 높을수록 온라인보다 대면·전통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경향을 보였음
- **(혼인상태)** 미혼은 '홈페이지·SNS 등 온라인'(32.3%)이 기혼(22.3%)보다 높았던 반면, 기혼은 '관공서 안내'(22.4%)와 '주변 사람들의 소개 및 안내'(18.5%)가 미혼(17.9%, 13.1%)보다 높았음
- **(거주권역)** 북부권은 '관공서 안내'(26.2%), '주변 사람들의 소개 및 안내

'(21.1%), '관련 기관의 홍보'(11.4%)가 다른 권역보다 높았던 반면, '신문·방송 매체 홍보'(9.1%)는 가장 낮았음. 남부권은 '홍보지·현수막 등 광고'(17.9%)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Ⅲ-150>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및 가족정책 인지 경로

(단위 : N=846, %)

구 분		홍보지·현수막 등 광고	관련 기관의 홍보	홈페이지·SNS 등 온라인	주변 사람들의 소개 및 안내	관공서 안내	신문·방송 매체 홍보	한부모 가족 지원 서비스	K-보듬 6000
전체(N=846)		14.1	8.0	24.7	17.3	20.8	15.1	13.1	7.3
성별	남성(N=456)	14.5	10.2	25.2	14.4	19.2	16.5	12.6	7.2
	여성(N=390)	13.7	5.3	24.1	20.7	22.8	13.4	13.6	7.4
연령	20대(N=112)	16.7	7.7	39.3	12.5	15.5	8.3	13.5	7.6
	30대(N=101)	13.2	6.6	33.7	17.5	19.5	9.6	12.7	7.7
	40대(N=154)	10.8	8.4	26.6	15.6	23.6	14.9	13.1	7.5
	50대(N=196)	13.3	10.2	24.7	15.6	21.1	15.1	13.9	7.1
	60대 이상(N=283)	15.8	6.7	14.7	21.2	21.8	19.8	12.4	6.9
혼인 상태	미혼(N=234)	15.8	7.8	32.3	13.1	17.9	13.0	13.4	7.5
	기혼(N=516)	13.1	8.7	22.3	18.5	22.4	15.1	12.7	7.2
	기타(N=96)	15.3	4.5	19.1	21.2	19.8	20.1	14.1	6.8
거주 권역	동부권(N=205)	12.8	8.1	26.3	18.4	17.9	16.4	14.0	7.0
	서부권(N=230)	13.6	6.8	26.8	14.9	21.3	16.5	13.1	7.3
	남부권(N=242)	17.9	6.5	23.7	16.0	19.1	16.8	12.9	7.4
	북부권(N=169)	10.8	11.4	21.3	21.1	26.2	9.1	12.0	7.4

주 : 순위별 가중치

(5) 가장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

○ 조사대상자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족지원서비스(순위별 가중치)는 '1인 가구 생애주기별 지원'이 12.9%로 가장 높았으며, '노부모 돌봄 지원' 12.8%, '임신·출산·자녀양육방법 교육 및 상담 지원' 12.2%, '가족여가 및 문화프로그램 제

공' 11.5%,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9.9%,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9.3%, '가족상담' 8.8%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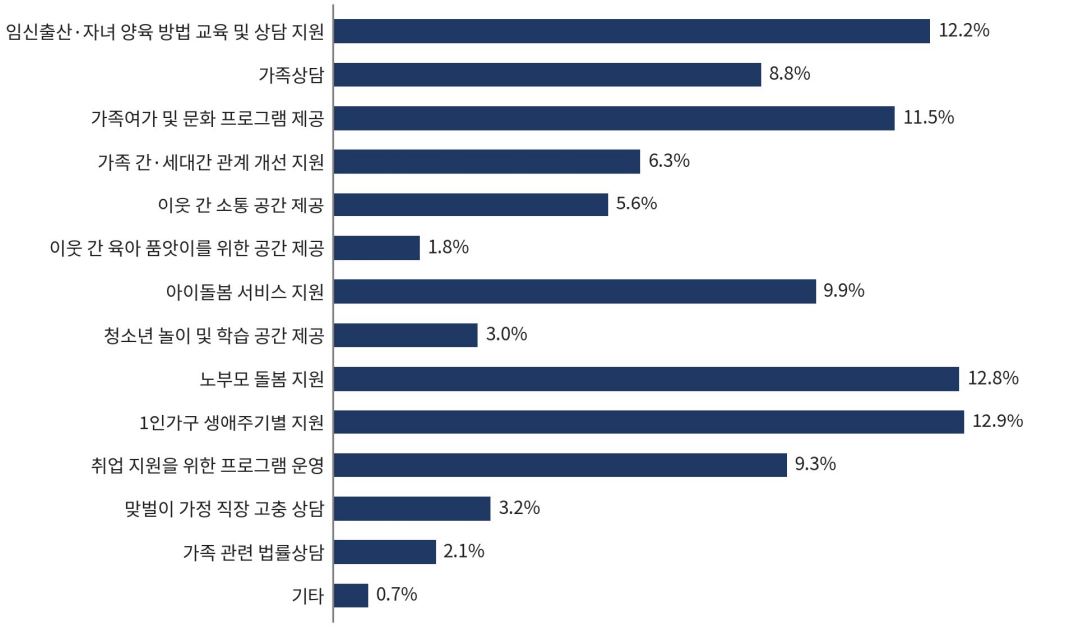
<표 Ⅲ-151> 가장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

(단위 : N=1,013,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	12.2	8.8	11.5	6.3	5.6	1.8	9.9	3.0	12.8	12.9	9.3	3.2	2.1	0.7

주 : 순위별 가중치
① 임신출산·자녀 양육 방법 교육 및 상담 지원, ② 가족상담, ③ 가족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 제공, ④ 가족 간·세대간 관계 개선 지원, ⑤ 이웃 간 소통 공간 제공, ⑥ 이웃 간 육아 품앗이를 위한 공간 제공, ⑦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⑧ 청소년 놀이 및 학습 공간 제공, ⑨ 노부모 돌봄 지원, ⑩ 1인가구 생애주기별 지원, ⑪ 취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⑫ 맞벌이 가정 직장 고충 상담, ⑬ 가족 관련 법률상담, ⑭ 기타

(순위별 가중치 적용, 단위: N=1,013, %)



[그림 Ⅲ-80] 가장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라 가장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순위별 가중치)를 살펴본 결과, 생애주기와 가구 특성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뚜렷하게 다르게 나타났음

- **(성별)** 남성은 '임신·출산·자녀 양육방법 교육 및 상담 지원'(14.4%)과 '가족 간·세대 간 관계 개선 지원'(7.6%)이 여성(9.5%, 4.7%)보다 높았던 반면, 여성은 '1인가구 생애주기별 지원'(14.0%), '노부모 돌봄 지원'(13.8%), '취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10.5%)이 남성(12.0%, 12.0%, 8.3%)보다 높았음
- **(연령)** 20대는 '취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18.4%)과 '1인가구 생애주기별 지원'(17.4%)이 높았으며, 30대는 '임신·출산·자녀 양육방법 교육 및 상담 지원'(16.4%)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13.5%)이, 40대는 '가족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 제공'(14.9%)과 '청소년 놀이 및 학습 공간 제공'(6.8%)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음. 50대와 60대 이상은 '노부모 돌봄 지원'(17.0%, 18.5%)이 가장 높아, 자녀의 성장 단계와 부모의 노령화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이동하는 양상을 보였음
- **(혼인상태)** 미혼(24.8%)과 기타(28.7%)는 '1인가구 생애주기별 지원'이 가장 높았던 반면 기혼은 3.4%에 그쳤음. 기혼은 '노부모 돌봄 지원'(14.4%), '가족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 제공'(14.2%),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12.0%)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거주권역)** 동부권은 '노부모 돌봄 지원'(15.0%)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12.1%)이, 남부권은 '1인가구 생애주기별 지원'(16.4%)이, 서부권은 '임신·출산·자녀 양육방법 교육 및 상담 지원'(14.3%)이 다른 권역보다 높았음. 북부권은 '가족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 제공'(13.0%)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가족상담'(5.7%)은 낮았음

<표 Ⅲ-15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장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

(단위 : N=846, %)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전체(N=846)		12.2	8.8	11.5	6.3	5.6	1.8	9.9	3.0	12.8	12.9	9.3	3.2	2.1	0.7
성별	남성(N=456)	14.4	8.4	11.6	7.6	6.8	1.9	9.7	1.9	12.0	12.0	8.3	3.4	1.5	0.7
	여성(N=390)	9.5	9.2	11.4	4.7	4.2	1.7	10.1	4.2	13.8	14.0	10.5	3.1	2.8	0.8
연령	20대(N=112)	14.9	10.2	9.2	5.0	4.2	1.0	6.0	4.5	5.2	17.4	18.4	2.2	0.7	1.0
	30대(N=101)	16.4	6.8	12.1	5.6	4.3	4.1	13.5	2.4	5.6	13.8	8.5	5.6	1.4	-
	40대(N=154)	10.2	9.7	14.9	4.9	5.4	1.6	10.8	6.8	8.9	13.0	6.6	5.4	1.6	0.3
	50대(N=196)	10.9	11.9	9.0	6.7	3.6	1.4	8.6	2.0	17.0	11.7	10.4	3.2	2.9	0.7
	60대 이상(N=283)	11.4	6.2	11.9	7.7	8.4	1.5	10.3	0.9	18.5	11.4	6.6	1.4	2.7	1.1
혼인상태	미혼(N=234)	11.8	7.0	8.2	4.3	4.8	1.7	7.2	2.6	9.7	24.8	13.8	2.1	1.2	0.7
	기혼(N=516)	13.1	10.5	14.2	7.2	5.4	2.1	12.0	3.4	14.4	3.4	7.1	4.2	2.5	0.5
	기타(N=96)	8.7	4.7	6.5	7.5	9.0	0.3	6.2	1.6	13.7	28.7	7.5	1.2	2.5	1.9
거주권역	동부권(N=205)	11.1	9.5	13.1	5.8	4.3	0.5	12.1	2.3	15.0	10.3	9.2	4.1	2.2	0.4
	서부권(N=230)	14.3	8.7	10.8	4.3	6.1	2.0	7.6	3.6	13.1	13.8	10.8	3.0	1.7	0.2
	남부권(N=242)	10.5	10.2	9.8	7.7	6.1	1.7	9.8	2.3	11.0	16.4	9.0	2.3	2.2	1.1
	북부권(N=169)	13.1	5.7	13.0	7.6	5.9	3.1	10.5	4.0	12.3	9.5	7.6	4.0	2.6	1.2

주 : 순위별 가중치
① 임신출산·자녀 양육 방법 교육 및 상담 지원, ② 가족상담, ③ 가족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 제공, ④ 가족 간·세대간 관계 개선 지원, ⑤ 이웃 간 소통 공간 제공, ⑥ 이웃 간 육아 품앗이를 위한 공간 제공, ⑦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⑧ 청소년 놀이 및 학습 공간 제공, ⑨ 노부모 돌봄 지원, ⑩ 1인가구 생애주기별 지원, ⑪ 취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⑫ 맞벌이 가정 직장 고충 상담, ⑬ 가족 관련 법률상담, ⑭ 기타

(6) 가족정책의 핵심 목표

○ 경상북도가 가족정책을 수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순위별 가중치)는 '모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일과 삶의 균형'이 21.9%로 가장 높았으며, '돌봄의 사회적 책임 확대' 15.5%,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10.7%, '고립위험군에 대

한 사회적 관계망 구축' 10.3%,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 확대' 1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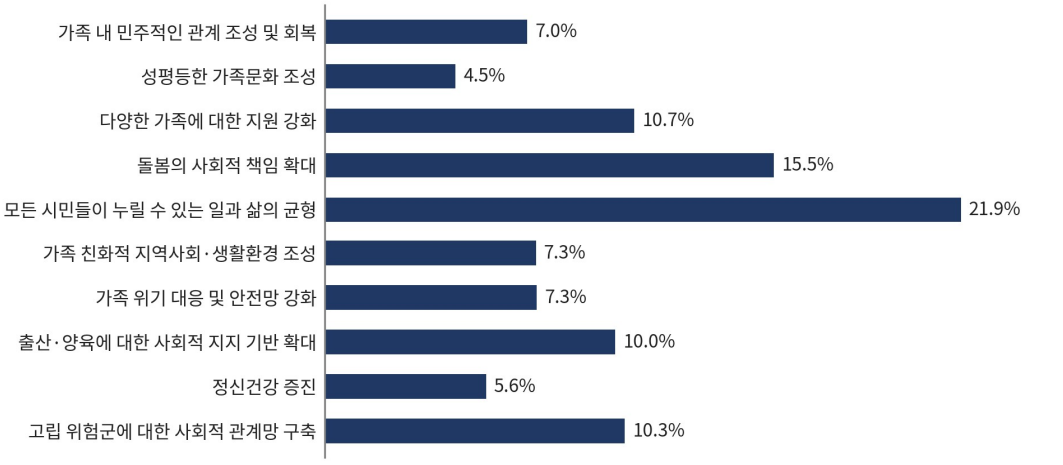
<표 Ⅲ-153> 가족정책의 핵심 목표

(단위 : N=1,013, %)

구분	가족 내 민주적인 관계 조성 및 회복	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돌봄의 사회적 책임 확대	모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일과 삶의 균형	가족 친화적 지역사회·생활 환경 조성	가족 위기 대응 및 안전망 강화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지 기반 확대	정신 건강 증진	고립 위험군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 구축
N(%)	7.0	4.5	10.7	15.5	21.9	7.3	7.3	10.0	5.6	10.3

주 : 순위별 가중치

(순위별 가중치 적용, 단위: N=1,013, %)



[그림 Ⅲ-81] 가족정책의 핵심 목표

❍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거주권역에 따른 가족정책의 핵심 목표(순위별 가중치)를 살펴본 결과, 모든 집단에서 '모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일과 삶의 균형'(19.3~25.0%)이 가장 높았으며, '돌봄의 사회적 책임 확대'가 대체로 그다음으로 높았음. 다만 성별과 혼인상태에 따라 일부 정책목표의 우선순위에 차이가

나타났음

<표 Ⅲ-15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정책의 핵심 목표

(단위 : N=1,013, %)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N=1,013)		7.0	4.5	10.7	15.5	21.9	7.3	7.3	10.0	5.6	10.3
성별	남성(N=556)	7.4	3.4	13.2	15.9	20.2	8.5	6.4	10.9	4.9	9.1
	여성(N=457)	6.5	5.8	7.5	14.9	24.0	5.8	8.4	8.9	6.3	11.9
연령	20대(N=134)	7.2	6.7	10.7	13.2	23.6	5.7	8.7	10.9	5.0	8.2
	30대(N=138)	5.3	6.8	9.2	17.1	19.3	7.7	6.8	11.1	5.1	11.6
	40대(N=192)	6.9	3.6	12.3	16.1	25.0	8.3	5.2	9.0	5.0	8.3
	50대(N=230)	10.0	4.8	11.2	11.0	22.0	5.7	8.1	8.7	5.7	12.9
	60대 이상(N=319)	5.4	2.9	9.9	18.5	20.4	8.3	7.6	10.7	6.3	10.0
혼인 상태	미혼(N=324)	5.3	5.0	9.8	13.8	20.8	6.3	7.8	10.0	5.2	15.9
	기혼(N=582)	8.3	4.6	10.8	16.5	22.7	8.1	7.2	10.8	5.8	5.2
	기타(N=107)	4.7	2.2	12.8	15.0	21.2	5.6	6.2	5.6	5.3	21.5
거주 권역	동부권(N=246)	9.1	3.5	9.6	16.3	21.5	7.7	6.5	11.8	7.6	6.4
	서부권(N=280)	4.8	4.5	9.3	13.3	24.6	7.4	8.8	10.7	4.5	12.0
	남부권(N=294)	7.1	5.7	12.1	16.2	19.8	6.8	7.4	7.0	5.1	12.7
	북부권(N=193)	7.3	4.0	11.7	16.4	21.6	7.3	6.0	11.2	5.2	9.3

주 : 순위별 가중치
① 가족 내 민주적인 관계 조성 및 회복, ② 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③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④ 돌봄의 사회적 책임 확대, ⑤ 모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일과 삶의 균형, ⑥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생활환경 조성, ⑦ 가족위기 대응 및 안전망 강화, ⑧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지 기반 확대, ⑨ 정신건강 증진, ⑩ 고립위험군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 구축

- **(성별)** 여성은 '일과 삶의 균형'(24.0%), '고립 위험군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 구축'(11.9%), '가족 위기 대응 및 안전망 강화'(8.4%), '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5.8%)이 남성(20.2%, 9.1%, 6.4%, 3.4%)보다 높았던 반면, 남성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13.2%)와 '가족 친화적 지역사회·생활환경 조성'(8.5%)이 여성(7.5%, 5.8%)보다 높았음

- **(연령)** 40대는 '일과 삶의 균형'(25.0%)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으며, 30대와 60대 이상은 '돌봄의 사회적 책임 확대'(17.1%, 18.5%)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50대는 '가족 내 민주적인 관계 조성 및 회복'(10.0%)과 '고립 위험군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 구축'(12.9%)이, 20대와 30대는 '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6.7%, 6.8%)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음
- **(혼인상태)** 미혼(15.9%)과 기타(21.5%)는 '고립 위험군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 구축'이 기혼(5.2%)보다 크게 높았으며, 기혼은 '돌봄의 사회적 책임 확대'(16.5%)와 '가족 내 민주적인 관계 조성 및 회복'(8.3%)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거주권역)** 서부권은 '일과 삶의 균형'(24.6%)이, 동부권은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지 기반 확대'(11.8%)와 '정신건강 증진'(7.6%)이 다른 권역보다 높았으며, 남부권은 '고립 위험군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 구축'(12.7%)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12.1%)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4. 소결

1) 가구(주) 특성

❍ 조사대상 가구는 2세대 가구(46.6%)와 3~4인 가구(42.9%)가 가장 많았으나, 1세대 가구(27.9%)와 1인가구(21.8%)도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였음. 특히 60대 이상은 2인 가구(54.9%)와 1세대 가구(51.4%)가 과반을 차지하여, 자녀의 독립 이후 부부 중심으로 생활하는 고령 가구가 경북 가족의 주요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줌. 또한 미혼(41.7%)과 별거·이혼·사별 등 기타(70.1%)는 1인가구의 비율이 높아, 혼인상태의 변화가 곧 가구 형태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Ⅱ장에서 확인한 1~2인 가구 중심으로의 가구 구조 재편과 고령 1인가구의 증가 추세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결과로, 가족정책이 자녀 양육기의 핵가족뿐 아니라 고령 부부가구와 1인가구까지 포괄하는 생애주기 전반의 정책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시사함. 다만 본 조사의 1인가구 비율(21.8%)은 행정통계상

경북의 1인가구 비중(39.6%)보다 낮으므로, 1인가구 관련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가구의 경제적 기반은 근로(사업)소득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음. 주소득원은 '본인 근로(사업)소득'(47.6%)이 가장 많았고, 근로(사업)소득을 주소득원으로 하는 가구가 82.5%에 달하였으며, '공적연금'(9.8%)이 그 뒤를 이었음.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는 65.7%였으나, 200만원 미만인 가구도 17.9%였으며, 여성(20.4%), 20대(26.1%), 60대 이상(21.9%), 별거·이혼·사별 등 기타(44.9%)에서 저소득 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이는 혼인 해체를 경험한 가구와 생애주기상 소득 기반이 약한 청년·고령 가구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임을 의미하며, 이후 분석에서 나타나는 생계 부담과 정주 의향의 차이와도 맞닿아 있음

○ 가구형태(중복응답)로는 맞벌이가족이 35.4%로 가장 많았으며, 주말부부가족(3.3%), 한부모가족(1.4%), 기러기가족(0.8%)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였음. 맞벌이가 가장 보편적인 가구형태라는 점은 일과 가족생활의 병행이 상당수 경북 가족의 일상적 과제임을 보여주며, 규모는 작지만 한부모·조손·입양가족 등은 각기 다른 지원 욕구를 지니므로 대상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

2)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 경상북도 도민의 가족 인식은 여전히 혼인과 혈연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그 내부에서는 세대에 따른 분화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가족 정의에 관한 문항 중 '법적인 혼인과 혈연으로 연결되어야만 가족이라 할 수 있다'(3.44점)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가족 구성원으로 자녀(70.4%), 배우자(69.9%), 부모(66.3%)를 꼽는 비율이 높아 전체적으로는 전통적 가족 개념이 우세하였음. 그러나 20대는 '가족은 내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이다'(3.63점)와 '정서적 유대감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 가족이라 할 수 있다'(3.33점)에 대한 동의 수준이 60대 이상(2.65점, 2.48점)보다 1점 가까이 높았음. 이는 가족을 주어진 제도로 보는 관점에서 개인이 선택하고 형성하는 관계로 보는 관점으로의 이행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세대 교체와 함께 가족 개

념의 외연은 점차 확장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가족정책의 대상 역시 법률상 가족에 한정하기보다 실제로 함께 생활하고 서로를 돌보는 관계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수용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나, 수용의 정도는 사안에 따라 차이를 보였음. '입양한 자녀도 직접 낳은 자녀만큼 잘 키울 수 있다'(3.68점),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동의한다'(3.64점), '한부모도 양부모와 동일하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3.58점) 등 이미 제도권 안에 자리 잡은 가족형태에 대해서는 수용적인 반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한다'(2.91점)와 같이 결혼과 출산의 연계를 벗어나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가 나타났음. 이는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결혼을 전제로 한 출산'이라는 규범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러한 규범과 실제 가족 형태 간의 간극은 비혼 출산 가족 등 소수 가족이 경험하는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 자녀양육에 대해서는 '자녀를 키우는 일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3.93점)가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3.82점)보다 높게 나타나, 양육의 정서적 가치보다 경제적 부담이 더 크게 인식되고 있었음. 특히 자녀를 돌보는 일의 어려움과 기회비용에 대한 인식은 20~30대와 여성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이 실제 출산과 양육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양육 부담에 대한 인식이 출산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 ❍ 가족 내 성역할에 대해서는 모든 영역에서 '함께'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그 비율은 의사결정(84.5%), 가사노동과 가족돌봄(78.7%), 경제적 부양(61.7%)의 순으로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경제적 부양을 남성의 역할로 보는 응답이 36.4%, 가사노동과 가족돌봄을 여성의 역할로 보는 응답이 19.4%로 나타난 것은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돌봄자'라는 전통적 성별 분업 인식이 약화되고는 있으나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음을 의미함. 부모 부양에 대해서도 '딸도 아들도 똑같이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3.74점)에는 높은 동의를 보인 반면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2.70점)에는 낮은 동의를 보여, 부양 책임은 자녀 간에 평등하게 공유하되 동거를 통한 부양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부양 규범이 변화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이는 가족 내 부양 기능을 보완할 공적 노인돌봄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줌

3) 가족 형성

- ❍ 조사대상자의 자녀 출산 의향은 17.7%에 그쳤으며, 20대(59.7%)와 30대(44.9%)에 비해 40대(15.1%)부터 급격히 낮아졌음. 이는 50대 이상의 경우 생애주기상 출산 가능 시기를 지난 데 따른 것으로, 출산 의향의 차이는 20~30대를 중심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순위별 가중치)로는 '나이가 많아서'(33.3%)와 '이미 낳은 자녀로 충분'(30.0%)이 높았는데, 이는 조사대상자 중 50대 이상의 비중이 높은 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음. 이를 제외하면 '경제적 부담'(13.7%)과 '육아에 대한 부담감'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 출산 기피의 핵심에는 양육 비용과 돌봄 부담이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 주목할 점은 사회적 여건이 마련될 경우 자녀를 더 낳을 의향이 '있다'(17.4%)와 '잘 모르겠다'(20.6%)를 합한 응답이 38.0%에 이른다는 것임. 특히 20대는 '잘 모르겠다'(39.6%), 미혼은 '있다'(28.1%)와 '잘 모르겠다'(39.5%)의 비율이 높아, 출산에 대한 결정을 아직 유보하고 있는 청년층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은 정책적 여건에 따라 출산 의향이 달라질 수 있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저출생 대응 정책의 핵심 대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
- ❍ 출산 의향을 높이는 구체적 여건으로는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하여도 급여가 충분하다면'(3.32점),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면'(3.25점), '정부의 육아수당이 늘어난다면'(3.24점)이 높게 나타났음. 특히 20대는 '급여가 충분하다면'(3.50점), '경력 단절이 되지 않는다면'(3.43점),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면'(3.43점)에 대한 응답이 높았으며, 해당 문항 응답자의 약 4분의 1이 50대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출산 연령층의 요구는 전체 평균보다 높을 것으로 보임. 이는 청년층이 출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일을 지속하면서도 소득 감소 없이 양육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조건임을 보여줌. 따라서 현금성 지원의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육아휴직 및 단축근무 기간의 소득 보전 강화, 재택·유연근무의 확산 등 일과 양육의

병행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환경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때 출산 의향의 실질적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또한 Ⅱ장에서 가임기 여성 인구 자체의 감소가 출생 감소를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한 만큼, 출산 지원은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음

4) 가족관계

- ❍ 가족관계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였으나, 관계 유형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음. '나와 자녀와의 관계(미성년 자녀)'(4.05점)가 가장 높은 반면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3.43점)와 '배우자 부모님과의 관계'(3.59점)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부부관계(남성 3.94점, 여성 3.71점)와 배우자 부모님과의 관계(남성 3.75점, 여성 3.39점),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남성 3.60점, 여성 3.24점)에서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낮았음. 배우자와의 갈등 이유에서도 남성은 '내 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8.5%)를, 여성은 '배우자 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7.9%)를 상대적으로 많이 꼽아, 남녀 모두 남편 쪽 원가족과의 관계를 갈등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이는 혼인을 통해 형성되는 인척 관계에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역할 기대와 정서적 부담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보임
- ❍ 가사 분담에서는 인식과 실천 사이의 간극이 분명하게 확인되었음. 대다수가 가사노동과 가족돌봄을 부부가 '함께'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가사노동을 '아내'가 담당한다는 응답이 66.2%로 나타났음. 이는 Ⅱ장에서 사회조사를 통해 확인한 경북의 아내 중심 가사 분담 구조가 본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 것임. 또한 가사 분담의 공평성에 대해서는 모든 영역에서 남성(2.96~3.17점)이 여성(2.46~2.83점)보다 공평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그 격차는 가사노동에서 가장 컸음. 이러한 인식 차이는 분담 실태에 대한 응답에서도 나타나, 가사노동을 '아내'가 담당한다는 응답은 여성(76.2%)이 남성(57.9%)보다 많았던 반면 '두 사람 똑같이'라는 응답은 남성(38.0%)이 여성(22.2%)보다 많았음. 영역별 의사결정에서도 '가사 등 집안일'을 여성은 '아내 주도'(65.9%)로, 남성은 '부부가 함께

'(55.5%)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음. 동일한 분담 상황을 두고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가사 분담이 부부 갈등의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앞서 확인된 여성의 낮은 부부관계 만족도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실제로 30대는 배우자와의 갈등 이유로 '가사 및 육아 분담'(12.3%)을 다른 연령대보다 많이 꼽았음. 따라서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위해서는 인식 개선을 넘어 남성의 실질적인 가사·돌봄 참여를 이끌어내는 교육과 부부 단위 프로그램이 필요함

- ❍ 배우자와의 갈등 이유는 '배우자의 성격/사고방식'(17.2%)과 '경제적 문제'(14.9%)가 높았으며, 갈등 시 '배우자와 함께 문제 해결 노력'(39.1%) 다음으로 '그냥 참는다'(31.4%)는 응답이 많았음. 특히 여성은 '그냥 참는다'(34.5%)가 가장 많은 대처 방식이었던 반면 남성은 '배우자와 함께 문제 해결 노력'(45.1%)이 가장 많았으며, 60대 이상은 '그냥 참는다'(38.8%)가 '함께 문제 해결 노력'(31.2%)보다 많았음. 갈등을 드러내어 해결하기보다 개인이 감내하는 방식은 갈등의 장기화와 관계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족 갈등을 조기에 다룰 수 있도록 가족상담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상담 이용에 대한 심리적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음
- ❍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양육의 어려움과 갈등의 양상이 달라졌음. 모든 집단에서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양육의 어려움이었으나, 40대는 '게임/SNS 중독'(14.1%), 50대는 '진로 문제'(15.0%)와 '학업 성적'(11.0%), 60대 이상은 '대화 단절'(13.1%)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자녀와의 갈등 이유 역시 40대는 '학업/진로'(27.2%), 60대 이상은 '경제관념'(13.6%)과 '결혼 문제'(5.7%)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이는 부모교육과 가족상담이 자녀의 발달 단계별 과제를 반영하여 생애주기에 맞게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5) 가족돌봄

- ❍ 영유아 돌봄은 공적 돌봄기관을 이용하더라도 그 밖의 시간에는 여전히 가족, 특히 어머니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었음. 기관 이용 시간 외 주 돌봄자는 '어머니'가

56.4%였으며, 주양육자가 돌볼 수 없는 긴급 상황에서도 '어머니'(31.9%)와 '외조부모'(20.3%)가 주로 돌봄을 담당하였음. 이는 공적 돌봄이 제공되지 않는 시간의 공백을 가족 내 여성과 조부모의 비공식 돌봄이 메우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구조는 여성의 경력 유지와 조부모 세대의 돌봄 부담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음

❍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대는 영유아(55.1%)와 초등학생(55.0%) 모두 '오후 4~5시'가 가장 많았으며, 영유아는 '오후 6~7시'(52.2%)에도 수요가 높았음. 이는 기관의 하원 및 방과후 직후부터 부모의 퇴근 시간까지가 돌봄 공백이 집중되는 시간대임을 의미함. 또한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은 '아이 부모'(27.0%)와 '학원'(26.1%)이 '초등돌봄교실'(21.6%)보다 높아, 공적 돌봄이 수요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 채 사교육이 돌봄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보육·교육기관 선택 시 '이동 거리'(44.9%)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결과를 함께 고려하면, 오후~저녁 시간대의 연장·시간제 돌봄을 생활권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 거점을 확충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 과제라 할 수 있음. 다만 영유아 자녀가 있는 응답자(69명)가 적어 결과 해석에는 유의가 필요함

6) 가족생활 및 여가

❍ 가족 간 일상적 교류는 일부 가구에서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가족과의 식사를 '거의 하지 않음'이 17.0%, 하루 대화를 '거의 하지 않음'이 13.8%였으며, 하루 대화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가 과반을 차지하였음.특히 별거·이혼·사별 등 기타는 가족과의 식사(41.1%)와 대화(40.2%)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다른 집단보다 크게 많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 간 대화 시간이 짧은 경향을 보였음. 이는 1인가구 증가 등 가구 구조의 변화와 함께 근로시간 등 생활여건의 제약이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됨

❍ 가족여가활동은 평일(34.4%)과 주말(24.1%) 모두 'TV/모바일 콘텐츠 시청'이 가장 높아, 함께 시간을 보내더라도 상호작용이 적은 실내 활동이 중심을 이루고 있

었음. 다만 주말에는 '외식'(15.4%)과 '야외활동'(9.1%)의 비중이 평일(11.4%, 6.1%)보다 높아져, 시간이 확보될 경우 가족여가가 외부 활동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가족과의 여가시간이 충분하다는 응답(35.7%)이 여가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45.9%)보다 낮았고, 가족여가를 하지 못한 이유로 '일이 바빠서'(29.9%)가 가장 많았다는 점에서, 가족여가의 문제는 여가의 질 이전에 시간 자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가족여가의 제약 요인은 생애주기에 따라서도 달라, 20~30대는 '일이 바빠서'와 '몸이 피곤해서', 40대는 '경제적 부담'(23.4%), 60대 이상은 '가족이 함께 할 프로그램 없음'(15.2%)과 '건강상 문제'(10.4%)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응답자들이 가족여가를 가족의 결속과 신뢰를 형성하는 활동(3.90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 등 시간 확보를 위한 정책과 함께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활권 문화·여가 프로그램의 확대가 요구됨

7) 일·생활 균형

- ❍ 취업자가 인식하는 일·생활 균형의 저해 요인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부족'(27.6%), '장시간 근로시간'(21.8%), '업무 과중'(14.6%)으로, 주로 시간과 업무량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음. 생애주기별로는 20~30대와 미혼이 장시간 근로와 업무 과중을, 기혼이 가족과의 시간 부족과 자녀양육·가사 부담을 주로 호소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일·생활 균형을 저해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음. 아울러 여성은 '가사 부담'(17.3%)을 꼽는 비율이 남성(4.2%)보다 크게 높아, 여성 취업자가 직장과 가정에서 이중의 부담을 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 미취업자는 '시간제 근로'(36.1%)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그 비율은 여성(44.4%)과 기혼(47.1%)에서 특히 높았음. 미취업 이유에서도 '가사·육아'는 여성(15.9%)에게서만 나타났으며, 30대(28.6%)와 40대(31.7%)에서 높게 나타났음. 이는 돌봄 책임을 지닌 기혼 여성이 전일제 근로를 현실적인 선택지로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시간제 일자리가 저임금·불안정 일자리로 고착되지 않도록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함. 일·생활 균형을 위한 우선 정책

으로 '유연근무제 확산'(23.0%)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인식 확산'(22.4%)이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제도의 도입과 함께 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정책적 노력이 집중될 필요가 있음. 한편 우선 정책은 성별과 생애주기에 따라 차이를 보여, 여성은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14.7%)와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 지원 확대'(14.4%)를, 20~30대는 '초과 근로시간 단축'과 '남성들의 육아·가사 참여 지원'을, 50대 이상은 '노인돌봄 수행 가족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를 상대적으로 많이 요구하였음. 이는 일·생활 균형 정책이 자녀 양육기뿐 아니라 경력 유지와 노부모 돌봄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8) 생활 여건 및 지역 정주

- ❍ 조사대상자의 경제 수준 만족도(2.97점)는 생활(거주지) 만족도(3.37점)보다 낮았으며, 경제 수준에 불만족한다는 응답도 25.7%에 달하였음.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으로는 '기본 의식주 생계유지'(35.8%), '노후준비'(19.1%), '부채상환'(18.8%)이 높았는데, 20대(70.9%)와 미혼(58.6%)에서 기본 생계유지에 대한 부담이 특히 크게 나타나 청년층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함을 보여줌
- ❍ 지역에 계속 거주하겠다는 응답은 60대 이상(54.2%)과 20대(20.1%) 간에 큰 차이를 보였으며, 거주지를 떠나려는 이유로는 '좋은 일자리 부족'(24.3%)과 '문화여가시설 부족'(13.3%)이 높게 나타났음. 특히 20대는 현재 지역에 정착한 이유로 '태어난 곳'(54.5%)을 절반 이상 꼽은 반면, 거주지를 떠나려는 이유로는 '좋은 일자리 부족'(38.8%)을 다른 연령대보다 크게 높게 꼽았으며, 30대는 '문화·여가시설 부족'(16.1%)과 '자녀 양육과 교육'(10.9%)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이는 청년층이 지역을 선택하여 머무르기보다 출생지라는 이유로 머물러 있다가 일자리와 생활 여건을 이유로 떠나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줌. 경상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족이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인식 역시 '안전'(3.39점)은 높았던 반면 '문화'(2.87점)는 가장 낮았음.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의 지역 이탈이 단순히 일자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문화·여가 기반을 포함한 삶의 질 전반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

함. Ⅱ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경북은 청년, 특히 여성 인구의 유출이 출생 기반 약화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 연계와 함께 문화·여가 기반 확충, 청년 및 미혼 가구에 대한 주거·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9) 1인가구

- ❍ 조사대상자 중 1인가구는 21.8%였으며, 이 중 82.8%가 향후에도 1인가구로 살겠다고 응답하여 1인가구가 일시적인 과도기 형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생활 형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줌. 이는 1인가구가 이미 경북에서 가장 보편적인 가구 유형이 되었다는 Ⅱ장의 통계 분석 결과와도 일치함. 1인가구로 생활하게 된 이유로는 '혼자 살고 싶어서'(29.0%)와 같은 자발적 선택과 함께 '본인 학업/직장'(21.7%), '본인 이혼'(15.4%), '배우자 사망' 등 생애사건에 따른 비자발적 요인이 함께 나타나, 1인가구 내부의 이질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 1인가구가 느끼는 어려움은 '균형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3.39점)와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다'(3.38점)가 높았으며, 향후 1인가구로 살 때의 우려 사항 역시 '질병·건강 악화 시 돌봄'(30.1%), '경제적 어려움'(27.9%), '응급·위기 상황'(25.1%)의 순으로 나타났음. 이는 1인가구의 핵심적인 취약성이 가족 내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던 일상적 돌봄과 위기 대응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데 있음을 의미함. 더욱이 고민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19.9%에 달해,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1인가구가 고립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1인가구 정책은 가장 높은 요구를 보인 주택 안정 지원(38.0%)을 기본으로 하되, 질병·응급 상황 대응과 식생활 지원 등 일상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관계망이 취약한 1인가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 특히 Ⅱ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경북 1인가구 증가의 상당 부분이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령 1인가구에 대한 돌봄·안전 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10) 가족정책 요구

- ❍ 가족지원서비스는 '아이돌봄 서비스'(1.85점)를 제외하면 인지도가 모두 1.65점(3점 만점) 이하로 낮았으며, 'K-보듬 6000'은 82.0%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음. 서비스 인지도는 혼인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여, 기혼은 '아이돌봄 서비스'(1.95점), '공동육아나눔터'(1.59점) 등 양육 관련 서비스의 인지도가 미혼보다 높았던 반면, 1인가구 비중이 높은 별거·이혼·사별 등 기타는 '1인가구 지원사업'의 인지도(1.29점)가 가장 낮아 정책 대상과 서비스 인지 간에 어긋남이 나타났음. 서비스를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 경험은 4.2~10.4% 수준에 그쳤으나, 이용자의 32.1~52.8%는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음. 이는 서비스의 효과보다 인지와 접근 단계에서 이용이 제한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주요 인지 경로인 온라인(24.7%)과 관공서 안내(20.8%)를 중심으로 수요자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 간 연계 안내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20대(39.3%)와 30대(33.7%)는 온라인을 통해, 60대 이상은 관공서 안내(21.8%), 주변 사람들의 소개(21.2%), 신문·방송(19.8%)을 통해 서비스를 인지하는 비율이 높아, 연령대별로 홍보 경로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 ❍ 가장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는 생애주기에 따라 뚜렷하게 달랐음. 20대는 '취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18.4%)과 '1인가구 생애주기별 지원'(17.4%), 30대는 '임신·출산·자녀 양육방법 교육 및 상담 지원'(16.4%)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13.5%), 40대는 '가족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 제공'(14.9%), 50대와 60대 이상은 '노부모 돌봄 지원'(17.0%, 18.5%)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미혼(24.8%)과 기타(28.7%)는 '1인가구 생애주기별 지원'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음. 이는 가족지원서비스가 특정 가족 유형이 아닌 생애주기 전반의 변화에 대응하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 중점 지원이 필요한 가족형태로는 '노인 1인가구'(18.5%), '환자 돌봄 가족'(15.1%), '장애인 가족'(13.5%)이 높게 나타나, 도민들이 돌봄 부담이 큰 가족을 정책의 우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가족정책의 핵심 목표로 '모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일과 삶의 균형'(21.9%)과 '돌봄의 사회적 책임

확대'(15.5%)가 높게 나타났음. 다만 미혼(15.9%)과 기타(21.5%)는 '고립 위험군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 구축'을 기혼(5.2%)보다 크게 높게 꼽아, 1인가구의 고립 예방이 이들 집단의 주요한 정책 요구임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돌봄과 일·생활 균형이 도민이 체감하는 가장 시급한 가족정책 과제임을 보여줌

Ⅳ. 경상북도 가족정책 추진 방향

1. 종합 논의 및 시사점
2. 경상북도 가족정책 추진 방향

Ⅳ. 경상북도 가족정책 추진 방향

1. 종합 논의 및 시사점

○ 본 연구는 행정통계를 통해 경상북도 인구·가족 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도민 1,013명을 대상으로 한 가족실태조사를 통해 가족의 생활 실태와 인식, 정책 욕구를 파악하였음. 두 분석은 각각 거시적 구조 변화와 미시적 생활 실태라는 서로 다른 차원을 다루지만, 결과를 함께 놓고 보면 경북 가족이 직면한 문제가 일관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 절에서는 두 분석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고, 이를 종합하여 경상북도 가족의 현재를 진단하였음

1) 경상북도 인구·가족 주요 변화 및 시사점

○ 행정통계를 활용하여 경상북도의 인구 규모와 이동, 출생·혼인, 고령화, 가구 구조 및 다양한 가족, 가족가치관과 생활 여건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로부터 시사점과 정책 방향을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1〉과 같음

<표 Ⅳ-1> 경상북도 인구·가족 주요 변화 및 시사점

구분	인구·가족 변화 현황	시사점 및 정책 방향
인구 규모 및 이동	• 인구 2021년 2,603,664명 → 2025년 2,506,586명, 연평균 −0.95%로 전국(−0.25%)의 약 3.8배 속도로 감소, 22개 시군 모두 감소 • 자연증가율 −5.9‰(전국 −2.4‰), 2022년 이후 도내 전 시군 자연감소 • 2022~2025년 누적 순유출 33,092명	• 자연감소와 사회적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어 출생 제고만으로는 인구 유지에 한계가 있음. 정주 인구 확보와 유출 억제 전략 병행 필요 • 인구 감소를 전제로 생활권 단위의 공공서비스 재편 필요
청년·여성 인구 및	• 여성 인구 감소율(−1.06%)이 남성(−0.84%)보다 높아 성비 101.6 → 102.5,	• 출생 감소는 출산 수준보다 가임기 청년 여성 인구의 감소가 주

구분	인구·가족 변화 현황	시사점 및 정책 방향
출생	여성 생산가능인구 8년간 15.3% 감소 • 합계출산율 0.93명(전국 0.80명)으로 높으나 출생아 수는 8년간 42.0% 감소	도하고 있음 • 청년, 특히 여성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저출생 대응의 전제 조건임
혼인 및 이혼	• 혼인 건수 2017년 12,190건 → 2025년 9,160건(-24.9%), 조혼인율 3.6건(전국 4.7건)으로 격차 확대 •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결혼자금 부족(25.2%)이 가장 높고, 출산·양육 부담과 일·가정 양립 곤란이 18.0% → 24.4%로 증가 • 혼인 대비 이혼 비율 0.45 → 0.51, 중·장년기 이혼 증가	• 결혼 이전의 경제적 기반과 결혼 이후의 양육·일·가정 양립 부담을 함께 완화하는 가족 형성 지원 필요 • 중·장년기 가족관계 변화에 대응한 관계 지원 필요
고령화	• 고령인구 비중 2017년 18.9% → 2025년 27.5%(전국 21.2%), 노년부양비 40.5, 노령화지수 285.4 • 구미(6.89%)·포항(6.08%)·경산(5.30%) 등 도시지역의 고령인구 증가율이 높음	•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가족 내 돌봄 자원은 감소하고 있어 돌봄의 사회적 분담 필요 • 고령화 대응 정책을 군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도시지역까지 확대 필요
가구 구조 및 1인가구	• 1인가구 39.6%로 가장 많은 가구 유형, 1~2인 가구 72.8%(전국 66.0%), 4인 이상 가구 11.3% • 1인가구 증가분의 75.7%가 60세 이상, 1인 가구 중 60세 이상 47.9%, 80세 이상 12.6% • 고령화 지역은 여성, 산업·근로 중심 지역은 남성 1인가구 비중이 높음	• 가족정책의 대상을 자녀 양육기 핵가족에서 1~2인 가구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초고령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한 돌봄·안전 체계 구축 시급
다양한 가족	• 부자 한부모가구 비중 25.4%로 전국보다 높고, 군지역 7곳은 30% 초과 • 조손가구 8년간 24.0% 감소, 조부 또는 조모 1인이 양육하는 가구가 60% •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 비중 8.6%(전국보다 높음), 다문화가구 8년간 39.8% 증가, 평균 가구원 수 3.38명 → 2.93명	• 가족 유형 내에서도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어 유형별 특성과 생애주기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필요
지역 간 격차	• 포항·구미·경산·경주 4개 시에 인구의 55.9%, 포항·구미·경산에 출생아의 54.5% 집중 • 군지역은 1인·1세대 가구가 70~80%, 연간 출생아 100명 미만인 군 6곳 • 예천군은 도청 신도시 조성 이후 유소년·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하고 조출생률 상승	• 도시와 군지역의 인구·가족 구조가 뚜렷하게 달라 지역 유형별 차별화된 정책 설계 필요 • 계획적 정주 기반 조성이 인구·가족 형성에 효과가 있음을 고려한 정책 추진 필요

구분	인구·가족 변화 현황	시사점 및 정책 방향
가족가치관 및 성역할	• 결혼 긍정 인식(55.8%)과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74.6%)는 인식이 전국보다 높고, 동거·비혼 출산 수용도는 낮음 • 아내가 주로 가사를 담당하는 비율 76.3%(전국보다 3.9%p 높음), 공평 분담 20.3% • 출산·양육기 여성의 취업 중단을 전제로 한 인식 40.1%로 전국보다 높음	• 전통적 가족관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유지되고 돌봄 책임이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음 • 돌봄 책임의 여성 편중이 여성의 결혼·출산 기피로 이어질 수 있어 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필요
가족관계 및 일·생활	• 맞벌이 가구 비중 53.0%(전국 48.6%) •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 60.2%(전국 63.5%) • 여가시간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평일 54.6%, 휴일 66.0%로 모두 전국보다 낮음	• 맞벌이 비중이 높은 반면 아내 중심 가사 분담 구조로 여성의 이중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임 • 가족관계의 질과 가족시간 확보를 위한 일·생활 균형 기반 확충 필요

2) 경상북도 가족실태조사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경상북도 도민 1,013명을 대상으로 한 가족실태조사를 통해 가구 특성,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족 형성,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일·생활 균형, 생활 여건 및 정주, 1인가구, 가족정책 요구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로부터 시사점과 정책 방향을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2〉와 같음

<표 Ⅳ-2> 경상북도 가족실태조사 주요 결과 및 시사점

구분	조사 결과	시사점 및 정책 방향
가구 특성	• 2세대 46.6%, 1세대 27.9%, 1인가구 21.8%. 60대 이상은 2인 가구(54.9%)와 1세대 가구(51.4%)가 과반 •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7.9%, 별거·이혼·사별(44.9%), 20대(26.1%), 60대 이상(21.9%)에서 높음 • 가구형태는 맞벌이가족이 35.4%로 가장 많음	• 고령 부부가구와 1인가구를 포함하는 생애주기 전반의 가족정책 필요 • 혼인 해체 가구와 청년·고령 가구의 경제적 취약성 고려 필요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 '법적인 혼인과 혈연으로 연결되어야 가족'(3.44점)이 가장 높으나, 20대는 '가족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3.63점)가 60대 이상(2.65점)보다 높음	• 청년층을 중심으로 관계 중심의 가족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실제 생활공동체를 포괄하는 정책 대상 설정 필

구분	조사 결과	시사점 및 정책 방향
	• 입양·국제결혼·한부모 가족 수용도는 높고,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2.91점)에는 유보적 • 성역할은 모든 영역에서 '함께'가 가장 높으나 경제적 부양(61.7%)에서 낮음. '나이 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2.70점)는 낮음	요 • 동거 부양 규범 약화에 따라 공적 노인돌봄의 역할 확대 필요
가족 형성	• 자녀 출산 의향 17.7%(20대 59.7%, 30대 44.9%, 40대 15.1%) • 사회적 여건 마련 시 추가 출산 의향 '있다' 17.4%, '잘 모르겠다' 20.6%. 미혼·20대에서 유보 응답 높음 • 출산 의향을 높이는 여건은 육아휴직·단축근무 시 급여 보전(3.32점), 재택근무(3.25점), 육아수당 확대(3.24점)	• 출산을 유보한 청년·미혼층을 저출생 대응의 핵심 대상으로 설정 필요 • 소득 감소 없이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가족관계	• 미성년 자녀와의 관계(4.05점)가 가장 높고, 배우자 형제자매(3.43점)가 가장 낮음. 부부관계·배우자 부모·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여성의 만족도가 낮음 • 가사노동은 '아내' 담당 66.2%. 공평성 인식은 남성(2.96~3.17점)이 여성(2.46~2.83점)보다 높음. 가사노동 '아내' 담당 응답은 여성(76.2%)이 남성(57.9%)보다 많음 • 배우자와 갈등 시 '그냥 참는다' 31.4%(여성 34.5%로 가장 많음). 남녀 모두 남편 쪽 원가족과의 관계를 갈등 이유로 꼽음	• '함께'를 지향하는 인식과 아내 중심의 실제 분담 사이에 간극이 있어 남성의 실질적 가사·돌봄 참여 지원 필요 • 갈등의 누적을 예방하는 부부관계 교육과 가족상담 접근성 제고 필요
가족돌봄	• 영유아 기관 이용 시간 외 주 돌봄자는 어머니 56.4%, 긴급 시 어머니·외조부모 의존 • 돌봄 필요 시간대는 영유아(55.1%)·초등학생(55.0%) 모두 오후 4~5시가 가장 많고, 영유아는 오후 6~7시(52.2%)도 높음 •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은 부모(27.0%)·학원(26.1%)이 초등돌봄교실(21.6%)보다 높음. 기관 선택 시 이동 거리(44.9%) 중시	• 하원·방과후부터 퇴근 시간까지의 돌봄 공백을 가족 내 여성과 조부모가 메우고 있음 • 부모의 근로 시간에 맞춘 생활권 단위 돌봄 필요
가족생활 및 여가	• 가족과 식사를 '거의 하지 않음' 17.0%, 대화를 '거의 하지 않음' 13.8% • 가족여가는 평일·주말 모두 'TV/모바일 콘텐츠 시청'이 가장 많음 • 가족과의 여가시간 충분 35.7%, 여가를 못한 이유는 '일이 바빠서'(29.9%)	• 가족여가의 문제는 여가의 질 이전에 시간 부족에서 비롯됨 • 가족시간 확보와 생활권 가족여가 기반 확대 필요

구분	조사 결과	시사점 및 정책 방향
일·생활 균형	• 저해 요인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부족(27.6%), 장시간 근로(21.8%), 업무 과중(14.6%) • 여성은 가사 부담(17.3%)이 남성(4.2%)보다 높음. 미취업 기혼자는 시간제 근로(47.1%) 선호, 여성·30~40대는 가사·육아로 미취업 • 우선 정책은 유연근무제 확산(23.0%), 일·생활 균형 인식 확산(22.4%) • 우선 정책은 여성은 경력단절 예방·보육 지원, 20~30대는 근로시간 단축·남성 육아 참여, 50대 이상은 노인돌봄 가족 지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요구	• 근로시간과 근무 유연성이 일·생활 균형과 출산 의향 모두와 관련됨 • 제도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필요 • 성별·생애주기에 따라 다른 일·생활 균형 수요를 반영한 정책 설계 필요
생활 여건 및 정주	• 경제 수준 만족도 2.97점, 불만족 25.7%. 20대(70.9%)와 미혼(58.6%)은 기본 생계유지 부담이 큼 • 계속 거주 의향은 60대 이상 54.2%, 20대 20.1%. 이전 이유는 좋은 일자리 부족(24.3%), 문화여가시설 부족(13.3%) • 20대 정착 이유는 '태어난 곳'(54.5%), 이전 이유는 좋은 일자리 부족(38.8%) • 가족이 살기 좋은 정도는 안전(3.39점)이 가장 높고 문화(2.87점)가 가장 낮음	• 청년층의 지역 이탈은 일자리와 함께 문화·여가 등 삶의 질 전반과 관련됨 • 청년의 생활 안정과 정주 여건을 통합적으로 개선할 필요
1인가구	• 향후 1인가구 지속 의향 82.8% • 어려움은 균형 잡힌 식사(3.39점), 위급 시 대처(3.38점). 우려 사항은 질병·건강 악화 시 돌봄(30.1%), 경제적 어려움(27.9%), 응급·위기 상황(25.1%) • 고민을 이야기할 사람 없음 19.9%, 필요 정책은 주택 안정 지원(38.0%)	• 1인가구는 지속적인 생활 형태로, 일상 돌봄과 위기 대응을 혼자 감당하는 데서 취약성이 나타남 • 주거 안정과 함께 돌봄·관계망 지원 필요
가족정책 요구	• 인지도는 아이돌봄 서비스(1.85점) 외 모두 1.65점 이하. K-보듬 6000은 82.0%가 모름 • 이용 경험 4.2~10.4%, 이용자의 32.1~52.8%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필요 서비스는 20대 취업·1인가구, 30대 출산·양육·아이돌봄, 50대 이상 노부모 돌봄으로 생애주기별로 다름. 미혼·기타는 고립 위험군 관계망 구축 요구가 높음 • 중점 지원 가족은 노인 1인가구(18.5%), 환자 돌봄 가족(15.1%), 장애인 가족(13.5%). 핵심 목표는 일과 삶의 균형(21.9%), 돌봄의 사회적 책임 확대(15.5%)	• 서비스의 효과보다 인지와 접근 단계에서 이용이 제한되고 있어 전달체계 개선 필요 • 돌봄과 일·생활 균형을 가족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 •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춘 서비스 구성과 연령별 홍보 경로 차별화 필요

3) 종합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경상북도 가족은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청년·여성 인구의 유출, 1~2인 가구 중심의 가구 구조 재편이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가구 형태와 가족 인식의 다양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가족 내 성별 분업과 돌봄의 가족 의존 구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변화된 가족의 모습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기반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진단됨. 이러한 간극은 행정통계와 가족실태조사라는 서로 다른 자료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개별 가족의 선택이나 노력의 문제라기보다 경북 가족이 처한 구조적 조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간극은 생애주기와 가구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었음. 청년층은 가족을 선택과 관계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지역 정주 의향이 낮으며, 출산 결정은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지에 크게 좌우되고 있었음. 기혼 가족은 일과 돌봄의 이중 부담 속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며, 그 부담은 여성에게 집중되어 가족관계의 만족도를 낮추고 있었음. 1인가구와 고령 가구는 가족 안에서 해결되던 일상 돌봄과 위기 대응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음. 또한 도시와 군지역 간 인구·가족 구조의 차이가 뚜렷한 가운데, 가족지원서비스는 필요성에 비해 인지도와 이용률이 낮아 정책이 도민의 일상에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었음

❍ 이는 기존 가족정책이 혼인과 혈연으로 이루어진 자녀 양육기 가족을 표준으로 상정하고, 돌봄의 일차적 책임을 가족에 두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온 데 따른 한계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경북에서는 청년층의 유출이 혼인과 출생의 감소로 이어지고, 돌봄 부담의 여성 편중이 다시 여성의 결혼·출산 기피로 이어지는 등 가족의 문제와 인구의 문제가 서로 맞물려 있음. 이는 가족정책이 특정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넘어, 지역의 인구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 따라서 경상북도 가족정책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전환이 필요함. 첫째, 정책의 대상을 법률상 가족과 자녀 양육기 중심에서 실제로 함께 생활하고 돌보는 다양한 가

족과 생애주기 전반으로 넓혀야 함. 둘째, 돌봄과 일·생활 균형의 책임을 개별 가족, 특히 여성에게 맡기는 구조에서 가족과 사회가 함께 나누는 구조로 전환해야 함. 셋째, 도 단위의 획일적이고 공급자 중심적인 정책 추진에서 지역과 생활권의 특성, 도민의 실제 욕구에 맞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2. 경상북도 가족정책 추진 방향

○ 앞서 제시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 가족정책의 비전을 '모든 가족이 함께 돌보고 머물고 싶은 경북'으로 설정하였음. 이는 가족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도민이 가족으로서 존중받고, 돌봄의 책임을 가족과 사회가 함께 나누며,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지역에 정착하여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경북을 지향한다는 의미임. 비전 달성을 위해 1) 다양성을 존중하는 평등한 가족, 2) 일과 돌봄이 조화로운 가족생활, 3) 머물고 싶은 지역 가족 기반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별로 2개씩 총 6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그림 Ⅳ-1〉과 같음



[그림 Ⅳ-1] 경상북도 가족정책 비전 및 방향

1)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가족정책으로의 전환

○ 경북의 가구 구조는 1~2인 가구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 2025년 1인가구는 39.6%로 가장 보편적인 가구 유형이 되었고, 1~2인 가구는 72.8%로 전국(66.0%)보다 높은 반면 4인 이상 가구는 11.3%에 그쳤음. 다문화가구는 8년간 39.8% 증가하였으며, 부자 한부모가구 비중(25.4%)이 전국보다 높고 조손가구의 60%가 조부 또는 조모 1인이 양육하는 가구인 등, 표준적인 핵가족의 범주로 포괄되지 않는 가족이 늘어나고 있음

○ 가족 형태의 변화와 함께 가족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으나, 그 속도는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음.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는 '법적인 혼인과 혈연으로 연결되어야만 가족이라 할 수 있다'(3.44점)는 인식이 우세하였으나, 20대는 '가족은 내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이다'(3.63점)에 대한 동의가 60대 이상(2.65점)보다 1점 가까이 높았음. 또한 입양·한부모·국제결혼 가족에 대한 수용도는 높은 반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2.91점)에는 유보적이어서, 결혼과 출산을 연계하는 규범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었음. 이는 경북이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74.6%)이 전국보다 높고 동거·비혼 출산에 대한 수용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Ⅱ장의 결과와 일치함

○ 이러한 결과는 실제 가족의 모습은 빠르게 다양해지고 있으나, 제도와 규범은 여전히 혼인과 혈연 중심의 가족을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함. 이러한 간극은 다양한 가족이 정책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사회적 편견을 경험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가족정책은 법률상 가족에 한정하지 않고 실제로 함께 생활하고 서로를 돌보는 관계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그 대상을 점진적으로 넓히고, 세대 간 인식 차이를 고려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부자 한부모가구, 조부모 1인 양육 조손가구, 자녀 성장기에 접어든 다문화가족 등 같은 유형 안에서도 달라지는 욕구와 생애주기 변화를 반영하여 지원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2) 성평등한 가족관계와 가족문화 조성

○ 가족 내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은 평등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실제 분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음. Ⅱ장에서 경북은 가사를 아내가 주로 담당하는 비율이 76.3%로 전국보다 높고,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비율은 20.3%에 그쳤으며, 출산·양육기 여성의 취업 중단을 전제로 한 인식(40.1%)도 전국보다 높았음. 가족실태조사에서도 대다수가 가사노동과 가족돌봄을 부부가 '함께'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나(78.7%), 실제로는 가사노동을 '아내'가 담당한다는 응답이 66.2%로 나타나 인식과 실천 사이의 간극이 두 자료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었음

○ 이러한 분담 구조는 가족관계의 질과 여성의 생애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조사 결과 가사 분담의 공평성에 대해 남성(2.96~3.17점)이 여성(2.46~2.83점)보다 높게 평가하였고, 부부관계와 배우자 부모님·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낮았음. 가사노동을 '아내'가 담당한다는 응답도 여성(76.2%)이 남성(57.9%)보다 많아 동일한 분담 상황을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갈등 시 여성은 '그냥 참는다'(34.5%)가 가장 많은 대처 방식이었음. 또한 남녀 모두 남편 쪽 원가족과의 관계를 배우자와의 갈등 이유로 상대적으로 많이 꼽아, 혼인을 통해 형성되는 인척 관계에서 여성의 역할 부담이 크게 나타났음. Ⅱ장에서 경북의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60.2%)가 전국(63.5%)보다 낮게 나타난 점, 그리고 경북 여성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출산·양육 부담과 일·가정 양립 곤란을 꼽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 점을 함께 고려하면, 돌봄 책임의 여성 편중은 가족관계 만족도를 낮추고 여성의 결혼·출산 기피로 이어지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성평등한 가족관계와 가족문화의 조성은 그 자체로 중요한 정책 목표일 뿐 아니라, 가족관계의 질을 높이고 가족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과제라 할 수 있음. 성평등 정책의 초점을 인식 개선에서 남성의 실질적인 가사·돌봄 참여와 실천으로 옮기고, 부부 단위의 관계 향상 지원과 함께 갈등을 참거나 회피하기보다 조기에 다룰 수 있도록 가족상담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예단·예물 축소(4.18점), 형편에 맞는 결혼식(4.17점) 등 관행적 가족문화의 개선에 대한 도민

의 높은 공감대를 생활 속 가족문화 변화로 연결할 필요가 있음

3)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 경북은 고령인구 비중이 27.5%로 전국(21.2%)보다 6.3%p 높은 초고령사회이며, 노년부양비는 40.5로 생산가능인구 약 2.5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는 구조임. 1인가구 중 60세 이상이 47.9%, 80세 이상이 12.6%에 이르는 등 돌봄 필요도가 높은 고령 1인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으로 도시 지역에서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반면 가족 내에서 돌봄을 담당할 수 있는 구성원은 줄어들고 있어, 돌봄 수요의 증가와 가족 돌봄 기반의 약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

○ 가족실태조사 결과는 이러한 돌봄 공백이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줌. 1인가구는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다'(3.38점)는 어려움이 컸고, 향후 우려 사항으로 '질병·건강 악화 시 돌봄'(30.1%)과 '응급·위기 상황'(25.1%)을 꼽았으며, 고민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도 19.9%에 달하였음. 영유아 돌봄은 기관 이용 시간 외에는 어머니(56.4%)에게, 긴급 상황에는 어머니와 조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었으며, 영유아와 초등학생 모두 오후 4~7시에 돌봄 수요가 집중되었음. 한편 부모 부양에 대해서는 '딸도 아들도 똑같이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3.74점)에는 높은 동의를, '나이 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2.70점)에는 낮은 동의를 보여, 동거를 통한 가족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부양 규범이 변화하고 있었음

○ 도민들 역시 중점 지원이 필요한 가족으로 '노인 1인가구'(18.5%), '환자 돌봄 가족'(15.1%), '장애인 가족'(13.5%)을 꼽고, 가족정책의 핵심 목표로 '돌봄의 사회적 책임 확대'(15.5%)를 선택하여 돌봄을 가족이 아닌 사회가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요구를 드러냈음. 특히 50대와 60대 이상은 가장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로 '노부모 돌봄 지원'(17.0%, 18.5%)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일·생활 균형 정책으로도 '노인돌봄 수행 가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요구하였음. 이는 가족이 돌봄을 전담하는 구조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움을 의미함. 따라서 돌봄 정

책의 대상을 영유아·아동 중심에서 고령·1인가구와 환자·장애인을 돌보는 가족까지 포괄하는 생애주기 전반으로 넓힐 필요가 있음. 아동 돌봄은 기관 운영 시간 중심에서 부모의 근로 시간과 생활권에 맞춘 지원으로 전환하고, 고령·1인가구는 일상 돌봄과 위기 대응을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일·생활 균형과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 경북은 맞벌이 가구 비중이 53.0%로 전국(48.6%)보다 높아 일과 가족생활의 병행이 다수 가족의 일상적 과제가 되어 있으나, 여가시간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평일과 휴일 모두 전국보다 낮았음. 가족실태조사에서도 맞벌이가족이 35.4%로 가장 보편적인 가구형태였으며, 취업자의 일·생활 균형 저해 요인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부족'(27.6%), '장시간 근로시간'(21.8%), '업무 과중'(14.6%)으로 시간의 문제가 중심을 이루었음. 가족과의 여가시간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35.7%에 그쳤고, 가족여가를 하지 못한 이유로 '일이 바빠서'(29.9%)가 가장 많았으며, 하루 대화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가 과반을 차지하였음

○ 시간 갈등의 양상은 성별과 생애주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음. 여성 취업자는 '가사 부담'(17.3%)을 꼽는 비율이 남성(4.2%)보다 크게 높아 직장과 가정의 이중 부담을 지고 있었으며, 미취업 기혼 여성은 시간제 근로(47.1%)를 선호하여 돌봄 책임이 노동시장 참여 방식을 제약하고 있었음. 미취업 이유로 '가사·육아'는 여성(15.9%)에게서만 나타났으며 30~40대에서 높았음. 또한 일·생활 균형 우선 정책으로 여성은 경력단절 예방과 보육 지원을, 20~30대는 근로시간 단축과 남성의 육아 참여를 상대적으로 많이 요구하여, 생애주기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함. 일·생활 균형은 가족 형성과도 직결되어 있음. 사회적 여건이 마련될 경우 자녀를 더 낳을 의향이 '있다'(17.4%)와 '잘 모르겠다'(20.6%)를 합한 응답이 38.0%에 이르렀으며, 이들은 출산 의향을 높이는 조건으로 육아휴직·단축근무 시 급여 보전(3.32점), 재택근무(3.25점), 육아수당 확대(3.24점)를 꼽았음. 이는 청년층의 가족 형성이 일과 양육을 소득 감소 없이 병행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함

○ 도민들이 가족정책의 핵심 목표로 '모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일과 삶의 균형'(21.9%)을 가장 많이 꼽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우선 정책으로 '유연근무제 확산'(23.0%)과 '인식 확산'(22.4%)을 선택한 것은, 제도의 도입을 넘어 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 환경과 조직문화가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함. 따라서 일·생활 균형 정책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유연근무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며, 출산·양육 지원은 현금 지원과 함께 육아기 소득 보전과 근무 유연성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돌봄 책임이 있는 여성의 고용 유지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충하고, 확보된 시간을 가족이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생활권 단위의 가족여가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5) 청년 정주와 가족의 생활 안정 기반 확충

○ 경상북도의 인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0.95% 감소하여 전국(-0.25%)보다 약 3.8배 빠르게 줄고 있으며, 자연감소와 함께 2022~2025년 누적 33,092명이 도외로 순유출되었음. 특히 여성 인구의 감소율(-1.06%)이 남성(-0.84%)보다 높고, 합계출산율(0.93명)이 전국보다 높은데도 출생아 수가 8년간 42.0% 감소하였다는 점은 경북의 출생 감소가 출산 수준의 문제라기보다 가임기 청년, 특히 여성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데서 비롯되고 있음을 보여줌. 혼인 건수 역시 8년간 24.9% 감소하였고 조혼인율(3.6건)은 전국(4.7건)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가족 형성의 출발점인 혼인부터 위축되고 있음

○ 가족실태조사 결과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청년층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줌. 현 지역에 계속 거주하겠다는 응답은 60대 이상이 54.2%인 반면 20대는 20.1%에 그쳤으며, 거주지를 떠나려는 이유로 '좋은 일자리 부족'(24.3%)과 '문화여가시설 부족'(13.3%)이 높게 나타났음. 특히 20대는 현재 지역에 머무는 이유로 '태어난 곳'(54.5%)을 절반 이상 꼽은 반면, 떠나려는 이유로는 '좋은 일자리 부족'(38.8%)을 다른 연령대보다 크게 높게 꼽아, 청년층의 정주가 지역에 대한 적극적 선택보다 출생지라는 이유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줌. 또한 20대의

70.9%가 기본 의식주 생계유지를 가장 부담되는 지출로 꼽아 청년층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25.2%)이 가장 높게 나타난 Ⅱ장의 결과와도 맞닿아 있어, 청년층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 지역 이탈과 혼인 지연으로 동시에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경북의 저출생 대응은 출산 이후의 지원에 머물기보다 청년이 지역에 머물며 일하고 가족을 꾸릴 수 있는 생활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음. 청년 정책은 일자리와 함께 주거, 문화·여가, 사회적 관계망 등 삶의 질 전반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인 생활 형태로 자리 잡은 1인가구에 대해서는 가장 요구가 높은 주거 안정(38.0%)을 기본으로 고립을 예방하는 관계망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미혼과 기타가 가족정책의 핵심 목표로 '고립 위험군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 구축'(15.9%, 21.5%)을 기혼(5.2%)보다 크게 높게 꼽은 점도 이를 뒷받침함

6)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가족지원 전달체계 구축

○ 경북은 도시와 군지역 간 인구·가족 구조의 차이가 뚜렷함. 포항·구미·경산·경주 4개 시에 인구의 55.9%가 거주하고 출생아의 54.5%가 포항·구미·경산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군지역은 1인·1세대 가구가 70~80%에 달하고 여성 고령 1인가구와 부자·조손가구 비중이 높음. 가족실태조사에서도 남부권은 1인가구 비율이, 북부권은 1세대 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서부권은 지역 계속 거주 의향이 가장 낮게 나타나 권역에 따라 가족의 구성과 정주 여건이 다르게 나타났음. 도청신도시 조성 이후 유소년·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한 예천군의 사례는 계획적인 정주 기반 조성이 가족 형성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줌

○ 한편 가족지원서비스는 필요성에 비해 인지도와 이용률이 매우 낮았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의 인지도는 모두 1.65점(3점 만점) 이하였으며, 'K-보듬6000'은 82.0%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서비스를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경험은 4.2~10.4%에 그쳤음. 반면 이용자의 32.1~52.8%는 도움이 되었다고 응

답하여, 서비스의 효과보다 인지와 접근 단계에서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서비스 인지도는 기혼이 양육 관련 서비스를 더 잘 아는 반면, 1인가구 비중이 높은 기타는 '1인가구 지원사업' 인지도가 가장 낮아 정책 대상과 인지 사이에 어긋남이 있었으며,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20대 취업·1인가구 지원, 30대 출산·양육과 아이돌봄, 50대 이상 노부모 돌봄으로 생애주기에 따라 달랐음

❍ 따라서 도 단위의 일률적인 사업에서 벗어나 도시와 군지역, 권역별 가족 구조와 정책 수요에 맞추어 중점 지원 대상과 방식을 달리하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 또한 보육·교육기관 선택 시 '이동 거리'(44.9%)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결과를 고려하여 군지역을 포함한 도 전역에서 생활권 가까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청년층은 온라인(20대 39.3%), 고령층은 관공서 안내·주변 사람·방송을 통해 서비스를 인지하는 만큼 연령대별로 안내 경로를 달리하는 수요자 맞춤형 안내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경상북도 가족실태조사의 정례화와 시·군 단위 가족통계 구축을 통해 정책의 근거를 지속적으로 축적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가데이터처(각 연도).「국내인구이동통계」

국가데이터처(각 연도).「사회조사」

국가데이터처(각 연도).「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각 연도).「인구총조사」.

국가데이터처(각 연도).「주민등록인구현황」

국가데이터처(각 연도).「지역별고용조사」.

김수연·정서린(2022). 경상북도 가족생활 진단 및 대응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문화체육관광부(각 연도).「국민여가활동조사」

박영주·정영태(2025). 2025년 대구광역시 가족실태조사.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부(2005). 가족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가족부(2010).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여성가족부(2015). 2015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2021). 2020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2023). 2023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윤정·권안나·차지혜·김혜정(2025). 2025년 울산시 가족실태조사.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한혜림(2025). 부산광역시 가족실태 및 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부 록

ID			

2026 경상북도 가족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경상북도가 설립한 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입니다. 우리원에서는 경북 지역 가족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가족정책 서비스 수요를 분석하여 향후 경북지역 가족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조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개인자료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경북여성정책개발원
Gyeongbuk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A. 응답자 일반현황

***아래의 질문은 설문의 통계처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오니 꼭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1. 연 령	만( )세	**A2. 성 별**	① 여성 ② 남성
A3. 최종학력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 재학 또는 졸업 ④ 4년제 대학 재학 또는 졸업 ⑤ 대학원 재학 이상		
A4 가구주와의 관계	① 가구주(본인) ②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③ 자녀(배우자 포함) ④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⑤ 손자녀(배우자 포함) ⑥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⑦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⑧ 기타 친인척( ) ⑨ 비혈연동거인( )		
A5. 거주지역	① 포항시 ② 경주시 ③ 김천시 ④ 안동시 ⑤ 구미시 ⑥ 영주시 ⑦ 영천시 ⑧ 상주시 ⑨ 문경시 ⑩ 경산시 ⑪ 의성군 ⑫ 청송군 ⑬ 영양군 ⑭ 영덕군 ⑮ 청도군 ⑯ 고령군 ⑰ 성주군 ⑱ 칠곡군 ⑲ 예천군 ⑳ 봉화군 ㉑ 울진군 ㉒ 울릉군		
A6. 혼인상태	① 미혼 ② 기혼 ③ 재혼 ④ 사별 ⑤ 이혼 ⑥ 별거 ⑦ 동거(사실혼)		
A7. 자녀유무	① 임신중 ② 영유아 ③ 초등학생 ④ 중고등학생		

(복수응답가능)	⑤ 성인자녀 ⑥ 자녀없음
A8. 직업	① 전문직 ② 연구직 ③ 관리/사무직 ④ 서비스/판매직 ⑤ 기술/기능직 ⑥ 농/임/어업 종사 ⑦ 단순/노무직 ⑧ 학생 ⑨ 전업주부 ⑩ 무직 ⑪ 기타( )

B. 가구(주)의 특성

B1. 가구원의 수	귀하를 포함하여 현재 귀 댁에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 )명 ※ 가구원은 혈연이나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이 거처에서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함	
B2. 세대유형	1인가구	① 만 65세 미만 1인 가구 ② 만 65세 이상 1인가구
	1세대	③ 부부 ④ 노부부가구(부부 모두 65세 이상) ⑤ 부부+형제자매 ⑥ 부부+기타친인척 ⑦ 가구주+형제자매 ⑧ 가구주+기타친인척 ⑨ 기타( )
	2세대	⑩ 부부+자녀 ⑪ 부+자녀 ⑫ 모+자녀 ⑬ 부부+양친 ⑭ 부부+한부모 ⑮ 부부+자녀+부부의 형제자매 ⑯ 조부모+손자녀 ⑰ 조부 또는 조모+손자녀 ⑱ 기타( )
	3세대	⑲ 부부+자녀+양친 ⑳ 부부+자녀+한부모 ㉑ 기타( )
	4세대	㉒ 4세대 이상 가구
	비친족 가구	㉓ 공동체가구(지인과 함께 거주, 그룹홈 등)
B3. 월평균 가구소득	지난 1년간의 귀 댁의 **세후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 월평균 가구소득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부모자녀친인척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생활비나 용돈, 정부 보조금 등)이 모두 포함됨 ① 50만원 미만 ② 50~100만원 미만 ③ 100~200만원 미만 ④ 200~300만원 미만 ⑤ 300~400만원 미만 ⑥ 400~500만원 미만 ⑦ 500~600만원 미만 ⑧ 600~700만원 미만 ⑨ 700만원 이상	
B4. 주소득원	지난 1년 동안 **가장 중요한 소득원**을 '가구주 기준'으로 한가지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② 배우자의 근로(사업)소득 ③ 부부공동의 근로(사업)소득 ④ 부모의 근로(사업)소득 ⑤ 자녀의 근로(사업)소득 ⑥ 전 배우자의 양육비 지원 ⑦ 부모가 주는 생활비/용돈 ⑧ 자녀가 주는 생활비/용돈 ⑨ 자산소득(예금,이자,주식배당금,임대소득 등) ⑩ 공적연금 ⑪ 정부지원금 ⑫ 기타( ) ※ ①~⑤번은 같이 사는 배우자, 부모, 자녀의 소득, ⑦, ⑧번은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지원을 의미함	
B5 가구(가족)형태 (복수응답가능)	① 맞벌이가족 ② 주말부부가족 ③ 기러기가족 ④ 다문화가족 ⑤ 입양가족 ⑥ 한부모(만18세미만미혼자녀를둔)가족 ⑦ 조손가족 ⑧ 1인가구 ⑨ 해당없음	

C.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C1.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귀하에게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 명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부모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연인 ⑤ 형제자매
⑥ 친구 ⑦ 동료 ⑧ 이웃 ⑨ 전문상담가 또는 사회복지사
⑩ 성직자(목사,신부,스님 등) ⑪ 자기자신 ⑫ 기타( ) ⑬ 의지할 사람 없음

C2. 귀하가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할 때 **포함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포함되는 사람에게 **모두** ✔표해 주십시오.

구 분	✔	구 분	✔	구 분	✔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자녀의 배우자	
④ 부모		⑤ 배우자의 부모		⑥ 형제자매	
⑦ 배우자의 형제자매		⑧ 친조부모		⑨ 외조부모	
⑩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 제수, 올케 등)		⑪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동서, 처남댁 등)		⑫ 아버지의 형제자매(큰아버지, 고모 등)	
⑬ 아버지 형제자매의 배우자(큰어머니, 고모부 등)		⑭ 어머니의 형제자매(이모, 외삼촌 등)		⑮ 어머니 형제자매의 배우자(이모부, 외숙모 등)	
⑯ 친(외)조카		⑰ 배우자의 조카		⑱ 친(외)손자녀	
⑲ 배우자의 조부모		⑳ 함께 살고 있는 비혈연자(친구, 지인 등)		㉑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비혈연자(친구, 전배우자 등)	
㉒ 반려동물(애완동물)		㉓ 반려식물		㉔ 인공지능(AI) 로봇	

C3. 귀하께서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해 주십시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법적인 혼인과 혈연으로 연결되어야만 가족이라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활을 공유하면 가족이라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라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감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 가족이라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족은 내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이다	①	②	③	④	⑤

C4. 귀하는 **삶의 방식과 가족가치관**에 대한 다음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해 주십시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에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이혼이나 재혼하는 것에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4)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것(직장 등으로 주말부부가 된 경우 제외)에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8) 한부모도 양부모와 동일하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입양한 자녀도 직접 낳은 자녀만큼 잘 키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결혼생활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자녀의 성을 부부가 합의하여 어머니 성으로 결정하는 것에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자녀를 입양하는 것에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C5. 귀하는 **자녀와 자녀양육**에 대한 다음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해 주십시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를 돌보는 일은 힘든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자녀를 키우는 일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6)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	①	②	③	④	⑤

C6. 다음은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해 주십시오.

구 분	주로 남성이	대체로 남성이	함께	대체로 여성이	주로 여성이
1)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2) 가족의 의사결정은					
3) 가사노동과 가족돌봄은					

C7. 귀하는 **결혼식 및 비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해 주십시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결혼식 규모나 비용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형편에 맞게 정하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 결혼 비용은 남녀가 정확히 반반씩 부담하기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예단·예물은 형식적 관행이므로 축소하거나 생략해도 무방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없이는 결혼 준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C8. 귀하는 **부모 부양 및 부모의 책임**에 대한 다음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해 주십시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식은 나이 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자식은 나이 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딸도 아들도 똑같이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는 자녀의 결혼 준비(혼수 및 신혼 집)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는 자녀가 결혼 후에도 돌보아 줄 책임이 있다 (경제적 도움, 손자녀 돌봄 등)	①	②	③	④	⑤

C9. 귀하는 **자녀**에 대해 어느 시기까지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②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③ 대학원(석사이상) 졸업할 때까지
④ 취업할 때까지 ⑤ 결혼할 때까지 ⑥ 결혼 후에도 필요하다면

D. 가족형성

D1. 귀하는 결혼적령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적정 결혼 연령은** 남녀 각각 몇 세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없다 ② 있다(여성 만_____세, 남성 만_____세)

D2.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어떠하십니까?

① 미혼(☞D3번으로) ② 배우자 있음(사실혼, 비혼동거 등 포함)(☞D2-1번으로)
③ 별거·이혼(☞D2-2번으로) ④ 사별(☞D3번으로)

D2-1. 귀하가 현재의 **배우자와 살기 시작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D3번으로)

① 1년 미만 ② 1~3년 미만 ③ 3~5년 미만
④ 5~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D2-2. 귀하가 **이혼 또는 별거를 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우선순위별로 두 가지를 선택하여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1순위 : _____) / (2순위 : _____) (☞D3번으로)

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 성격 차이 ③ 경제적 문제 ④ 자녀 문제
⑤ 친인척 문제 ⑥ 폭력 ⑦ 유기(부부로 부양, 협조 등 의무 이행하지 않음)
⑧ 중독(술, 도박 등) ⑨ 나이 차이 ⑩ 부부간의 성(性)문제
⑪ 기타( )

D3.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① 있음(아들 ____명, 딸_____명) ② 없음

D4. 귀하는 앞으로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습니까?

① 있음(_____명)(☞D5번으로) ② 없음(☞D4-1번으로)

D4-1. 귀하가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별로 두 가지를 선택하여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1순위 : _____) / (2순위 : _____)

① 이미 낳은 자녀로 충분하므로 ② 경제적 부담 때문에(양육비, 교육비 등)
③ 직장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④ 육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⑤ 아이를 맡길 사람이나 시설이 마땅치 않아서 ⑥ 건강상의 이유로
⑦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⑧ 나이가 많아서
⑨ 부부의 애정만으로 충분해서 ⑩ 배우자가 반대해서
⑪ 자녀보다 자신의 삶이 중요해서 ⑫ 기타( )

D5. 향후 자녀를 갖고 양육하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된다면, 귀하는 앞으로 **자녀를 (더) 가질 생각**이 있습니까?

① 있다(☞D5-1번으로) ② 없다(☞E1번으로) ③ 잘 모르겠다(☞D5-1번으로)

D5-1. 귀하께서는 다음의 조건이 더해졌을 때, **자녀를 출산할 생각이 (더) 드십니까?**

"나는 ~라면(아래 조건) 아이를 낳을 생각이 (더) 생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배우자가 육아에 함께 참여한다면	①	②	③	④
2) 믿고 맡길만한 기관(어린이집 등)이나 사람(아이돌보미 등)이 있다면	①	②	③	④
3) 경력 단절이 되지 않는다면	①	②	③	④
4)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①	②	③	④

5) 육아기 단축근무(주당 15~35시간 근무, 근무시간 비례 급여 조정)를 할 수 있다면	①	②	③	④
6) 유연근무(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등)를 할 수 있다면	①	②	③	④
7)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면	①	②	③	④
8) 근무 시간이 줄어들고,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육아시간 (1일 1~2시간, 유급)이 주어진다면	①	②	③	④
9)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하여도 급여가 충분하다면	①	②	③	④
10) 정부의 육아수당(현금이나 바우처 지원)이 늘어난다면	①	②	③	④

E. 가족관계

E1. 귀하는 다음의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해 주십시오.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해당없음
1) 부부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2) 나와 자녀와의 관계	(1) 미성년 자녀	①	②	③	④	⑤	⑥
	(2) 성인 자녀	①	②	③	④	⑤	⑥
3)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4) 배우자 부모님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5) 나의 형제자매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6)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7) 자녀의 배우자(사위나 며느리)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 E2 ~ E6번 문항은 현재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있는 경우만 응답하시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E5번으로 이동하세요.

E2. 다음은 귀 댁에서의 **가사수행**에 대한 것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해 주십시오.

구 분	E2-1. 주로 누가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까?			E2-2. 배우자가 공평하게 분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편	아내	두사람이 똑같이	매우 불공평	약간 불공평	약간 공평	매우 공평
1) 시장보기, 식사준비, 청소 등 가사노동	①	②	③	①	②	③	④
2) 자녀 양육과 교육	①	②	③	①	②	③	④
3) 본인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류	①	②	③	①	②	③	④
4) 배우자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류	①	②	③	①	②	③	④
5) 가족생활 유지를 위한 계획과 준비	①	②	③	①	②	③	④

E3. 귀 댁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누가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합니까? 해당되는 곳에 ✔해 주십시오.

구 분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부부가 함께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해당없음
1) 자녀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2) 투자 및 자산관리(금융, 부동산 등)	①	②	③	④	⑤	⑥
3) 생활비 지출	①	②	③	④	⑤	⑥
4) 취업, 직장 이동	①	②	③	④	⑤	⑥
5) 자녀 출산(자녀계획)	①	②	③	④	⑤	⑥
6) 내 부모 돌봄(일상적 돌봄, 간병 등 모두 포함)	①	②	③	④	⑤	⑥
7) 배우자 부모 돌봄(일상적 돌봄, 간병 등 모두 포함)	①	②	③	④	⑤	⑥
8) 가사 등 집안일	①	②	③	④	⑤	⑥
9) 가족 여가	①	②	③	④	⑤	⑥
10) 성인 자녀에 대한 지원(생활비, 손자녀 돌봄 등)	①	②	③	④	⑤	⑥

E4.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어떤 사유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으셨습니까? 우선순위별로 두 가지를 선택하여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 (2순위: _____)

① 내 부모나 형제자매와의 관계
② 배우자 부모나 형제자매와의 관계
③ 배우자의 생활방식(음주, 늦은 귀가, 잔소리 등)
④ 자녀의 교육문제(학업 성적이나 생활방식 등)
⑤ 경제적 문제
⑥ 가사 및 육아 분담
⑦ 배우자와의 성생활
⑧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방식
⑨ 내 부모 간병
⑩ 배우자 부모 간병
⑪ 기타( )
⑫ 갈등 겪은 적 없음

E4-1. 귀하는 배우자와 **갈등이 생길 경우**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① 배우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② 그냥 참는다
③ 쇼핑을 한다
④ 혼자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⑤ 술을 마신다
⑥ 운동 등의 취미 생활로 푼다
⑦ 주위 사람(친구, 친지 등)에게 도움을 받는다
⑧ 자녀에게 화풀이한다
⑨ 종교에 의지한다
⑩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⑪ 기타( )

※ E5 ~ E6번 문항은 자녀가 있는 경우만 응답하시고, 자녀가 없는 경우는 F1번으로 이동하세요.

E5. 귀하가 평소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 우선순위별로 두 가지를 선택하여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 (2순위: _____)

① 경제적 부담
② 학업성적
③ 대화 단절
④ 진로 문제
⑤ 자녀의 이성 관계 및 성 문제
⑥ 친구 관계
⑦ 게임이나 SNS 중독
⑧ 생활 습관(음주, 흡연, 약물 등)
⑨ 기타( )
⑩ 없음

E6. 최근 1년 동안 **자녀와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순위별로 두 가지를 선택하여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 (2순위: _____)

① 이성교제 ② 생활습관 ③ 취업 ④ 결혼문제
⑤ 경제관념 ⑥ 형제자매 불화 ⑦ 학업/진로 ⑧ 가사문제
⑨ 기타( ) ⑩ 없음

F. 가족돌봄

F1. 현재 가족 내 **취학전 영유아**가 있습니까?

① 있음(☞F2번으로) ② 없음(☞F6번으로)

F2. 귀 댁의 영유아가 주중 **낮시간에 다니는 기관**이 있습니까?

※ 영유아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 생일이 가장 빠른 영유아를 기준으로 작성

① 있음(☞F2-1번으로) ② 없음(☞F2-3번으로)

F2-1. 귀 댁의 영유아가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① 어린이집(놀이방 포함) ② 유치원 ③ 학원(영어유치원, 놀이학교, 유아 스포츠단 등) ④ 기타( )

F2-2. 위의 **기관에 다니는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이 아이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F3번으로)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친조부모 ④ 외조부모 ⑤ 친인척 ⑥ 이웃
⑦ 아이돌보미 ⑧ 베이비시터 ⑨ 가사도우미 ⑩ 기타( ) ⑪ 돌보는 사람 없음

F2-3.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주로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친조부모 ④ 외조부 ⑤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
⑥ 이웃 ⑦ 아이돌보미 ⑧ 베이비시터 ⑨ 가사도우 ⑩ 기타( )
⑪ 돌보는 사람 없음

F2-3-1. 아이를 주로 돌보는 사람이 이 아이를 **돌보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하루 평균( )시간

F2-3-2.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F3번으로)

①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② 경제적 부담 때문에
③ 단체생활로 인한 질병 감염이 걱정되어서 ④ 기관의 전문성, 교육의 질을 신뢰할 수 없어서
⑤ 기관에서의 학대나 폭력 등이 걱정되어 ⑥ 건강하지 않은 먹거리 제공이 걱정되어
⑦ 내가 직접 돌보지 않으면 불안해서 ⑧ 기타( )

F3. 보육시설이나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이동 거리(집에서 가까운 곳) ② 시설의 물리적 환경 ③ 시설의 콘텐츠
④ 보육 및 교육 시간 ⑤ 교사의 전문성, 자질 등 ⑥ 이웃이나 주변인들의 의견(맘카페 등)
⑦ 기타( )

F4. 영유아를 주로 **돌보는 사람이 아프거나 급한 일이 있을 경우**, **아이를 주로 돌봐주는 사람(또는 기관)**은 누구(어디)입니까?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친조부모 ④ 외조부모 ⑤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
⑥ 이웃 ⑦ 아이돌보미 ⑧ 베이비시터 ⑨ 가사도우미 ⑩ 돌봄시설
⑪ 기타( ) ⑫ 도움받기 어려움 ⑬ 특별히 돌보는 사람 없음

F5. 평일 중 **영유아 자녀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대를 모두 ✔표해 주십시오.

① 오전 6~7시 ② 오전 7~8시 ③ 오전 8~9시 ④ 오전 9~10시 ⑤ 오전 10~11시
⑥ 오전 11~12시 ⑦ 오후 12~1시 ⑧ 오후 1~2시 ⑨ 오후 2~3시 ⑩ 오후 3~4시
⑪ 오후 4~5 ⑫ 오후 5~6시 ⑬ 오후 6~7시 ⑭ 오후 7~8시 ⑮ 오후 8~9시
⑯ 오후 9~10시 ⑰ 오후 10~다음날 6시

F6. 현재 **가족 내 초등학생**이 있습니까? ※ 초등학생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 가장 어린 초등학생만을 기준으로 작성

① 있음(☞F6-1번으로) ② 없음(☞G1번으로)

F6-1. 방과후 낮시간 동안 **초등학생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또는 기관)** 은 누구(어디)입니까?

① 초등돌봄교실 ② 지역아동센터 ③ 방과후아카데미 ④ 다함께돌봄센터
⑤ 학원 ⑥ 공부방 ⑦ 아이의 아버지 ⑧ 아이의 어머니
⑨ 아이의 조부모 ⑩ 친인척 ⑪ 이웃 ⑫ 아이돌보미
⑬ 비혈연 육아/가사도우미 ⑭ 아이 혼자 또는 형제자매와 함께 ⑮ 기타( )

F6-2. 초등학교 자녀가 방과후 **돌보는 사람없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몇 시간입니까?

① 거의없음 ② 30분 미만 ③ 30분~1시간 미만
④ 1시간~2시간 미만 ⑤ 2시간~3시간 미만 ⑥ 3시간 이상

F6-3. 평일 중 **초등학생 자녀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대를 모두✔표해 주십시오.

① 오전 6~7시 ② 오전 7~8시 ③ 오전 8~9시 ④ 오전 9~10시 ⑤ 오전 10~11시
⑥ 오전 11~12시 ⑦ 오후 12~1시 ⑧ 오후 1~2시 ⑨ 오후 2~3시 ⑩ 오후 3~4시
⑪ 오후 4~5시 ⑫ 오후 5~6시 ⑬ 오후 6~7시 ⑭ 오후 7~8시 ⑮ 오후 8~9시
⑯ 오후 9~10시 ⑰ 오후 10~다음날 6시

G. 가족생활

G1. 귀하는 다음의 **가사노동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해 주십시오.

구 분	가사노동에 참여한다	주 평균 횟수	1회 평균 소요 시간	가사노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1) 음식 준비, 상차리기 및 식후 정리 등	①	회	분	②
2) 의류 손질 및 세탁	①	회	분	②
3) 청소 및 정리	①	회	분	②
4) 음식물 및 재활용 쓰레기 처리	①	회	분	②
5) 기타 가정관리(가계부 정리, 관공서, 금융기관 이용 등)	①	회	분	②

G2. 귀하는 가족(최소 2명 이상)과 **얼마나 자주 함께 식사(아침, 점심, 저녁)** 하십니까?

① 매끼 ② 매일 1끼 이상 ③ 1주일에 2~3회
④ 1주일에 1회 ⑤ 1달에 2~3회 ⑥ 거의 하지 않음

G3. 귀하는 가족과 **하루 평균 얼마나 대화**를 나누는 편입니까?

① 30분 미만 ② 30분~1시간 미만 ③ 1~2시간 미만
④ 2~3시간 미만 ⑤ 3시간 이상 ⑥ 거의 하지 않음

G4. 귀하는 최근 6개월 동안 **가족(최소 2명 이상)과 함께 여가활동**을 하셨습니까?

※ 가족여가는 2인 이상의 가족원이 일하는 시간(직업상의 일, 가사 등)이나 생리적 필수시간(수면, 식사 등)을 제외한 자유시간을 함께 보내는 경우를 의미함

① 그렇다(☞G4-1번으로) ② 그렇지 않다(☞G4-2번으로)

G4-1. 귀하는 지난 최근 6개월 동안 **가족과 함께한 여가활동**이 무엇인지,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가장 자주 한 여가활동을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하여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평일: (1순위 : _____) / (2순위 : _____)
주말: (1순위 : _____) / (2순위 : _____)

① TV, OTT, 또는 모바일 콘텐츠 시청 ② 문화 예술(영화, 미술관 등) 또는 스포츠 경기 관람
③ 게임 ④ 쇼핑 ⑤ 야외활동(놀이공원 가기, 캠핑 등)
⑥ 스포츠 활동(자전거타기, 등산 등) ⑦ 여행 ⑧ 산책
⑨ 목욕/사우나/찜질방 가기 ⑩ 함께 독서하기 ⑪ 외식 ⑫ 자원봉사 활동
⑬ 종교생활 ⑭ 기타( )

G4-2. 귀 댁의 **가족이 함께 여가를 보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일이 바빠서 ② 자녀의 학업 때문에 ③ 경제적 부담 때문에

④ 가족이 함께 할 프로그램이 없어서 ⑤ 가족 공동의 관심사가 없어서
⑥ 가족들이 함께 하고 싶어하지 않아서 ⑦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이 있어서
⑧ 건강상 문제 때문에 ⑨ 몸이 피곤해서 ⑩ 기타( )

G5. 귀하에게 있어 가족들이 함께하는 **여가활동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해 주십시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족원의 결속을 다지고, 신뢰감을 형성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개인 시간을 희생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가족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족문화를 형성하는 한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⑤
4) 가족원이 함께하는 여가는 가족갈등의 원인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족관계의 질과 만족을 높인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에게는 의무감이나 강제적으로 부여되는 시간이다	①	②	③	④	⑤

G6. 귀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족과의 여가시간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가족과의 여가생활 전반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H. 일·생활 균형

H1. 귀하는 지난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 또는 돈을 받지 않고 함께 사는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

① 예(☞H2번으로) ②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일)이 있었음(☞H2번으로) ③ 아니오(☞H5번으로)

H2. 귀하의 **고용형태(종사상 지위)**는 어떠합니까?

① 상용근로자 ② 임시 및 일용근로자 ③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④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⑤ 무급가족종사자 ⑥ 기타( )

H3. 귀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해 주십시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직장일 때문에 가족과의 약속이나 가족행사 참여에 지장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직장일이 많아서 개인생활 시간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직장일로 가족들에게 무관심하다는 불평을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4) 가사·자녀양육·가족원 돌봄 때문에 지각, 조퇴, 결근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사·자녀양육·가족원 돌봄 때문에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거나 상관·동료들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가사·자녀양육·가족원 돌봄 때문에 승진 등 직장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렵거나 실제로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현재 내 삶에서 일·생활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H4. 귀하의 삶이 **일·생활 균형을 잘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자녀양육 부담 ② 가사부담 ③ 노부모 부양
④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부족 ⑤ 업무과중 ⑥ 장시간 근로시간
⑦ 가족내 환자/장애인 돌봄 ⑧ 기타( )

※ H5 ~ H6-1번 문항은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만 응답하시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I1번으로 이동하세요.

H5. 귀하가 **일을 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일자리가 없어서 ② 나이가 많아서 ③ 건강상의 이유로
④ 가족 내 환자/장애인 수발 때문에 ⑤ 노부모 부양 때문에 ⑥ 가사, 육아 때문에
⑦ 아직 일할 때가 아니어서 ⑧ 일할 필요가 없어서 ⑨ 일하고 싶지 않아서
⑩ 취업에 필요한 기술/경험이 없어서 ⑪ 내 수준에 맞는 일이 없어서 ⑫ 기타( )

H6. 귀하가 **선호하는 근로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근로를 원하지 않는다 ② 전일제 근로 ③ 시간제 근로(☞H6-1번으로)
④ 특별히 원하는 형태가 없다 ⑤ 기타( )

H6-1. 귀하가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아이를 돌보려고 ② 가사일 때문에 ③ 학업을 위해서
④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⑤ 여가를 즐기려고
⑥ 전일제 직장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⑦ 기타( )

H7. 귀하는 경상북도에서 **일·생활 균형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초과 근로시간의 단축 ②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산
③ 남성들의 육아·가사 참여 지원 ④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 지원 확대
⑤ 가족친화기업 문화 확산 ⑥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인식 확산
⑦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⑧ 노인돌봄을 수행하는 가족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
⑨ 기타( )

I. 생활 및 경제수준

I1. 귀하는 **현재 거주 지역에서 사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① 1년 미만 ② 1~2년 미만 ③ 2~5년 미만 ④ 5 ~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I2. 귀하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정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태어난 곳이어서 ② 본인 혹은 배우자 직장 ③ 학업 ④ 주거환경
⑤ 거주 비용 ⑥ 자녀 교육 및 보육 ⑦ 교통
⑧ 원가족(시가 또는 처가) 근처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⑨ 기타( )

I3. 귀하께서는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에 계속 거주**할 계획이십니까?

① 계속 살겠다 ② 가급적 살고 싶다 ③ 살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다
④ 가급적 떠나고 싶다 ⑤ 떠날 예정이다 ⑥ 기타( )

I4. (**I3.**에서 ③, ④, ⑤ 응답자만)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을 **떠나고 싶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별로 두 가지를 선택하여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 (2순위: _____)

①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서 ② 교육/학습여건이 취약해서 ③ 자녀 양육과 교육 때문에
④ 통학·통근이 어려워서 ⑤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 ⑥ 교통/편의/의료시설이 부족해서
⑦ 인적 교류에 어려움이 있어서 ⑧ 문화·여가 시설이 부족해서 ⑨ 지역이 너무 폐쇄적이어서
⑩ 지역이 쇠퇴할 것 같아서 ⑪ 기타( )

I5. 귀하가 생활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지출 항목**은 무엇입니까?

① 기본 의식주 생계유지를 위한 지출 ② 자녀양육 및 교육을 위한 지출 ③ 부모부양을 위한 지출
④ 부채상환을 위한 지출 ⑤ 보건의료를 위한 지출 ⑥ 노후준비를 위한 지출

I6. 귀하는 **현재 생활 및 경제 수준**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해 주십시오.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생활(거주지)	①	②	③	④	⑤
2) 이웃과의 교류	①	②	③	④	⑤
3) 경제 수준	①	②	③	④	⑤

I7. 귀하는 전반적으로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소득, 자산, 직업 교육 정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응답

① 하층 ② 중하층 ③ 중층 ④ 중상층 ⑤ 상층

J. 1인가구

J1. 귀하는 **현재 혼자 살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X1번으로)

J2. 귀하가 **1인가구로 생활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년 ( )개월

J3. 귀하가 **1인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혼자 살고 싶어서 ② 가족과 지내는 것이 불편해서 ③ 배우자의 사망으로
④ 본인의 이혼으로 ⑤ 본인 학업이나 직장(취업)으로 ⑥ 배우자의 학업이나 직장(취업)으로
⑦ 자녀의 이혼으로 ⑧ 부모나 자녀의 사망으로 ⑨ 자녀의 학업이나 직장(취업)으로
⑩ 부모의 이혼으로 ⑪ 부모의 직장(취업)으로 ⑫ 기타( )

J4. 귀하는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주된 방법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본인 ② 부모 지원 ③ 자녀 지원 ④ 공적 지원(기초생계급여 등) ⑤ 기타( )

J5. 귀하가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은 무엇입니까?

① 식비 ② 의류비 ③ 주거비 ④ 의료비
⑤ 교통·통신비 ⑥ 경조사비 ⑦ 교육비 ⑧ 기타( )

J6.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주된 방법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본인 ② 부모 지원 ③ 자녀 지원 ④ 공공임대 ⑤ 기타( )

J7. 평소 **본인의 문제나 걱정거리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부모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애인 ⑤ 형제자매
⑥ 친구 ⑦ 동료 ⑧ 이웃 ⑨ 성직자(목사, 신부, 수녀, 스님 등)
⑩ 전문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⑪ 온라인 커뮤니티 및 AI ⑫ 기타( ) ⑬ 이야기할 사람 없음

J8. 귀하는 현재 1**인가구로서의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J9. 귀하는 **1인가구의 생활에 대한 다음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해 주십시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어 외롭다	①	②	③	④	⑤
2)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3) 균형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4) 가사(식사 준비, 주거관리, 장보기 등)를 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5) 주거환경이 안전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6)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를 부양해주는 가족이 없어 경제적으로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J10. 귀하는 향후에도 **혼자 살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J10-1번으로) ② 아니오(☞J10-2번으로)

J10 ①번 응답자	J10 ②번 응답자
J10-1. 1인가구로 계속 살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 중 **가장 걱정이 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① 경제적 어려움 ② 심리적 어려움 ③ 사회적 편견 ④ 질병, 건강악화 시 돌봄 ⑤ 가사 등 일상적인 자기 돌봄의 어려움 ⑥ 장례, 제사 등 사후 처리 ⑦ 응급, 위기상황 ⑧ 기타( ) ⑨ 어려움 없음	**J10-2.** 향후에 **혼자 살 의향이 없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① 결혼 ② 동거 ③ 친구, 지인, 동료 등과의 공동 생활 ④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과 합가 ⑤ 시설 입소(요양병원, 사회복지생활시설, 양로원 등) ⑥ 기타( ) ⑦ 계획 없음

J11. 귀하는 경상북도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1인가구 지원 정책**은 무엇입니까?

① 주택 안정 지원(1인가구를 위한 안정적 주택 공급, 주택자금 대출 등)
② 돌봄 서비스 지원
③ 안전한 주거를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④ 가사 서비스 지원
⑤ 외로움, 고립감 등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⑥ 건강 증진 지원
⑦ 여가문화활동 프로그램 지원
⑧ 고독사 및 장례 지원
⑨ 공동체 활동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지원(공유부엌, 동아리 활동, 지역커뮤니티 등 1인가구 연대 활동 지원)

K. 가족정책

K1.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경상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어느 정도로 귀하의 **가족이 살기에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는지 ✔표해 주십시오.

구 분	전혀 좋지 않다	좋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좋다	매우 좋다
1) 경제	①	②	③	④	⑤
2) 환경	①	②	③	④	⑤
3) 보육	①	②	③	④	⑤
4) 교육	①	②	③	④	⑤
5) 안전	①	②	③	④	⑤
6) 문화	①	②	③	④	⑤
7) 전반적 여건	①	②	③	④	⑤

K2. 경상북도에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족형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별로 두 가지를 선택하여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1순위 : _____) / (2순위 : _____)

① 장애인 가족
② 한부모(미혼모/부) 가족
③ 무자녀 부부 가족
④ 조손 가족
⑤ 노인 1인가구
⑥ 미혼남녀 1인가구
⑦ 중장년 1인가구
⑧ 맞벌이 가족
⑨ 외벌이 가족
⑩ 다문화 가족
⑪ 비혼 동거 가족
⑫ 재혼 가족
⑬ 입양 가족
⑭ 환자(치매노인 등) 돌봄 가족
⑮ 가족돌봄 청년
⑯ 이주민 가족
⑰ 공동체 가족
⑱ 기타( )

K3. 귀하는 경상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족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으신 정도, **이용 경험 여부, 이용 후 도움 정도**에 ✔해 주십시오. 또한 각 **서비스의 필요 정도**에 순위를 매겨 주십시오.

구 분	1) 인지도			2) 이용경험		3) 이용후 도움 정도			4) 필요도 우선순위 (1-8순위)
	전혀 모른다	조금 알고 있다	잘알고 있다	있다	없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도움이 되었다	
1) 아이돌봄 서비스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③	
2) 공동육아나눔터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③	
3) 온가족보듬사업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③	
4)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③	
5)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③	
6) 1인가구 지원사업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③	
7)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③	
8) K-보듬 6000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③	

※ 가족지원 서비스

1) 아이돌봄 서비스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

2) 공동육아나눔터 : **육아 공간** 및 돌봄프로그램 제공,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 조성 지원, **맞벌이가구 자녀돌봄**(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등 운영

3) 온가족보듬사업 : 경제적, 심리 정서적,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어려움 겪고 있는 **취약가족**(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부모교육 및 가족관계 등 프로그램, 청소년부모 심리상담 등) 및 사고·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위기 가족, 이혼 신청 중인 가족**을 위한 지원 서비스

4)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 다문화가족 및 자녀 대상으로 **방문교육, 자녀 언어발달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등 운영

5)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 **직장 내 고충 및 가정 생활정보** 등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양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

6) 1인가구 지원사업 : 1인가구 대상 일상생활에서의 **역량강화, 자기개발을 통한 성장, 안전, 사회적 관계망 지원** 등

7)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 등 자녀 양육 부담 경감, 가정 생활안정 지원**

8) K-보듬 6000 : 경상북도 자체 아동돌봄 특화사업으로, K-보듬 지정 시설에서 영유아·초등학생 대상 온종일·긴급·틈새 돌봄 서비스 제공

K4. 귀하는 가족지원서비스 및 가족정책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우선순위별로 두 가지를 선택하여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1순위 : _____) / (2순위 : _____)

① 홍보지, 현수막 등의 광고 ② 관련 기관의 홍보(전화 또는 방문) ③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

④ 주변사람들의 소개 및 안내 ⑤ 관공서(주민센터, 복지관 등) 안내 ⑥ 신문, 방송매체 홍보

K5. 다음의 가족지원서비스 중 귀하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를 우선순위별로 두 가지를 선택하여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1순위 : _____) / (2순위 : _____)

①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 방법 교육 및 상담 지원 ② 가족상담(부부, 부모-자녀 등)

③ 가족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 제공 ④ 가족 간, 세대 간 관계 개선 지원

⑤ 이웃 간 소통 공간 제공 ⑥ 이웃 간 육아 품앗이를 위한 공간 제공

⑦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⑧ 청소년 놀이 및 학습 공간 제공 ⑨ 노부모 돌봄 지원

⑩ 1인 가구 생애주기별 지원 ⑪ 취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⑫ 맞벌이 가정 직장 고충 상담

⑬ 가족 관련 법률상담 ⑭ 기타( )

K6. 귀하께서는 향후 **경상북도가 가족정책**을 수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는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별로 두 가지를 선택하여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1순위 : _____) / (2순위 : _____)

① 가족 내 민주적인 관계 조성 및 회복 ② 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③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④ 돌봄의 사회적 책임 확대(공적 돌봄서비스 확충)

⑤ 모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일과 삶의 균형 ⑥ 가족 친화적 지역사회·생활환경 조성

⑦ 가족 위기 대응 및 안전망 강화(가정폭력 등) ⑧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지 기반 확대

⑨ 정신건강 증진 ⑩ 1인가구 등 고립 위험군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 구축

♧ 지금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